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24

군선교, 청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3).

☞ 비전203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2030 청년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민족복음화 통일한국 세계선교를 향한
비전2030실천운동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국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청년선교와 민족복음화의 푸른 꿈과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비전2030실천운동을 통해, 부흥의 큰 길을 내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
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는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30년까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위하여
3. 10만 명의 기독장병 (신규 6만 명, 기세레자 4만 명)을 파송하기 위하여
4.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 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5. 260여 군종목사, 650여 군선교사, 기독군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6.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교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7.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8. 군선교 거점교회를 통해 파송되는 장병을 양육하고 정착하여 군선교 후원과 지원을 위하여
9. 기독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 훈련(다음세대, 미래세대, 차세대) 기독청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10.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 머리말

「군선교, 청년」 24권의 발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군선교는 단순한 종교 활동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와 신앙을 심어 주는 중대한 사명입니다. 동시에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심화시키는 일은, 목회적 돌봄뿐만 아니라 학문적 성찰과 연구가 함께 뒷받침될 때 더 깊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번 논문집은 군선교의 다양한 쟁점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현장의 사역과 연결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이를 통해 군선교가 단순히 현장 실천에 머무르지 않고, 학문적 토대를 가진 선교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무엇보다 이 논문집이 나오기까지 군선교의 필요성과 가치를 학문적으로 고민해 주신 여러 연구자와 학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연구와 관심은 군선교가 앞으로 더 튼튼한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문과 실천이 함께하는 군선교 연구가 지속되어, 한

국교회와 군 사역 현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논문집이 그러한 여정 속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김삼환 목사



● ● 발간사

이번 제24권 논문집 발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선교는 지난 세대의 기도와 헌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축적된 역사와 선교적 통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문집은 그 여정을 다시 되새기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결실이 될 것입니다.

먼저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사와 제언」을 전해 주신 신학연구위원장 이신 이규철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군선교를 통해 쌓아 온 경험과 자원을 성찰하고, 미래 사역의 지향점을 제시해 주신 통찰은 이번 논문집 전체의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한 기여가 되고, 뒤를 이어 발제와 논찬을 통해 군선교의 본질과 현장을 신학적·선교학적으로 깊이 있게 조명해 주신 여러 연구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종43기로 예비역 군종목사로 지내셨던 전요섭 교수의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는 군종목의 본질적 사명과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사역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찬을 맡아 논의의 깊이를 더해 주신 김영호 군종목사님의 수고 역시 귀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진섭 군종목사의 「비전2030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과제」는 비전2020과의 비교 및 설문 분석을 통해 군

선교운동의 현주소와 향후 전략을 제안한 의미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를 신학적·실천적 관점에서 보완해 주신 김상만 교수의 논찬 또한 논문집의 가치를 높여 주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은 단지 학문적 성과를 묶은 결과물이 아니라, 한국 군선교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소중한 중간 점검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반입니다. 특히 비전2030을 더 나은 방향으로 확장해 가는 군선교 현장에 필요한 방향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귀한 연구와 집필, 논찬과 편집을 위해 헌신해 이규철 목사님과 함께 도와 일을 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논문집이 한국 군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한국군선교신학회장
곽요셉 목사



● ● 차례

- 비전203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 머리말 | 김삼환 목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 4
- 발간사 | 곽요셉 목사(한국군선교신학회장) ... 6

심포지엄 논문

- 13** 기조강연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사와 제언 | 이규철
- 59** 발제1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 | 전요섭
- 83** 논찬1 전요섭의 논문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에 대한 논찬 | 김영호
- 89** 발제2 비전2030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과제: 비전2020 실천운동과의 비교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위진섭
- 151** 논찬2 위진섭의 논문 “비전2030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과제: 비전2020실천운동과의 비교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 김상만

연구위원 논문

- 159** 장병의 거절 민감성 심리 분석과 군종목사의 상담 방안 | 전요섭

- 209** 성경의 리더십 계승 성공 사례와 원리 연구 | 이용락
- 243** 상담의 흐름이 있는 치유적 설교 | 안남기
- 279** 군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육군 병사의 예배 참석 동기 확인
| 임정인, 정세준

기획 논문

- 311** Implications for Christian Soldiers of Kierkegaard's
View on Suffering | 김이석

부록 1

- 344**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 350**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 354**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

부록 2

- 362**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 현황(2002년~2025년까지)

심포지엄 논문

기조강연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사와 제언

| 이규철 |

발제1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

| 전요섭 |

논찬1

전요섭의 논문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에 대한 논찬

| 김영호 |

발제2

비전2030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과제: 비전2020실천운동과의
비교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위진섭 |

논찬2

위진섭의 논문 “비전2030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과제: 비전2020
실천운동과의 비교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 김상만 |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사와 제언

History and Suggestions for the Accumulation of Korean
Military Missions

» 이규철 Ph. D.*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사에 함축된 특이점을 규명하고 성공적인 군선교의 중요소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기 위함이다.

국군 창설과 함께 평신도 기독교전우에 의해 시작된 한국 군선교 77년의 축적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으로서 한국교회의 전폭적인 동역 속에 주창되고 가속화되는 특이점을 함유한다.

한국 군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중요소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군선교연합회는 공히 '사명재무장운동 강화, 부흥 열망, 설교 역량 강화, 복음의 접촉점 강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방안 추진, 포스트 비전 2030실천운동 준비'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중심단어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사, 비전2020실천운동,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포스트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중요소생산성

•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27일 • 논문 수정일: 2025년 8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25년 8월 28일

*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장, 안동성결교회 담임

1. 들어가는 말

한국군선교연합회는 2025년 2월 19일 ‘제31회 군종목사 수련회’를 이용하여 군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 주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대적 군종목사 역할 변화’(45%), ‘비전2030실천운동’ 중간평가(25%), ‘AI시대 전장 윤리’(10%), 기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표명이 집약되었다.¹⁾ ‘2025년 한국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은 이 같은 군선교 현장의 관심을 반영하여 ‘군종목사의 시대적 역할 변화와 비전2030실천운동 중간평가’를 집중적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사에 농축되어 있는 특이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동시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전2030실천운동의 상황을 점검한다. 나아가 한국 군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극대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바라기는 2025 한국군선교신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군선교의 노정(路程)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For God, For Country) 군선교 사명의식과 정체성 재인식을 통해 복음의 증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희구한다.

2.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사

1) 태동~6·25 시대

한국 군선교는 평신도 기독교전우에 의해 태동되었다. ‘백창현’에 따르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조선경비대 제1연대 부관 ‘강문봉’이 미군 체제 군사제도를 확립시키는 차

1) 한국군선교신학회, “제25차 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회의” (서울: 한국군선교연합회, 2025), 8.

원에서 군부대에 ‘교회와 댄스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한국군 내 군중활동의 중요성을 최초로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²⁾ 비슷한 시기, 장병들의 정신 지도를 위해 종교집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보병 12연대(1948년 전북 군산에 주둔) 연대장 ‘백인기’ 중령과 3대대장 ‘전창영’ 소령이 장병들의 정신 지도를 위해 주일마다 지역 민간 목사들을 초빙하여 예배를 드렸다.³⁾ 12연대 교회 예배활동에 뒤이어 1948년 늦가을 육해공군 군중 업무의 센터로서 자리매김하는 ‘용산 군인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오덕교’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집약한다.

12연대 교회가 설립된 같은 무렵에 용산 군인교회가 설립되었다. 1948년 늦가을부터 해군의 정달빈 목사, 육군의 황기오 상사, 이광민 씨,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의 부인 홍은혜 여사 등이 남산감리교회를 빌려 집회를 가져오다가 1949년 2월 5일 해군 및 육군 장교들과 3군에 속한 가족 15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용산 군인교회가 생겨났다. 용산 군인교회는 설립한 지 불과 6개월 후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하여 3군 군목 업무의 모체가 되는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⁴⁾

한국 군선교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군종목사(군목) 제도는 6·25전쟁 중 미군 33사단 10공병대대의 한 무명의

2) 백창현에 의하면, 당시 하사관으로 군악대 지휘를 담당했던 ‘황기오’ 상사(이후 기독교방 송국 상무)는 육군본부 창설과 함께 작전처 교육국장으로 전임된 강문봉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군내 종교 활동에 참여하려고 애썼다. 이후 황기오 상사는 육사 6기로 편입 교육 후 소위로 임관한 후, 참모총장 채병덕 장군과 인사참모부장 강영훈 장군의 적극적인 지휘 아래 강문봉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명동성당의 노기남 대주교, 태고사를 방문하여 민간지원을 요청했다. 백창현 편,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 1948-2015』 (서울: 한국군목회, 2015), 105.

3) 백창현 편, *Ibid.*, 106.

4)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1 (2004), 128.

카투스(KATUSA)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께 탄원서를 상신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대통령 각하!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⁵⁾

한 카투스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께 군종목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상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각계 인사들도 이승만 대통령께 군종제도를 요청하였다.⁶⁾ 각계 건의를 종합적으로 수렴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2월 21일 군종 제도 설치를 지시하는 ‘대통령 비서실 지시 제 29호’를 국방부에 하달하였다. 이 지시를 바탕으로 1951년 2월 7일 ‘육본 일반명령 제 31호’에 의거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승과(軍僧科)가 설치됨으로써 마침내 육군 군종병과(초대 군승과장 대위 ‘김득삼’ 목사)가 창설되어 군 내 군종활동이 정식으로 실시되었다.⁷⁾ 백창현에 의하면, 군승과는 1951년 4월 14일 군목과로 개칭되었는데 초대 군목과장으로 ‘김형도’ 목사가 봉직했다. 군종제도는 ‘무보수축탁

5) 백창현에 의하면, 극동사령부 군종부장 소장 ‘베넷’(Ivan L. Bennet) 군목은 1950년 한국군 내부에서 군목제도에 대한 요청이 대두되자 예하 미군 제 1·2·24·25사단 군종참모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쇼우’(William E. Shaw) 박사와 천주교 ‘조지 캐럴’(George Carroll) 신부, ‘한경직’, ‘유형기’ 목사와 더불어 한국 군종제도 확립을 위한 협조논의를 했다. 쇼우 박사와 베넷 군목은 1950년 9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한국군의 군종제도를 건의하였고, 국무총리로부터 “한국군 군종제도의 창설을 적극 협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여기에 더하여 9월 18일 장로교·감리교·천주교·구세군·성결교가 군종제도 창설을 위한 연합집회 후 ‘장로교의 한경직 목사, 감리교의 류형기 목사, 천주교의 조지 앤 캐럴 신부’를 공동 대표로 한 초교파 ‘군종제도추진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여 한국군 군종제도를 정식으로 청원했다. 백창현 편, *op. cit.*, 107.

6) *Ibid.*, 107-108.

7) *Ibid.*, 108.

시대'(1951. 2. 29-1952. 6. 13)⁸⁾에 이어 '문관시대'(1952. 6. 13-1954. 12. 12)⁹⁾를 거쳐 오늘날의 현역 군목시대(1954. 12. 13)¹⁰⁾를 열었다. 1950년 12월 6일 해군본부 군목실이 설치(해군본부 작전 명령 제33호)되었고, 해병대는 1951년 5월 27일에 군목제도가 시작되었으며, 공군은 1952년 3월 30일 군중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¹¹⁾

6·25전쟁 속에서 창설되어 보임된 군중병과 성직자들은 한국군의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윤은석'에 따르면, 처음 군목제도가 실행되었을 때 부대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고 지휘관들은 군목들에게 참모의 자격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군목을 바라보는 지휘관들의 시선이 점차 바뀌었다. 지휘관들은 군목에게 참모의 자격을 부여하였고, 일부 지휘관들은 군목 없이는 전투 수행이 어려움을 인지하여 전투 현장에 군목의 동행을 요청하기도 했다.¹²⁾

6·25전쟁 참전 군목들은 신앙적 사역에 힘썼다. 먼저 군목들은 1952년 5월 4일 부산의 해병대 교회 설립¹³⁾을 필두로 하여 곳곳에

8) 중군 목사들은 각자가 소속된 교파에서 전 생활비를 받고 군에서는 무보수로 헌신하여 봉사했다. '장로교 14명, 감리교 10명, 성결교 4명, 천주교 11명'이 무보수축탁 제1기 임관 성직자들로서 헌신했다. *Ibid.*, 110.

9) 1952년 6월 16일, '군인 명 제 58호 문관'으로 '2급 4호(4명), 2급 6호(59명), 3급 8호(76명)'이 유급 군목으로 사역했다.

10) 1954년 12월 13일 육군본부 광장에서 '중위(49명), 대위(59명), 소령(13명), 중령(13명), 대령(1명)'이 참모총장 '정일권' 장군에게 임관 신고를 함으로써 사역하기 시작했다. *Ibid.*, 112.

11) *Ibid.*, 64-65.

12) 윤은석, "6·25전쟁 중 개신교의 군 내 활동과 정신전력," *Journal of Military History* 107 (2018), 27-28. 윤은석에 의하면, 군목제도 실시 초창기의 많은 장교들은 군목을 마부로 이해하기도 했고 사병들은 의무 담당관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목제도 시행 후 1년 7개월가량 지났을 무렵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수행 능력 향상과 상이군인 지도에 군목들의 조력이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임을 자각했다.

13) 기독교보, "해병대교회 준공," 『기독교보』 1952. 5. 12. 해병대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이승

진중군인교회를 설립해 나갔다.¹⁴⁾ 또한 군목들은 군인교회의 예배와 부흥회와 같은 신앙 집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부대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¹⁵⁾ 특히 군목들은 장병들의 신뢰 깊은 애로 청취와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매일같이 군목실 두드리는 장병의 수는 증가하며 고달픈 동포들의 눈물을 씻기에 전 군목은 여념이 없다”¹⁶⁾고 『기독교공보』는 밝힌다. ‘조주태’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장병들에게 군목들이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왔다고 이렇게 전한다.

전장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큰소리 치던 사람도 생사의 기로에서 급할 때면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¹⁷⁾

여기에 더하여 6·25전쟁 중 군목들은 각별한 목회 돌봄으로 상이용사들을 보듬어 상이용사들의 정서 안정과 사회 재활을 도왔고

만 대통령, 함태영 심계원장, 국회의원 박영출, 구방차관 김일환,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중장,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소장 및 여러 장병들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14) 1952년 7월 첫 주일 중부최전선 지구에 진중 교회가 설립되었고(『기독교공보』 1952. 5. 12), 같은 해 7월 13일 백령도 해병대 교회가 설립되었다(『기독교공보』 1952. 8. 11). 1953년 6월 6일에 육군 제7255부대 교회가 헌당을 하였고(『기독교공보』 1953. 7. 6), 같은 해 6월 28일 육군병참학교 군인교회가 설립되어 헌당했다(『기독교공보』 1953. 7. 27).

15) 일례로 『기독교공보』에 따르면, 1952년 성탄절에 육군 1801부대 군인교회 성탄예배에 박정채 부대장(대령)을 비롯한 다수의 장병들이 참석하였다(『기독교공보』 1953. 1. 12). 1953년 1월 4일부터 한 주간 백령도 해병대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김두찬 부대장(대령)과 다수의 군민이 참석하였다(『기독교공보』 1953. 2. 9). 1953년 3월 14일 장병대군인교회와 모슬포피난민교회와 98군병원교회의 연합부흥회가 열렸을 때 오훈 훈련소 소장과 참모들이 함께하였다(『기독교공보』 1953. 4. 20). 1953년 4월 26일 해병대 사령부 교회 음악예배에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했다(『기독교공보』 1953. 5. 4). 1953년 5월 28일 제7회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환송예배를 드릴 때 해군사관학교 교장이 참석하였다(『기독교공보』 1953. 6. 15).

16) “해병대도서부대에 군인교회,” 『기독교공보』 1952. 8. 11.

17) 조주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군복음화후원회 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비역 장군 17인의 신앙수기 모음집』 (서울: 쿤란출판사, 1993), 178.

군 전투력 증강에도 기여하였다.

공산군의 남침으로 6·25사변이 일어나 다수의 국군장병들이 전선에서 전사 혹은 중상을 입어 후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死)의 공포에서 떠는 상이군인들의 가슴속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정신무장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들은 친절한 가호(加護)의 손을 기다리는 동시에 정신적 위안과 갱생(更生)의 희망을 갈구하고 있었다. 이때 한국교회 많은 남녀 교역자들이 육해공군병원으로 들어가 불철주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희생봉사의 정신을 저들에게 넣어주었다. 저들은 정말 정신(精神)에서 다시 살아났다. 많은 상이군인들이 다시 총을 잡고 전선으로 나아갔다. 그들이야말로 모든 점에 있어 모범 군인이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하무적의 강군이였다.¹⁸⁾

윤은석에 따르면, 6·25전쟁 속에서 발아(發芽)된 군목들의 충헌(忠獻)은 군목제도 시행 초기 3%에 불과했던 기독교 장병이 10%대로 증가하는 쾌거를 낳았다.¹⁹⁾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6월 26일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자유(自由)를 위하여 싸워서 귀중(貴重)한 생명(生命)까지 희생(犧牲)한 군인(軍人)들의 신앙(信仰)”²⁰⁾을 높이 평가했다. 이처럼 평신도 기독교전에 의해 태동한 한국 군선교는 6·25전쟁 중 시행된 군목제도를 통해 장병들의 정신 무장과 심리 안정에 매우 기여하면서 진중 군인교회를 건축하고 상이용사를 돌봄으로써 군선교의 기축 토대를 놓기 시작했다.

2) 전군신자화 운동

‘전군신자화 운동’은 장병 정신전력 증대를 위한 군지휘부의 지휘

18) 金良善, 『韓國基督教解放十四年』 (서울: 大韓예수長老會總會 宗教教育部, 1956), 137-138.

19) 윤은석, “6·25전쟁 중 개신교의 군내 활동과 정신전력,” 『軍史』 107 (2018), 45.

20) 이승만, “民主陣營의 勝利祈願 鴨綠國境에 太極旗 휘날리자,” 『동아일보』 1951. 6. 26.

조치사항이다.

1968년 북한은 ‘1·21 청와대 기습 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10. 30~11. 2)을 자행했다. 당시 안보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이규철’에 따르면, 1군사령관 ‘한신’ 장군은 북한의 만행이 다발(多發)하는 위기상황에서 장병들의 정신력 극대화와 멸공(滅共)의 유일한 길은 신앙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신 장군은 군종참모대령 ‘한준섭’ 목사의 조언을 받아 ‘연말 사단급 군종참모회의’에서 장병 정신전력 증대를 위한 소위 ‘전군신자화 운동’을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 들어온 것은 장병에게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온 줄 안다. 그런데 요즘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방문과 보호사병 선도에 얽매이는 실정인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도를 강화하여 전 야전군의 장병이 모두 신자화가 된다면 그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보호사병의 문제와 각종 사고 방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敵)인 공산당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엽적인 일에 얽매어 소극적으로 일하지 말고 전원 신자화를 목표로 하고 적극적으로 일하시오. 이 일을 위해 예산이 부족할 때는 군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으며 이것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획득해서라도 주겠소. 그러니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활동을 부탁드린다.²¹⁾

이규철에 의하면, 전군신자화 운동을 지시한 한신 장군의 지휘신념은 “군사력의 힘이 병사들의 정신무장에 달려 있고 정신무장은 무엇보다 종교적 힘을 밑바탕으로 하는 것이 최고라는 이스라엘 군

21) 이규철,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 『박정희 시대 연구』 (서울: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2022), 323-324.

대의 신념을 주목한 것”²²⁾이다. 이에 한신 장군은 군종참모인 한준섭 대령에게 ‘반공(反共)을 위한 장병 정신무장 강화를 위해 군 구성원 전원의 신자화를 위한 군종활동 강화’를 지시했다.²³⁾ 무엇보다도 한신 장군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의 지휘 협조와 일선 군목들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후방 교회의 협력 속에 ‘전군신자화 후원회’²⁴⁾가 발족하여 더욱 왕성하게 장병 세례 운동을 전개했다.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 1948-2015』에 따르면, 한신 장군이 추진한 전군신자화 운동은 ‘진중군인교회 제1차 세례 운동’이라는 군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육군 1군은 장병 1인 1종교 갖기에 중점을 둔 전군신자화 운동의 가속화를 위해 대대급까지 군종목사 편제를 두고 군목들을 보임했다. 또한 효율적인 전군신자화 운동을 위해 군종목사의 기동장비로 오토바이를 보급했다. 베트남에 파병된 장병들을 위해 ‘주월(駐越) 청룡부대 교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군목주일을 지정하여 군목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군선교의 중요성을 알려 군선교의 저변을 확대했다.²⁵⁾

『教會聯合新報』(교회연합신보)는 전군신자화 운동의 실제 장면을 이렇게 전한다.

25일 4시 보병 제20사단 사령부 군인교회(담임 군종참모 김태동 목

22) 이규철,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군선교 신학』 11 (2013), 141.

23) *Ibid.*

24) 이규철에 따르면, 전군신자화후원회는 1971년 한신 장군의 초청을 받아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 1군사령부를 방문한 ‘한경직’ 목사의 헌신으로 태동되었다. 한경직 목사는 당시 군종감이던 ‘한준섭’ 목사로부터 전군신자화 운동과 이를 후원할 수 있는 일원화된 단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1972년 4월 11일 40여 명의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전군신자화후원회 발기위원회를 조직하여 동년 5월 29일 전군신자화후원회를 설립하여 초대회장으로 백낙준 박사를 추대했다. 이규철,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143.

25) 백창현, *op. cit.*, 66.

사) 주최로 중서부전선 육군 제1997부대(사단장 소장 민경중) A연 병장에선 장교 88, 사병 3천3백90, 도합 3천4백78명 수세장병에게 기독교 역사상 최대인 맘모스 합동세례식(베드로시대 3천 명이 최고 기록)이 거행됐다. 이러한 전군신자화 운동은 비단 종교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대치할 수 있는 정신 무장 강화로의 길이다. 이는 종교적인 신앙심을 통하여 보다 투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신앙심은 곧 사생관을 확립시킬 수 있고 철두철미한 애국정신을 불러일으켜 왔기에, 전군신자화의 결실인 합동세례식이 부대가 있는 곳마다 거행된 것이다.²⁶⁾

전군신자화 운동의 일환으로 전후방 각급 부대 진중군인교회에서 행한 진중세례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집약된다.

〈표 1〉 연도별 진중 세례 통계

연도	구분	합동세례		일반세례	계
		회수	인원		
1971		6	4,377	2,943	7,320
1972		39	23,405	18,954	42,359
1973		43	26,803	17,880	44,683
1974		15	6,390	19,506	25,896
계		103	60,975	59,283	120,258

그런데 전군신자화 운동이 늘 순항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에 따르면, 전군신자화 운동은 사회 일각의 다 음 네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첫째, 교계 내 일부에서 ‘학습과 세례, 주초 문제, 십일조, 강요된 세례, 관리 상태’를 이유로 신자화 운동의 부당성을 제기. 둘째, 신자화 운동의 과열과 경쟁으로 종파 간 불화 유발. 셋째,

26) 敎會聯合新報, “全軍信者化 운동에 凱歌,” 『敎會聯合新報』 1972. 4. 30.

군종장교를 파송하지 못한 군소 종교단체에서의 신자화 운동 폐지론. 넷째, 1973년 5월 천도교 중앙총본부 교령 ‘최덕신’, 대종교 총본사 총전교 ‘맹천주’가 군종제도의 재검토 건의문을 대통령께 올림.²⁷⁾

전군신자화 운동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 제기는 당시 국방부 군종실장 대령 ‘양영배’의 다음의 조치로써 원만히 해결되었다.

첫째, 3군 군종장교에게 물의가 없도록 지시(1972. 1. 7).

둘째, 군 첩보기관 분석 보고받고 국군종 P39(1972. 5)로 시정 지시 공문 하달.

셋째, 문공부→종무(1973. 7. 11) 공문→국방부 장관(하달) 회의석상(문공부 문화국장, 중앙정보2국 3과장, 보안사 종교 담당관, 문공부 종무과장-참석)에서 신자화 운동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명하고 설득.

넷째, 1974년 육군 정책 사업으로 제정(신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 각종 사고율이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²⁸⁾

결국 전군신자화 운동은 1974년 ‘육군 정책 사업’으로 제정되었다. 오덕교에 따르면, 전군신자화 운동은 아래의 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종 사고를 줄이고 범죄율을 낮추며 보호사병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양산했다.²⁹⁾

27) 백창현 편, *op. cit.*, 122.

28) *Ibid.*

29) 오덕교, *op. cit.*, 135-36.

〈표 2〉 연도별 신자 현황 및 사고자 수 증감 현황(육군)

연도 \ 종교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계	군 사고자 수
1970	78,176	15,694	13,370	2,793	110,033	19,248
1971	128,782	22,908	21,756	908	174,354	14,708
1972	181,000	32,121	28,678	1,547	243,346	11,200
1973	199,623	39,126	38,524	1,829	279,102	9,041

정리하면 장병 정신무장 강화를 위한 1인 1종교 갖기 운동으로 집약되는 전군신자화 운동은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한국 군선교의 지평을 여는 기축 토대로 귀결된다.

3) 신앙전력화

장병 정신전력 증대를 위한 한신 장군의 지휘 의도하에 독려된 전군신자화 운동은 신앙을 통해 장병들의 사생관을 확립하고 철두 철미한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비전투 손실을 감소시키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여 민군연합 총력안보의식을 증대시켜 한국군의 무형 전력 증대라는 ‘신앙전력화’³⁰⁾의 구현으로 이어진다.

1975년 육군 14대 군종감으로 취임한 대령 ‘문은식’ 목사는 신앙 전력화³¹⁾를 군종병과의 사명으로 표방했다. 그리고 1976년 6월 26일

1974	208,553	40,038	41,392	848	290,831	
------	---------	--------	--------	-----	---------	--

〈표 3〉 신앙 유무와 사고 발생 현황(육군)

구분\유형	발생자 수	근무 이탈	폭행	자살	총기 및 강력	경제범	군용물	안전사고
무신앙자	164	107	15	4	2	4	2	20
신앙자	77	44	9	2	0.2	2	1	10
사고 감소율	2.1배	2.4배	1.7배	2배	10배	2배	2배	2배

30) 한국군 ‘신앙전력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논자의 졸고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 314-353을 참고 바람.

31) 신앙전력화 개념은 명료하게 집약된다. 먼저 육군본부가 발간한 『인격지도』는 신앙전력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신앙전력이란 각개 장병이 갖고 있는 신앙심을 전력화하는 것으로 휘하 장병의 신앙심을 배양해서 지휘관을 핵심으로 전 부대원이 순교자적 각오로 적극 참여함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신앙전력화는 멸공 구호를 실천하려는 정신적 기초요, 마음의 자세이다. 신앙전력은 무형의 전투 의지이다.” 육군본부, 『인격지도』(서울: 육군본부, 1977), 170; 육군 제3사령부에서 발간한 『선봉신앙』은 신앙전력화를 이렇게 정의한다. “신앙전력화란 지휘관을 핵심으로 전 장병을 신자화하여 각개 장병이 신앙심으로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이념 무장을 삼고, 유사시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For God, For Country) “죽으면 죽으리라”(에스더 4: 16)는 일사각오와 순교자적 자세로 싸워 이길 수 있게 함을 의미한다.” 육군 제3군사령부, 『선봉신앙』(1975), 발간사; 육군본부의 『정신전력강화법』은 정신전력을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핵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드높은 사기와 확고한 신념으로 부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조직화한 무형의 전력”으로 평가한다. 육군본부, 『정신전력강화법』(서울: 대한공론사, 1974), 14;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앙전력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군종감 대령 문은식 목사에게 ‘信仰戰力化’(신앙전력화) 휘호(揮毫)를 하사함으로써 한국군 신앙전력화는 본격화되었다.³²⁾

『전우신문』은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 군종감에게 ‘信仰戰力化’ 휘호를 하사한 소식을 이렇게 전한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신앙심을 통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신앙전력화’(信仰戰力化)라는 휘호를 육군본부 군종감실에 내렸다. 육군은 이 휘호를 군종활동의 지표로 삼고 장병들에게 국가관과 사생관을 정립하여 초전필승을 향한 정신전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육군본부 군종감실은 즉각 이 휘호를 원본의 크기와 같이 복사하여 전후방 각급 부대 군중 실무자들에게 배포, 신앙심을 통한 정신전력의 강화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날 육군은 많은 장병들이 각기 자기의 의사에 따라 예수교·불교·천주교 등의 신앙을 하나씩 믿고 있다. 이 종교활동을 통해 국가관의 확립과 인격 지도를 통한 장병들의 필승의식 고취 및 선도활동으로 인간관계가 개선되어 나

화는 ‘각 장병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앙심을 기반으로 하여 지휘관을 핵심으로 전 장병이 필승의 신념과 순교적 각오로 국가방위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하도록 조직화된 상태’라고 그 의미를 집약할 수 있다. 이규철,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 327에서 재인용.

- 32) 육군 군종감 문은식 목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信仰戰力化’ 휘호를 하사받게 된 한 경위로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1976년 문은식 목사가 육군 군종감으로 재직할 당시 군복음화를 더 구체화하고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기독교 표어를 공모하여 ‘信仰戰力化’를 선정된 사실이다. 당시 문은식 군종감은 기독교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信仰戰力化’ 휘호를 받기 위해 공문을 올렸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즈음 문은식 군종감은 여군 훈련소를 방문한 영애(令愛) ‘박근혜’ 님을 여군 훈련소 군목 ‘지기오’와 부단장 중령 ‘박영욱’과 함께 만나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휘호에 대해 부탁을 드렸고, 박정희 대통령은 ‘信仰戰力化’를 친필 휘호하여 하사했다. 백창현 편, *op. cit.*, 127; 다른 하나는 「나와 김준곤 목사 그리고 CCC」에 수록된 것으로서, 평소 군내 좌익 침투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전력화가 군 내 반공운동과 정신력 무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군신자화 운동을 제안”한 김준곤 목사의 건의에 흔쾌히 동의하여 전군신자화 운동이 시작되어 신앙전력화로 귀결되었다는 설이 있다. 김준곤 목사 제자들 엮음, 「나와 김준곤 목사 그리고 CCC」(서울: 순출판사, 2005), 581-582. 이규철,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 325에서 재인용.

갈 때 초전필승을 향한 전력은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³³⁾

‘표성중’은 『기독교연합신문』에서 신앙전력화를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조치들을 이렇게 평가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중 군종목사제도를 창설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전력화 구축을 위한 전군신자화 운동(1970년대)의 일환으로 1인 1종교 갖기를 적극 권장하고, 육군1군지역 대대급 부대까지 현역 군종목사를 부임시키고, 진중세례운동을 전개, 진중교회 건축을 활성화시켰다.³⁴⁾

문은식 군종감은 신앙전력화가 ‘군종감의 복무 목표’³⁵⁾로서 전후 방 각급 부대 군종활동의 근무 지표가 되는 당위성을 이렇게 역설한다.

본인이 병과의 지표로 설정한 신앙전력화가 지난해 6월 26일 박 대통령 각하께서 격려의 휘호를 내려 주신 데 힘입어 전력 위주의 행동 군종상을 대내외에 새롭게 부각시키게 되었으며, 신앙전력화라는 명제가 이제 우리 군종병과의 새로운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신앙전력화란 바로 장병들의 신앙심을 전투력으로 또

33) 전우신문, “박대통령각하, 정신전력 강화위해 信仰戰力化 휘호하사,” 『전우신문』 1976. 7. 10.

34) 표성중, “역대 대통령, 군종제도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나?,” 『기독교연합신문』 2009. 3. 2.

35) 육군본부 군종감실 편, 『군종 50년사』 (대전: 육군본부, 2003), 154에 따르면, 제14대 군종감 문은식 목사(1975. 10. 5~1977. 10. 5)의 ‘군종감 복무 방침’은 다음과 같다.

(제14대 군종감 복무 방침)

1. 목표: 신앙전력화(멸공투사로 책임을 완수하는 장병 육성)

2. 방침

가. 신앙으로 국가관 확립

(1) 야전 중심의 종교활동

(2) 신앙의 생활화

(3) 군종교요원의 효율적인 활용

(4) 적극적인 신앙운동으로 소명의식 고취

나. 군종 교육으로 필승의 신념 고취

(1) 인격 지도 교육으로 가치관 확립

(2) 종교 교육으로 신앙의 내실화

(3) 간부 교육으로 솔선수범 자세 확립

는 순교적 신앙심을 순국의 정신력으로 승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6일 전쟁으로 승리할 때 전사자 700명 가운데 반수 이상이 장교들이었으며 여단장급 이상만도 6명이 전사했다고 하는데 반하여 월남전에서는 그 오랜 전투 속에서도 월남군 장성은 하나도 희생되지 않았다고 하니, 근본적으로 정신자세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자세의 차이가 한 나라는 수십 갑절로 영토를 확장시켰고 한 나라는 조국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물론 국력신장이나 전략무기의 현대화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이념 무장과 정신 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올바른 복음 신앙으로 한국 60만 대군을 정신 무장시켜서 기드온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전력화이며, 또 우리 군종병과의 창설의 이념이요 목적이며 현재 우리의 지상의 당면과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성업의 지름길은...무엇보다도 먼저 60만 국군장병이 복음화되어 신앙전력화의 군대가 되는 일입니다. 이 거대한 목표를 위하여 우리 군종병과가 창설된 것이며 존재하는 것이며 더욱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³⁶⁾

이상에서 살펴본 일련의 사료는 박정희 대통령의 ‘信仰戰力化’ 휘호가 각급 부대 지휘관과 군종 실무자들에게 신앙전력화를 추진하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지휘 의도’로 받아들여졌음을 방증한다. 이에 각급 부대는 기존의 전군신자화 운동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더욱 힘차게 추진했다. 『대한민국 군종목사 67년사』에 따르면, 육군의 각급 부대의 군종목사들은 ‘진중 합동 세례식, 무의탁 사병 위로회, 1인 1종교 갖기, 종교 강연회, 기드온협회를 통한 성경 보급, 내무반 교회화 운동, 군종장교 수양회, 한미 합동 군목 보수교육, 가나

36) 문은식, “信仰戰力化 구현에 拍車”, 『韓國基督公報』 1977. 2. 14.

안 농군학교 위탁교육,³⁷⁾ 진중 종교 시설물(교회, 성당, 법당) 건축³⁸⁾ 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그리고 1982년 진중 전(全) 종교시설에 태극기와 병과기를 비치했다. 또한 ‘군인의 특수 근무수당에 관한 규정’(1979. 4. 16. 국방부 313호)에 의거하여 군종장교들에게 1981년 1월부터 군종수당을 지급하여 군종장교들의 사기 진작을 시켰다.³⁹⁾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휘호 하사는 전군신자화 운동을 신앙전력화로 승화시켰다. 신앙전력화는 전·평시 한국군의 군종활동이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여 무형전력을 향상시키고 조국 근대화와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추동력이라는 특이점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4) 군복음화운동

전군신자화 운동에 기반한 신앙전력화 추진은 한국교회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다. 오덕교의 분석에 따르면, 진중세례가 성향을 이루

37) 문제 사병들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20일간 정신교육을 받고 새사람이 되어 귀대하는 것을 군 지휘관들이 보고, 군목들을 통해 가나안 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보내게 되었다. 1971년 육군본부에서 정식으로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비 55만 원을 책정했다. 육군본부는 이를 각 부대에 할당하여 1회 150명 입소토록 하였고(연인원 8,800명 수료), 1974년 11월 20일 ‘군종감 참모 서신 4호’로 전 부대에 실시토록 현장 지시하였다. 수도사단의 경우 1974년 7월부터 사단 자체 가나안 농군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단장 김종구 소장은 군종참모 김순권 소령을 교육대장으로 하여 구대장(김석영 군목, 양희선 군목)을 세우고 ‘부사관, 내무반장, 전임장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일반참모’ 등 전 부대원들에게 가나안 농군학교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백창현 편, *op. cit.*, 126.

38) 육군본부, 『육군 군종사 팸플렛 165-24』 (육군본부, 1984), 304.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추진은 진중 종교시설(교회, 성당, 법당) 건축을 촉진시켰다. 『군종 16년 약사』에 의하면, 1960년대에는 총 18곳 부대에 군인교회가 신축되었다. 육군본부, 『군종 16년 약사』 (서울: 육군본부, 1967), 23; 육군 군종사 팸플렛 165-24』에 의하면, 1970년대에는 군 종교시설이 다음의 표와 같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표 4〉 1970년대 군 종교시설 현황

	1970	1971	1972	1973	1974	1976	1977	1978	1979	1980
교회	172	197	211	226	257	281	273	274	279	298
성당										18
법당		10	14	21	27	34	39	46	50	56

39) 백창현 편, *Ibid.*, 115-132.

는 것을 목도한 1970년대 초·중엽의 한국교회는 대규모 연합부흥집회⁴⁰⁾를 연속적으로 개최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을 도모했다.

그런데 한국 군선교가 마냥 순항한 것은 아니다. 오덕교에 따르면, 전두환 대통령은 ‘기독장교회’(OCU)가 정치세력화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현역 기독 장교’와 ‘예비역 출신 기독 장교’의 군 내 종교활동을 구분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병영에서의 전도활동이 군 내 종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여겨 진중세례운동을 중지시켰고, 민간 지원 군 종교시설 건축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하에 일반인의 군 종교단체 활동 참여를 금지했다.⁴¹⁾ 군 내 기독교 활동에 대한 제5공화국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군선교의 활동에 제동을 걸어 장병 종교활동을 약화시켰다.⁴²⁾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제5공화국의 반기독교적인 정책으로 진중세례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1984년 선교 1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 기독교인은 764만 명에 이르렀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개척운동을 전개하여 교회당을 세우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덕교에 따르면, 이 같은 한국교회의 성장은 군선교를 통

40) 한국교회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1973년), ‘엑스플로 74’(1974년), ‘민족복음화대성회’(1977년) 등을 연속적으로 개최하였는데, 1974년경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300만 명에 이르는 쾌거를 이루었다.

41) 오덕교에 의하면, 한국 군 내 종교시설은 거의 민간 종교단체의 후원으로 신축되었다. 이에 군종장교들은 해당부대 군인교회 건축을 위해 민간 교회나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때때로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더하여 군종장교가 배치되지 않은 부대나 대대급 부대 지휘관과 군종사병들이 민간 종교단체를 찾아 부대의 실정을 설명하고 진중교회 건축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군 지휘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1981년 8월 28일 국방부는 군 종교단체 운용 정상화에 대한 공문을 하달하여 종파 구분 없이 일반인의 군 내 종교단체 활동 참여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군종활동은 각 군 참모총장의 통제 및 감독하에 군 종교시설에서 하도록 국한시켰다. 또한 종교활동 명목하에 ‘건축기금 모금 행위, 정기적인 회비 각출 및 납부 행위’ 등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42) 오덕교, *op. cit.*, 144.

한 민족 복음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한국교회는 ‘국군종 24250-150’ (1985. 7. 11)에 근거하여 ‘군복음화후원회’를 결성했다. 군복음화후원회는 국방부가 인준하는 기독교군선교 후원 단일창구로 인준되어, 한국교회로 하여금 교파를 초월하여 군선교를 돕는 본격적인 후원 체제를 구축하여 진중교회와 한국교회를 연동화했다.⁴³⁾

특히 오덕고는 1990년대 진중군인교회 보수 및 신축과 관련한 군복음화후원회의 수고를 이렇게 집약한다.

‘군복음화후원회’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지어진 예배당을 보수하거나 교회당이 없는 부대에 교회당을 짓는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1990년대의 군선교 운동을 이끌었다. 이 시대의 교회 건축 운동은 각 교회의 협력을 얻어 교회를 건축한 후, 군대에 기증·채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군 자체의 예산으로는 군인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여력이 없어 민간 교회나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락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소망교회 등이 교회 건축에 앞장섰고, 한국유리의 최태섭 장로와 벽산 그룹의 김인득 장로가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70년대로부터 벽산은 건축 자재를, 한국유리는 건축에 필요한 유리를 군복음화후원회를 통해 기증함으로써 군인교회 건축을 크게 지원하였다. 이들의 지원을 통해 많은 교회당이 건축되었다. 1991년 교회당 38동을 신축하였고, 18동을 개축하거나 보수하였다. 1992년에는 신축 58동·개보수 40동, 1993년 신축 37동·개보수 2동, 1994년 신축 33동·개보수 12동, 1995년 신축 37동·개보수 29동, 1996년 신축 44동·개보수 18동, 1997년 신축 50동·개보수 17동, 1998년 신축 33동·개보수 10동, 1999년 신축 21동·개보수 7동, 2000년에는 22동을 신축하였고 20동을 개보수하였다. 1991년부터 2천년까지 만 10년 동안에 교회당 386동을 신축하고, 173동을 개축하거나 보수하여 총 559동에 이르렀다. 이는 군복음화후원회가 1990년대에 군인 교회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를 개축 또는

43) *Ibid.*, 142.

보수하거나 신축하였음을 의미한다.⁴⁴⁾

군복음화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의 진중교회 신축과 개 보수 사업은 군선교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 특히 1986년 ‘한국군종목사단’을 설립한 군종목사들은 군복음화 운동으로 명명 되는 진중교회 ‘제2차 진중세례운동’을 전개했다. 오덕교는 군복음 화운동의 핵심기제인 제2차 진중세례운동의 태동 배경과 진행과정 및 그 결과를 이렇게 집약한다.

제2차 진중세례운동은 1990년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시작되었는데, 육군교육사령관으로 부임한 김진영 장군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김진영 장군은 1990년 육군교육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3성 장군으로 세우시고, 육군교육사령관으로 부임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자문하였다. 교육사령관으로 재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던 그는 예하 부대인 육군훈련소를 통해 병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인하였다. 예하 부대의 목사 18명을 공관에 초청하여 자신이 군선교의 울타리가 될 것을 밝히면서 전도와 진중세례를 위해 수고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제2의 진중세례운동이 기화했다. 김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대를 변혁시킴으로 민족복음화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훈련병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훈련병의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 주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십자가 10만 개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인 1,000만 원을 헌금하는 등 진중세례운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제2차 진중세례운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군목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 들였고, 신앙적인 각성을 하였다. 1992년에는 85,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1993년에는 128,000명, 1994년에는 130,000명, 1995년에는 186,000명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

44) *Ibid.*, 144-145.

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1997년 4월 19일에는 한 번에 행한 세례 의식으로는 교회 역사상 최고 인원인 7,200명이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역사를 갱신하였다. 이러한 진중세례운동은 1997년 이후 20만 명을 넘어서서 1999년 216,080명이 세례를 받았고, 2000년에는 187,156명, 2001년에는 191,758명이 세례를 받는 등 집단 개종 운동이 일어나서, 제2차 진중세례운동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170만 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한 진중세례식을 통해 청년들이 진중에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갖게 한다고 확신한다.⁴⁵⁾

이처럼 군복음화후원회를 축으로 한 한국교회의 군복음화운동은 군종목사들의 깊은 헌신과 수고를 추동시켜 제2차 진중세례운동을 전개하여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에 헌신하는 ‘비전2020실천운동’으로 귀결된다.

5) 비전2020실천운동

1996년 2월 15일, 군복음화후원회는 불꽃같이 일어나는 제2차 진중세례운동을 21세기 기독교운동인 ‘비전2020실천운동’으로 천명했다. 이규철은 “군과 민족, 인류 복음화에 이바지함으로 국가적으로는 모범 국민 양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애족운동,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명랑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략화운동,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45) *Ibid.*, 146-148. 오덕교에 따르면, 김진영 장군은 군목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군목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군목들이 성지를 답사할 수 있도록 길을 주선하였다. 또한 군선교연합회(전 군복음화후원회)가 ‘육해공군 본부교회’를 건축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육군 참모총장으로 부임하여 교회당 건축을 주도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하여 한국교회와 기독교실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차 헌금함으로써 육해공군 본부교회 헌당을 성료(盛了)하게 했다. 또한 김진영 장군은 군 내 폭탄주를 금함으로 군대의 음주 문화를 바꾸는 등 기독교 군 지도자(장로)로서 큰 덕을 세웠다. *Ibid.*, 147에서 재인용.

이루고자 하는 21세기 기독교운동⁴⁶⁾인 비전2020실천운동의 태동 과정을 이렇게 집약한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주도한 분은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한 육군 대장 ‘이필섭’ 장로이다. 군선교의 시대적 필요성을 인식한 이 필섭 장로는 1996년 2월 군복음화에 대해 군목들과 논의한 후, 스가라서 3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라는 구호 아래 매년 25만 명의 장병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들이 세대한 후 일반 교회로 흡수되게 하여 2020년경 대한민국 국민 75%인 3,700만 명을 기독교인으로 양성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⁴⁷⁾ 한국군종목사단은 이 선교 비전을 적극 실천할 것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군종목사를 파송한 한국교회 10개 교단(당시 군목을 파송한 교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신, 통합, 합동,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총회장과 교단 총무들은 비전2020운동실천결의대회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추진했다. 이로써 비전2020실천운동은 한국교회가 펼칠 21세기 기독교운동이요 명실상부한 민족복음화운동의 선교 전략⁴⁸⁾으로 자리매

46)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미래출석교인 양육교재」(2002. 5), 27.

47) 이필섭 장로가 제시한 비전2020실천운동의 궁극적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인구의 75%가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나라는 우선 입법기관인 국회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것으로 모든 법의 근원인 성경의 정신에 맞게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그 법에 의해 사회정의를 구현해 가야 할 것이며,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뤄지는 나라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비전2020을 통해서 이뤄질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비전2020의 성취를 통하여 이 땅의 통일도 이뤄져야 합니다. 남과 북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한편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분부를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인구 5,000명당 1명 정도로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인구 1만 명당 1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믿는 백성이 25%에서 75%로 현재의 3배가 되어 3,300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가장 크게 축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비전2020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실무담당자 교육 자료집(2000)」, 14-15. 이규철,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146에서 재인용.

48) 비전2020실천운동이 민족복음화를 위해 펼치는 ‘5단계 실천전략’과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실행’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김하게 되었고, 군복음화후원회는 한국교회를 결집시켜 한국군 병영 안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이 실제적이고 유효하게 펼쳐지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군복음화후원회는 보다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해 제 28차 군복음화후원회 총회(1999. 2. 9)에서 군복음화후원회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로 개칭했다. 이

(5단계 실천전략)

1단계) 입대 전 전도 / 양육

첫째, 민간교회, 대학생 선교단체와 공조한다는 전략.

둘째, 민간교회별 군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는 전략.

셋째, 군선교사 훈련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략.

2단계) 입대 후 전도·세례 / 양육

첫째, 적극적인 진중 전도와 세례를 통하여 신자를 확보하는 전략.

둘째, 진중 군인신자를 양육(성경공부)하는 전략.

3단계) 군인신자 교적카드 수집-이 전략은 통일된 군인신자 교적카드 양식 및 발송봉투를 활용하여 군인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연대급 이상 군인교회 담임목사가 책임지고 군인신자 교적카드를 작성 및 발송하고, 대대 군중병과 연대급 군중병, 기독간부, 여전도 회원 중 실무책임자를 임명(임명 직분: 비전2020추진 부장/차장/위원)하여 군인신자 연결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4단계) 군인신자 실천(일반)교회 연결-이 전략은 군목파송 10개 교단에서 추천한 약 3천여 교회 중 본 운동에 참여기로 등록한 교회를 비전2020운동 실천교회로 정하여 군인신자를 연결토록 한다(연결통지서 월 1회 송부). 이 실천교회는 전국을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시는 구 단위, 군은 읍, 면 단위에 1개 처 이상)하고 군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나 대학, 청년부 조직이 있는 교회 그리고 청·장년 평균출석 300명 이상 된 교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연결 기준은 거주지 주소 최근 거리에 있는 실천교회로 연결(전산 시스템 운용)하고 일반 신청교회는 월 1회 심의하여 등록한다.

5단계) 미래출석교인(연결된 군인신자) 관리(양육)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실행)

(1) 사랑의 청지기(눅 16: 10) / 1:1 집중관리자 선정 및 전담부서 조직

(2) 사랑의 등록(계 20: 15) / 군인신자를 미래출석교인으로 등록

(3) 사랑의 기도(딤후 2: 1) / 1:1:1 기도 실천, 공식 집회 시 기도-기도 매일(1'), 그 영혼, 그 부대, 그 가정을 위해서 1분(1') 이상 기도

(4) 사랑의 가족 전도(행 1: 8, 단 12: 3)

(5) 사랑의 편지(유 3) / 매일 서신, 주보, 책자 등 우송

(6) 사랑의 선물(잠 19: 6) / 절기별 기호품 선물 전달

(7) 사랑의 심방(빌 2: 1-4) / 직접 부대 방문 심방

(8) 사랑의 초청(요 1: 46, 요일 1: 3) / 휴가·외박 시 교회로 초청

(9) 사랑의 영접(눅 10: 38-42) / 전역 시 영접환영 예배

(10) 사랑의 헌금(고후 9: 6) / 전도, 세례(침례) 등 군선교비 후원(1명 세례 경비 후원-3천 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운동 실천자료집」(1999), 75.

규철은 비전2020실천운동 구현을 위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주요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전국 16개 지회와 8곳의 국외 지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1999년 2월 26일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채택하였고, 동년 7월 ‘제1기 군선교사 양성훈련 비전2020 캠프’를 시작한 이래 군선교사를 훈련시켜 파송하고 있다. 2000년 2월 29일 ‘군선교의 노래’를 제정하여 전국 교회에 보급했다. 2001년 1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군선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연합 월례조찬기도회’와 ‘민·군 연합 민족복음화 각 지역별 순회 대성회’ 등을 개최하여 군선교 열기 확산에 주력해 오고 있다. 또한 『좋은 군사』를 비롯한 다양한 책자를 발간하여 격오지 근무자와 군인교회 신우회의 성경공부 교재로 보급하고 있다. 2002년 2월 28일 발족한 ‘한국군선교신학회’는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군선교 사역을 전개하고 다원종교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복음의 진수가 능력 있게 창출될 수 있도록 매년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군선교 신학」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센터와 연계한 ‘군장병상담사’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은 세례를 받은 기독교 장병들이 출선수범하여 복음에의 사랑을 ‘지키게 하느’(마 28: 20) 취지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독하고 힘든 장병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악성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이루는 ‘선샤인(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을 선포하여 군 내 호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매년 사랑의 온차 보내기, 군종목사의 성지순례 후원사업과 같은 연례적 지속 사업, 그리고 군목파송교단과 협력하는 군선교 정책 개발(발전) 또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섬기는 귀한 사역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종목사단과 군종목사 파송교단과 협조하에 현역 군종목사의 전적인 손길이 닿기 힘든 격오지와 대대급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군선교교역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한국교회의 헌신과 협력하에 군선교 현장에 투입하는 재정은 막대하

다. 이렇듯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최선을 다해 일선 군선교 현장과 한국교회를 연결시켜 진중 세례 사업을 후원하고 복음의 확장을 증진시키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고 사료된다.⁴⁹⁾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 군종목사들은 진중교회세례운동⁵⁰⁾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16년 12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의 “종교유형별 인구(1995, 2005, 2015)”⁵¹⁾에서 기독교

49) 이규철,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148-151에서 재인용.

50)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7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2018. 2. 13), 22.

〈표 5〉 1992~2017년 연도별 진중세례 실적 현황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85,000	128,000	130,000	186,000	190,000	177,003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7,951	216,080	187,156	186,959	182,230	155,767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61,825	162,260	154,808	153,225	174,550	171,435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82,614	184,320	177,110	159,632	138,617	152,238
2016년	2017년	총계			
169,671	143,086	4,300,315			

이중윤·이규철,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군선교, 청년」 17 (2018), 18에서 재인용.

51)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주택 기본특성항목,” 2016년 12월 19일 보도.

〈표 6〉 종교유형별 인구(1995, 2005, 2015)

구분	인구			구성비		
	1995년	2005년	2015년	1995년	2005년	2015년
계	43,834	46,352	49,052	100.0	100.0	100.0
종교 있음	22,100	24,526	21,554	50.4	52.9	43.9
불교	10,154	10,588	7,619	23.2	22.8	15.5
기독교	8,505	8,446	9,676	19.4	18.2	19.7
천주교	2,885	5,015	3,890	6.6	10.8	7.9
원불교	86	129	84	0.2	0.3	0.2
유교	210	104	76	0.5	0.2	0.2
천도교	28	45	66	0.1	0.1	0.1
대종교	7	4	3	0.0	0.0	0.0
기타	225	196	139	0.5	0.4	0.3
종교 없음	21,735	21,826	27,499	49.6	47.1	56.1

교가 한국종교인 수 1위를 이루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⁵²⁾ 이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기독교 신자 수 약 123만 명 증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으로써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사를 평가했다.

〈기독교 신자 수 약 123만 명 증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⁵³⁾

본회는 2016년 12월 19일 통계청이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발표를 통해 기독교 신자 수가 약 123만 명 증가한 9,676,000명으로 우리나라의 종교별 신자 수 제1종교가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군종목사와송 10개 교단을 중심으로 군선교사역에 앞장선 일반 교회와 성도, 1004군인교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지난 1996년부터 적극 실천해 오고 있는 육·해·공군·해병대의 장병 전도 진중세례(침례)운동인 비전 2020실천운동사역의 결실임을 확신한다.

그동안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은 사회에서 불신자 전도의 분명한 한계, 특정 교회 중심의 수평 이동, 대학캠퍼스 및 지역교회에서의 청년 전도의 난제와 반기독교적 정서 및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팽배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매년 평균 약 17만 명의 군 입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자원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세례(침례)를 집행해 왔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04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침례)를 통해 약 160만 명의 청년을 전도해 세례(침례)를 주고 양육했으며 이들이 전역 후 지역교회 출석 및 가족 전도 등을 통해 일반 교회에서의 불신자 전도가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신자 수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52) 이종윤·이규철,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20에서 재인용.

동아일보는 기독교 신자가 한국종교인구 수 1위에 오른 사실을 이렇게 보도했다. “기독교(개신교) 신자가 인구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불교 신자를 앞질렀다. 기독교 신자는 968만 명(19.7%)으로 불교(762만 명·15.5%)보다 200만 명 이상 많았다. 개신교 신자는 2005년 845만 명에서 10년 새 123만 명가량 늘어난 반면 불교 신자는 296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2016. 12. 20.

53) 이종윤·이규철,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21-22에서 재인용.

실제로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한국교회의 45세 미만 남자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은 교회,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 신랑들의 군인교회 진중세례증명서 제출 사례, 매년 군선교연합회에 진중세례증명서 발급 요청 등의 현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교회가 지난 20여 년 실천해 온 진중세례(침례) 신자를 지역교회로 연결, 양육하는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열매임을 확신하면서 이번 통계청 발표를 계기로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향한 청년 전도사역인 군선교 사역을 위해 교회의 더 건강한 연합을 바탕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을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첫째, 본회는 무종교 인구수가 약 500만 명 늘어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도 기독교 신자 수가 약 123만 명 증가했다는 결과에 대해 한국교회 군선교 사역의 분명한 결실이며, 국내 제1종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민족복음화를 향한 한 생명의 구원이라는 전도사역에 청년인 국군장병들에게 초점을 맞춰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책임지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표명한다.

둘째, 본회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약 160만 명의 진중세례(침례) 신자를 지역사회로 환원해 온 군선교 사역이 분명히 기독교 신자 수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향한 청년 전도사역인 군선교사역이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선교비 후원으로 동참해야 함을 표명한다.

셋째, 본회는 계속해서 청년을 실질적으로 전도한 진중세례(침례) 신자의 군복무 기간 동안 군인교회에서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도록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전역 후에 일반 지역교회로 온전히 환원되도록 군종목사와송 10개 교단 중심의 군선교회원교회 및 1004군인교회와 함께 더욱 연합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21세기 기독교운동인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임을 표명한다.

2017년 2월 23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 주연종은 “군선교 70년사, 한국기독교

130년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집단개종 및 청년 선교의 물꼬를 튼 일대 사건”⁵⁴⁾이라고 평가한다.

‘이정숙’은 비전2020실천운동이 ‘대내외적 거센 도전’⁵⁵⁾에 직면했지만 “한국교회사의 복음전도 부흥운동과 세계교회가 치중했던 교회 성장, 양적 성장, 외적 성장의 연장선”⁵⁶⁾이라는 선교사적 의미를 함유한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이정숙은 비전2020실천운동이 “초교파적 연합선교운동, 교회들의 군선교 동참, 전문적 연구와 발표를 통한 선교전략화, 다음 시기를 위한 군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⁵⁷⁾고 평가한다.

6)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포스트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으로 특화된다. 한국군종목사단은 ‘국방혁신 4.0’ 시대에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하여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을 추진한다.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은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세례(침례)를 주고, 양육 및 관리하여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가장 본

54) 주연중,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군선교, 청년』 19 (2020), 15.

55) 이정숙,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 『군선교, 청년』 19 (2020), 49-50. 이정숙은 비전2020실천운동이 직면했던 내적도전을 이렇게 지목한다. “초기부터 이어져 온 종교와 전력강화간의 긍정적 함수관계(신앙전력화, 전군신자화, 1인 1종교)에 대한 도전, 종교 간 선교경쟁 과다구도가 형성되면서 더욱 분명해진 듯하다. ...또한 참여정부의 ‘군종정책 6대 실행사항’으로 ‘무종교도 종교다’라는 종교정책의 함의가 군선교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군종도 정치세력화 되어진 현실,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장병 급감, 병역대체법에 따른 이단/사이비 종교 활성화 가능성, 군복무 기간 축소, 인권정책의 강화로 인한 장병생활의 변화” 등이다. 비전2020실천운동이 직면했던 외적 도전은 군선교 외부의 선교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다음의 요소이다. 곧 “국내비종교인구의 증가, 교회청년부인구의 급감(‘절벽감소’), 청년선교의 어려움, 대학생 위주 선교회들의 고전, 비대면문화의 확대를 대처하는 선교전략의 부족” 등이다.

56) 이정숙, *op. cit.*, 61.

57) *Ibid.*, 29.

질적인 군선교 3대 사역에 중점을 두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고 전망하여 수립한 건강한 선교전략과 목표 아래, 육·해·공군 군인교회와 군선교연합회,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과 한국교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연합 군선교 실천운동⁵⁸⁾이다.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의 핵심 개요는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군선교 VISION 2030 핵심개념〉

1.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백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2. 군종목사와 군인교회가 중심이 되어 계획, 실행, 추진되는 선교 캠페인
3. 육/해/공군 각 군의 선교 상황에 맞는 프로젝트 추진
4. 한국교회와(거점교회 중심으로) 함께 진행하는 협력선교사역 (청년사역)
5. 실질적인 열매로 이어지는 선교 캠페인(허위수치, 허위보고 없는 군선교)
6. 선교에 도깨비방망이 없다. 꾸준히 진행해 온 프로그램 지속추진(매우 다양)
7. 지속적인 버전 업(열린 구조)-군종목사모임(상시적인 토론, 전략 수립, 추진 평가), 정기적인 성도 교육, 임직 교육 포함 등
8. 육군의 경우, 군선교 비전2030추진본부 조직이 육군 군목단 전체 조직으로 발전

〈비전 2030 파송사역 개요〉

1. 파송 목표-매년 10만 명(육/해/공, 신규세례자 6만 명+기세례자 4만 명)
군인교회 연간 평균 100명 파송 목표
2. 파송 대상-군인교회 내 모든 신자 장병
3. 파송 시기-6개월 전부터 온라인 사전파송 가능/ 전역 이후 실제 파송
4. 평가
 - ① 매월 군인교회 파송 현황 집계/종합: 지역군목단→추진

58) 「비전2030실천운동 지침서(MANUAL)」(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한국군종목사단, 2021), 4.

본부(파송분과)

② 매 분기/매년 파송 현황 종합, 평가, 전망(2030년까지 지속)

5. 핵심 추진 분야-거점교회 확보(MEAK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본부)⁵⁹⁾

그런데 안타깝게도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은 궤도에 진입(進入)도 하기 전 2020년 초기부터 발화한 ‘코로나19 팬데믹’에 가로막혔다. 당연히 군종목사들의 군중활동은 제한을 받았다. 진중군인교회의 정기적인 모든 종교활동이 중단되었기에 진중세례식 또한 극히 제한을 받았다. 또한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은 한국군종목사단이 자체적으로 이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고 원활한 추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⁶⁰⁾에 직면하기도 했다. 실제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이 진행된 지난 5년간의 세례 열매는 다음

59) *Ibid.*, 5-42.

60) ‘정비호’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추진본부 조직 진단’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매뉴얼이 군종목사 스스로가 추진하지 못할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전제하에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이 고무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비전2030을 추진함에 있어 위관급 군종목사들과 공감 및 소통하며 비전2030 선교 방향에 동역하도록 이끄는 선교 동력의 통합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둘째, 「비전2030실천운동 지침서(MANUAL)」 작성과 제작에 공을 들였으나 초기(코로나19 상황으로 실제 추진 기간은 2023년부터로 적용)에 현장에서의 ‘거점교회’에 대한 소모성 논쟁(청년 정착을 위한 조건)으로 파송과정(심의)은 진행되지 못한 채 ‘거점교회’ 개념 토의와 선정 조건을 두고 이리저리 혼선이 발생했다. 셋째,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추진위원회와 지역 군목단의 이원화 현상이 발생하여 선교집중력이 약화되었다. 넷째, 한국군종목사단 주도로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선포식을 한 이후 한국교회로부터 비전2030실천운동만큼 기도와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비전이 한국교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교회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세기에 접어들어 군선교 현장을 살피고 돕는 연합선교가 약화되어 있다는 점 또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실행본부(MEAK)와 추진본부(군종목사단)는 좀 더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 추동력을 강화하도록 모색해야 한다. 정비호,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2030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 「군선교, 청년」 23(2024), 34-35.

의 표와 같다.

〈표 7〉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세례 결실 현황⁶¹⁾ (단위: 명)

구분	총계	육군	해군	공군	일반 부대
2020년	29,080	23,929	2,790	2,045	316
2021년	19,284	18,075	246	863	100
2022년	14,894	10,420	1,249	3,079	146
2023년	39,424	28,966	6,224	3,814	420
2024년	58,885	52,762	3,234	2,151	884
2025년					

이상의 표가 반영하듯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군선교 열매로서의 세례 결실은 비전2020실천운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감소가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세례 결실이 회복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힘든 근무 여건 속에서 군종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힘쓰는 군종목사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중요한 것은 군선교적 측면에서 2030년까지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의 비전을 품은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예정 연한(年限)이 아직 5년 정도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군종목사들을 비롯한 군선교 관계자 모두가 함께 비전2030실천운동의 현주소를 냉철히 평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가고 분발해야 할 요소들을 찾아내어 극대화시키는 추동

61) 한국군선교연합회 정기총회 보고서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의 세례 결실 현황에 대해 “세례 인원 전년(2023년) 대비 19,461명 증가하여 총 58,885명 결실, 연무대 관문 부대 문화사역 후원시스템 구축 필요: 문화사역팀 운영기금 지원방안 고려, 제대별 군인교회 세례운동 지속추진 및 해공군교육사 세례 회복 방안 강구 필요”라고 평가한다. 한국군선교연합회·기독교군종교구,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54차 정기총회 보고서」(서울: 한국군선교연합회·기독교군종교구, 2025), 22.

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7) 평가

첫째, 국군 창설과 함께 평신도 기독교전우에 의해 시작된 한국 군선교 77년의 축적의 역사는 군종목사·기독교전우회(MCF)·군선교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교회의 충헌(忠獻)이 함께 농축되어 있어 한국교회의 '선교 자산'(Mission Capital)을 형성한다. 특히 한국 군선교는 10년을 주기로 하여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는 현 재진행형으로서 역동적이다. 이를테면 1950년대는 군선교의 기축 토대인 군종목사제도 창설과 국군 병영에 뿌리내리기, 1960년대는 전군신자화 운동, 1970년대는 신앙전력화 운동, 1980년대는 군복음화운동 발화, 1990년대는 군복음화 활성화를 통한 비전2020실천운동 추진, 2000년대는 비전2020운동 활성화, 2010년대는 비전2020실천운동 내실화 도모, 2020년대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이 실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사는 군종목사를 중심으로 국군 평신도 기독교전우들의 헌신과 복음에 우호적인 각계 지도자들의 지휘 협력,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파트너(indispensable Partner)로서의 한국교회의 전폭적인 동역 속에 주창되고 가속화되는 특이점을 함유한다.

둘째, 한국군 창설과 함께 시작된 한국 군선교는 '전군신자화 운동-신앙전력화-군복음화운동-비전2020실천운동-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으로 이어져 오면서 한국군 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의 궁극적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군선교는 군내적(軍內的)으로 장병들의 신앙심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키고 순교적 신앙심을 순국의 정신력으로 고양시키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 군선교

는 군외적(軍外的)으로 군복무를 마친 장병들이 신앙의 인격으로 무장된 애국시민으로서 총력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한국군 신앙전력화는 군종병과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함축한 표지로서 국군 장병들에게 신앙을 통한 정신전력 강화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체계 결속, 그리고 자주국방을 뒷받침하는 ‘무형전력’⁶²⁾ 극대화의 기축 토대로서 자리매김한다.

셋째, 한국 군선교가 활성화되면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기독교(개신교) 신자가 인구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불교 신자를 앞질러 한국 종교인구 수 제1위가 되는 진전을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진중군인교회와 한국교회가 온 마음을 합하여 집중하여 온 한국 군선교 진중세례운동의 결실이라 사료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백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군선교 비전의 단일성(Unity of Military Mission Vision)을 성취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단호하고 독심 있게 한국 군선교 현장에 서 있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여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내는 사명의식과 영혼의 결기를 강화해 나갈 당위가 있다. 군선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중군인교회의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그리고 한국교회

62) 김한옥에 의하면, 군사전략은 크게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대별된다. 유형전력은 병력의 수, 무기, 장비 등과 같은 물질전력이다. 무형전력은 전기숙달(戰技熟達)과 같은 기술전력, 조직과 제도 등을 포함한 관리수준과 통솔력과 전략전술과 같은 운용전력, 그리고 장병들의 의지력을 본질로 하는 정신전력으로 구분된다. 특히 정신전력은 모든 장병들이 투철한 군인정신의 바탕 위에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의지력이다. 김한옥, 『정신전력의 개발』 (서울: 배영사, 1989), 7.

는 한국 군선교의 ‘창조적 축적을 위한 열린 자세와 시간’⁶³⁾을 가져야 한다.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의 어떤 선교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사랑’(first love)을 잊어버리고 ‘처음의 정신’(The spirit of the beginning)을 잃어버리게 되면 쓸모없는 소금과 같이 되어 버려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군선교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국 군선교가 어떻게 움직이며 한국교회와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 계속 주목하고 참여하며 복음의 진전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섬겨 나가야 할 것이다.

3. 한국 군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극대화를 위한 제언

어느 때나 그랬지만,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들의 군중활동과 목회 돌봄 사역 또한 군 안팎의 다양한 시대적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적 영향으로 인해 장병 대다수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다. 장병들의 충성심과 군인윤리 또한 점점 희박해지고 퇴색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우려 또한 비등하고 있다. 이처럼 군선교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 군선교 비전2020실천운동의 유의미한 선교 열매를 위해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현장에 서 있는 군종목사들과 이를 실제적으로 뒷받침하

63) 서울대학교공과대학교, 『축적의 시간』 (서울: (주)지식노마드, 2015), 50. 군선교를 위한 창조적 축적을 위한 열린 자세와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항상 정해진 목표를 조기에 초과달성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시행착오의 과정과 결과를 꼼꼼히 쌓아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일순간 얼마나 많은 자원을 몰아갈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는 ‘유량’(流量, flow)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에 관심을 두는 ‘저량’(貯量, stock) 중심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긴밀한 협조와 대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이에 한국 군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극대화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사명재무장(Mission Rearmament)운동 강화

성공적인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을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 군선교의 주역인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들이 군선교에의 강력한 사명의식을 품고 영적 재충전을 하는 사명재무장운동을 강화하자. “기독교 복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신앙 전력은 군인에게 왜 싸워야 하는지(정당성)와 희생(피해)에 대한 해석을 군종목사를 통해 줄 수 있기 때문”⁶⁴⁾이다.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명의식을 계승하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Yet when I preach the gospel, I cannot boast, for I am compelled to preach.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If I preach voluntarily, I have a reward; if not voluntarily, I am simply discharging the trust committed to me / 고린도전서 9: 16-17).

무엇보다도 내게 맡겨진 양 떼를 사랑하는 목자의 영성을 강화하자. 429년 반달족의 가이세릭왕이 이끄는 군대가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여 북아프리카 전역을 초토화시킬 때, 어거스틴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교회와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지키는 목자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음을 기억하자.

64) 한국기독교공보, “MZ세대 소통 강화 위한 군선교 혁신 다짐,”『한국기독교공보』 2025. 7. 3.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엮어 만들어 주신 우리 직무의 사슬을 끊어 버려서도 안 되며, 우리가 섬겨야 하는 교회를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 성직자가 있는 곳에 남아 있는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우리 직무가 그들에게도 꼭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주님께 아뢰시다. “하나님께서서 저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든든한 보루가 되어 주소서!”(시편 31: 3)⁶⁵⁾

둘째, 부흥(Christian Revivals) 열망

성공적인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자. ‘최재건’은 “교회의 부흥이란 하나님 편에서 그의 능력으로 자신을 죄인들에게 계시하는 일이고, 인간 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체험하는 일”⁶⁶⁾이라고 본다. 최재건에 따르면, 미국 제1차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부흥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라고 묘사했다. 제2차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는 부흥을 ‘인간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았다. 최재건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과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의 특성을 이렇게 집약한다.

서로 다른 시각에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다. 에드워즈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확신하였다. 반면에 피니는 인간의 회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확신하였다. 부흥운동을 신앙 부흥과 전도운동으로 세분화한다면, 신앙 부흥에는 인간적 요소가 뚜렷하지 않지만 전도운동에는 방법이나 도구라는 인적 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지만, 그 운동의 방법은 인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⁶⁷⁾

65) 포시디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30. 4-5, 이연학, 최원호 역주 (왜관: 분도출판사, 2009).

66) 최재건, 『근현대 부흥운동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9.

67) *Ibid.*

‘이디스 블럼호퍼’(Edith L. Blumhofer)와 ‘랜달 발머’(Randall Balmer)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과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의 본질적 특성은 신앙적 쇠락의 상태에서 신실한 이들이 새로운 최상의 영적 열정과 헌신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⁶⁸⁾이라고 부흥운동의 특이점을 지적한다. 이디스 블럼호퍼와 랜달 발머에 따르면, 신앙 부흥은 타락을 전제한다. 동시에 부흥은 상실에 대한 의식과 이전에 높았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위에서 태어난다. 나아가 부흥은 필요한 이들의 영적 나태를 은근히 꾸짖는 기능을 하면서 좋았던 황금 시절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과정도 포함된다.⁶⁹⁾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이다. ‘오순절 성령 충만’(사도행전 2:1-4) 이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아래 늘 새롭게 갱신하며 개혁하는 부흥을 일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교회도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일구어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일제 암흑기와 해방 후 지난(至難)한 시대를 지나오면서 줄곧 부흥을 기도해 왔고 시시때때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해 왔다. 특히 한국 군선교는 ‘전군 신자화 운동-신앙전력화-군복음화운동-비전2020실천운동’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한국 종교인구 수 제 1위로 자리매김하는 귀한 열매를 거두었다. 그런데 한국의 복음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디모데전서 2:4)는 바울의 증거는 한국교회 특히 한국 군선교를

68) 이디스 블럼호퍼 & 랜달 발머, 『근현대 세계 기독교 부흥: 논쟁과 해석』, 이재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20.

69) *Ibid.*, 21.

감당하는 모든 주의 청지기들이 받들어 수행해야 할 복음전도예의 사명을 각인시킨다. 특히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은 지금 여기에 선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투사되는 복음의 사역이자 한국교회 부흥의 사역이다. 따라서 한국 군선교에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을 통해 진중군인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열망을 품고 무릎의 기도로써 도전하고 진리의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사랑의 열매를 충만히 얻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자.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군선교연합회는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 재고(再考):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을 중심으로”⁷⁰⁾와 같은 논문을 참고하여 부흥의 열망을 품고 긴밀히 부흥을 위한 정책과 방책을 연구·개발하고 실행하는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설교 역량 강화(Strengthening Preaching Capabilities)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 로마서 10: 15). 설교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사명이고 특권이다. ‘에드워즈’(O. C. Edwards Jr.)는 설교의 가치를 이렇게 집약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린도전서 1: 21)고 증거한다. 또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린도전서 9: 16)라고 말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빈은 설교가 각 개인에게 있어 구원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였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도 “성직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는 곧 하나님의 말씀 선포이다”라고

70) 이규철,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 재고(再考):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을 중심으로,” 23 (2024), 77-114.

규정했다.⁷¹⁾

‘찰스 다드’(Charles H. Dodd)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린도전서 1: 21)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바울의 이 구절은 “전도자의 행동보다는 설교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의미한다”⁷²⁾고 평가했다. 이에 다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교훈이 아니고 증언(케뤼그마)에 의해서였다”⁷³⁾고 강조한다.

실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니 설교자들은 성경적 설교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어거스틴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고 부드러운 경건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성경책들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자 추구한다”(In all these books those who fear God and are of a meek and pious disposition seek the will of God)⁷⁴⁾라고 성경 강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이종윤’은 오늘의 교회 강단의 설교자들에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71) O. C. 에드워즈, 『교부들의 설교-설교의 역사』, 김석환·윤익세 편역 (서울: 은혜출판사, 2017), 18.

72) 찰스 다드, 『説敎의 原型과 그 發展』, 채위 역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74), 5.

73) 다드의 분석에 따르면, 신약성서 기자들은 ‘설교’와 ‘교훈’을 분명히 구별 짓고 있다. 교훈은 윤리적인 내용을 가진 ‘가르침’(didaskein)으로서 기독교의 도의와 교회가 실행해야 할 교훈 내용이다. 교훈은 종종 기독교에 관심은 있으나 아직 확신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리에 맞도록 해설해 주는 변증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신학적인 교리를 해설하고 있는 요한서신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설교(케뤼그마)는 교훈의 성격과는 달리 비기독교적인 세계에 공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설교가 어디에서 선포되었든 간에 그 내용인즉 언제나 ‘좋은 소식(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함유한다. *Ibid.*, 5-6.

74) Augustine, *ON CHRISTIAN DOCTRINE, II, 9, 14,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Grand Rapids: Wm, E. Eerdmans Pub. Co., 1993).

에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운동을 모티프로 삼아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의 당위성과 실제적 측면을 강화하자고 촉구한다.⁷⁵⁾

‘백이언’은 “교회는 설교자 이상일 수 없다”⁷⁶⁾고 역설하면서 이렇게 호소한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시대의 설교자 이상일 수 없다고 하니 어찌 가슴이 뛰지 않겠는가! 교회의 흥망성쇠가 설교자의 손에 쥐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어찌 사명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한 나라의 명운 또한 그 나라 국민들 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대의 예언자들의 영적 사명 완수에 달려있다 하니 어찌 믿음의 좁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만큼 말씀의 선지자들, 시대의 예언자들이 중요하다. 그러니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 …설교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한다. …설교자는 낙심하지도 방심하지도 말아야 한다.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이다. 자라게 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고린도전서 3: 6-8). 따라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고요히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순종과 헌신을 다해야 한다.⁷⁷⁾

성공적인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군선교 현장에 서 있는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들의 설교역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복음의 접촉점 강화(Strengthening the Gospel Contact Points)

모든 선교가 그러하듯 군선교 또한 ‘복음의 접촉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헨드릭 크래머’(Hendrik Kraemer)는 “그리스도인이 비(非)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비그리스도인의 가슴에 호소할

75) 이종윤, “오늘의 설교의 개혁,” 『군선교신학』 14 (2016), 8-29.

76) 백이언, “예언자와 설교자,” 『신학논단』 9·10 (1968), 223.

77) *Ibid.*, 223-224.

수 있는 ‘접촉점’(the point of contact)이 없이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⁷⁸⁾고 단언한다. 이는 병영 내 비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접촉을 하는 군종목사들에게도 절실한 문제이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k)에 의하면, 선교적 접촉점은 다음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토양과 처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선교사적 측면에서 볼 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사용하셨고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마태오 리치’는 상제(上帝, shong-ti) 사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에서 전도하였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중국인들의 친밀감을 위해 ‘천주’(天主)로 번역하였다.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는 헬라철학을 아주 공손하게 높이 평가하지만 설교의 끝부분에 가서는 ‘회개’와 ‘심판’을 강조한다. 이로써 바울은 헬라인들의 신인식(神認識)을 넘어 성경의 하나님을 증거한다.⁷⁹⁾

복음의 접촉점에 대한 헨드릭 크래머와 헤르만 바빙크의 강조는 군선교 현장에선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들에게 선교적 통찰을 준다. ‘정비호’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과 관련하여 ‘MZ세대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시각 영상 정보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 그들의 문화에 능통한 복음전도자가 필요하다. 그들과 같은 시대를 호흡하며 문화 깊숙이 스며드는 이들에게는 ‘정년

78) Hendrik Kraemer, *The Christian Message in a Non-Christian Religions* (Grand Rapids: Kregel Pub., 1977), 137.

79) 특히 바빙크는 선교를 위한 접촉점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듣는 사람이 분명히 이해하는 것으로써 시작하라. 둘째, 사람들이 늘 믿어온 바 오래되고 친숙한 메시지를 전하라. 셋째, 전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생각과 신념을 고려하라. J. H. Bavink, 『선교학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143-144.

연장'보다 '공감 능력'이 우선이다.⁸⁰⁾

이처럼 군 내 복음의 증거자들이 장병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특히 군종목사는 예배, 교육(인격지도 교육, 사생관 교육, 행복플러스 프로그램, 용사플러스 프로그램, 회복탄력성 교육, 소중한 나의 일기 등), 개인 면담을 통하여 장병들과 깊은 인격적 유대를 형성하고 복음에로의 '개인적 신앙 결심'⁸¹⁾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지혜와 열정을 강화해 주기를 권고드린다. 그리하여 '느헤미야'(Nehemiah)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느헤미야 8: 8) 말씀에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중군인교회에서 국군 장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다섯째,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방안 추진(Promoting a Viable Program Plan)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다음 주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A good plan, violently executed now, is better than a perfect plan next week)⁸²⁾는 ‘패턴’(George Smith Patton III, 1885~1945) 장군의 강조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한국

80) 정비호, *op. cit.*, 36-37.

81) ‘존 스토틀’(John Stott)에 따르면, 전도는 예수 안에서 새사람이 되도록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John Stott, “The Biblical Basic Evangelism,” Ed., D. Douglas,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 1975), 6.

82) 정비호, *op. cit.*, 26에서 재인용.

군종목사단과 이를 후원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정비호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과 관련하여 “군종목사단이 기획하여 작성한 비전2030매뉴얼은 군종목사 스스로가 추진하지 못할 내용으로 채워졌다”⁸³⁾고 비판한다.

실제 논자가 몇몇 군종목사들과 전화 인터뷰를 해본 결과,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의 파송사역과 관련하여 ‘월간 지역군목단 파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고 있는 지역군목단은 극히 희박하다. 논자가 보기에 군종목사들은 그들의 기본 임무 수행만으로도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다. 여기에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의 파송 사역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평가회의를 거치는 것은 스스로를 옥죄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마태복음 23: 4) 것과 같다.

이에 한국군종목사단은 모든 군종목사들이 힘을 내어 매년 기독교 장병 10만 명을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에 진력하도록 독려하되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방안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곧 한국군종목사단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적극 협조하여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의 파송 체계를 재구성하여 군종목사들의 과중한 파송 업무를 감경하고 복음전도의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중하게 조언드린다.

여섯째, ‘포스트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준비(‘Post Vision 2030 Movement’ Preparation)

2018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제47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은 비전2020실천운동이 종료된 2021년 이후의 ‘포스트 비전2020실

83) *Ibid.*, 27.

천운동'의 한국 군선교를 '비전21세기실천운동'으로 집약한 바 있다.

〈표 8〉 비전2020실천운동과 비전21세기실천운동 비교⁸⁴⁾

구분	비전2020실천운동(1998~2020년)	비전21세기실천운동(2021년 이후)
기한	202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목표	3,700만 기독교 신자의 나라 건설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전략	〈역할 분담 / 고전 3: 6-9 / 지속〉 - 바울: 군인교회 (전도세례) - 아볼로: 일반회원교회 (후원)	〈ABC 3-Pr 원리 적용(보완)〉 - 열렬한 기도(Ardent Prayer) - 성경적 설교(Biblical Preaching) -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Consistent Program)
전술	전도·세례·양육·연결 (4대 전술)	전도·세례·정착·양육·연결 (5대 전술)
전략 부대	훈련소·신교대·교육사·훈련단 (지속)	대대급 교회 부흥 강조 (보완) 수세자의 자대 정착
주체 (군현장)	군종목사	군종목사 + 군선교교역자
신자 카드	녹색카드	한국교회 교적부와 지역교회 연결 카드 이원화
지역 교회 연결	9:1 비율로 부대 주소 없는 상태로 연결	100% 부대 주소 있는 녹색카드만 연결 백색카드(부대 주소 없음)는 희망하는 교회만 연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웰컴티켓, 웰컴 패스포트 시행
특기 사항	◎ 2020년 이후에는 “비전21세기실천운동”으로 명명함(현재는 비전2020 실천운동).	

큰 맥락에서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은 비전21세기실천운동의 제1단계라고 평할 수 있다. 이제 5년 뒤면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은 연대기적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포스트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을 준비하고 계획

84)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7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75.

하며 대비하는 수고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선교에 남다른 비결이나 왕도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렇기에 묵묵히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사실은 오늘도 내일도 그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In any case, I must keep going today, and tomorrow and the next day / 누가복음 13: 33).

4.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 국군 창설과 함께 평신도 기독교전우에 의해 시작된 한국 군선교 77년의 축적의 역사는 군종목사·기독교전우회(MCF)·군선교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교회의 충헌(忠獻)이 함께 농축되어 있어 한국교회의 ‘선교 자산’(Mission Capital)을 형성한다. 특히 한국 군선교는 10년을 주기로 하여 ‘전군신자화운동-신앙전력화-군복음화운동-비전2020실천운동-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현재진행형으로서 한국교회의 전폭적인 동역 속에 주창되고 가속화되는 특이점을 함유한다.

한국 군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중요소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군선교연합회는 공히 ‘사명재무장(Mission Rearmament)운동 강화, 부흥(Christian Revivals) 열망, 설교 역량 강화(Strengthening Preaching Capabilities), 복음의 접촉점 강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방안 추진, 포스트 비전2030실천운동 준비’ 등에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한국 군선교 현장에서 군종목사들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한국 복음화라는 성사(聖事)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History and Suggestions for the Accumulation of Korean Military Missions

Kyu Chul Le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unique points implied in the history of Korean military mission accumulation and to make several suggestions for maximizing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successful military mission. The 77-year history of Korean military mission accumulation, which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rmed Forces by lay Christian comrades, contains unique points that are currently ongoing and being advocated and accelerated through the full cooperation of the Korean church.

In order to maximize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hat realizes the vision of Korean military mission, both the Korean Military Chaplaincy Corps and the Korean Military Mission Association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the mission rearmament movement, aspiration for revival, strengthening preaching capacity, strengthening the contact point of the gospel, promoting feasible program plans, and preparing for ‘The Post-Vision 2030 movement.’

Key Words

The History of Korean Military Mission Accumulation, Vision 2020 Movement, Vision 2030 Movement, The Post-Vision 2030 Movement,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논문 기고자 Email

revphdlee2365@naver.com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

The Identity and Role of the ROK Military Chaplain
-centering around ‘being of ministry’ and ‘ministry of being’-

» 전요섭 Ed. D.*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의 본질을 ‘사역의 존재’(being of ministry)와 ‘존재의 사역’(ministry of being)으로 개념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고찰한 문헌연구이다.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예배, 성례, 설교, 성경공부, 기도, 전도, 제자훈련, 심방, 상담, 행정, 예식 등 목회 돌봄을 담당하는 기능 및 직무적 존재이다. 또 군종목사는 장병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들과 항상 함께 존재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신뢰, 심리적·영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실존적 돌봄의 사역자이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임마누엘’ 신학에 근거하며, 목자가 양들과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목양신학, 그리고 바울서신에 근거한 사도 바울의 동행적 사역에서 그 신학적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

군종목사의 존재는 단지 예배당에서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성직자라는 의미를 넘어, 전투 상황 속에서도 포기되지 않는 인간 존엄과 하나님의 동행을 군인들에게 체험시키는 영적 표지라 할 수 있다. 군종목사의 가시성은 부대 공동체의 통합성과 전투력 유지에도 기여한다. 미군의 사례처럼 군종목사가 장병들과 일상 공간에서 상시 동행하는 것은 존재론적 사역의 본보기이며, 부대 전체의 사기와 연대감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오늘날 군종목사는 종교의례 수행자에 머무르지 않고, 존재 자체로 돌봄과 치유를 제공하는 ‘존재의 사역’은 군이 요청하는 바이고, 군 목회의 핵심이다.

주제어

군종목사, 존재의 사역, 사역의 존재, 군대, 군선교

•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18일 • 논문 수정일: 2025년 8월 19일

• 게재 확정일: 2025년 8월 20일

*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예)군종목사(군종43기), 성결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의 군종제도는 한국전쟁 중에 창설되었다. 그 취지는 ‘우리 군인들도 미군처럼 신앙을 통해 담력을 얻고 이로써 전투/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¹⁾ 전쟁 중 미군 제33사단 10공병 대대에 근무하던 한 카투스(KATUSA) 병사의 진정서에서 군종제도가 비롯되었는데, 그 진정서 내용은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에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써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다. 결국, 1951년 2월 7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육군본부 일반명령 제31호)로 군종제도가 수립되었다. “참호 속의 무신론자는 없다”(There are no atheists in a foxhole)라는 말처럼 군은 전투라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군인들의 불안, 공포 및 두려움을 신앙으로써 해결해 줄 존재가 필요했다.²⁾ 이는 군종목사의 ‘존재’와 ‘사역’이 군의 전투력 유지 및 증강에 상당한 유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목사와 전쟁/전투는 고대로부터 긴밀한 동반 관계를 유지해 왔다.³⁾ 로마군에서는 주교가 사제를 군대에 동행하도록 하여 오늘날 군종 기능 및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는 사례가 있다.⁴⁾ 군이 전투 현장에 비전투요원인 군종목사를 참여시켰다는 내용은 군종목사가 군대에 존재하고, 사역함으로써 군인과 부대의

1) 육군본부, 『군종 50년사』 (미간행: 육군본부, 2003), 68-70.

2) Olena Chaika & Olena Dragan, “Chaplain Service Pastor as A Special Kind of Public Service Military Officer in The Ukrainian Army Introduction,” *Kość i Prawo* 11/24 (2022), 213-229.

3) Marty Mendenhall, “Chaplains in Mental Health,” *Annals of the American Psychotherapy Association* (2009), 8-13.

4) Arnold H. M. Jones, “The Roman Army and the Religious Life of the Soldiers,” *Journal of Roman Studies* 41 (1951), 21-36.

‘사기진작’에 기여했다는 의미가 된다. 군종목사의 동행 자체는 ‘전장에서 포기되지 않는 인간 존엄과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 군종목사가 장병들과 함께 있어 주는 ‘비언어적 동행’(silent presence)이 바로 ‘존재의 사역’인데, 영국 더럼(Durham)대학교 전쟁과 종교 전문가 Michael F. Snape 교수는 이를 ‘침묵의 지지’(silent support)라고 표현했다.⁵⁾ 군종목사가 예배, 성례, 설교, 성경 공부, 기도, 전도, 제자훈련, 심방, 상담, 행정, 예식 등 특별한 신앙 행위와 언어가 없더라도, 단순히 군인들 옆에 있어 주는 것으로 위로와 신뢰, 지지와 격려가 될 수 있다.⁶⁾

12세기 후반에 이미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군종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당시 영국 왕 Henry 2세의 셋째 아들 Richard 1세가 제3차 십자군(1189~1192) 원정대 사령관으로서 성직자들을 기병중대당 1명씩 배치하여 ‘승리는 곧 신앙’이라는 정신으로 군인들의 사기를 드높이려 했다. 성직자들은 전장에서 군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담대히 싸우도록 설득하고, 설교했으며, 군인들 앞에서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전선으로 나갔다는 기록이 있다.⁷⁾ 20세기에 영국이 치른 현대전을 분석해 보면, 군종목사가 여러 차례 전투 현장에 동행하여 군인들을 위한 사역을 담당했다. 군종목사가 전투 현장에 한 번 참여했을 때 장병들의 사기와 여러 차례 참여했을 때 사기진작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러 차례 군종목사의 존재를 목격한 군인들은 신뢰와 친밀감이 누적되어 심리 영적

5) Michael F. Snape, *God and Uncle Sam* (Woodbridge: Boydell, 2015), 185-190.

6) Alan T. Baker, *Foundations of Chaplainc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21), 114.

7) 양희완, 『군대문화의 뿌리』 (서울: 을지서적, 1988), 52.

위안과 위로, 안정감, 용기를 얻게 되는 유익이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있었다고 평가했다.⁸⁾ 군종목사 제도를 운용하는 모든 국가의 군종목사는 교회와 국가로부터 이중으로 위임받은 존재로서 목사이며 동시에 장교로서 ‘사역의 존재’와 ‘존재의 사역’ 양자의 요구에 따른 정체성을 수립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역의 존재’와 ‘존재의 사역’이라는 목회신학적 틀을 통해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존재론적 역할 규명 및 본질과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근현대 전쟁에서 나타난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근대에 들어, 영국의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청교도 혁명의 중심 인물이면서 의회군 총사령관이었던 Oliver Cromwell(1599~1658)이 창설한 군대에 종교와 군대가 조직적으로 결합된 공식적인 군종제도(New Model Army, 1645년 창설)가 있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당시 영국 내전(English Civil War, 1642~1651)에서 군종목사는 각 연대에 1명씩 배속되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정의를 수행하는 성전(聖戰, holy war)임을 설득했다.⁹⁾ 군종목사는 항상 장병들 곁에 존재했으며, 출정 전에 군인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문맹이었던 당시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고, 상담,

8) A. B. Wright, et al, "Spiritual Support and Morale in Deployed Troops: The Role of Repeated Chaplaincy Engagement," *Journal of Military Psychology* 28/2 (2014), 123-138. 영국군 군종정책 논의에서 드러난 갈등이 있었다. 영국이 치른 전쟁/전투를 분석하여 전시 군종활동을 수립함에 있어 군종목사의 안전 유지 및 보호 차원에서 전투지역에 군종목사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후방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전선에서 죽음에 임박한 장병들과 함께 있어 주는 존재로서 군종목사의 역할과 배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Grace Davie, "The Military Chaplai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Christian Church* 15/1 (2015), 39-53.

9) Ian Gentles, *The New Model Army* (Oxford: Blackwell, 1992), 108-112.

위로, 격려, 지지했으며, 의료체계가 취약했던 당시에는 전사상자들을 돌보는 간호 임무까지 담당했다.¹⁰⁾ 영국의 이런 '선교목사형 군종제'(missionary-pastor model of chaplaincy)는 군종목사가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청교도적, 복음주의적 목사로서 군대 또는 전장이라는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라는 의미이다. 그러다가 1796년에 군종부(Royal Army Chaplains' Department)가 설립되면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군대 체계에서 임관하고 제복을 착용하는 군종목사 제도가 정착되었다.¹¹⁾ 결국 이 제도가 미군의 군종제도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영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작전을 담당했을 때, 한 사령관의 회고, “전투는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과 공포, 우울, 슬픔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장병들의 심리정서를 다룰 수 있는 장교가 군종목사 외에는 없었다. 따라서 군종목사 없이는 장병들을 전투작전에 투입하고 싶지 않았다”¹²⁾라는 내용은 군종목사의 정체성 및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분석된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일부 미군 지휘관이 전투 현장에 군종목사가 없이는 전투가 어렵다고 인정하고, 항상 군종목사의 동행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¹³⁾ 이는 군종목사의 '사역의 존재'와 '존재의 사역'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독립전쟁(1775~1783)과 19세기 초 미국 식민지 시대, 그리고

10) Lewis W. Spitz, *The Protestant Reformation* (New York: Harper & Row, 1985), 14.

11) Michael F. Snape, *The Royal Army Chaplains' Department, 1796-1953* (Woodbridge: Boydell, 2008), 22.

12) Davie, “The Military Chaplain,” 39-53.

13) 편집부, “전시 하 사업중점주의로 생사기로의 군인전도부터,” 『기독공보』 1952.11.17. 일자 1면.

미국 남북전쟁(Civil War, 1861~1865) 당시에 남군과 북군에는 모두 원시적인 형태의 군종제도가 있었다. 지역교회 목사가 의용군과 함께 출정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 시기는 아직 공식적인 군종제도가 생기지 않았으나, 일반 목사들의 신앙적 사명감에 따라 자발적으로 종군 활동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¹⁴⁾ 미군은 지금까지 전쟁 중에 군종목사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전투 현장에서 장병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함으로써 불안, 공포 및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기를 유지하며, 진작시킬 수 있었다는 고백은 미군이나 한국군을 막론하고 매우 빈번하다.

군종제도는 유럽과 북미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에도 있었으며, 징기스칸의 군대에 여러 종교 성직자들이 동행하여 군인들이 사기와 담력을 갖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다.¹⁵⁾ 또 임진왜란 시기(1592~1598)에 한국을 침략한 일본군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 스페인 예수회 소속 Gregory Cespedes 신부가 일본군과 함께 종군하여 1593년 일본군의 부산 점령 이후 다대포 인근에서 천주교 신자 장병들을 위로하고 미사와 고백성사를 시도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⁶⁾

14) Richard M. Budd, *Serving Two Masters: The Development of American Military Chaplaincy 1860-1920*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2002), 3-7. East Guilford에서는 83명의 의용군들이 마을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와 함께 종군했고, Haddon에서는 100명의 군인들이 마을 목사와 함께 종군했으며, Chattarn에서는 100명의 장병들이 지역교회 목사와 종군했다는 기록이 있다. 의용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들이 속한 마을의 목사와 함께 출정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겼는데, 여기서 원시적 형태의 군종제도 기원을 찾을 수 있다. Richard G. Hutcheson, *The Churches & The Chaplaincy* (Atlanta: John Knox, 1975), 23.

15) Christopher P. Atwood, *Encyclopedia of Mongolia and the Mongol Empire* (New York: Facts on File, 2004), 256-257.

16) Seung Ho Bang, "An Assessment of the Role of Gregorio de Céspedes, S. J. during the Imjin War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Journal for the Study of Religions and*

군종목사 제도가 일찍 설치된 서방 국가들에서는 수많은 전쟁/전투를 겪으면서 군종목사의 정체성 및 역할과 임무를 발전시켜 왔다. 군종목사의 역할은 사고 예방, 사기진작, 군 전투력 유지 및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입장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군종목사의 역할은 장병들이 위협에 노출된 경우(예: 유격훈련, 공수훈련, 기동 작전, 도하훈련, 전투훈련 및 실제 전투 등)에 더욱 중요했다는 분석이 있다. 이를테면, 공수부대 강하훈련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군종목사가 제일 먼저 비행기에서 강하할 때, 아무런 메시지(설교)가 없어도 그것을 본 군인들은 용기와 위안을 얻게 된다. 군종목사는 이런 '존재의 사역'을 통해 장병들에게 심리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독교와 목사, 신앙 등에 대한 선한 이미지 확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군종목사의 역할: '사역의 존재'와 '존재의 사역'

1. 사역의 존재

군종목사는 교단에서 군에 파송한 성직자로서 본질적으로 장병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며, 성례전을 베풀고, 성경공부, 기도, 전도, 제자훈련, 심방, 상담, 행정, 예식 등을 수행하는 '사역의 존재'로서 그들의 종교적 임무는 매우 명백하다.¹⁷⁾ 만일 이런 사역을 할 수 없다면 목사가 군대에 있어야 할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하지만 군종목사는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성직을 수행하며 동시에 군 조직의 일원으로서 군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인

Ideologies 14/40 (2015), 186-208.

17) David W. Day, *Military Chaplains as Agents of Peace* (Carlisle, PA.: U.S. Army War College, 2005), 8.

식하고 그 틀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⁸⁾ 미군 군종목사 중령 Lee 등은 “미군에서 군종목사는 군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¹⁹⁾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군종목사가 다양한 병영생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Lee가 강조한 군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2. 존재의 사역

군은 군인의 안녕, 사기진작, 위로, 격려, 지지, 상담 등을 위해 군종목사를 필요로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종목사의 ‘존재의 사역’은 그 자체로 장병들의 삶에 커다란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군종목사는 장병들의 일상 공간인 취사장, 훈련장, 교육장, 생활관 등 다양한 병영생활 공간과 예하 부대, 격오지, GP/GOP, 행군 현장, 야전병원/의무대, 경계근무지, 작전통제실, 복지시설(PX) 등에서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심리 영적 위안과 위로, 안정감, 용기, 신뢰를 갖게 해야 한다.²⁰⁾ 이를 군종목사의 ‘병영 일상 동참 강화’(enhanced participation in soldiers’ daily military life) 또는 ‘군종목사의 상시 동행’(continuous accompaniment)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존재의 사역’이라 할 수 있다.²¹⁾ ‘존재의 사역’이란 장병이 군인교회/군종실에 가면 언제나 군종목사를 만날 수 있는 존재

18) William H. Willimon, *Pastor: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Ordained Ministry* (Nashville: Abingdon, 2005), 103-109.

19) William S. Lee, et al, *Military Chaplains as Peace Builders* (Alabama: Alabama Maxwell Air Force Base, Air University, 2005), 1.

20) Randee Cooper, et al,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Psychological Health Center of Excellence* (2023), 6-8.

21) Jan Grimell, et al, “Commanding with Compassion...,” *Frontiers in Psychiatry* 16 (2025), 1-15.

가 되는 것도 함의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 배식 대기, 식사, 훈련, 행군, 체력단련, 운동, 휴식(주말 여가시간), 내무생활(생활관 청소 및 점호 준비, 침상 정리 시간)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군종목사를 만나게 되는 존재감의 확대 개념이 여기 포함된다.²²⁾ 군종목사는 항상 장병들 곁에 있으면서 심리 영적 위안과 위로, 안정감, 용기를 제공하고, 신뢰 기반의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존재의 사역'이 아닐 수 없다.²³⁾

특히 심리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장병이나, 지휘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장병 옆에서 침묵 동행을 통해 상담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²⁴⁾ 그래서 Randee Cooper는 군종목사는 장병들에게 감정의 안전지대, 즉 '감정 대피소(emotional refuge)'라는 비유적 표현을 했다.²⁵⁾ 감정 대피소는 심리 영적 보호구역을 제공하는 것인데 장병들에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엄격한 상하관계, 견고한 지휘체계에서 선불리 말하기 어려운 실존적 문제나 내면의 갈등들을 군종목사에게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장병들이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군종목사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존재의 사역'은 군종목사가 군인의 일상 속에 물리

22) Philip A. Kramer, "The Proximity Principle: Army Chaplains on the Fighting Line," *Command & General Staff College* (2024), iii-iv.

23) Jonathan Walton, "Pastoral Care on the Battlefield," *Armed Forces & Society* 44/2 (2018), 250-267.

24) Wesley D. Carr & Jason M. Waggoner, "Chaplains and the Care of Souls,"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74/2 (2020), 108-116.

25) Randee, Cooper, et al,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Silver Spring, MD: Psychological Health Center of Excellence, Department of Defense, 2023), 6-8.

적으로 함께 존재하여 장병들이 심리 영적 위안과 위로, 안정감, 용기를 얻도록 하는 돌봄 방식을 뜻한다. 장병들이 다른 장교 및 지휘관을 만나는 것과는 다른 안정감을 얻게 되며, 지휘체계에서 다소 독립된 신뢰 가능한 관계 형성으로 군인들이 무방비로 자신의 감정, 생각(자살 생각까지도) 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 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런 일은 장병들 곁에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²⁶⁾ 이렇게 하여 군종목사와의 신뢰 기반 관계는 군인들이 고립감, 죄책감, 실존적 불안/공포 등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는 물론, 종교적 신념체계를 갖지 않은 군인들에게도 군종목사를 ‘신뢰할 만한 장교’ ‘존경할 만한 성직자’ ‘진심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군인’ ‘공감적인 상담자’로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며,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및 편견, 부정적인 고정관념 등을 없애는 터전이 될 것이다.²⁷⁾

군종목사가 군인교회에 있음을 알리는 십자가기를 게양한다면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존재의 사역’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부대 지휘부에 장군기가 게양되면 지휘관이 존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미 육군 군종단기(Army Chaplain Corps Flag)는 제식용으로 사용되어 예배나 군중 의례 시 사용되며, 군종목사의 존재와 군종활동 장소를 시각적으로 알

26) Rachel V. Lawrence, *The Theology of Chaplaincy: Having a Ministry of Presence* (Pasadena, C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5), 2-3.

27) Samuel Best & John Swinton, “Shared Spiritual Care in Military Units: Training Non-chaplains for Pastoral Listening,” *Military Psychology* 33/1 (2021), 14-26.

리는 상징물로도 기능을 한다.²⁸⁾ 군종목사의 차량에 군종기를 부착, 계양하여 이동하는 것도 '존재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미군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임재의 상징 또는 영적 가시성, 돌봄의 신호, 임마누엘의 시각적 구현, 영적 피난처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에피소드: 1980년대 말 필자가 근무했던 부대(육군군수사령부) 인근 사단(제53보병사단) 군종참모는 '부산지역 군종목사단' 회의에서 사단장의 특별 지시사항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토로한 일이 있었다. 그 지시 내용은, 군종목사가 예하 부대 및 해안 초소를 방문할 때 차량(개인 승용차이건 군용 차량이건)에 십자가 깃발을 부착하고 이동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단장의 출퇴근(부재/재실)에 맞추어 지휘부 건물에 장군기(general officer's flag: 지휘관기)를 계양/하강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군종목사의 출퇴근에 맞추어 군인교회에 십자가 깃발을 부착하라는 지시였다. 이런 지시는 타 부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생소하고 이례적이며, 특이한 지시였다. 당시 사단장의 이런 지시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나 이 연구의 주제인 '존재의 사역'과 관련하여 또 미군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 비합리적 이거나 부정적인 지시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도 사료된다.

군종목사의 '존재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장병을 향한 물리적 근접(proximity principle)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 미 육군사관학교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889건을 분석한 결과, 전투 스트레스 장병 중 30% 이상이 "군종목사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었다.²⁹⁾ 또 미 육군 군종목사의 목회학박사 학위논문

28) U.S. Army Institute of Heraldry, *Army Chaplain Corps Flag*. U.S. Department of the Army (Fort Belvoir, VA.: n.d.), 1.

29) Benjamin A. Blankenship, et al, "Religious and Spiritual Care in U.S. Army

서도 전방에 배치된 군종목사 15명을 인터뷰한 결과 “존재의 사역이 장병들의 사기진작, 희망을 높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시성, 접근성 확보가 과제”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³⁰⁾

본디, ‘존재의 사역’은 “목회자의 존재가 어떻게 목양의 형태가 되는지”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연구 분석한 것에 기초한 이론이다.³¹⁾ 현대 군 목회에서 ‘존재의 사역’은 군종목사가 병영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접근성(accessibility)을 강조한다. 군종목사가 병사들의 시야에 빈번하게 눈에 띄고, 부담 없이 다가가 쉽게 말을 걸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진다. 이런 ‘관계 기반의 영적 돌봄’(relational spiritual care)은 비신자 군인들에게도 깊은 심리 영적 지지로 작용하게 된다.

전투 현장이나 야전 생활 속에서 군종목사의 ‘가시성’(visibility: 항상 장병들의 눈에 보이는 존재)은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심리영적 위안과 위로, 안정감, 용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역할은 사역의 기능성과 별개로, 위기 상황에서 장병의 인식 속에 군종목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이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상징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이다.³²⁾

에피소드: 미군 군종목사 Henry Beaulieu는 바그다드에 주둔했을 때 새벽 2시쯤 경험했던 한 에피소드 가운데 ‘병사 가운데 한 명이 적의 총탄을 맞고 죽거나 폭파되는 악몽을 반복하여

Personnel Exposed to Combat,” *Military Medicine* 181/11 (2016), 1351-1358.

30) Glen J. Harris, “Ministry of Presence of the U.S. Army Military Chaplain,” (Doctor of Ministry project: Wesley Theological Seminary, 2018), 45-72, 138-141.

31) Neil Holm, “Toward a Theology of the Ministry of Presence in Chaplainc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52/1 (2009), 7-22.

32) Winnifred F. Sullivan, *A Ministry of Pres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2014), 173-192.

꾸는 증상'으로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군종목사인 자신을 찾아온 사례를 소개했다.³³⁾ Beaulieu는 이 군인에게 성경말씀을 들려주고,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주며, 심리 영적 안정을 갖도록 했다.

'존재의 사역'은 군종목사가 부대의 수호신은 아니지만, 장병들의 인식에는 마치 그런 것처럼 부대를 지키기 위해 시공간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보호자, 수호자, 심리 영적 방패 등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³⁴⁾ 결국, 군종목사의 현장 중심적 존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될 수 있다.

'존재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거기에 가면 늘 그 자리에 군종목사가 있다."는 인식은 장병에게 안정과 위로를 준다. '존재의 사역'은 거기에 가면 늘 그 자리에 군종목사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군종목사를 자주 만나게 된다는 시공간적으로 모순된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 둘의 조화는 군종목사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지속적으로 늘 보이는 존재, 접근 가능한 존재여야 하며, 기독교 신자 장병에게만 아니라, 비신자 장병에게도 당연히 제공되는 보편적 돌봄이 되어야 한다.³⁵⁾

33) Davie, "The Military Chaplain," 39-53.

34) Lawrence, *The Theology of Chaplaincy*, 2-3. cf. U.S. Department of the Army, FM 1-05: Religious Support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12), Ch. 1-16.

35) Christopher Swift, Mark Cobb & Andrew Todd, *A Handbook of Chaplaincy Studies: Understanding Spiritual Care in Public Places* (London: Routledge, 2020), 92-97. 비신자 장병일지라도 군종목사가 부대를 순회하며 장병들에게 자주 눈에 띄면, 군종목사를 보고 "아! 군종목사가 우리의 승리, 안전, 평안을 위해 애쓰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군사경찰이 부대 내에서 자주 보일 때, 장병들이 "부대에 무슨 사고가 났나?"라고 직감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현상과 유사하다.

3. ‘존재의 사역’의 성경신학적 근거

목회학자 Thomas C. Oden은 그의 대표작 *Pastoral Theology*에서 목회의 본질은 ‘신자들의 삶에 항상 함께 있음’에 두고 있고, 이를 ‘임재의 사역’(ministry of presence)이라 하였다.³⁶⁾ 이처럼 목사의 정체성을 ‘신자들 곁에 있는 자로 규정해 온 전통적 목회 개념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여 변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성경적 근거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하나님)이 육신(예수 그리스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임재의 신학’은 ‘임재의 사역’ 및 ‘존재의 사역’의 성경적 기초가 된다.³⁷⁾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Emmanuel)의 개념은 군종목사가 항상 장병들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다.³⁸⁾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정의하며, 선한 목자는 항상 양들과 함께하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는 목자의 기능 및 직무를 넘어, 양들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군종목사의 ‘존재의 사역’이 군 목회의 본질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³⁹⁾ 사도적 전통 속에 ‘존재의 사역’은 목회의 본질로 이해된다. 특히,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존재의 사역’이 핵심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36) Thomas C. Oden, *Pastoral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46-49, 81-83.

37) Jürgen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London: SCM, 1977), 64.

38) Ian A. McFarland, *The Word Made Flesh*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19), 45-68.

39) Gregory W. Lee, “Pastors as Resident Theologians,” *Christian Scholar’s Review* 45/2 (2016), 179-197.

항상 여러분과 함께 지낸 것을 아시거니와...”라고 말하며, 함께한 시간 자체가 사역의 증거임을 강조한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9-11절에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고백했다. 고난의 순간에 곁에 있는 존재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 본문은 함께 존재하는 사역의 위로적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⁴⁰⁾ 이와 같은 사도적 전통은 오늘날 군종목사의 사역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성경적 원형이라 할 수 있다.⁴¹⁾

4. 군대가 요청하는 역할

군의 특수한 환경은 목사 고유의 역할을 다소 제한하여 설정하고 있다. 군종목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임무가 종교활동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나 군종목사가 순수하고, 단순하게 오직 목회 돌봄이라는 영적 활동만 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다. 사실,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선교/전도를 위해 초빙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⁴²⁾ 군은 군종목사를 단순히 종교활동 수행자로서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투 상황과 극한의 환경 속에서 장병들에게 신앙을 통해 심리 영적 위안과 위로, 안정감, 용기를 제공하는 존재로서의 군종목사를 요청해 왔다. 이러한 군의 실질적인 요구는 '존재의 사역'이 군사 조직의 필수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 육군 야전교범(FM: field manual) 1-05: Religious Support(2012)에 따르면, 군종목사의 존재가 단순한 종교 행위를 시행하는 자를

40) Eugene Peterson, *The Contemplative Pastor* (Grand Rapids: Eerdmans, 1989), 59.

41) Holm, “Toward a Theology of the Ministry of Presence in Chaplaincy,” 7-22.

42) Ronit Y. Stahl, *Enlisting Fait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2017), 236.

넘어 장병들에게 심리 영적 위안과 위로, 안정감, 용기를 제공한다고 기술하고 있다.⁴³⁾ 미군 교범 전반에 걸쳐 군종목사는 ‘군인들과 함께 시공간적으로 동행’하는 존재의 핵심 기능이 규정되어 있다. Philip A. Kramer는 “1926년에 발행된 군종 교범에 따르면, 이미 군종병과의 의무는 전선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근접성의 원리’(proximity principle)로 명명했다.⁴⁴⁾ 이러한 근접성은 단순히 조직적 배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군종목사가 전투선(front-line)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음으로써, 말보다 존재 자체로 사역을 수행하게 된다. 군종목사가 자주 보이는 ‘가시성’(visi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은 장병들의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하며, 장병과의 심리 영적 관계 형성과 신뢰 축적의 기반이 된다.

에피소드: 필자가 1980년대 중반, 육군 군종목사로 보병부대에 서 활동하던 때, 해안부대의 한 소대에서 병사들이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으로 인해 부대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일이 있었다. 병사들은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그들에게는 화기(충기)가 있고, 무리로 존재하였지만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부대의 정신전력은 와해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에 근무하는 군종목사들이 며칠 동안 해당 부대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함께 지냄으로써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담력을 회복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존재의 사역’이라 할 수 있다.

미 육군 교범(FM 1-05: Religious Support)에서는 “군종의 동행이 군인의 용기와 회복의 지지 기반”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전쟁터

43) U.S. Department of the Army, *FM 1-05: Religious Support* (2012), Ch. 1-16; 4-22.

44) Kramer, “The Proximity Principle,” iii-iv.

에서의 사역은 말보다 존재가 앞선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⁵⁾ 군인들에게 군종목사가 함께 있어 주는 것(presence with the unit)은 단순히 개별 장병의 위안을 넘어, 부대 전체의 단결과 전투 의지 고양에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하며, 이는 '존재의 사역'의 실질적 확장으로 볼 수 있다. 미 육군 교범(FM 1-05, FM 4-0)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종목사는 전투의 한복판에서 장병들과 함께함으로써 용기와 위안을 전하는 존재, 바로 그것이 군이 실질적으로 요청하고 교리로 규정한 '존재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모든 군종목사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역임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장병들과 함께하는 이 신성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5. 대리적 종교를 통한 확산적 기독교

군대에는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거부하거나 혐오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군인교회에 출석한다든지, 적극적인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군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군인들 가운데는 동료 군인들의 종교행위나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종교성을 충족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일컬어 '대리적 종교'(vicarious religion)라 한다.⁴⁶⁾ 이는 마치 다른 군인이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부대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위안을 갖게 되는 것과 같다. 신앙생활에 대한 자신의 참여보다는 다른 사람의 돈독한 행위를 통해 신앙의 의미를 얻으려는 경향성이다. 그래서 이를 '종교적 소속 없이 믿는 것'(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종교활동은 개인적인

45) U.S. Department of the Army, FM 1-05: *Religious Support*, Ch. 1-16; 4-22.

46) Davie, "The Military Chaplain," 39-53.

신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군인들에게서는 종교적, 종파적 신앙을 갖지 않으나, 다른 군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종교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이를 대신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즉, 자신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지만 다른 군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기도를 많이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대리적 종교인은 다른 군인의 신앙을 통해 신앙 지식을 얻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위로, 의미, 희망을 얻으며, 자신의 종교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런 행태가 바람직한 신앙은 절대 아니지만, 결국 이런 군인들은 열린 마음의 단계를 거쳐 신앙 분위기에 친숙하고,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쉽다. 군종목사는 군대 내에서 공식적인 복음전도자로 인정된 자이므로 ‘대리적 종교’ 태도를 가진 군인들을 대상으로 목사 고유의 사명인 전도의 기회, 구원 사역의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

군종목사의 ‘존재의 사역’(ministry of presence/ ministry of being)에 대하여 Michael Snape가 ‘확산적(diffusive)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했다.⁴⁷⁾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군인들이 기독교, 목사, 신앙 등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고, 적어도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으며,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을 일컫는 표현이다. ‘확산적 기독교’라는 것은 군종목사가 복음전도 차원에서 기독교 교리를 군인들에게 널리 전파(전도)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군종목사의 상징성인 기독교의 대표자, 하나님의 대리자, 성직자, 기도하는 자, 더 나아가 장병들을 위로하는 자, 돌보는 자, 함께 있어 주는 자가 자신의 부대에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군인들의 인식이 기독교의 확산이

47) Snape, *God and the British Soldier*, 4-5.

며, 이를 '확산적 기독교'라 한다.

Harrison은 이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군종목사'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⁴⁸⁾ 이 말은 잘못 이해하면 마치 군종목사가 교만해져 하나님의 자리에 이른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군대에서 위기에 처한 장병들의 인식에는 군종목사가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항상 보호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심리 영적 단서가 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군인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장병들이 군종목사를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기독교에 친숙해지고, 특정 편견이 감소되고, 결국 신앙을 갖게 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갖게 되는 신앙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병들이 군종목사를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상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Denise C. Cooper 등은 군종목사가 야전병원 및 의무대 등에서 부상당한 장병들과 함께 있어만 주는 것으로도 장병들이 커다란 위안을 얻고, 군종목사로부터 상당한 신뢰감과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⁴⁹⁾ 군대는 다양한 종교적 성향을 가진 군인들이 있게 마련이고, 무신론자 또는 반신론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군종목사를 빈번하게 접촉함으로써 군의 위기 상황이나 전투 상황에서는 기독교 및 목사, 신앙 등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48) Guy Harrison, *Psycho-spiritual Care in Health Care Practice* (London: Jessica Kingsley, 2017), 22.

49) Denise C. Cooper, Christian A. Evans, Sharmila A. Chari, Marjorie S. Campbell, & Tim Hoyt,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Overlapping Roles and Collaborative Opportunities," *Psychological Services* 20/1 (2023), 56-65.

히 감소되고, 군종목사의 영적 지원을 무시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행태는 신앙이 없는 지휘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위안과 위로, 신뢰감과 만족감을 장병들에게 주는 것은 결국 기독교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이기도 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영혼을 얻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Ⅳ. 나가는 말

이 연구는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사역의 존재’와 ‘존재의 사역’이라는 이중적이며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재조명한 문헌연구였다. 군종목사는 성직을 수행하는 목사로서 고유의 기능 및 직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특수임무를 부여받은 군인으로서 장병들과 항상 함께 존재함으로써 그들에게 심리 영적 안정과 위안을 제공하는 돌봄의 주체이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임마누엘 신학에 근거하며, 성경적, 역사적,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존재론적 사역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군은 군종목사를 극한 상황에서 위안과 용기를 제공하는 상시적 동행자, 관계 기반의 심리 영적 지지자로 요청해 왔다. 미 육군 교범에서는 이를 ‘근접성의 원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종목사의 가시성과 접근성은 장병들의 신뢰 형성과 부대의 단결에 실질적 기여를 한다. 또한 비신자 장병들도 ‘대리적 종교’와 ‘확산적 기독교’의 과정을 통해 군종목사의 존재를 위로와 위안의 매개로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터전이 마련된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사역의 존재’로서 목사의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은 궁극적 목표임과 동시에 ‘존재의 사역’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향후, 이 주제와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를 위해 군종목사의 '사역의 존재'와 '존재의 사역'에 대한 사회과학적 방법의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이 연구와 어우러져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즉, 장병들에게 '사역의 존재'와 '존재의 사역' 이미지가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심리 영적 지지 정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또한 이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간 비교를 통해 군 사역의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성 등을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Identity and Role of the ROK Military Chaplain -centering around 'being of ministry' and 'ministry of being'-

Joseph Jeon

This research conceptualizes the identity and role of ROK military chaplains as 'being of ministry' and 'ministry of being' and examines them based on the above conceptualization. Military chaplains are ministers of existential pastoral care who go beyond the functional and professional existence of being in charge of pastoral care such as worship, Holy sacraments, preaching, Bible study, prayer, evangelism, discipleship training, visitation, pastoral counseling, church administration and miscellaneous ceremonies, and who always exist with soldiers to provide comfort, trust and spiritual stability. This is based on the theology of 'Immanuel,' which symbolizes the presence of God, and its theological prototype can be confirmed in the pastoral theology of the good shepherd when he is with the sheep in John 10:11, and the companionship ministry of the Apostle Paul based on the Acts of the Apostles and 2 Timothy. Historically, military chaplains have been present on the battlefield, providing courage and comfort to soldiers, from the ancient Roman army and the medieval Crusades to the modern British and American armies.

In addition, as a ministry based on relationships, the chaplain acts as an 'emotional refuge' for soldiers due to their frequent visibility and easy accessibility. This provides a psychological and spiritual safety zone where soldiers can express their feelings and thoughts to the chaplain and receive comfort, support and encouragement regardless of the rigid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command structure. The 'ministry of being' is explained through the concepts of 'vicarious religion' and 'diffusive Christianity' as a preliminary stage of evangelism. The existence of a military chaplain goes beyond the symbolic meaning of a priest performing holy work in a chapel, and can be said to be a spiritual sign that allows soldiers to experience human dignity and God's companionship that are not abandoned even in combat situations. As in the case of the US military, military chaplains sharing daily spaces with soldiers and accompanying them at all times is an example of ontological ministry and enhances the morale and solidarity of the entire unit.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uggests through literature and theological analysis that today's military chaplains are not just performers of religious rites, but ontological ministers who provide care and healing with their very existence, and that the 'ministry of existence' is what the military demands and is the core of military ministry.

Key Words

Military Chaplain, Ministry of Presence, Being of Ministry,
Military, Military Mission

논문 기고자 **Email**

jeon8182@gmail.com



전요섭의 논문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에 대한 논찬

A Comment: The Identity and Role of the ROK Military Chaplain—centering around ‘being of ministry’ and ‘ministry of being’

» 김영호 Th. M.*

전요섭 박사님의 논문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는 군종목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정체성의 이중성—성직자로서의 기능적 역할과 군인으로서의 실존적 동행—을 ‘사역의 존재(Being of Ministry)’와 ‘존재의 사역(Ministry of Being)’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명쾌하게 개념화하고 규명한 탁월한 문헌 연구이다. 현재 현역 군종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연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중심적 존재’의 가치를 신학적·역사적·군사·교리적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또한 저자가 과거 군선교 현장에서 직접 활동했던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이론을 경험으로 증명하고 논의의 신뢰를 더한 점도 돋보인다.

1. ‘존재의 사역’의 실존적·신학적 기반에 대한 긍정적 조명

논문은 군종목사의 역할을 단순히 예배·설교·성례·상담·행정

• 논찬 투고일: 2025년 9월 23일 • 논찬 수정일: 2025년 9월 24일

•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24일

* 군종목사(군종62기), 문무대군인교회 담임

등 목회 돌봄을 담당하는 기능적 직무적 존재(사역의 존재)로 한정하지 않는다. 장병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함께하며 위로와 신뢰, 심리 영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실존적 돌봄의 사역자(존재의 사역)임을 핵심 논지로 제시한다. 특히 ‘존재의 사역’을 임마누엘 신학과 목양신학(선한 목자, 요 10: 11),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행적 사역(행 20: 18; 딤후 4: 9~11)에 근거해 그 신학적 원형을 확인한 점은 군종목사의 소명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단순한 기능 수행을 넘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케 하는 영적 표지이자 ‘상징적 매개체’로 기능한다는 분석은 군 목회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2. 군 조직의 요청과 현장 사역의 학문적 정당성 제시

현역 군종목사는 성직자이자 지휘관의 참모 장교로서 군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군이 실질적으로 요청하는 역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논문은 군이 군종목사를 단순한 종교 활동 수행자로만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극한 상황에서 장병들에게 신앙을 통해 심리·영적 위안과 용기를 제공하는 존재로 요청해왔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러한 군의 요구는 미 육군 야전교범(FM 1-05: Religious Support)에서 군종목사의 존재가 장병들에게 신뢰·용기·회복의 기초가 된다고 명시하고, 군종목사의 동행이 군인의 용기와 회복의 지지 기반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교리적 규정으로도 뒷받침된다.

저자가 제시한 ‘근접성의 원리(proximity principle)’는 군종목사가 전투 현장이나 병영 일상 공간(취사장, 훈련장, 생활관 등)에서 상시 동행하는 ‘병영 일상 동참 강화’가 왜 군 목회의 핵심인지에 대

한 실천적 해답을 제공한다. 군종목사의 가시성(visi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은 장병들이 엄격한 지휘체계와 무관하게 자신의 감정—심지어 자살 충동까지도—을 토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심리정서적 안전지대, 즉 '감정 대피소(emotional refuge)'를 형성한다. 이는 사고 예방은 물론 부대 공동체의 통합성과 전투력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현역 군종목사들이 지향해야 할 존재론적 사역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3. '존재의 사역'을 통한 선교적 확산의 중요성 강조

저자는 '존재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복음 전도를 위한 전 단계로 기능한다는 전략적 가치를 제시한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신앙이 없는 지휘관과 장병들이 '대리적 종교(vicarious religion)'를 통해 동료 신자들의 신앙 행위에서 위안을 얻거나, 군종목사의 존재 자체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확산적 기독교(diffusive Christianity)'의 개념은 매우 통찰력 있다.

군종목사는 위기에 처한 장병들의 인식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곧 기독교 신앙의 대표자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비신자 장병들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신앙을 수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선교적 방편이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 13: 1-23)에서처럼, 복음이 심겨질 '좋은 땅'을 기경하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기독교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 장병에게도 보편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논문이 재차 강조한 것은 현장 목회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4. 발전적 제언

첫째, 본 연구는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의 본질을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 스스로 ‘나가는 말’에서 언급했듯, 이 개념들이 실제 군 사역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심리 영적 지지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의 한계는 ‘사역의 존재’와 ‘존재의 사역’이라는 개념이 장병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지 못한 데 있다. 이는 현장 사역자들이 정량 정성적 평가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지속해야 할 과제다.

둘째, 저자는 두 개념을 이중적이며 상호보완적이라고 제시하지만, 군종목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시간적·물리적 제약 속에서 이 두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모델이 필요하다. 종교 고유 업무 수행과 병영 일상 동행 사이에서 자원 배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영국군의 사례처럼 전투지역 배치 여부에 대한 역할 논란이 일어날 때 어느 사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해져야 한다. 실제로 ‘존재의 사역’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만, 인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 평시 요구되는 목사와 참모 장교로서의 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은 그 균형을 유지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셋째, 선교 현장과 병영 문화의 변화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4년 기준 2030세대의 기독교인 비중은 약 26%에 불과하며¹⁾, 한

1) “‘한국 기독교 인구, 현 16.2%서 2050 11.9%로 감소 예상,’ 크리스천투데이, 2024년 6월 5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3735?utm>

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0.4%에 이른다.²⁾ 특히 미래 군 장병의 주축이 될 비기독교 Z세대의 경우 10명 중 8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향후 자신의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82.6%에 달한다.³⁾ 이는 ‘존재의 사역’을 수행하는 군종목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장벽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는 ‘존재의 사역’이 청년 선교의 마지막 보루임을 방증한다. ‘위기의 장벽’을 ‘청년 선교의 보루’로 바꾸기 위해 군종목사가 겪는 내적 갈등을 돌보고, 선교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위한 훈련을 지속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넷째, 한국 군종목사의 실제 사역을 보다 깊이 반영하면 논의가 한층 풍성해질 것이다. ‘사역의 존재’와 ‘존재의 사역’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 군종목사들은 장병 사생관 및 인성 교육, 비전캠프 행복플러스와 같은 자살 예방 및 간부 인성 함양 프로그램,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 전장 윤리 교육, 훈련장 및 생활관 방문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성 교관, 상담가, 코치, 윤리적 조언자의 역할을 병행하며 군종목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찾아가는 복음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업이 단순히 부가 업무로 인식되지 않고 ‘확산적 기독교’의 사명으로 이해되도록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발전한다면, 군종목사는 더욱 확신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윤실,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년 2월 19일, <https://m.pckworld.com/article.php?aid=9689115749>

3) 최대진, “Z세대 비기독교인 10명중 7명은 ‘교회에 호감 없다,’” *CTS기독교TV*, 2024년 10월 17일, <https://www.cts.tv/news/view?dpid=322454&ncate=all>

결론

이 연구는 군종목사가 국가와 교회로부터 이중으로 위임받은 존재로서, ‘사역의 존재’라는 기능적 역할(복음 전도와 구원 사역을 궁극적 목표로 함)을 성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군이 요청하고 신학적으로 정당화된 ‘존재의 사역’이라는 존재론적 역할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특히 ‘존재의 사역’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신뢰가 낮아지고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장병들의 영적 피난처이자 복음 확산의 최전선이라는 점에서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

현역 군종목사로서 전요섭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 군인들과 끊임 없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군 목회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한 친목 활동이 아닌 용기와 회복을 제공하는 신성하고 전문적인 사명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향후 논문의 제언처럼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장병들의 심리 영적 지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실증하는 연구가 추가된다면, 군 목회의 구체적 방법론과 방향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군 신앙전력화의 유의미성을 증명하여 군 중 정책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요섭 박사님의 연구에 감사드린다.

논문 기고자 Email

lovethou@hanmail.net



비전2030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과제: 비전2020실천운동과의 비교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An Interim Evaluation and Tasks of the Vision 2030 Action
Movement: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the Vision 2020 Action
Movement and a Survey Analysis

» 위진섭 M. Div.*

국문초록

본 연구는 비전2020실천운동과 비전2030실천운동을 비교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활발한 진중세례운동을 전개하며 군 복음화에 기여했으나, 양육과 결연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비전2030실천운동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구호 아래 추진되었으나, 현장 적용과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군종목사와 군선교 사역자들은 비전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실행력과 구조적 지원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적 보완, 구조적 한계 인식, 현장 중심의 전략 마련을 과제로 제안한다.

중심 단어

비전2020실천운동, 비전2030실천운동, 군선교, 세례

•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27일 • 논문 수정일: 2025년 9월 1일

•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3일

* 군종목사(군종70기), 백두산군인교회 담임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대한민국의 군대는 매년 약 25만 명¹⁾의 청년들이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전략적 선교 현장이다. 입대한 청년들은 일정 기간 동일한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엄격한 규율과 훈련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영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다. 이 시기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재편성되는 시기이자, 청년 개인에게 복음이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다. 이는 교회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독보적 접점을 제공한다.

군선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 19-20)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는 다음 세대와 청년선교를 향한 한국교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군 복무 기간 동안 장병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미래 한국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매우 긴급한 과제이다.

1996년 시작된 ‘비전2020실천운동’은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목표로, 군 장병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전역 후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와 군선교 현장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²⁾ 이 운동은 25년간 407만 명³⁾ 이상 진중세례를 받

1) 국방부, 『2024 국방통계연보』 (서울: 국방부, 2024), 45.

2) 이종윤.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 『군선교신학』 1 (2004), 48.

3) 2차 진중세례운동을 포함한 29년(1992~2020) 동안의 수세자는 4,604,073명이지만, 비전

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으나, 전역 후 교회 정착률 저조, 신앙 성장의 지속성 부족, 복무 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 등 구조적 요인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더불어 군선교 환경은 최근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였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청년 세대의 종교 무관심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병영문화에서는 휴대폰 사용 허용, 개인주의 심화, 다문화·다종교 환경의 일상화가 이루어졌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개혁 2.0에서 국방혁신 4.0으로의 전환과 함께 병력 구조 재편, 첨단 과학기술 도입, 복무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군선교=진중세례식’의 사역을 넘어, 장병들이 복무 기간 동안 신앙을 형성하고, 전역 후에도 한국교회로 파송되어 신앙을 유지·성장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역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1년 10월, ‘비전2030실천운동’이 출범하였다. 이 운동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구호 아래, 세례·전도·양육·파송의 3대 중점사역을 통해,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고 전역 후 건강하게 한국교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⁴⁾ 나아가 이는 단순한 계량적 목표 달성을 넘어, 한 영혼의 가치를 존중하고, 장병 개개인이 복음 안에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도록 돕는 질적 사역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와 현장 평가 결과, 구호와 정신에 대한 공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작동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으며, 목표와 성과 간 괴리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0실천운동이 전개된 1996년~2020년의 통계로 한정하면 수세자는 4,075,073명이다.

4) 군선교 비전2030 추진본부,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 통합 매뉴얼』 (서울: 한국군종목사단,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2020실천운동의 세레운동과 비전2030실천운동의 파송 정신은 군선교의 핵심 유산으로서 반드시 계승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선교의 주체들이 직면한 여건과 한계를 면밀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군선교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방향을 모색한다.

2. 연구 목적과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전2020실천운동과 비전2030실천운동을 연속선상에서 조망하되, 단순한 계승이 아니라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군선교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25년간 400만 명 넘는 장병에게 진중세례를 베푸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역 후 교회 정착률 저조와 신앙 성장의 지속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보완하고자 비전2030실천운동이 출범하였으나, 매뉴얼에서 제시한 연간 10만 명 파송 목표와 달리, 지난 5년간의 실적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비전2030실천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유지하되, 군선교 주체들의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현장사역자인 군종목사와 군선교 사역자의 구조적 제약과 역할 부담, 조직 리더십의 순환, 개인 헌신 중심의 사역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이는 비

전2030실천운동의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비전2030실천운동이 제시한 목표와 실제 성과 간 괴리는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가?

셋째, 세례·전도·양육·파송의 3대 중점사역 체계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가?

넷째, 비전2030실천운동 이후의 군선교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3.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2021년 비전2030실천운동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5년간 활동과 성과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함께 검토한다. 연구 범위로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군인교회와 군종목사, 군선교 사역자, 군인교회 구성원을 포함하며, 지리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역의 군인교회를 포괄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 연구: 군선교 비전 2020·2030실천운동 매뉴얼, 군선교연합회(MEAK) 보고서, 군선교신학회 논문, 국방부 병영문화 정책자료 등을 분석하여 역사적·신학적·정책적 배경을 고찰한다.

2. 실적 분석: 비전2030실천운동 출범 이후 5년간의 세례, 양육, 파송 통계를 집계·분석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과 연도별 추세를 파악한다.

3. 설문조사 분석: 군종목사, 군선교 사역자, 군인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비전2020·2030실천운동에 대한 구성원 간 인식 수준을 확인·분석한다.

4. 전략 제안: 위 분석을 토대로 비전2030실천운동의 구조와 실행전략을 재정비하여, 변화된 군선교 현장에 적합하고 각 주체가 실천 가능한 사역 모델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과거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비전2030실천운동의 현주소를 직시하며, 이를 미래 지향적인 군선교 전략으로 전환하는 실천적 실행도를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군선교와 한국교회가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비전2020실천운동 분석

1. 추진 배경과 목표

비전2020실천운동은 1990년대 초반 한국 군선교가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출범하였다. 1990년, 당시 육군 교육사령관 김진영 장로⁵⁾의 제안으로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한 진중세례운동이 재점화되었다. 그는 육군 제2훈련소(현재 육군훈련소)를 대상으로 매달 2,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 목표는 불과 1년 만에 현실이 되었다. 이는 당시 육군훈련소 세례 인원이 한 달 평균 100~150명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할 때, 15배 이상 증가한 놀라운 성과였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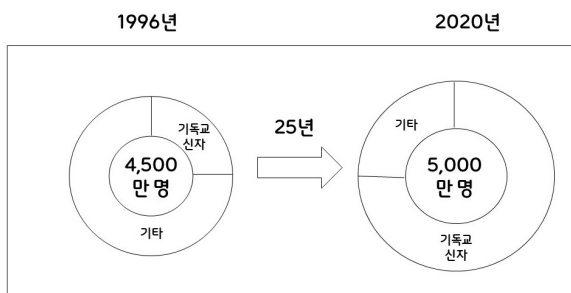
이러한 군선교 현장의 변화는 한국교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는 훈련소 중심의 세례운동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후원조직과 양육·파송 시스템을 마련

5) 육군참모총장 역임, MEAK 비전2020실천운동 추진본부장(2002~2020).

6) 정성길 장로(예)대령, 비전2020실천운동 추진본부 총괄 부분부장 인터뷰, 2025. 8. 18.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 결실이 바로 1996년 선포된 비전2020실천운동이었다. 초대 비전2020실천운동 본부장이었던 이필섭 장로⁷⁾는 “1996년 기준 한국교회 신자 수를 1,200만 명이라고 할 때 매년 장병 22만 명을 전도하여 세례교인으로 만들고 사회에서 세례받고 들어오는 장병들이 최소 3만 명에서 5만 명이라고 볼 때, 매년 평균 25만 명 기독장병들을 사회로 환원하면, 2020년 기준으로 25년간 625만 명이 되며, 군세례신자가 친구,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최소한 3명 이상에게 미친 복음의 영향력이 전도의 결실을 맺으면 본인을 포함하여 625만 명×4명을 하면 그 합계가 2,500만 명이 되며, 1996년 당시 기독교인 1,200만 명을 합하면 3,700만 명이 된다. 그 인원은 전체 국민을 5천만 명으로 기준했을 때 75%가 된다”⁸⁾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교세 확장의 의미를 넘어, 군을 거쳐 사회 각 분야로 흩어지는 청년 세대를 신앙으로 무장시켜 국가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군사로 세우려는 비전을 담고 있었다.

〈비전2020실천운동 목표〉



7) 함참의장 역임, MEAK 비전2020실천운동 추진본부장(1996~2002).

8) 이종윤·김대덕,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군선교신학』 11 (2013), 16.

이와 같은 기조 속에서 군선교연합회(MEAK)는 장병 복음화와 민족복음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비전2020실천운동을 수립하였다. 정재원은 이를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정리한다.⁹⁾

1) 전도 전략: 매년 입대하는 30여만 명의 장병 중 22만여 명의 영혼들을 전도 및 구원하여 진중에서 세례를 베푸는 목표를 가진다.

2) 양육 전략: 매년 세례를 받은 22만여 명의 신자 장병과 기세례자 3만여 명을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한다.

3) 파송 전략: 매년 군대에서 제대하는 25만여 명의 기독 장병을 군인교회에서 민간교회로 안전하게 파송하는 것과 인수인계하는 목표를 가진다.

비전2020실천운동의 이러한 목표 설정은 단순한 종교 확산이 아니라, 군이라는 특수한 공동체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전략적 비전에 근거한 것이었다. 특히 복무 기간 중 형성된 신앙을 전역 후에도 이어가기 위해 결연교회를 통한 파송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그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전개 과정에서 세례자 수의 급격한 증가라는 양적 성과와 달리, 전역 후 교회 정착률은 낮고, 결연·파송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은 훗날 비전2030실천운동이 출범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9) 정재원,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언,” 『군선교신학』 11 (2013), 54.

〈비전2020실천운동 전략〉¹⁰⁾

3 천 7 백 만 성 도 의 나 라	군 인 교 회	• 목표 - 매년 군인신자 25만 명 배출 (군인 세례 인원 22만 명+입대 세례교인 3만 명) - 2020년까지 62만 명 배출 (매년 25만 명×25년)
		• 주요 활동 :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 - 목표 달성을 위한 기도 - 적극적인 전도와 세례 - 양육과 일반 교회 연결 - 군선교 기관과 협력
	일반 교 회	• 목표 - 미래등록교인(매년 군인신자 25만 명 영입) - 가정복음화 : 625만 믿음의 가정 (매년 25만 명×25년) - 민족복음화 : 3,700만 성도의 나라 (625만 명×4인 가족=2,500만 명) (매년 25만 명×25년)
		• 주요 활동 :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VIP 가족 전도 10대 실천사항 - 예비등록교인 관리: 기도, 교제(서신, 전화, 심방, 초청) - 세례식 후원: 1:1 연결을 통한 고정 지원 - 가족 전도: 본인 전역 전 가족 집중 전도 - 전역 후 영접: 본인 출석
	실 천 운 동 본 부	• 목표 - 25만 명 후원교회 선정 연결 - 매년 25만 명 관리 배출 확인
		• 주요 활동 - 25만 명 양육 관리 후원교회 확대 관리 - 후원교회의 적극적인 실천 보장 - 군인교회, 일반 교회 사역 협력 총괄

2. 주요 전략과 성과

비전2020실천운동은 “전도·양육·파송”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군선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화한 것이었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이를 통해 군 복무 중의 신앙 체험을 일시적 사건으로

10)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아주 특별한 선교」(창간호) (서울: 한국군선교연합회, 2002), 61.

끝내지 않고,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신앙 여정으로 정착시키려는 목적을 지녔다.

1) 전도 전략: 전군신자화 운동과 진중세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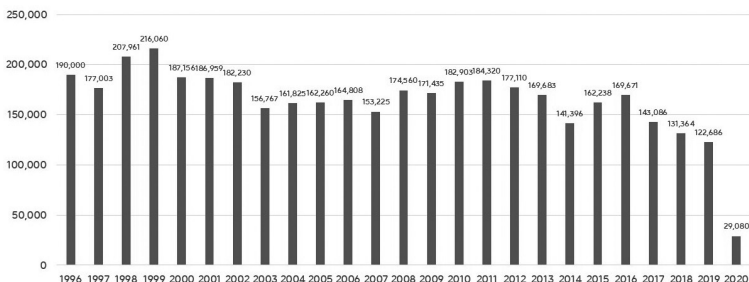
비전2020실천운동의 전도 전략은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진중세례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국교회는 매년 약 30만 명이 군에 입대하는 상황을 ‘민족복음화를 위한 최대의 선교 기회’로 인식하였으며, 비전2020실천운동은 이들 중 최소 22만 명을 매년 세례로 인도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목표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출범케 한 제2차 진중세례운동으로 1992년부터 진중세례 인원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비전2020실천운동 기간인 25년간 누적 세례 인원은 약 407만 명에 달했다. 이는 목표치인 625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초코파이 세례, 트리플 크라운¹¹⁾ 등 값싼 세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단일 선교운동으로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관문부대’라고 불리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훈련소와 사관학교, 학생군사학교, 부사관학교 등은 진중세례운동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이곳에서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은 군선교의 상징적 장면으로 자리 잡았다.

11) “트리플크라운이란 한 명의 훈련병이 기독교의 세례, 가톨릭의 영세, 불교의 수계를 모두 받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임” cf. 정재원, *op. cit.*, 69.

〈연도별 수세 실적 현황, 1996~2020〉¹²⁾



2) 양육 전략: 군인교회와 군선교교육원을 통한 신앙훈련

비전2020실천운동은 세례받은 장병들을 단순히 ‘통계적 성과’로 남기지 않고, 실제적인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군인교회와 현장 사역자를 중심으로 한 양육체계를 세우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부대에 1,000개가 넘는 군인교회를 신축·보강하였으며, 장병들이 주일예배에 참여하고 양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2007년 설립된 군선교교육원은 군선교 사역자를 희망하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12주간 훈련하여 부대에 파송함으로써, 그동안 각 교단, 개교회별로 군선교 사역자를 파송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군선교 사역자의 군 사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장병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양육 전략은 비전2020실천운동이 단순한 ‘진중세례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 성숙과 공동체 훈련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성과였다.

3) 파송 전략: 결연교회 제도를 통한 민간교회 연결

12) 군선교연합회(MEAK), 『제53차 정기총회 보고서』(2024. 3. 7), 160.

비전2020실천운동의 마지막 전략은 파송이었다. 매년 제대하는 약 25만 명의 장병들이 군 복무 중 형성한 신앙을 전역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군인교회와 민간교회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결연교회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전국의 교회들이 군인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전역 장병을 환대하고 정착을 지원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군선교연합회(MEAK)는 전역 장병의 신앙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카드·백색카드 제도를 도입하였다. 녹색카드는 세례를 받은 장병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군선교연합회(MEAK)에 보고하는 용도였고, 백색카드는 전역 후 해당 장병이 민간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세례 당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전역 이후 사후적으로 연결을 시도하는 방식이었기에 시간적 시차가 불가피했고, 실제 교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은 행정적·구조적 한계로 인해 파송 전략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그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중세례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수백만 명의 세례자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한국교회와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단계가 미비했다는 점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4) 조직적 기반: 국내·외 지회 설립과 후원 체계

비전2020실천운동은 단순히 구호적 운동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는 국내 16개 지회와 해외 10개 지회를 조직하여, 각 지역 교

회와 성도들이 군선교 후원과 협력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각 교단별로는 군선교 기관 혹은 후원회를 창립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이 운동에 협력하는 외양을 갖추었고,¹³⁾ 더 나아가 지교회별로 후원교회로 등록하고 동판을 부착한 교회가 늘어났다. 이를 통해 군선교 재정을 확보하고, 해외 한인교회까지 군선교의 네트워크에 참여시키는 확장성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조직적 기반은 군선교가 한국교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되고, 범교단적 협력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군선교연합회(MEAK) 지회 현황〉¹⁴⁾

국내지회(16개)					
충부지회	부산지회	대경지회	광주지회	동부지회	제주지회
전북지회	충북지회	울산지회	경남지회	강원지회	전남지회
강원영동지회	충남지회	경북지회	경인지회		
해외지회(10개)					
필라델피아지회	LA지회	시애틀지회	시카고지회	워싱턴지회	뉴욕지회
달러스지회	애틀랜타지회	뉴저지지회			
호주지회					

5) 6·25 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의 재개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과 가운데 특히 주목할 점은 6·25 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의 재개이다. 이 성회는 1969년 7월에 제1회 기독교장병 구국성회가 열린 이후 실시하지 못하다가, 1992년부터 다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개 이후 기독교장병 구국성회는 기독교

13) 주연중, “비전2020실천운동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군선교, 청년』 19 (2020), 23.

14) 주연중, *Ibid.*, 22.

장병들이 대규모로 모여 예배드리고 신앙을 결단하며, 헌신을 새롭게 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구국성회는 코로나19로 개최가 제한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진행되어, 2025년까지 총 34회가 개최되었다. 구국성회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대표적 영적 축제이자 동력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수천 명의 장병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를 얻었다. 더 나아가 2024년부터는 한국 주요 교회를 초청하여 결연축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독장병이 한국 교회와 만나는 접점의 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신앙 결단의 자리에서 나아가, 전역 후 신앙 정착과 파송을 구체화하는 통로로 기능하게 되었다.

6) 종합적 성과와 평가

비전2020실천운동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25년 동안 지속된 한국 군선교의 대표적 실천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무엇보다도 전도·양육·파송이라는 3대 전략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군선교를 단순한 현장 사역 수준을 넘어 범교단적·전국적 운동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첫째, 비전2020실천운동은 전도 성과에서 탁월한 결과를 남겼다. 25년간 약 407만 명의 세례 인원을 배출한 것은 단일 선교운동으로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과였다. 이는 “군은 한국교회의 최대 선교지”라는 인식을 한국교회 안에 뿌리내리게 했으며, 실제로 군선교가 한국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양육과 조직 기반의 측면에서 군인교회 신축·보강과 군선

교교육원의 설립, 그리고 국내외 26개 지회의 조직화는 군선교가 보다 제도적·지속적 사역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하였다. 이는 군선교를 개교회와 일부 헌신자에 의존하는 운동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공적 과제를 제도적으로 천명한 성과였다.

셋째, 파송 전략은 실질적 성과가 제한적이었으나, 신앙의 연속성을 고민하고 제도적 장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녹색카드·백색카드 제도와 결연교회 제도가 행정적·구조적 한계로 인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지만, 군 복무 중 신앙을 전역 이후에도 이어가려는 신앙 선순환 모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후 비전2030 실천운동의 ‘파송 중심’ 전략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되었다.

넷째, 6·25 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의 재개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대표적 영적 성과였다. 매년 수천 명의 장병들이 대규모로 모여 신앙을 결단하고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경험을 통해, 군선교는 한국교회 청년 사역과 직결되는 영적 동력을 공급받았다. 이는 이후 결연축제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영적 축제에서 나아가 군과 교회가 만나는 접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비전2020실천운동은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세례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역 후 교회 정착률이 낮았다는 점, 파송과 결연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실적 위주의 목표 설정이 사역의 질적 성숙을 제한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이후 비전2030실천운동이 “세례 중심→파송 중심”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종합하자면, 비전2020실천운동은 한국 군선교 역사에서 획기적

전환점이었다. 비록 한계가 존재했으나, 군선교를 한국교회 전체의 과제로 부각시키고, ‘전도·양육·파송’이라는 구조적 모델을 제시했으며, 구국성회와 같은 영적 축제를 통해 군선교의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였다. 따라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한국 군선교의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정표적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 비전2030실천운동 분석

1. 추진 배경과 목표

비전2030실천운동은 25년간 이어져 온 비전2020실천운동의 종료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적 요청 속에서 출범하였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라는 표어 아래 관문부대 진중세례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한국 군선교의 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파송·결연 영역의 미진, 실적 위주의 목표 설정이라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이 종료되자, 한국교회와 군선교 현장에서는 이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였다.¹⁵⁾

그러나 당시는 군선교의 복합적 도전 상황이 맞물려 있었다. 2018년까지 연무대군인교회 건축에 많은 역량이 투입된 이후, 군선교연합회(MEAK) 내부의 리더십 교체와 조직 개편이 이어지면서 비전2020실천운동을 대체·승계할 새로운 비전의 핵심 슬로건과 실행 전략이 적시에 준비되지 못하였다.¹⁶⁾ 이러한 준비 부족 상황에서

15) 최석환 목사(예)대령, 초대 비전2030실천운동 추진본부장) 인터뷰, 2025. 8. 14.

16) *Ibid.*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군인교회 예배와 진중세례를 포함한 핵심 사역들을 사실상 중단시켰고, 그 종료 시점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이로 인해 비전2020실천운동 이후의 새로운 운동은 곧바로 출범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2021년 10월 국군중앙교회에서 열린 선포식을 통해서야 비전2030실천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비전2030실천운동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 국교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례, 전도·양육, 파송을 3대 중점 사역으로 설정하였다.¹⁷⁾ 특히 강조된 것은 파송으로, 이는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신앙 경험이 전역 후 지역교회 정착으로 이어져 군인교회와 민간교회가 맞물리는 신앙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세례 중심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한국교회와 군선교를 긴밀히 연결하려는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군선교연합회(MEAK) 주도→군종목사단 중심 현장 주도”라는 개념 전환이 함께 이루어졌다. 군선교연합회(MEAK)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군종목사단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역할 재배치는 비전2030실천운동의 추진 체계를 이해하는 핵심 맥락이 된다.

기존 비전2020실천운동이 진중세례와 전도 확장을 통해 군 복무 기간 내의 회심과 신앙 형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비전2030실천운동은 그 성과를 계승하되 초점을 “파송과 정착”으로 이동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즉, 군 복무 중 형성된 신앙이 군인교회에서 양육되고 전역 이후 지역교회 정착으로 이어져 청년 세대가 신앙 안에서

17) 비전2030실천운동 추진본부, *op. cit.*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매뉴얼에서는 연간 10만 파송(신규 세례자 6만, 기세례자 4만)과 10년간 100만 파송이라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매뉴얼은 단순한 수치 달성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실제적 돌봄”과 “전역 후 신앙의 지속”을 성과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분명히 하였다. 다시 말해, 비전2030 실천운동의 목표는 계량적 성과의 달성이 아니라 사역의 방향성과 구조적 전환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군선교가 한국교회 전체의 청년 사역과 선교적 연대를 이루는 것을 지향한 것이다.

2. 추진 구조와 운영 방식

비전2030실천운동은 추진 구조에서 주도권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비전2020실천운동이 군선교연합회(MEAK)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과 달리, 비전2030실천운동은 군종목사단 중심의 현장 주도를 핵심 원리로 삼았다. 이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운동의 개념 자체를 “본부 주도형”에서 “현장 실행형”으로 이동시키려는 의도였다. 군선교연합회(MEAK)는 지원적·보완적 기능(행정·재정 지원, 한국교회와의 연계)을 담당하고, 군종목사단은 실제 사역의 실행과 관리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추진본부는 크게 세례분과, 전도·양육분과, 파송분과, 홍보분과로 구분되었다. 세례분과는 관문선교부대 훈련병 대상 진중세례식, 자대 기간병 대상 제자 찾기 세례로 구분하였으며, 양육분과는 훈련소·부대별 전도 프로그램과 제자훈련을 담당하였다. 파송분과는 비전2030실천운동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영역으로, 전역 예정장병들을 거점교회와 연결하고 결연 사역을 체계화하는 기능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홍보분과는 비전2030실천운동의 비전과 성과를

한국교회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구조를 토대로 추진본부는 연간 계획 수립과 분기별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과제를 점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¹⁸⁾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군중목사단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군중목사는 보통 2년 단위로 보직 이동을 하게 되고,¹⁹⁾ 한국군중목사단장, 비전2030실천운동 추진본부장 등 리더십이 매년 교체되는 구조가 있다 보니, 비전2030실천운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군중목사는 교회 사역, 부대 군중 업무,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삼중 부담 속에서, 비전2030실천운동은 제도적 시스템보다는 개인적 헌신과 사명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더 나아가 군선교연합회(MEAK)와 군중목사단 간의 협력은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본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이 현장으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상호 간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 또한 미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초대 추진본부장이었던 최석환 목사는 “군중목사단장은 군선교연합회(MEAK)와의 주기적 소통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선교연합회(MEAK) 이사(혹은 명예이사)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비전2030실천운동의 지속성과 연합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임을 시사한다.

결국 비전2030실천운동의 추진 구조는 기존의 본부 중심 구조

18) *Ibid.*

19) 군중목사의 보직 이동은 각 군인교회 담임목사의 교체를 의미한다.

에서 현장 주도형 구조로 전환하려는 진전이 있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군종목사의 보직 순환, 개인 헌신 의존, 제도적 협력 부재라는 구조적 제약을 노출하였다.

3.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비전2030실천운동은 출범 직후부터 여러 현실적 제약과 난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그리고 구조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제약이다. 출범 초기, 대면예배와 진중세례식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비전2030실천운동 매뉴얼에서 제시한 연간 10만 파송 목표는 실행 불가능한 수치가 되었다. 이는 운동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라는 비전의 정신은 의미 있게 제시되었으나, 동시에 “매년 10만 명을 한국교회로 파송한다”는 구호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군인교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장 구성원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처럼 인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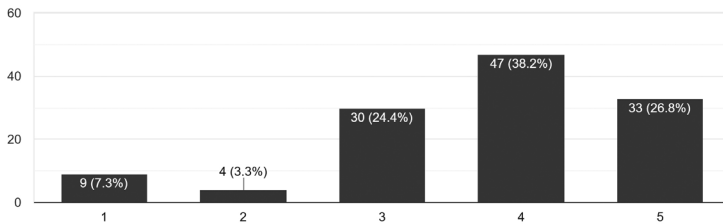
둘째, 공감과 체감의 불일치이다. 2025년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전2030실천운동의 정신과 방향성(한 영혼, 파송 강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123건 중 80건, 65%)이 부정적 응답(13건, 10.6%)보다 여섯 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동시에 “비전2030은 성공한 운동이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50건, 40.7%)이 긍정적 응답(23건, 18.7%)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군종목사단, 군선교 사역자, 군선교연합회(MEAK) 간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에도 부정적 응답(54건, 43.9%)이 긍정적 응답(24건, 19.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를 통해 볼 때, 구성원들은 비전2030

실천운동의 정신에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운동이 원활히 구현되고 있다는 체감은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육군군종목사단장이었던 정비호 목사(대령)는 그 원인으로 △비전2030실천운동과 관련해 위관급 군종목사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점, △파송 영역에서 ‘거점교회’ 개념과 선정 기준을 둘러싼 혼선으로 소모성 논쟁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다.²⁰⁾

〈비전2030실천운동 인식 설문조사 결과〉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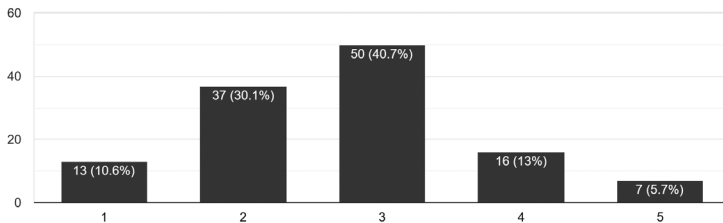
Q16. 향후 군선교현장에서 비전2030의 정신은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응답 123개



Q15. 비전2030은 성과가 한계보다 많았던 성공한 운동이다

응답 12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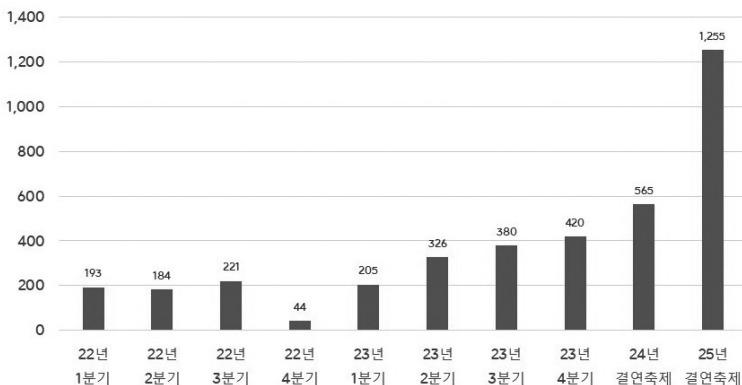


20) 정비호,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2030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 「군선교, 청년」 23 (2024), 28.

21) 연구자 실시, “비전2020·2030실천운동 인식 및 평가 설문”(2025. 8. 11.~18).

셋째, 성과 집계 체계의 부재이다. 비전2030실천운동 매뉴얼에서 제시한 파송 목표와 달리, 지난 4년 동안 공식적으로 집계된 파송 실적은 총 3,793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2022년 642명, 2023년 1,331명은 육군군종목사단 중심으로 집계된 실적이며, 해군·공군·해병대의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4년 565명과 2025년 1,255명은 모두 6·25 상기 구국성회 결연축제 단일 행사의 집계치일 뿐, 군종목사단 차원의 정기적·체계적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는 실제 파송 실적이 미비하다기보다는, 실적을 종합·관리하는 집계 방식과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집계 방식이 정비된다면 파송 실적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비전2030실천운동 파송 현황〉²²⁾



22) 비전2030실천운동 추진본부, 『비전2030실천운동 추진 현황 보고서』(서울: 한국군종목사단, 2023).

넷째, 군선교 주체 간 소통 부족이다. 군종목사단·군선교연합회(MEAK)·한국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일찍부터 강조되었으나, 이를 제도화할 정기적 협의 구조가 부재하였다. 이로 인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현장 사역에 원활히 접목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략과 실행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절적 운영은 운동의 지속성과 현장 적합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성과와 한계

비전2030실천운동은 출범 과정의 제약과 현장 여건의 한계 속에서도 방향성과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냈으며, 동시에 집체 체계와 구조적 기반의 취약을 드러냈다. 따라서 성과와 한계를 단순히 성공/실패의 이분법으로 평가하기보다, 전환기적 운동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현장 사역자 중심과 파송 초점으로서의 전환

비전2030실천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세례 중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초점을 “파송과 정착”으로 이동시킨 점이다. 특히, “군선교연합회(MEAK) 주도→군종목사단 중심”이라는 구조적 전환은 단순한 주체 교체가 아니라, 현장 사역자(군종목사·군선교사)가 주도적으로 파송을 실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려는 시도였다.

신학적으로도 이 전환은 의미가 크다. “한 영혼”이라는 슬로건은 단순히 회심과 세례에 국한되지 않고, 전역 이후 민간교회에 정착하는 과정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가치로 확장되었다. “100만 장병”이라는 수치 또한 양적 지표의 달성 여부를 넘어 방향성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 초대 추진본부장 최석환 목사 역시 이를 “패러다임

전환과 군종목사단 주도의 합의, 그리고 3군이 한목소리를 내는 성과²³⁾”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는 군선교가 더 이상 단발적 결실에 머무르지 않고, 민·군 교회를 잇는 신앙 생태계로 나아가려는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비전의 계승 필요성(Q10, Q16) 항목에서 모든 집단이 비전2020보다 비전2030의 계승에 더욱 높은 동의를 보였다. 군종목사의 경우 평균 3.02점(Q10)과 3.62점(Q16), 군선교 사역자는 3.11점(Q10)과 3.47점(Q16)을 기록하였다. 특히, 군인교회 구성원(MCF, 준부사관, 여전도회 등) 집단은 비전2020 계승 4.03점, 비전2030 계승 4.12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뚜렷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군인교회 구성원들은 비전2030실천운동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신이 군인교회를 섬기는 이유와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즉, 군선교 현장에서는 비전2030실천운동 실행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세례에서 파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현장 사역자와 군인교회 구성원 모두가 일정한 공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구국성회 결연축제를 통한 파송 가능성의 실증

2024년부터 도입된 구국성회 결연축제를 통해 파송 영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단일 행사에서 2024년 565명, 2025년 1,255명의 결연 성과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군인교회 파송 실적의 1년 수치에 맞먹는 수치이다. 이는 파송 사역이 단순한 목표치를 넘어, 잠재력이 현장에서 어떻게 폭발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

23) 최석환 목사(예) 대령, 초대 비전2030실천운동 추진본부장) 인터뷰, 2025. 8. 14.

는 사례였다.

특히 이 결연축제는 단순히 군 복무 중 형성된 신앙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전역 후 교회와 단절된 청년들이 다시금 지역교회와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신앙의 기반은 있으나 입시, 진학, 취업 등 생애주기의 변화로 청년기에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구국성회 결연축제를 통해 다시 연결되는 사례는 비전2030실천운동의 파송 정신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파송·결연 사역이 청년들의 신앙 유지를 넘어 청년 세대의 신앙 회복, 지역교회의 청년 사역 활성화, 전역 장병의 이단 유입 방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4년과 2025년의 파송 실적은 구국성회 결연축제 단일 행사 동안 발생한 결과이며, 최근 2년간 파송 영역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체계적 집계를 마련하고 군인교회가 파송 영역에 역량을 집중할 경우, 잠재된 성과가 더욱 크게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준비 부족과 구조적 한계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과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났다.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이 출범 당시 동력을 제약했을 뿐 아니라, 매뉴얼에서 제시된 연간 10만 파송 목표는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목표였다. 4년간 공식 집계된 파송 실적은 3,793명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전군 차원의 통합적 집계라기보다는 일부 행사나 특정 시점에서 국한적으로 수합된 결과였다. 이는 성과 부재라기보다, 성과를 계량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비전2030실천운동 추진본부의 구성 자체가 한계를 내포

하고 있었다. 비전2030실천운동 추진본부는 군종목사로만 구성되어 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교회, 군선교 유관기관의 폭넓은 참여가 배제되었다. 그 결과 비전2030실천운동은 군 현장의 목회자적 시각은 반영했으나, 행정·재정·연합적 차원의 시너지 창출에는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해, 비전2020실천운동은 25년간 이 필섭 장로(1996~2002), 김진영 장로(2002~2020) 단 두 명의 추진본부장이 연속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주요 책임자의 변동이 최소화한 상태로 안정적인 조직을 유지하며 비전2020실천운동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비전2030실천운동은 출범 이후 매년 추진본부장이 교체되면서²⁴⁾ 일관성 있는 정책 제시와 장기적 전략 추진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단기적 리더십 구조는 정책과제의 축적과 발전을 방해하였고, 결과적으로 운동의 안정적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비전2030실천운동의 한계는 단순히 외부 환경의 불리함 때문만이 아니라, 편중된 추진본부 구성과 연속성 없는 리더십 구조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비전2030실천운동을 전개할 경우, 추진본부의 다원적 구성(군·연합회·교단·지역교회 연계)과 리더십의 안정적 유지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종합적 평가

비전2030실천운동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계승함과 동시에, “파송”이라는 새로운 사역적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운

24) 초대 추진본부장 대령 최석환 목사(2021~2022), 2대 추진본부장 대령 문효빈 목사(2022~2023), 3대 추진본부장 대령 김택조 목사(2023~2024).

동의 효과는 아직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준비 부족, 구조적 한계, 제도적 미비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와 실천은 비전 2030실천운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제적 성과로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군선교연합회(MEAK)의 행정 지원을 통한 연 중 파송 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 집계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군종목사단-군선교연합회(MEAK)-한국교회가 상호 보완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연합 구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군 현장과 한국교회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파송 중심의 선교 패러다임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발전적 계승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IV. 향후 군선교 과제와 제언

1. 성과에 대한 계승과 한계 극복

비전2020실천운동과 비전2030실천운동은 한국 군선교 역사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운동으로 평가된다. 두 운동은 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군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나, 동시에 실적주의, 파송 및 정착의 미비, 협력 구조의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따라서 향후 군선교의 과제는 이들 운동이 남긴 성과를 계승하되,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하겠다.

1)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과와 교훈

비전2020실천운동은 진중세례운동을 제도화하여 25년간 약 407만 명의 장병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1,000여 군인교회 건축·보강,

군선교교육원 설립, 국내외 지회 조직, 군선교신학회 창립 등을 통해 군선교를 한국교회 전체의 공적 과제로 부각시켰다. 이는 “군은 한국교회의 최대 선교지”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군선교가 한국교회 청년사역의 중요한 기반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동시에 비전2020실천운동은 실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세례자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전역 후 교회 정착률은 낮았고, 양육·파송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목표치(연간 22만 명, 기신자 3만 명, 총 625만 명 세례교인 파송)와 실제 성과(약 460만 명)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했으며,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를 기독교인으로 세운다”는 비전 역시 현실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인구주

〈종교유형별 인구(1995, 2005, 2015)〉²⁵⁾

(단위: 천명, %)

구분	인구			구성비		
	1995년	2005년	2015년	1995년	2005년	2015년
계	43,834	46,352	49,052	100.0	100.0	100.0
종교 있음	22,100	24,526	21,554	50.4	52.9	43.9
불교	10,154	10,588	7,619	23.2	22.8	15.5
기독교	8,505	8,446	9,676	19.4	18.2	19.7
천주교	2,885	5,015	3,890	6.6	10.8	7.9
원불교	86	129	84	0.2	0.3	0.2
유교	210	104	76	0.5	0.2	0.2
천도교	28	45	66	0.1	0.1	0.1
대종교	7	4	3	0.0	0.0	0.0
기타	225	196	139	0.5	0.4	0.3
종교없음	21,735	21,826	27,499	49.6	47.1	56.1

택총조사에 따르면, 기독교(개신교) 인구는 967만 명²⁶⁾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처음으로 불교 신자(762만 명)보다 200만 명이 많은 수치였으며, 기독교(개신교)가 처음으로 한국 최대 종교가 된 점은 성과

25) 통계청, 『1995·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26)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2016. 12. 19.

이지만, 종교인구 구성비로는 20년 전보다 0.3% 늘어난 수치로 당초 설정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결과적으로 비전2030실천운동이 “세례 중심→파송 중심”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2) 비전2030실천운동의 성과와 교훈

비전2030실천운동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 국교회로”라는 구호 아래, 단순한 회심을 넘어, 전역 후 정착까지 포괄하는 사역을 강조하였다. 또한 군선교연합회(MEAK) 중심의 본부 주도형 구조에서 벗어나, 군종목사단 중심의 현장 주도형 구조를 지향한 점은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비전2030실천운동 역시 준비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노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출범 초기의 동력을 약화시켰고, 군종목사단의 보직 순환과 리더십 교체도 운동의 연속성을 저해하였으며, 무엇보다 연간 10만 파송이라는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명백했음에도 그대로 제시되어 현장의 공감대와 동기부여를 약화시켰다. 실제 4년간(2021~2025) 집계된 파송 실적은 3,793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정기 보고를 통한 집계는 2년에 그쳤고, 2024~2025년의 수치는 기독교장병 구국성회 결연축제라는 단일 행사에서 나온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송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이후, 파송 영역에 대한 현장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결연축제는 파송 사역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향후 계승과 극복의 방향

향후 군선교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성과 계승이다. 진중세례를 통한 회심 경험과 군 복무 중 형성된 신앙은 여전히 군선교의 강력한 자산이다. 따라서 비전2020 실천운동의 세례 운동을 계승하고, 비전2030실천운동이 강조한 “한 영혼”과 “파송”의 가치를 접목하여, 양적 성과와 질적 성숙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둘째, 한계 극복이다. 단순히 세례자 수를 성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례-양육-파송의 전 과정에서 장병이 실제로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에 정착했는가를 성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성과 집계 체계를 정비하고, 파송 실적을 추적·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체계적 관리와 선택과 집중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전2030실천운동 초기 월별 보고 양식은 지나치게 방대하여 현장에서 실행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는 세례 인원과 파송 인원 집계에 집중하고, 특히 파송 인원은 “전역 장병이 어느 교회에 파송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보고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양육 영역은 현장 사역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군선교연합회(MEAK) 차원에서는 각 현장 사역자와 직접 소통하며 세례와 파송 실적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결연교회의 청년공동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세례·파송 현황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현장 사역자에게 제공한다면 간편하면서도 내실 있는 관리 시스템이 될 것이다.

〈비전2030실천운동 보고 양식〉²⁷⁾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100만 장벽을 한국교회로!



육군군종목사단 2022년 00월 비전2030 추진 현황

< 육군 종보분과장 중령 000 목사, 22. 00. 00.(목) >

세례분과	관문세례	간부후보생	훈련병		합계								
		세례	축복기도	세례	축복기도	세례	축복기도	총계					
	제자찾기세례	간부/가목/민간인	용사	유아/아동		합계							
지역단	경기 서부 (구본인)	경기 동부 (구본인)	경기 동부 (구본인)	경기 남부 (구본인)	경기 북부 (구본인)	경기 강원 (구본인)	경기 충청 (구본인)	서울	대전	충부	충북	영남	호남
제1차구													
제2차구													
제3차구													
전도/양육 분과	제자양육	TEE	여성경	하나복	기타	합계							
	제자찾기						합계						
	대대급교회						합계						
	지침(아울러)						합계						
지역단	경기 서부 (구본인)	경기 동부 (구본인)	경기 동부 (구본인)	경기 남부 (구본인)	경기 북부 (구본인)	경기 강원 (구본인)	경기 충청 (구본인)	서울	대전	충부	충북	영남	호남
제1차구													
제2차구													
제3차구													
파송분과	기초교회 연결	간부/군무원		용사		합계							
	거점교회 연결	간부/군무원		용사		합계							
	거점교회 확보	교회(교단)		담당목사	담당사역자	연락처	복보군목단						
	지역단	경기 서부 (구본인)	경기 동부 (구본인)	경기 동부 (구본인)	경기 남부 (구본인)	경기 북부 (구본인)	경기 강원 (구본인)	경기 충청 (구본인)	서울	대전	충부	충북	영남
기초교회 연결													
거점교회 연결													
종보분과	종보분과												
	비전2030												
	전역사항												

비전2030 육군추진본부

2. 군선교 주체 간 협력 구조 재정립

비전2020실천운동과 비전2030실천운동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는 군선교 주체 간의 협력 부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비전2030실천운동 기간 동안 군종목사단·군선교 사역자·군선교연합회 주체 간 협력 효과성을 묻는 Q14 항목의 평균값은 군종목사 2.42점, 군선교 사역자 2.79점,

27) 비전2030실천운동 추진본부, 『비전2030실천운동 추진 현황 보고서』 (서울: 한국군종목사단, 2022).

군인교회 구성원 3.08점에 머물렀다. 이는 세 집단 모두 협력의 체감도가 낮았으며, 현장의 사역자들이 주체 간 협력 구조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군선교연합회(MEAK)의 행정·지원 허브로서의 역할”을 묻는 Q24 항목에서는 군종목사 4.1점, 군선교 사역자 4.26점, 군인교회 구성원 3.6점으로 군선교 현장에서 군선교연합회(MEAK)가 직접적 사역 주체라기보다 행정·재정적 지원의 허브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역 연한별로 분석한 결과, 0~5년 차(4.08점), 6~10년 차(4.17점), 11~15년 차(4.09점) 집단은 모두 높은 기대치를 보인 반면, 16년 이상 장기 사역자는 3.72점에 그쳐, 비전2020실천운동을 경험했던 세대일수록 군선교연합회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현실도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협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군선교 주체 간 신뢰 회복이라는 더 근본적인 과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선교연합회(MEAK) 중심의 본부 주도형 구조였으며, 비전2030실천운동은 군종목사단 중심의 현장 주도형 구조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구조는 각각 다른 한계를 드러냈다. 향후 군선교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종목사단, 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교회가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협력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

1) 군종목사단(군선교 사역자): 현장 사역의 주체

군종목사단은 장병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복음전도, 양육, 파송을 직접 실행하는 핵심 주체이다. 따라서 현장 실행의 중심은 반드시 군종목사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2년마다 이뤄지는 보직 순환, 군종목사단장의 1년 임기에 따른 잦은 리더십 교체, 목회와 군종 업

무 병행으로 인한 과중한 행정 업무는 사역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종목사단은 군선교 사역자와 협력하여 관문부대 세례 사역과 기독교장병 한국교회 재파송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군선교연합회(MEAK)와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과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군선교연합회(MEAK): 행정·재정 지원의 허브

군선교연합회(MEAK)는 전국 교회와의 연결망, 재정 동원력, 행정 지원 역량을 갖춘 기관이다. 따라서 군선교연합회(MEAK)는 현장 사역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행정·재정 지원의 허브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파송 영역은 현장에서 수행될 때 효과성이 극대화되므로, 군선교연합회(MEAK)는 직접적 개입보다 △결연교회 정보 제공, △성과 집계와 보고 체계의 표준화, △재정 지원 시스템의 안정화, △전국 교회와의 결연·후원 연계를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3) 한국교회: 후원과 파송의 책임

한국교회는 군선교의 배후 공동체로서 장병들이 전역 후 신앙을 이어갈 파송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단과 개교회는 △군인교회와의 자매결연, △전역 장병 환대 및 정착 프로그램 마련, △청년사역과 군선교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군선교는 단순한 군 내부 사역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청년사역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파송 사역은 실제적 결실을 맺을 수 있다.

4) 협력 구조의 제도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세 주체의 협력이 개인적 관계나 일시적 캠페

인에 머물지 않고 제도화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종목사단·군선교연합회(MEAK)·교단(군선교 담당자)으로 구성된 정기적 협의체 마련, △성과 공유와 피드백 체계 정립, △구국성회 결연축제와 같은 공동 프로젝트의 제도적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비전2030실천운동 추진본부가 재편될 경우에는 세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다원적 거버넌스 구조로 설계하여, 특정 주체로 편중되는 운영을 지양해야 한다. 나아가 각 주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롬 8: 28) 협력의 원리를 따라, 서로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3. 파송 사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

비전2030실천운동의 핵심적 전환은 세례 중심 사역에서 파송 중심 사역으로의 이동이었다. 그러나 출범 이후 4년 동안 파송 실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집계 방식도 통일되지 않아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의 구국성회 결연축제를 비롯한 일부 시도는 파송 사역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향후 군선교가 실제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파송 사역이 단발적 이벤트를 넘어 제도화·정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1) 구국성회 결연축제의 정례화와 확대

2024년부터 군종목사단 주도로 시작된 구국성회 결연축제는 “기독장병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직접 연결한다”는 당시 추진본부장 대령 김택조 목사의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형화된 구국성회 형식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변화였으며, 첫해인 2024년에는 565명, 2025년에는 1,255명의 장병이 한국교회

와 결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대신자뿐 아니라, 진학·취업·이사 등의 이유로 신앙생활이 단절된 많은 청년들이 교회와의 새로운 연결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청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결연축제는 장병 개인의 필요와 각 교회의 환대가 직접 만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파송 사역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별 참여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전라·경상·제주 지역에서는 단 한 개 교회(부산 수영로교회)만이 참석한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33개 교회가 참석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향후에는 지역별 주요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국성회 결연축제가 군선교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청년 선교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

〈제34회 기독장병 구국성회 결연축제 참가 교회〉

서울(17개)		경기(11개), 인천(5개)		대전(6개)	충청부산강원(2)
꽃재교회	열방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지구촌교회	대전순복음교회	청주상당교회
남서울우리교회	영락교회	꿈과사랑의교회	충만한교회	대전신성교회	수영로교회
노원창일교회	주님의교회	동대문교회	포도나무교회	대전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뉴송처치	증가교회	만나교회	드림교회	디딤돌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삼일교회	지명교회	순복음의정부교회	송도가나안교회	오메가교회	
세빛가꾸른나무교회	진관감리교회	신갈감리교회	송의감리교회	유성중앙침례교회	
시티미션교회	해방교회	안양감리교회	필그림교회		
신길교회	명성교회	일산광림교회	주안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2) 파송 인증서 제도와 보고 체계의 일원화

파송 사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인증 제도와 일원화된 보고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선교연합회(MEAK)가 발행하는 표준화된 파송 인증서를 도입하여, 전역 장병이 어느 교회로 파송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기록해야 한다. 이는 장병들에게 꾸준한 예배 출석의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교회가 전역 장병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군선교연합회(MEAK)는 단순히 파송 교회의 명칭과 주소만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공동체 규모, △청년사역자 연락처, △청년부 비전과 활동 내용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현장 사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장병은 자신에게 적합한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고, 현장 사역자는 보다 효과적으로 한국교회와 장병을 연결할 수 있다.

나아가 군선교연합회(MEAK)는 각 현장 사역자의 세례·파송 실적을 체계적으로 추적·검증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선교 우수부대’, ‘세례 부문 우수부대’, ‘파송 부문 우수부대’ 등을 선정·격려한다면, 현장 사역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파송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파송 사역을 단순한 통계 집계 차원을 넘어, 군선교 현장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동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부대별 모범 사례 발굴과 확산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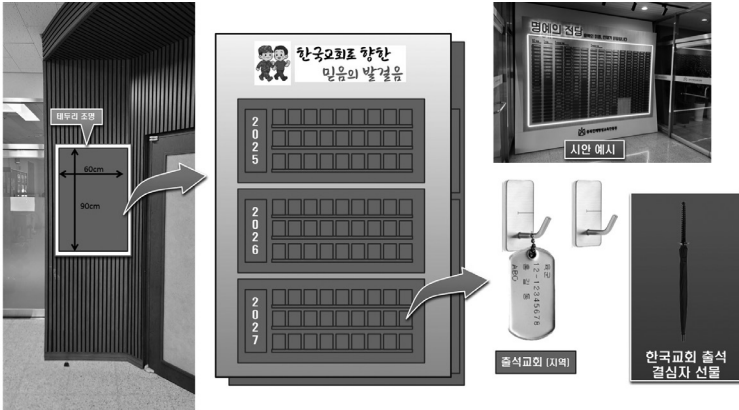
28) 아래의 사례는 연구자가 2025년 8월 7일에서 30일 사이 현장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내용임.

파송 사역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대별 창의적 시도와 모범 사례가 발굴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부대는 장병 파송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전역 장병의 교회 정착을 독려하기 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먼저, 육군본부 영내교회는 전역 장병 환송식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신앙적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켰다. 전역 장병에게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령의 검을 상징하는 장우산을 수여하는 ‘성령의 검 수여식’을 진행한 것이다. 이 환송예식은 전역 장병들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전역자를 축복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파송을 단순히 ‘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장병의 신앙 정체성을 강화하는 의례적 경험으로 승화시킨 모범적 사례로, 최근 장병의 출석이 세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5군단 승진교회는 ‘명예의 전당 Zone’을 마련하여 전역한 장병의 인적 사항과 파송 교회를 현판에 새겨 두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장병들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꾸준히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전역 이후에도 교회에 정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 단순한 기록 보관을 넘어, 장병들 스스로가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도록 돕는 교육적 효과를 지니며, 장병들의 예배 출석에 대한 동기부여를 고취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명예의 전당 Zone’ 시안, 5군단 승진교회〉



셋째, 강원동부지역 군종목사단(3군단)은 장병들의 결연교회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실질적 보상 체계를 도입하였다. 전역 혹은 휴가 중 결연교회에 출석한 장병이 인증사진을 보내면, 지역 군인교회 상회비로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 것이다. 이는 소소한 격려이지만, 장병들에게 신앙 공동체 참여의 즐거움을 체감하게 하였고, 실제 결연교회 정착률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파송 사역이 단순한 제도적 연결을 넘어, 장병의 신앙 정체성을 강화하고 교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군선교연합회(MEAK)와 군종목사단은 각 부대의 모범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굴·집계하고, 비전2030실천운동 콘퍼런스나 관문선교 콘퍼런스 등에서 공유함으로써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급 부대가 서로 학습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 공유는 현장 사역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파송 사역을 군인교회 전체로 확

산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비전2020실천운동과 비전2030실천운동을 비교·분석하고, 설문조사 및 인터뷰, 현장사례 검토를 통해 군선교가 직면한 성과와 한계를 조망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핵심은, 군선교가 지난 30년간 한국교회 청년사역의 핵심 현장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지속성과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군선교는 세례·양육·파송의 고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정립하고, 한국교회와의 협력 속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1. 연구 요약

비전2020실천운동은 25년간 407만 명 이상의 장병이 진중세례를 받는 성과를 거두며, 한국교회에 “군은 최대 선교지”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그러나 전역 후 교회 정착률 저조, 파송 체계의 미비, 실적주의라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반면 비전2030실천운동은 세례 중심에서 파송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며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잦은 리더십 교체, 성과 집계 부재 등으로 인해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구성원들은 비전2030실천운동의 정신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65%), 이를 성공한 운동으로 평가한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18.7%). 이는 비전2030실천운동이 제시한 가치와 방향성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력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2. 학문적 기여와 신학적 함의

본 연구는 군선교를 단순한 사역 보고 차원을 넘어, 신학적·선교학적 평가의 틀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비전2020 실천운동과 비전2030 실천운동의 연속성과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한국교회 청년사역의 맥락에서 군선교의 위치를 재규정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현장 인식과 실제 성과 간의 괴리를 드러내며, 기존 연구가 주로 성과 중심으로 접근한 한계를 보완하였다. 셋째, “세례-양육-파송”이라는 삼중 구조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며, 파송을 단순한 교회 연결이 아니라 교회론적·선교학적 과제로 확장하였다.

군선교신학적 차원에서 이는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군선교는 단순히 병영 복음화의 도구가 아니라, 청년세대의 신앙 여정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시키는 사역이다. 따라서 파송은 교회론적으로 ‘세례 공동체의 확장’이며, 선교학적으로는 ‘청년 선교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3. 실천적 제언

향후 군선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성과의 계승과 한계 극복이다. 진중세례는 여전히 강력한 선교 자산으로 남아 있으나, 이제는 통계적 수치보다 신앙 여정의 지속성을 성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파송을 통한 교회 정착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둘째, 군선교 주체 간 협력 구조 재정립이다. 군종목사단, 군선교 연합회(MEAK), 한국교회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제도적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특정 주체에 편중된 구조가 아니라, 다원적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상호보완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파송 사역의 제도화와 정례화이다. 구국성회 결연축제가 보여준 성과는 파송 사역의 잠재력을 입증한다. 이를 정례화하고 확대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청년선교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파송 인증서 제도, 교회 정보 제공, 우수 사례 시상 등을 통해 파송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장 사역자들의 동기부여를 높여야 한다.

넷째, 모범 사례의 발굴과 확산이다. 육군본부 영내교회의 성령의 검 수여식, 5군단의 명예의 전당, 3군단의 결연 인증사진 이벤트와 같은 창의적 시도는 파송 사역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을 정기적으로 공유·확산하여, 전국 부대가 서로 학습하고 벤치마킹하도록 해야 한다.

4. 미래 전망

군선교는 더 이상 군 내부에 국한된 특수 사역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청년선교 위기 속에서 군선교는 여전히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접점으로 기능한다. 복무 기간 동안 복음을 접한 장병들이 전역 후 교회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 한국교회는 청년세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군선교는 단순한 ‘군 복음화’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 미래세대 사역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앞으로 군선교는 세례·양육·파송의 삼중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군종목사단이나 군선교연합회(MEAK)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교단과 지역교회, 청년사역 단체가 동역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국방혁신 4.0에 따른 군 구조 변화, MZ세대 장병들의 가치관 다원화, 종교 무관심 확산 등 새로운 환경은 군선교가 반드시 대응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선교 전략이 수립될 때, 군선교는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동력이 될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청년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해법으로 기능할 것이다. 결국 군선교의 미래 전망은 ‘한 영혼’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교회와 군, 사회를 잇는 거룩한 통로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지향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비전2030실천운동의 경험은 장차 비전2040실천운동으로 계승·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와 군선교는 미래 세대를 향한 지속적인 사역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n Interim Evaluation and Tasks of the Vision 2030 Action Movement: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the Vision 2020 Action Movement and a Survey Analysis

Jin Sub Wi

This study evaluates the Vision 2030 Action Movement in comparison with the Vision 2020 Action Movement in the field of Korean military mission theology. Vision 2020 achieved remarkable results through large-scale baptism campaigns but exposed structural limitations in discipleship and post-service settlement. Vision 2030, launched in 2021 under the slogan “One Soul to Christ, One Million Soldiers to the Korean Church,” emphasized baptism, discipleship, and sending. However, survey findings revealed a clear gap between its vision and field implementation: while participants affirmed the movement’s spirit, they did not perceive it as effectively realiz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evangelistic legacy of Vision 2020 and the sending spirit of Vision 2030 must be inherited, yet structural issues—such as the excessive burden on military chaplains, reliance on voluntary dedication, and weak performance systems—must be addressed. Future military mission should strengthen the tri-fold structure of baptism, discipleship, and sending, foster cooperation with the Korean church, and

develop sustainable strategies in response to changing contexts, including Defense Innovation 4.0 and the pluralistic values of MZ-generation soldiers. Ultimately, military mission must serve as a vital bridge for the future of Korean church youth ministry and as a strategic avenue for advancing God's Kingdom.

Key Words

Vision 2020 Movement, Vision 2030 Movement, Military Mission, Baptism

논문 기고자 Email

wejinsub@hanmail.net

〈부록 1〉

비전2020실천운동 관련 인터뷰 전문

(예)대령 정성길 장로, 비전2020실천운동 총괄본부부장, 2025. 8. 18)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전2020실천운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셨던 장로님을 뵙고 인터뷰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비전2020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동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발화자 1(예)대령 정성길 장로)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1990년 1월에 육군훈련소 26연대장으로 발령받아 부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보직신고를 교육사령관이셨던 김진영 총장님께 했어요. 당시 총장님께서 “앞으로 2년 동안 당신 정 장로는 논산훈련소 연대야 전방하고 달라서 RCT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훈련병 세례운동을 일으켜봐라. 내가 있는 동안에 매달 2천 명 이상은 꼭 해야 한다. 그것이 내 기도제목이다”라고 하셨어요. 당시 훈련소는 세례 인원이 한 달 150~200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세 인원을 10배로 늘리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한 달에 2,000명, 1년에 2만 명씩 세례를 주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논산훈련소에 연대가 7개 있었는데, 보직신고하고 가보니까 마침 연대장들도, 훈련소장님도 신앙이 있는 분들이었고, 제가 마침 연대장 중

에 고참이어서 OCU(지금의 MCF) 회장을 가자마자 맡게 되어 세레운동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넉 달 만에 500명, 여섯 달 만에 1,000명,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매달 2,000명을 넘기 시작했어요. 제가 1991년 말에 나왔는데 매달 3,000명씩을 세레 주기 시작하니까 국민일보나 교계에 서 난리가 난 거예요. 현대판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호응을 하고, 군인교회의 세레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러한 변화를 1969년에 한신 장군을 통해 이뤄졌던 전군신자화 운동과 구별해서 제2의 전군신자화 운동이라고 했고,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보다 체계적으로 세레받은 장병들을 양육하고 파송해서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자고 했던 운동이었죠. 그 후 비전2020운동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96년 2월 비전2020실천계획 발표, 1998년 2월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개설(본부장 이필섭 장로, 총괄 부분부장 정성길 장로), 1998년 11월 비전2020 결의대회를 가지면서 비전2020실천운동을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저는 군선교 세레운동이 1969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던 줄은 몰랐습니다. 1970년대의 1차 진중세레운동, 1990년대의 2차 진중세레운동으로 이어져 왔네요. 그렇다면 비전2020의 핵심 목표와 슬로건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발화자 1(예)대령 정성길 장로)

‘비전2020실천운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1996년 기준으로 전 국민(4,500만 명)의 25% 기독교 신자(1,200만 명)를 향후 2020년에는 전 국민(5,000만 명)의 75%인 3,700만 성도의 나라를 건설하여 건강한 국가를 이룩하자는 애국애족운동이고, 군 차원에서 건전한 종교활동으로 장병들의 사생관 확립, 필승의 신념 배양, 부대 사고 예방 등 정신전력의 극대화와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해 건전한 모범시민으로 육성함과 민·군 상호 간의 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한다는 군의 기본방침에 적극 부응하는 신앙전력화운동이며, 한국교회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21세기 기독교운동입니다.

비전2020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가치와 철학은 먼저는 군 선교죠. 그리고 군선교는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로 연결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1년에 22만 명을 목표로 세례를 주고, 기존 신자 3만 명을 포함해 25만 명씩 25년을 세례를 베푼다면 625만 명이 되죠. 625만 명이 4인 가정을 이루면 2,500만 명인데 당시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었어요. 그렇게 합치면 3,700만 기독교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하자!’라는 비전을 제시했죠. 우선순위는 논산 훈련소와 사단 신교대를 통한 세례에 맞춰져 있었고, 1004군인교회를 통해 양육하고, 군선교연합회와 각 교단이 후원하고 연결되어서 이 비전을 성취한다는 포부를 가졌어요. 나름대로 양육과 파송 영역도 개념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세례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죠. 자평하기로는 군선교는 25년 동안 460만 명에게 세례를

주는 쾌거를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관심도 끌어내었지만 파송 영역에서 세례 장병이 한국교회로 연결되는 것이 부족했고, 민족복음화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비전2020운동을 해오시면서 아쉬우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발화자 1(예)대령 정성길 장로)

결국, 세례 인원이 양육, 파송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대교회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고, 교단의 후원이 부족했고, 중앙통제력이 부족했다 싶습니다. 사실, 각 교단에 군인교회를 권역별로 묶어서 해당 대대교회, 민간사역자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해보고, 각 군인교회와 자매결연을 하는 부분도 논의가 있었는데, 각 교단도 상황이 있고 개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중앙통제력에 대한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군선교연합회가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이 되어서 강력하게 유관기관에 요청하고, 추적하고, 문제점을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족하다 싶어요. 역할 배분을 하고, 교단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상황에 발 빠르게 전략 전술을 펼쳐야 하는데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과 파송과 관련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

니예요. 이전에는 군선교사라는 호칭 자체가 없었고, 각 교단별로 민간성직자를 파송하고 있었어요. 군선교연합회에서 대대급 교회 짓는 운동도 하고, 2007년에 군선교연합회 차원의 부설기구로 군선교교육원을 설립해서 민간성직자를 12주 교육시켜서 파송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도 결국은 장병들에 대한 양육과 파송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저는 보통 군선교에 대한 역사를 얘기할 때, 1948년 군종병과 창설, 1969년 전군신자화운동부터 이야기하니까 군선교가 오랫동안 이어진 유산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군선교에 대한 틀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군선교를 해온 것은 불과 30년 정도 해온 거네요. 그동안 군인교회 세우고, 군선교사를 교육해서 파송하고, 세례 사역을 이어오는 것 등의 활동이요.

발화자 1(예)대령 정성길 장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한국교회가 1970년대, 198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늘에 십자가 불빛밖에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88서울올림픽이 지나고 1990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정체기에 들어갔는데 거꾸로 군대에서 세례운동이 일어난 거죠. 진중세례운동과 함께 1992년에 2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일어났고요. (1회는 1969년 7월, 이후 미 실시)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당시부터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린 것도 은혜였고,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 싶습니다. 올해가 34회였으니까 시작이 그쯤 되겠네요.

장로님 혹시 비전2030으로 전환되는 상황 가운데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발화자 1(예)대령 정성길 장로)

비전2020 직후, 코로나와 조직 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2년 이후 군선교 현장이 서서히 정상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비전2030운동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데 군선교 주체와 군선교연합회가 머물러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비전2030실천운동본부의 새로운 조직과 전략 개념이 필요하고, 군선교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협력 방안 연구가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월간, 분기별 정기모임을 통해 테이블을 만들고 협력 체계를 강구해야 해요. 아울러 거점교회라는 표현이 현장에 혼선을 준 부분이 있어요. 거점교회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나 혼선이 빚어진 거죠. 결연교회 혹은 군선교회원교회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군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다만, 군선교 현장이 날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교단과 협력하고,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는 군선교 유관기관을 깨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네, 장로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부록 2〉

비전2030실천운동 관련 인터뷰 전문

(예)대령 최석환 목사, 비전2030실천운동 초대 추진본부장, 2025. 8. 14)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목사님, 비전2020운동과 2030운동의 전환과 관련해서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발화자 1(예)대령 최석환 목사)

작년에 정비호 목사님이 2030 관련해서 글 쓰고 했잖아요.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도 현역에 있기도 했고요.

제가 초대 추진본부장을 할 때 마음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전2020은 끝났잖아요. 중간에 코로나가 2020년 초부터 2021년까지 2년 정도 공백 기간이 발생했다 싶어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비전2030 매뉴얼이 2021년에 나왔고, 선포식도 2021년 10월에 했으니까 출발부터 늦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시에 그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군선교연합회에서는 비전2020 이후 핵심 슬로건을 내지를 않았어요. 비전2020 추진본부이셨던 분들도 역시 ‘운동이 종료되었다’에만 방점을 두었지, 다른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슬로건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군종목사단도 민간성직자들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싶어요. 안타까웠죠. 그리고 개인은 안타까워할 수 있죠. 그러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요. 저도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무엇인가를 만들고 추진해야 되겠다, 비전2020과 연계되면서도 새로운 비전2030의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리더십들과 소통하고, 군선교연합회 추진본부장이었던 권오성 장로님과도 소통을 하며 밑그림을 그렸어요. 핵심은 군선교연합회 주도에서 군종목사단 중심으로 변경되는 개념의 전환이었고, 군선교연합회에서도 동의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비전2020을 통해 세례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이제 비전2030은 한국군종목사단에 힘을 실어드리고, 본부는 본부대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죠.

저는 비전2020은 잘해 오셨다고 봐요. 비전2020운동은 아무리 과가 있다 할지라도, 공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파송 영역에서의 더 많은 한국교회와 연결 작업이 있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아울러 각 군 단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룡스파텔에서 함께 논의도 하고, 육군 같은 경우는 정재원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 밤새 토론하기도 하고 하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우리가 함께 외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저는 비전2030운동이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타당하

다고 봐요. 비전2020운동이 끝나기 전에 미리 추진본부를 준비시키고 전개했다면 더욱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었겠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준비작업이 필요했다 싶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전2030은 어려움 속에서 군중목사단 중심으로, 파송에 방점을 둔 운동으로, 슬로건을 외칠 수 있는 깃발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비전2030의 슬로건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인데 그 슬로건을 작성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나, 슬로건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발화자 1(예)대령 최석환 목사)

결국 파송이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에 기반한다 생각해요. 누가복음 15장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에 관심이 없는 선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 좀더 집중해 보자, 군인교회 장병들을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보자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구호에 ‘100만 장병’을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 찬반이 치열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전에는 결국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한 추진동력이 필요하다 싶어 넣게 되었죠. 또한 운동 이름으로 ‘2030’으로 하느냐 ‘2040’ 혹은 ‘2050’으로 하느냐도 얘기가 있었어요. 비전

2020운동도 25년 동안 진행해 온 운동이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이후 상황은 맡긴다는 여지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의 연구와 제언은 저로서는 매우 반갑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가 1대 추진본부장으로서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슬로건을 외치고 준비했던 것이, 구국성회 결연축제와 연결이 되어서 (올해 1,255명의 결연 인원이 나왔다고 하던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한 시점이 그래도 우리가 이 운동을 만들어갔던 정신과 의의만큼은 평가가 되어야 한다 생각해요.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실제로 제가 현재까지 설문조사를 받아 봐도 비전2030운동에 대해 평가를 할 때 비전2030의 정신이 훌륭했다는 응답이 많아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 ‘파송 영역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은 공감하지만, 실제로 잘 작동했느냐라고 할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발화자 1(예)대령 최석환 목사)

학문도 ‘학문적 선점성’이라는 게 있듯,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내고 육군·해군·공군이 한목소리를 내고, 군선교연합회로부터 군종목사단 주도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것까지가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 싶어요. 당시 군선교연합회도 객선회

목사님으로부터 김삼환 목사님으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상황 가운데 조직에 여러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고, 군인교회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슬로건을 만들고 선점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네, 목사님. 들어보니 참 어려운 상황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결연 실적에 대한 파송분과 보고를 받았는데 300명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상에는 1년에 10만 명을 10년간 파송하겠다고 했는데 매뉴얼과 실제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차라리 ‘슬로건의 100만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다’라고 설명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기신자 6만 명, 기대신자 4만 명이라는 구체적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화자 1(예)대령 최석환 목사)

저는 실패했다고 안 봐요. 뭘 하나 잘하려고 그러면 계속 반복해야 하죠. 그것이 운동이든지, 음악 활동이든지, 그림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계속하지 않으면서 잘할 수는 없어요.

2022년보다 지금 2025년도에 실적이 그래도 있잖아요. 파송 결과의 추이로만 보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중이다 싶어요. 목사님 말처럼, 매뉴얼에서 제시한 숫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뒀야 되고 후배들이 이어

가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싶어요.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생각 하며,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단점을 지적하는 순간 일을 추진할 수 가 없어요. 진전이 더디다고 해도 나름대로 군중목사단도 군선교연 합회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해 야죠. 군중목사 중에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 어요. 하나님이 제복을 입혀 주셨는데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물론 함께 부를 슬로건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약간의 의견 충돌 이 있을 뿐이고, 이것을 좁혀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가 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네, 목사님, 저도 너무 중요한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비전 2030의 정신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 로’라고 하는 슬로건도 필요했다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3,700만 명의 신자를 만들어 기독교 국가 건설을 하겠다고 한 비전2020도 실패한 운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발화자 1(예)대령 최석환 목사)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비전인 것이지, 이것을 달성하면 성공 이고 달성하지 않으면 실패이고 이런 프레임으로 볼 게 아니라는 생 각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는 것이 비전 인 것이고, 파송 영역이 비전2020 할 때도 여전히 안 돼왔던 부분인 데, 한번 그 어려운 작업을 해보자, 한 영혼에 집중하자 이런 마인드 를 가지고 시작한 것인데, 갑자기 없던 인원이 십만 명이 된다는 것

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이죠.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안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방법론을 넣어준 것이 오히려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슬로건이다’라고 하고 갔으면 다들 ‘아, 그렇구나, 이게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뭐 10년 만에 될지, 백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간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구국성회 결연축제만 보더라도, 작년 결연축제 565명도 대단하다, 놀라운 성과이다 했는데 누가 올해 더 많은 장병을 결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까요? 올해는 3군단 지역군 종목사단이 맡아서 구국성회의 여러 파트 중의 하나로 운영이 되었고, 결연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거나 이리지도 못했죠. 올해 구국성회 가운데 결연축제와 관련된 안내도 제대로 되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1,255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숫자였다 싶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는 기대신자만 결연교회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학교나 직장 문제로 이사를 했거나, 모교회는 있으나 고등학생, 청년 때는 주기적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기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결연축제 현장에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과 결연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연에 대한 영역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파송 영역에 대한 통계는 아예 종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의 565명과 2025년의 1,255명이라는 숫자가 하루에 나온 숫자인 것이지, 파송과 관련해서 집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올 것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구에서 논지를 펼치려고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비전2030의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적의 실패가 아니라 집계의 실패이다, 집계하지 않았고, 집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아울러 파송을 집계할 때도 민간교회에서 군인교회로 파송 온 형제들을 군인교회에서 민간교회로 재파송하는 것이지, 파송의 질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대신자들도 각 거점교회, 한국교회로 파송하게 되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집계하다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싶어요. 아울러 이번 구국성회 결연축제 이후에 5군단 승진교회 집사님께 듣기로는, 이번 결연축제를 하면서 이 개념을 본인 교회에서도 구현해 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명예의 전당을 만들고, 전역한 형제들의 이름과 파송교회를 명패로 새겨주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형제들도 ‘나도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저기에 나와 우리 교회 이름을 남기고 가야겠다’는 것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전역 후에 갈 교회가 없다면 담당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 결연교회를 정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군종목사단 이름의 ‘군인교회 파송 인증서’(가칭)와 같은 것을 발급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 비전2020뿐 아니라, 비전2030을 만드신 정신을 계승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화자 1(예)대령 최석환 목사)

그럼, 당연하죠. 그 부분이 논문의 핵심이고 발전 방향을 잘 제시를 해주어야 마땅합니다. 논문은 비판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전의 연구에 대한 의의를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이 함께 가야 생산성 있는 논문이 됩니다. 칭찬만 하는 것도, 비판만 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겸손하게 끝내야 합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의 진전된 발전 방향을 기대합니다’라는 스탠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네, 목사님. 그럼 혹시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비전2030을 설계하고 처음에 시도하시면서 군선교연합회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셨거나 제안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발화자 1(예)대령 최석환 목사)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군선교연합회는 나름대로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에 대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건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었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선교연합회의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한국군종목사단이 자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요. 단순히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변화나 제안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비전2030이 시작될 당시에는 군선교연합회의 조직 변경이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군종교구(군선교연합회)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논지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군선교 주체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비전 2020은 누가 주도했고, 비전2030은 누가 주도할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주체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송/결연에서의 군선교연합회의 역할은 한국교회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행정 지원이나 재정 지원으로 현장 사역자를 적극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군종목사단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이 1년마다 교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전2030은 군종목사단과 군선교 사역자, 군선교연합회가 공동체로 연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는 보직이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고, 교회사역과 부대 군종활동, 행정 등을 한 사람이 모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군종목사단만으로 동력을 만들고 엔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 일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받아 봐도, 우리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거나 어느 영역에 대해 보고하는 것조차도 행정 소요로 느끼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이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은 군선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저는 한국군종목사단장이 군선교연합회 이사 당

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화자 1(예)대령 최석환 목사)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건의해서 승인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군종목사님들이 건의서 하나 만들어서 군선교 정책의 현장성을 위해 반영해 달라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오케이 한다 싶어요.

아울러 한 가지 제안하자면, 군선교연합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정기적인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콘셉트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싶어요. 제가 28년 동안 군에 몸담고 있다가 전역해서 민간사역을 하다 보니 군선교라고 하는 부분은 수많은 선교의 영역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해외선교, 소방선교, 경찰선교, 교도소선교, 미자립교회선교, 다문화선교 등 관심 가져야 할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군선교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관심 갖고 역량을 투자해서 지금의 군선교가 되었다 생각해요. 당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군선교에 관심 갖고 후원하는 한국교회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조금만 관심 갖고 움직이면, 군선교 현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해요.

발화자 2(소령 위진섭 목사)

목사님, 오늘 인터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분주하신 가운데 시간 내주시고, 귀한 응답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

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발화자 1(예)대령 최석환 목사)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진섭의 논문 “비전2030실천운동의 중간 평가와 과제: 비전2020실천운동과의 비교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A Comment: An Interim Evaluation and Tasks of the Vision 2030
Action Movement: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the Vision 2020
Action Movement and a Survey Analysis

» 김상만 Ph. D.*

위진섭의 “비전2030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과제”는 한국 군선교 역사 속에서 비전2020실천운동과 비전2030실천운동을 연속선상에서 분석하며,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고찰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군선교라는 특수한 현장에서 이루어진 복음화 사역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짚어내고, 통계와 설문조사 분석을 병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점에서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가치를 지닌다. 논찬자는 본 논문을 읽으면서 군선교 운동의 성과와 과제가 어떻게 시대적 요청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되었으며, 현장성과 신학적 성찰이 조화를 이룬 글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이 글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비전2020실천운동을 헌신적으로 주도했던 분들이 매우 기뻐하실 논문이다. 그들의 노고와 열정이 단순히 과거의 성과로만 남지 않고, 비전2030실천운동 속에

• 논찬 투고일: 2025년 9월 23일 • 논찬 수정일: 2025년 9월 24일

•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24일

*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예)군종목사(군종52기), 치유목회연구원 교수

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 긍정적 차원에서의 논찬

역사적 연속성의 확보

비전2020에서 비전2030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단절이 아니라 계승과 전환으로 바라보며, 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서술한 점은 연구의 설득력을 높인다.

현장 중심의 데이터 활용

단순한 문헌연구에 머물지 않고, 설문조사·실적분석을 통해 군종목사, 군선교사역자, 군인교회 구성원들의 실제 인식을 반영함으로써 논문이 현장성 있는 자료로 자리매김했다.

신학적·전략적 균형

세례·양육·파송이라는 구조적 모델을 신학적 소명과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정책적·조직적 제언을 내놓아, 학문적 성찰과 실천적 지침을 동시에 제공한다.

더 나아가, 비전2030실천운동은 태생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운동은 미래의 비전2050실천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2. 성장점 차원에서의 논찬

성과 지표의 한계

파송 실적을 분석하면서도 통합적 집계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는데, 앞으로는 단순한 수치적 성과뿐 아니라 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리더십 구조의 불안정성

비전2030 추진본부의 잦은 리더십 교체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를 넘어 여러 주체(기관, 단체, 개인)가 협력하여 의사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실행하는 방식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계가 제시되면 좋겠다.

한국교회와의 연계 부족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지역교회가 어떻게 파송 사역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나 실행모델이 보강된다면 연구의 실천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비전2030실천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연 축제는 군대뿐 아니라 전국의 민간교회에게 큰 시너지 효과를 주는 사역이다. 군과 민간교회가 상호 역동적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은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연 축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군종목사를 파송하는 교단 총회와 각 교단 신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3. 주요 토론 과제

1) “실적주의”를 넘어선 **군선교 패러다임 전환**: 세례와 파송을 양적 지표로만 보지 않고, 신앙의 지속성과 정착이라는 질적 성과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2) **군선교 주체 간 협력구조 재정립**: 군종목사단, 군선교연합회

(MEAK), 한국교회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3) **청년세대 신앙 회복의 연결점**: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지역 교회로 정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군선교가 한국교회 청년사역과 어떤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 논문은 군종목사들의 사역에 주목하게 한다. 군종목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1당 100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특별한 제도적·물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은 향후 군선교 정책 수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본 논문은 한국 군선교의 대표적 실천운동인 비전2020과 비전2030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한계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세례 중심에서 파송 중심으로”라는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군선교와 한국교회 전체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연구와 실천은 △성과 집계 체계의 제도화, △지속 가능한 다원적(조직적, 재정적, 협력적 측면) 거버넌스 구축, △한국교회 청년사역과의 유기적 연계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동시에 결연 축제를 전국 교회와 교단, 신학교 차원에서 확대하고, 군종목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때 비전2030은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과거의 성과를 기뻐하게 하고, 현재의 과제를 진단하며, 미래의 비전을 열어가는 다리와 이정표로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논문 기고자 Email

spalan77@hanmail.net

연구위원 논문

장병의 거절 민감성 심리 분석과 군종목사의 상담 방안

| 전요섭 |

성경의 리더십 계승 성공 사례와 원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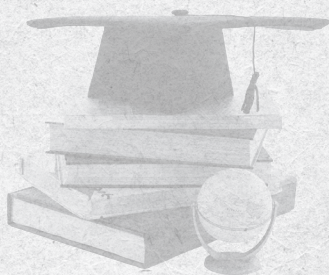
| 이용락 |

상담의 흐름이 있는 치유적 설교

| 안남기 |

군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육군 병사의 예배 참석 동기 확인

| 임정인, 정세준 |





장병의 거절 민감성 심리 분석과 군종목사의 상담 방안

Psychological Analysis of Rejection Sensitivity in Soldiers and
Counseling Strategies for Military Chaplains

» 전요섭 ED. D.*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장병의 거절 민감성에 대한 심리 분석과 군종목사의 상담 방안을 모색하는 문헌 연구이다.

거절 민감성은 군에서 발생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기 불안정 애착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군 생활 중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군 상담에서는 장병들의 애착 유형과 거절 경험에 대한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거절 민감성이 낮은 반면,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일/업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정적 해석을 하며, 군인의 경우에 군 조직 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상담에서는 장병들의 거절 경험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신앙 공동체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확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독교 신자 장병들은 기도 응답의 부재를 신앙적 거절로 해석하며 심리적 위축은 물론, 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장병들이 거절 민감성으로 인해 신앙의 약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도록 목회상담적 개입을 제공해야 한다.

중심단어

거절 민감성, 상담 및 심리치료, 목회상담, 군종목사, 인지행동치료

•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18일 • 논문 수정일: 2025년 8월 19일

• 게재 확정일: 2025년 8월 20일

*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예)군종목사(군종43기), 성결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I. 여는 글

거절은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심리 현상이다.¹⁾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나 제안을 자신이 거절하는 경우일 수도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요구나 제안을 타자가 거절하는 경우이다. 거절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불합격, 탈락, 배제, 제외, 소외, 격리, 퇴거, 퇴출, 추방, 면직, 정직, 강등, 해임, 해고, 해촉, 파직, 파면 등 다양한 사회적 거절이 있는데, 이는 매우 충격적이며,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²⁾

군대에서는 징집 또는 선발 과정에서의 탈락, 군 복무 중 징계 및 동료, 상하급자로부터의 소외와 배척 등이 거절 경험의 주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군 장병의 심리적 안정성과 군 조직 내 소속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환경에서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속에서 개인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처벌로 인해 거절 경험이 더욱 극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신병 교육과정에서의 적응 실패, 부대 내 서열문화, 타 부대 전출 및 배속 변경, 훈련과정에서의 성과 부족 등이 장병의 거절 민감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통상, 거절 경험으로 인한 심리 현상은 기본적으로 기분 저하로부터 자아존중감 하락, 질투심, 수줍음, 고립감, 고독감, 소외감, 수치심, 실망감, 절망감, 좌절감, 무력감, 상실감, 위축감, 우울감, 불안감, 분노, 적의 및 적대감, 공격성 등의 심리적 현상들을 야기하고,

1) 이 연구에서 거절은 거부와 전적으로 동일 의미로 사용되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 거절(拒絕)은 '남의 제의나 요구, 금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 거부(拒否)는 '남의 요청이나 제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으로 차이가 없는 정의로 이해된다.

2) Alva Tang et al., "Autonomic Reactivity to Social Rejection, Peer Difficulties and the Buffering Effects of Adolescent Friendships Following Early Psychosocial Deprivation," *Emotion* 22/2 (2022), 318-330.

사회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³⁾ 그렇다 하여 이러한 증상 자체를 질병으로 보는 심리학적 입장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경험하는 현상이며 증상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이 발달하게 되면, 심리정서적 질병으로 악화될 수 있고, 삶의 여러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며, 급기야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학술적인 표현으로 ‘거절 민감성’(RS: Rejection Sensitivity)이라 하는데, 이는 타자로부터 거절 및 거부당한 것에 대하여 심리정서적으로 비합리적이고 인지왜곡적인 민감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거절 민감성은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향후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절당할 가능성에 대하여 쉽게,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다.⁴⁾ 거절 민감성에 관한 연구는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을 당할 때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⁵⁾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은 집단생활에서 갈등을 심하게 경험하거나, 지휘관의 지휘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또 지휘관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험, 훈련이나 임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비판적 반응을 개인적 거절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 또 이들은 동료, 상하관계에서 배척당하는 경험, 승진 또는 특별임무 기회에서 제외되는 경험 등으로

3) Mia Foxhall et al., “The Link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BJCP* 58/3 (2019), 289-326.

4) Zeynep I. Demircio lu & Asl Göncü-Köse, “Antecedents of Problematic Social Media Use and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AJDPDPI* 42/35 (2023), 31091-31109.

5) E. Kross, T. Egner, K. Ochsner, J. Hirsch & G. Downey, “Neural Dynamic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9 (2007), 945.

거절 민감성이 촉진될 수 있다. 특히 거절 경험이 지속되면, 장병들의 복무 의지와 사기가 저하되며, 심한 경우 자해 및 극단적 선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거절에 대한 인지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거절에 대한 정상적 심리 반응인지, 어느 정도부터 질병 상태인지 그 정도, 빈도, 상태 등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표준화된 도구들이 활용되기는 한다.⁶⁾

거절 민감성은 아동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빈번하고 충격적인 학대 경험에서 시작되고, 심화된 강한 거절감이 후에 분노와 공격성으로 이어지며 확장된다는 순차적 경로임을 밝히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많다.⁷⁾ 발달심리학적으로 볼 때, 아동청소년기 학대 경험은 신체, 심리, 행동의 여러 부정적이고도 위험한 결과를 증가시킨다.⁸⁾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 가운데 분노와 공격성이 결부된 경우에는 주저 없이 보복 및 복수로 나타나 극단적으로 폭행, 살인 및 자살 등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있는 사건들을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⁹⁾ 이런 경우 군에서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장

6) 주요 검사지로는 거절 민감성 설문지(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Downey & Feldman, 1996), 성인 거절 민감성 설문지(Adult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Berenson et al., 2009, Downey & Feldman), 아동 거절 민감성 설문지(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Downey et al., 1998), 성인 부모 수용-거절 설문지(Adult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Rohner, 2005)가 있다.

7) Chunxi Liang et al., "Developmental Pathway from Childhood Abuse to Adolescent Peer Victimiz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2/11 (2023), 2370-2383.

8) Frank Euteneuer et al.,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Sensitivity to Social Rejection in Emerging Adults," *Child Abuse & Neglect* 149 (2024), 106604.

9) Taryn Nepon et al., "A Longitudinal Analysis of Peer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among Adolescents," *IJMHA* 19/4 (2021), 1135-48. cf. Nicole M. Cain et al., "A Multisurface Interpersonal

기간의 집단생활과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거절 민감성이 누적될 경우, 분노 조절의 어려움과 심리적 압력 및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부대 내 폭력사건, 극단적 선택, 사고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군 조직 차원의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

거절 민감성은 개인에게 다양한 심리 정서적 문제와 질병을 발생시키므로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정신건강 주제이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이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하겠다. 군종목사는 이러한 군 특유의 거절 경험을 이해하고,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담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앙을 기반으로 한 상담은 장병들에게 위로와 의미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은 기독교상담, 군 목회상담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할 심리영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거절 민감성이 발달된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거절했다고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강한 거절감을 갖게 되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상담학자 Mark McMinn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급기야 신앙을 포기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음을 제시했다.¹⁰⁾ 그렇기 때문에 거절 민감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기독교상담학에서 신앙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성장과 영성 함

Circumplex Assessment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9/1 (2017), 35-45.

10)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lips (eds.) *Care for the Soul: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Psychology &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1), cp. 8.

양 등 광범위한 유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거절 민감성을 개인의 심리정서적, 심리 영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부정적 문제와 폐해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을 모색하는 문헌 연구이다.

Ⅱ. 거절 민감성에 대한 심리적 이해

1. 거절의 심리정서적 분석

거절 민감성은 다른 장병들로부터 자신이 거절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거절당할 것이라는 과민한 예상, 기대,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우 강렬하고 부정적인 심리정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거절당함으로써 미래에 닥칠 수 있는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의 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예기 불안’(anticipatory anxiety)과 매우 밀접하다.¹¹⁾ 과도한 걱정은 상담심리학에서 ‘정서적 과장성’, ‘정서적 과도 반응’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과장은 거절에 대하여 정서적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 비유할 때 거절은 ‘정서적 협박’(emotional blackmail)이라 하며, 이 협박에 굴복하게 되면 심리정서적 질병에 노출되는데, Susan Forward는 이를 심리정서적 노예가 된다고 했다.¹²⁾ Timothy S. Lane와 Paul D. Tripp도 거절 민감성에 노출된 사람을 거절 민감성에 ‘노예’가 되었다고 동일한 표현을 했다.¹³⁾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지배당

11) Xing Tan et al.,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Empathy and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39 (2023), 867.

12) Susan Forward, *Emotional Blackmail* (London: Bantam, 1997).

13) Timothy S. Lane & Paul D. Tripp, *How People Change* (Winston-Salem, NC.: Punch,

했다는 의미이다.

지휘관 및 동료, 상하관계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임무 수행에서의 실패 경험, 징계 및 훈련 탈락 등이 거절 민감성을 심화할 수 있다. 장병들은 상급자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향후 군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며, 이는 위계적 조직문화 속에서 더욱 증폭되며, 과도한 정서적 과장성이 나타날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은 이미 대인관계에서 거절로 인한 심리 정서적 손상을 경험해 본 경우가 많고, 과거 거절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 경험을 기초로 하여 거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적응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은 군 내 대인관계에서 상사, 동료에 대한 신뢰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 유지가 쉽지 않는데 이는 분명하게 기능 저하는 물론,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 병영생활은 동료, 상하관계 형성이 필수적이지만,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은 집단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부대 내 따돌림, 외톨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는 심리적 고립을 유발하고, 다양한 심리적 질병을 야기하며,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및 심리 치료를 통해 거절 민감성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작금까지 부단히 있어 왔다. 근래 전통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외에도 미술치료 등 매체를 통해 이를 치료, 회복 및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¹⁴⁾ 또한 거부 민감성을 단순히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것이 신경,

2006), 157.

14) Limor Goldner et al., "Adolescents' Rejection Sensitivity as Manifested in Their Self-Drawings," *JAATA* 35/1 (2018), 25-34.

인지, 생리학적 관계, 뇌 영역 변화 등과 관련된 연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¹⁵⁾

거절 민감성이 낮은 장병 가운데는 동료, 상사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장병들을 대개 ‘거만한 사람’ ‘생각 없는 사람’ ‘뻔뻔한 사람’ ‘군기가 빠진 사람’ 등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다 하여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을 겸손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불안이 높은 사람’ ‘소심한 사람’ ‘심약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빈번한 거절을 경험한 장병에게 거절은 심리적 위축, 실망과 좌절 및 수치심을 비롯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부적응 경험이 될 수 있다.¹⁶⁾

거절은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으로서 대부분의 장병들은 가능하면 거절당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강력한 경향성이 있다. 일반인들은 거절이 예상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대인관계 자체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거나 서둘러 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군 환경에서는 이러한 회피적 성향이 집단 내 협력과 전우애를 저해하고, 전투 및 훈련 중 신뢰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군 조직에서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이 스트레스를 내재화하여 심리적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DSM-5TR에서 거절 민감성은 아직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장

15) Yue Leng, Xing Qian & Yanmei Zhu, “Modulation of Brain Response to Peer Rejection by Rejection Sensitivity,” *Neuropsychologia* 117 (2018), 389-397.

16) Qingin Wu, Guangming Ran & Qi Zhang, “Rejection Sensitivity and Trait Anxiety,” *Current Psychology* 41 (2020), 5481-5490.

에 진단항목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 하여 거절 민감성이 가벼운 문제는 아닌데, 사회적 고립 등 예기치 않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¹⁷⁾ 군대에서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거절 민감성이 결합될 경우,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휘관으로부터의 반복적인 질책을 거절 경험으로 인식한 장병은 전역 후에도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경험할 위험이 있다.

사회적 고립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게 할 수 있다. 사회적 거절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부터 집단에서 퇴출(탈락, 배제, 방출, 전출, 변경, 강등, 해임, 파직, 파면 등)당하는 것까지 다양한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그 정의를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현저하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¹⁸⁾ 많은 경우, 거절은 사회불안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불안은 평생 유병률 12.1%로서 흔한 심리정서적 문제로 이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포함하는데 첫째,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인상을 남기려는 동기에서 발생하는 불안,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불안, 셋째, 사회적 배제로 인한 불안으로 볼 수 있다.¹⁹⁾ 그렇게 볼 때 거절 민감성은 사회불안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DSM-5TR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회피성 성격장애는 광범위한 사

17) Sanaz Eyni & Seyed E. Musavi, "Social Isolation of War Veteran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ased on Emotional Inhibition," *JMVH* 32/1 (2024), 18-27.

1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202.

19) Pelin Bintaş-Zörer & Gülay Dirik, "Social Anxiety from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JEBP* 23/2 (2023), 25-47.

회적 억제, 부정적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민성을 특징으로 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성격장애로서 이런 특징적 현상에 매우 민감한 상태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거절 민감성은 일종의 회피성 성격장애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유명 정신과 의사 Paul D. Meier 등은 회피성 성격장애를 거절 민감성으로 이해했다.²⁰⁾

군 생활에서 회피적 성향이 강한 장병은 훈련 및 전투 임무 수행 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군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거절 민감성을 보이는 장병들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거절 민감성을 경계성 성격장애로 보는 일각도 있다. 이는 DSM-5TR에 나타난 경계성 성격장애의 정의 “대인관계, 자기상, 감정 조절에서 지속적인 불안정성과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극단적인 감정 변화와 행동으로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²¹⁾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적 특성을 가진 장병이 군에서는 자신의 의견, 입장, 철학과 반대되는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 응종함으로써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도 한다. Foxhall 등은 아동청소년기의 빈번하고 충격적인 거절 경험(특히 정서적 학대와 방치)이 경계

20) Paul D. Meier,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rm & Donald E.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Christian Perspectives Applications* (Grand Rapids: Baker, 1991), 291.

21) Cain et al., “A Multisurface Interpersonal Circumplex Assessment of Rejection Sensitivity,” 35-45, cf. Haydeh Faraji & Ahmet E. Tezcan, “Rejection Sensitivity and Fear of Intimacy in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Research* 28/4 (2023), 286-295, cf. Shuling Gao et al., “Child Maltreatment as a Risk Factor for Rejection Sensitivity,” *Trauma, Violence & Abuse* 25/1 (2024), 680-690.

성 성격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했다.²²⁾ Faraji와 Tezcan도 아동 청소년기의 빈번하고 충격적인 거절 경험의 결과가 경계성 성격장애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면서, 자신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에 대하여 과잉 상상을 하게 되고, 이런 불안을 기반으로 타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²³⁾

2. 거부 민감성 검사

거부 민감성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활용되고 있다. 활용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RSQ(거부 민감성 설문지: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는 Downey와 Feldman(1996)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로서 심리학, 임상심리학 등에서 내담자의 거부에 대한 정서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지이다. RSQ의 목적은 (1) 거부에 대한 기대 불안 측정으로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느끼는 걱정이나 두려움을 분석하기 위한 척도이다. (2) 거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분석하는 것으로 기대와 거부에 대하여 얼마나 쉽게,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검사지의 신뢰도(Cronbach α)는 Downey와 Feldman(1996)에서는 .83, Lee(2000)는 .89, 박지윤 등(2022)에서는 .95로 나타났다. 이 설문지는 18가지 대인관계의 가상 상황에 대한 자기 보고형 질문(예: “그/

22) Foxhall et al., “The Link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289-326.

23) Faraji & Tezcan, “Rejection Sensitivity and Fear of Intimacy in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286-295.

그녀가 나를 만나기를 거부할까 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당신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가 거부할까 봐 얼마나 걱정하나요?” “만일 친구가 도움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얼마나 상처를 받을 것 같은가요?”)을 통해 중요한 다른 사람이 자신 및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고 충족시킬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 불안을 Likert 6점 척도(1: 전혀 걱정하지 않음~6: 매우 걱정됨)를 사용하여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Downey & Feldman, 1996).

이 검사지는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검사지를 기초로 하여 A-RSQ(성인 거부 민감성 설문지)와 CRSQ(아동 거부 민감성 설문지) 등이 개발되었다. 이 검사지는 미국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문화적 배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타당화 검사가 필요하다.

2) A-RSQ(성인 거부 민감성 설문지: Adult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이는 Downey와 Feldman(1996)이 제작한 RSQ(거부 민감성 설문지)를 응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애정 관계, 친구 관계, 직장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9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예: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가 거부할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는가?” “만일 그가 거절한다면 당신은 얼마나 상처받거나 화가 나는가?” “직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로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RSQ에서는 거부에 대한 우려 또는 불안 수준을 Likert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이 검사지의 신뢰도(Cronbach α)는 .80으로 나타났다.

3) A-PARQ(성인 부모 수용-거부 설문지: Adult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이는 Rohner에 의해 개발된 부모-자녀 관계의 수용과 거부를 평가하기 위해 발달심리학, 가족치료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는 검사지이다.²⁴⁾ PARQ는 모성, 부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 보고형의 각각 24개 항목의 검사지이다. 개인이 부모(부성/모성)로부터 받았다고 느낀 정서적 수용과 거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두 부모(아버지/어머니)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을 회상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이 검사지에는 4개의 하위 변인이 있는데 (1) 부모의 따뜻함/애정 (2) 부모의 적대감/공격성 (3) 부모의 무관심/방치 (4) 부모의 비차별적 거부 등에 대하여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예: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자주 칭찬했다”(따뜻함/애정).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불평했다”(적대감/공격성).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감정에 무관심했다”(무관심/방치)]. 이 검사지의 신뢰도(Cronbach α)는 Giaouzi와 Giovazolias(2015)에 의하면 아버지의 경우 .95, 어머니의 경우 .94로 나타났다.²⁵⁾ Brekalo와 Keresteš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96, 어머니가 .94로 나타났다.²⁶⁾ 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 부모의 정

24) Ronald P. Rohner,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and Research: Applications to Global Perspective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 (2005), 97-136.

25) Theodoros Giovazolias, & Eirini Paschalidi,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Fear of Intimacy in Emerging Adulthood,”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81/1 (2022), 1-12.

26) Maja Brekalo & Gordana Keresteš, “Remembrances of Childhood Rejection and Lonelines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Current Psychology* 43/9 (2024), 8252-

서적 따뜻함/애정 등 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거부 민감성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⁷⁾

4) CRSQ(아동 거부 민감성 설문지: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는 Downey, Lebolt, Rincon & Freitas(1998)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서 자기 보고형 12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주로 8-12세)으로 거부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12~18개 문항(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짐)을 개발한 것이다(예: “친구들에게 놀이에 참여시켜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들이 거부할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는가?” “만일 그들이 거부한다면 나는 얼마나 속상할 것 같은가?”).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1: 전혀 걱정되지 않음~6: 매우 걱정됨)로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검사지의 신뢰도(Cronbach α)는 .70으로 나타났다. CRSQ는 아동의 사회적 상황과 관계(친구, 부모, 교사)에 대하여 거부에 대한 기대와 반응을 평가하는 검사지이다. 임상적으로는 아동의 자존감, 정서 안정성, 우울증, 불안, 또래 상호작용, 대인관계 취약성, 또래 괴롭힘, 집단 따돌림 및 부모와의 갈등과 부모 양육방식 등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검사지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분석해 보면, (1) Downey et al.(1998): CRSQ를 통해 거부 민감성이 높은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2) Rose &

8260.

27) Zeynep I. Demircioğlu & Aslı Göncü-Köse, “Antecedents of Problematic Social Media Use and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A Journal for Diverse Perspectives on Diverse Psychological Issues* 42/35 (2023), 31091-31109.

Asher(1999): 거부 민감성이 높은 아동이 또래 괴롭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3) McDonald et al.(2010): 아동기의 거부 민감성이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와 정서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 밖에 대인관계 민감성 척도(interpersonal sensitivity measure)가 있는데 이는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 비판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민감성 등을 측정하여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문항은 총 36개로서 Likert 4점 척도로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이 검사지에는 다섯 가지 하위 요인이 있는데 첫째, 비판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비판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 측정, 둘째, 거절에 대한 민감성: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 평가, 셋째, 대인관계 불편감: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편함과 긴장감 측정, 넷째, 의존성: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성 평가, 다섯째, 자기 비하: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성 측정으로 되어 있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우수하며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또 거절 민감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TER(Tendency to Expect Rejection Scale by Jobe, 2003)은 18개 항목(예: “나는 거절에 민감하다”)으로 Likert 5점 척도로 반응을 나타내게 제작되었고(Cronbach $\alpha: .78$),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 민감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도구들은 개인의 거부 민감성을 평가하여, 대인관계 문제,

불안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의 관련성을 탐구하는데 유용하나, 대부분의 거부 민감성 척도는 주로 서구 문화에 기반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적 배경의 인구에 적용할 때 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응답자의 회상과 주관적인 자기 보고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기억의 왜곡이나 응답 편향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위의 검사지는 표준화된 검사지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의 검사지로는 현재 장병의 거절 민감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계급구조와 훈련 및 근무환경을 반영한 군/장병 전용 거절 민감성 평가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애착 및 대상관계이론으로 본 거절 민감성

거절 민감성에 관한 연구의 시작은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사회심리학교수 Geraldine Downey가 어린 시절의 반복적인 거절의 경험과 성인이 된 후의 대인관계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서 어린 시절 돌봄과 친밀감의 욕구가 반복적으로 거절된 경험을 가진 유아들은 성인이 된 후에 거절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과잉반응을 하거나 상황을 회피한다고 하였다.²⁸⁾

애착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 거절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애착이론에서 거절 민감성은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

28) Geraldine Downey & Scott I. Feldman,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990), 1327-1343.

아동 간 상호작용에서 심리정서적으로 빈번하고 충격적인 거절의 결과로 불안정 애착이 내면화되고 그것이 발달한 결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²⁹⁾ 이렇게 형성된 불안정 애착 유형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내부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구축하여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하여 거절이라는 인지정서적 틀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유사 상황에 처하면 과거의 빈번하고 충격적인 거절 경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쉽게, 과도하게, 예민하게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반응함으로써 불안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 민감성이라 할 수 있다. 역으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청소년은 타인 및 사회적 거절을 경험하더라도 거절 민감성이 현저히 낮고,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거나, 긍정적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³⁰⁾ 군 내에서도 안정 애착을 가진 장병들은 상관과 동료의 평가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훈련이나 임무 수행에서의 실패를 자기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군종목사의 상담 역할은 장병들이 거절 경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신앙적으로 볼 때,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기도 응답의 부재

29) John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3),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Books, 1980),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1982), J. Bowlby, *A Secure Base* (London: Routledge, 1988). cf. Theodoros Giovazolias & Eirini Paschalidi,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Fear of Intimacy in Emerging Adulthood,"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81/1 (2022), 1-12.

30) Sachar Goldner & Abir, "Mother-Adolescent Parentification, Enmeshment and Adolescents' Intimacy," *JCFS* 28 (2019), 192-201.

가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지만, 불안정 애착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부정성에 영향을 주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과 인식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거절 민감성이 발생하기도 한다.³¹⁾ 군종목사는 이러한 신앙적 애착의 차이를 고려하여,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신앙관을 형성하도록 상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훈련 중 고난을 겪거나 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병들이 신앙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관계이론에서도 애착이론과 동일하게 초기 양육자인 1차 대상과의 관계에서 영유아동기 자녀가 빈번하고 충격적인 거절이나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발달하고, 거절을 쉽게, 예민하게, 과도하게 반응, 인식하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지어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은 군에서 상사 및 지휘관의 무반응, 중립적 또는 모호한 태도에 대하여 거절로 인식, 해석하는 경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²⁾ 이는 군 조직에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관이 의도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하여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군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인지재구성(cognitive restructuring)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는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이성 교제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신의 제안에 대한 상대방의

31) Julie J. Exline et al., "Is God Listening to My Prayers?" *Religions* 12/2 (2021), 1-24.

32) Demircioğlu & Göncü-Köse, "Antecedents of Problematic Social Media Use and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31091-31109.

무반응, 중립적 또는 모호한 태도에 대하여 거절적 입장, 과잉적 해석과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³³⁾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중립적인 표정의 사진들을 보고도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할 것 같은 예상 해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⁴⁾ 이를 소위 ‘부정적 해석 편향’(negative interpretation bias)이라 하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부정적 해석 편향은 정서장애의 원인으로 밝히고 있으며, 청소년 후기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사회적 거절 민감성이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밝혀졌다.³⁵⁾ 양육자가 영유아동기 자녀에게 일관되게 반복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는 대상관계이론 용어인 ‘분열’(splitting) 현상으로서 양육자를 ‘나쁜 대상’으로 인식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내재화하거나, 거절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군에서 상관이나 동료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는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상황에서는 친밀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다른 상황에서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할 경우,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은 자신이 상관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군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상관과 장병 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일관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상관계이론에서 거절 민감성은 성장기에 초기 대상으로부터

33) Marianne Richter et al., “Reje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BMCP* 12/1 (2024), 1-13.

34) Yue Leng et al., “Modulation of Brain Response to Peer Rejection by Rejection Sensitivity,” *Neuropsychologia* 117 (2018), 389-397.

35) Savannah Minihan et al., “Social Rejection Sensitivity and Its Role in Adolescent Emotional Disorder Symptomatology,” *CAPMH* 17/8 (2023), 1-14.

의 거절 경험이 자기 표상으로 형성되어 거절에 대한 부정적 스키마(schema: 심리정서적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⁶⁾ 거절 민감성이 발달 초기에 영향을 받거나 형성되는 심리정서적 구조라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영유아동 청소년기에만 이것이 발생,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도 빈번하고 충격적인 거절 경험이 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은 애착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4. 거절 민감성의 폐해 및 심리적 원인

과도한 거절 민감성은 친구, 동료, 가족,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갈등 유발 및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은 대인관계에서 거절이 확인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좌절로 인해 서둘러 대인관계를 단절, 종료하는 일이 나타나므로, 결국 친밀 관계를 형성,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1) 분노, 적개심, 공격성

거절 민감성이 강하고, 분노, 적개심,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한 것을 공격으로 이해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보복 현상들을 쉽게 보인다. 거절 민감성에 공격성이 유발되어 이것이 내면으로 향할 때 자기 비난, 자아존중감 하락, 자해, 자살 등으로 연결되고, 외현화 될 때 타인 비판, 공격, 폭행, 살인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군에서는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이 지휘관의 명령이나 동료의 무시에 대해 강한 공격성으로 인해 적개심을

36) Gili Freedman & Justin Dainer-Best, "Who Is More Willing to Engage in Social Rejec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64/4 (2024), 511-530.

느끼는 경우가 있고, 이는 부대 내 폭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병영 내에서의 괴롭힘이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장병이 극단적인 보복을 시도하거나 상관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명령 수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자신의 청혼을 거절했다 하여 상대방과 그 부모를 폭행, 살인 그리고 집을 방화하거나, 직장에서 강제 퇴직을 당한 후, 책임자를 폭행, 살인 그리고 회사를 방화했다는 언론보도의 배경에 거절 민감성이 있을 수 있다. 군에서도 탈영 후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사건들이 거절 민감성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질책받거나 부대 내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는 장병이 분노를 내재화하다가, 충기를 사용하여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학대 경험은 강한 거절감을 갖게 하고, 그 거절 경험이 직접적인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연쇄적이며 순차적 경로로 이해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학대와 공격성 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선행연구들은 흔히 발견된다. 군 입대 전 가정폭력이나 학대 경험이 있는 장병들은 거절 민감성이 더욱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거절 경험(예: 선임병의 무시, 지휘관의 냉정한 태도)이 더욱 강한 심리적 충격으로 작용하여, 폭력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장병의 과거 거절 경험과 공격성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을 모색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더 공격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

다. 특히, 사회적 거절을 경험한 기혼 남성은 가정에서 분노 조절이 안 되어 자녀 및 아내 폭력 및 배우자 성폭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ohner는 그 이유를 자아존중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³⁷⁾ 군에서도 병영 내 거절 경험이 전역 후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군 생활 중 지속적인 거절과 좌절을 경험한 장병이 전역 후에도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2) 침묵을 통한 자기 보호

소극적 성격의 소유자 가운데 거절 민감성을 가진 장병은 자기 노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침묵, 정서를 억제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거절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극도의 정서 억제와 침묵 등을 통해 자기를 보호하려는 현상이다. 군에서는 이러한 침묵과 정서 억제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 하며, 지휘관이나 동료, 상하관계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군 조직 내에서 정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에서도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정서를 억제하는 것은 대인관계를 심도 있게 갖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피상적 관계를 갖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군

37) Stephanie L. Freitag et al., "Does Self-Silencing Behavior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Violence Against Women* 30/5 (2024), 1075-1091. cf. Ronald P. Rohner,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 (2005), 97-136.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침묵은 집단에서 배제되거나 적응 실패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단생활이 중요한 군대에서는 장병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동료 장병들로부터 더욱 거리를 두게 되며, 결과적으로 고립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은 사회적 기술이 떨어진다. 상대방의 거절에 대한 영향을 처리하는 데 효율적인 태도를 가졌다면 거절 민감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표면적이고 단적인 분석으로,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가정, 직장, 학교, 군대 등 소속집단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침묵이 나타난다. 군대에서도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은 집단 내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명령을 받거나 의견을 말할 때 주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감 부족’ 혹은 ‘비협조적 태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대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현상도 사실 공격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수동적 공격성’(passive-aggressiveness)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수동적 공격성은 직접적인 보복이나 공격 등의 감정 표현 대신 침묵, 냉담한 태도, 소극적 저항 등으로 표출하여 동료들에게 혼란을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며, 오히려 새로운 거절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장병들이 자신의 감정을 극도로 억압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기보다는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동적 공격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기분장애 및 우울, 불안의 예측 요인

거절 민감성은 기분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구나 거절을 당했을 때 기분의 손상을 입는 것은 보편적인 심리정서 현상이다.

특히, 거절 민감성이 우울의 직접적이고도 주요한 원인이거나 우울 증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취약성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분석이다.³⁸⁾ 군 환경에서는 폐쇄적인 생활과 계급구조 속에서 장병이 거절 경험을 강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병 훈련소에서의 적응 실패, 선임 병이나 지휘관으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 집단 내 고립 등의 경험은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축과 우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전역을 앞둔 장병들이 사회복귀를 두려워하는 경우에도 거절 민감성이 우울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은 우울증의 중요한 예측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되는 결과들이 많다. 이에 매개변인이라 할 수 있는 (특히 여성에게) 비만으로 인한 신체 불만족은 거절 민감성으로, 거절 민감성이 우울로 가는 중요 변인이라 할 수 있다.³⁹⁾ 거절 민감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청소년에 대한 종단 및 횡단 연구를 분석해 볼 때,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심한 정도의 우울이 동반된 심리정서적 부적응이 나타난다. 비만은 배제, 만성적 거절, 부정적 대우, 사회불안, 신체 불만족, 질병, 부적응 등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결국 거절 민감성을 발달시키는 변인이 될 수 있다. 또 거절에 대한 끊임없는 예상이 불안을 촉진시켜 심리정서적으로 위축시키므로 이는 통상 알려진 예기불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군에서는 신체적 조건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체력 검정 및

38) Theodoros Giovazolias, "The Relationship of Rejection Sensitivity to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Behavioral Sciences* 14/1 (2024), 10-14.

39) Freedman & Dainer-Best, "Who is more Willing to Engage in Social Rejection?" 511-530.

훈련 성과가 낮을 경우, 타인 장병과의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경험할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은 체력 부족, 외모에 대한 자의식이 강해질 수 있으며, 이는 집단 내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우울과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 경우, 장병들은 상관의 지도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집단 생활 속에서 거절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훈련 중 발생하는 실수나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실책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거절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군에서는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할까 봐 느끼는 불안, 전투 훈련 중 실수를 할 것이라는 두려움 등이 예기불안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은 이를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 개인적인 거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거절을 이미 경험하여 상당한 불안을 느낀 장병은 또 거절이 예상될 때 강한 불안이 엄습해 올 것을 생각하여 예기불안이 발생되는 것이다.

4) 자아존중감과 외모

거절 민감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함께 연구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거나 자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심리정서적 손상을 받는 일이 있어도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이다. 군은 계급이 명확히 구분되는 구조이므로, 상급자의 인정 여부가 장병들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관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없는 경우,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석하여 자아존중감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사회적 거절을 수차례 경험하게 되면 누구라도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경험하게 되고, 거절 민감성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테면 사회에서 구직을 위한 수십 차례의 이력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구직하지 못한 경우라면 자신을 비하하고 사회적 거절에 대한 강한 심리정서를 갖게 될 것이다. 군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특정 임무 수행에서의 배제, 승진 기회의 박탈, 전출 및 징계 등의 거절 경험은 장병들의 자아존중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Seligman이 설명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Harris의 대인관계 유형에서 ‘I’m not OK, You’re OK’ 태도가 거절 민감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거절 민감성이 높다는 의미로서 낮은 자아존중감과 거절 민감성은 한 짝으로 이해된다.

인간은 소속욕구가 강하고, 그 욕구의 좌절, 거절, 배타적 경험은 그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로부터 트라우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군은 이러한 소속욕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며,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운 장병들은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장병들은 고립을 선택하거나 군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는 사회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고, 또 소속집단에서 수용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 자신을 거절, 배척하는 개인, 집단을 회피하려는 본능과 같은 성향이 있다. 그 밖에도 자아존중감이 낮고 거절 민감성이 발달된 사람은 약물

남용이 동시에 야기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⁴⁰⁾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과음하거나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 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에서는 여아, 여자 청소년, 성인 여성이 자신의 신체 비만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거절 민감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⁴¹⁾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로서 자신의 외모가 타인에게 수용 또는 거절되는가가 자아존중감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자기효능감과도 상관관계가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거절 민감성을 발달시키고 사회 공포로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다.

군에서는 체력과 외모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므로, 외모에 대한 자의식이 강한 장병들은 훈련 및 체력 검정에서 거절을 경험할 경우 자아존중감이 더욱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체력 및 신체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는 일부 장병들에게 강한 불안과 위축감을 유발할 수 있다. 신체적 콤플렉스를 가진 장병들이 거절 경험을 더욱 강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기 신체 기형, 변형 등 외형의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판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과 그에 대한 부끄러

40) Nepon et al., "A Longitudinal Analysis of Peer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among Adolescents," 1135-1148.

41) Freedman & Dainer-Best, "Who is More Willing to Engage in Social Rejection?," 511-530.

42) Ezgi Saylan & Vesile Soyyigit, "Body Image among Adolescents," *CCPP* 29/2 (2024), 479-492.

움을 예상하고 불안에 노출된 민감한 심리적 태도가 청소년에게 거절 민감성을 발달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절 민감성은 주로 외모 관련 요인과 불안 관련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⁴³⁾

청소년들이 동료들로부터 괴롭힘(놀림, 신체적 공격, 희롱 등)에 자주 노출될수록 거절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주제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이는 장병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나 장병의 신체에 대해서는 지휘관 및 선임병 등 주변인들이 각별히 주의하여 사소한 언어적, 행동적 단서들을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기 거절, 배척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심리정서적 고통과 위축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배척 고통’(ostracism distress)이라 한다.⁴⁴⁾ 정체성 형성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부모, 가족 및 친지, 친구, 주변인들의 정서적 지지가 약하고 부정적 일 때 거절 민감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은 상담심리학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연구 결과로 이해된다. 거절 민감성은 자기에적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은폐적 자기에 수준이 높을수록 거절 신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도 나타났다.⁴⁵⁾

5) 발달 및 아동청소년기 학대 경험

거절 민감성은 영유아동 청소년기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 경험이

43) Viren Swami et al., “Appearance Orientation and Dating Anxiety in Emerging Adul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TOPIASR* 51/8 (2015), 3981-3992.

44) Binish Nawaz et al., “Body Dysmorphic Disorder, Social Anxiety and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Karachi’s Adolescents,” *JPAD* 24/1 (2024), 134-40.

45) Ji Yun Park et al.,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Anxiety,” *JAPC* 12/1 (2022), 97-115.

내재화되어 대인관계에 역기능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Gao 등은 영유아동 청소년기 거절 경험을 넘어 학대 경험으로부터 거절 민감성이 시작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영유아동 청소년기 학대 경험이 있는 장병들은 군 생활에서 더욱 심한 거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지휘관의 엄격한 지도가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정서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넓게 잡아도 18세 미만에 겪은 양육자나 주변인들로부터의 거절과 학대 경험이 필연적으로 거절 민감성을 초래한다는 주장들이 존재한다. 거절 민감성은 아동기에 주로 발생하지만, 성인기에 도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장병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거절 민감성을 발달시키는 위험 요인으로서의 학대 경험은 신체적 학대 및 폭력, 정서적 방치, 가혹한 징계, 부모의 애정 철회 등을 꼽았으며, 이는 대부분이 ‘트라우마’라고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군에서는 지휘관의 가혹한 훈련방식이나 동료 간의 폭력적인 분위기가 이러한 트라우마를 재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과거에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장병들은 군에서의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체벌적인 문화 속에서 더욱 강한 심리적 거절감을 경험할 수 있다.

영유아동은 대인관계 폭이 좁아 주로 가정에서 거절 경험을 갖게 된다. 부모의 수용 및 애착 형성과 친밀감을 강하게 경험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⁴⁶⁾ 이에 Giovazolias와 Theodoros는 모성/부성으로부터 받은 수용성 및 친밀감은 향후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수용성 및 친밀감을 형성하기 쉬

46) Giovazolias & Paschalidi, “The in Emerging Adulthood,” 1-12.

워지고, 거절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⁴⁷⁾ 그런가 하면, 청소년기에는 주로 가정 밖에서 거절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에 집중하게 되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속감을 위해 더 많은 심리정서적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이다.

이때 또래로부터 거절, 따돌림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거절 민감성에 대한 연구는 대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사회적 민감성이 급격히 발달하고, 그에 따라 거절 경험이 거절 민감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품행장애를 거쳐 결국 성인이 되어 성격장애로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상담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군 입대 후, 이러한 거절 경험이 다시 부각될 경우, 장병들은 상관의 지시에 반항적이거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군 상담 시 군종목사는 이러한 심리적 유형을 인식하고, 군 환경 속에서 장병들이 보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래에게 호감을 받고 있거나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있음을 지각하는 청소년은 거절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 증상이 유의미하게 적고, 회피 경향성도 낮으며, 사회관계가 폭넓고, 친밀감, 적응력 등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⁴⁸⁾

Brekalo와 Keresteš는 동성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이 다른 성의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보다 더 두드러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거절

47) Giovazolias & Paschalidi,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Fear of Intimacy in Emerging Adulthood," 1-12.

48) Giovazolias, "The Relationship of Rejection Sensitivity to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10-14.

민감성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⁴⁹⁾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군 환경에서 상관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거절을 경험한 남성 장병들은 남성 지휘관에게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더욱 강한 거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여성 지휘관이 남성 장병을 지도할 때에도 유사한 심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성별과 관련 없이 청소년 자녀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통해 애착 형성 및 친밀감 형성이 되지 않은 경우, 거절 민감성이 발달하게 된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⁵⁰⁾ 입대 전, 어머니와의 관계가 불안정했던 장병들은 정서적으로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휘관이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상담접근을 병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각된 부모의 수용성과 친밀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거절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Tang 등은 거절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신체화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석했고, Gao 등도 거절 민감성은 신체화 및 섭식장애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⁵¹⁾ 군 환경에서는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이 신체화 증상(두통, 소화불량,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49) Maja Brekalo & Gordana Keresteš, "Remembrances of Childhood Rejection and Lonelines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Current Psychology* 43/9 (2024), 8252-8260.

50) Goldner et al., "Mother-Adolescent Parentification, Enmeshment and Adolescents' Intimacy," 192-201.

51) Tang et al., "Autonomic Reactivity to Social Rejection, Peer Difficulties and the Buffering Effects of Adolescent Friendships Following Early Psychosocial Deprivation," 318-30. cf. Gao et al., "Child Maltreatment as a Risk Factor for Rejection Sensitivity," 680-690.

수 있다. 이는 군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체화 증상이 지속될 경우 복무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롭기 때문에 거절 민감성이 높은 것인지, 거절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외로움을 갖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거절 민감성과 외로움은 상관관계에 놓여있다.⁵²⁾ 군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도 일부 장병들은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군 상담 프로그램은 이러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외로움은 사람이 사회관계에 대한 인식이 기대와 다를 때 발생하는 심리정서적 불쾌 경험이다. 외로움은 대부분의 국가 또는 문화권에서 영유아동기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경험/기억이 분명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모는 한 인간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자녀가 학대, 거절, 방치,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고, 수용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은 심리정서적으로, 심리 영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종목사는 이러한 거절 민감성의 근원을 이해하고, 장병들이 신앙을 통해 내면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거절 경험이 많은 장병들이 신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군 생활에서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52) Meltem Puşuroğlu et al., "Expressing Emotions, Rejection Sensitivity and Attachment in Patients with Fibromyalgia," *YMTJPMR* 69/3 (2023), 303-308.

Ⅲ. 거절에 대한 기독교 신앙

거절 민감성은 신앙과도 밀접한 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기독교상담학계에서는 이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신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인식할 때 하나님의 거절을 생각하고 신앙의 하락이 나타나 기도 한다.

1. 성경의 사례

성경을 수용과 거절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 내용은 시종 하나님의 수용과 거절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⁵³⁾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거절을 경험했으며, 이들의 반응과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군종목사가 장병들에게 적절한 상담접근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하고 대표적인 거절 경험은 예수님에게서 발견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요한복음 1: 11)라는 구절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고, 십자가 사건은 거절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장병들이 동료나 상급자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집단에서 소외되는 경험은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군종목사는 설교나 교육을 통해 예수님의 거절 경험을 이해하도록 하여 장병들이 경험하는 거절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돕는 목회상담적 개입을 제공해야 한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

53) Joshua Crutchfield, “Parallels and Intertextuality of the Rejection of Eli and the Rejection of Saul,” *Criswell Theological Review* 19/2 (2022), 125-137.

옵소서”(마태복음 26: 39, 42, 44)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심리상담학에서 말하는 거절 민감성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군 생활에서도 장병들은 원하는 부대, 보직을 받지 못하거나, 승진에서 탈락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거절을 경험할 수 있다. 이때, 거절을 단순한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 예수님의 태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군종목사는 이를 통해 장병들이 자신의 거절 경험을 극복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강한 거절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나 이런 사건이 그로 하여금 거절 민감성을 갖게 하고 심리정서적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기록은 없다(창세기 50: 20). 일부 장병들 가운데 따돌림이나 소외감을 경험하는 경우, 요셉의 사례를 통해 거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인내하여 성장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재구성 교육이 중요한데 이는 군종목사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대하여 거절하시며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신명기 3: 26)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군에서도 특정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장병들이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좌절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장병들이 자신의 상황을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돕는 것이 군 상담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여 결국 기

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거절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사무엘상 28: 6).

다윗은 밋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사무엘하 12: 16-18)라는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자녀를 데려가셨는데, 이는 다윗의 죄(밋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도 거절에 분노했다거나 거절 민감성이 나타났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육체의 가시) 치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거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고린도후서 12: 8-9)라는 구절은 거절 민감성 보다는 오히려 기도 응답 부재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사례이다. 군조직 내에서 장병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이를 좌절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군종목사는 바울의 사례를 활용하여 장병들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단순히 거절이 있었다는 내용일 뿐, 현대 상담학, 심리학, 상담심리학의 주제로서 거절 민감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도의 거절에 대한 태도는 수용성과 긍정적 해석을 통한 인지재구성을 통해 극복한 공통적 사례들이 발견된다. Johnson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거절 경험은 그 자체

를 성경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아픈 경험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⁵⁴⁾

2. 거절과 기독교 신앙

신앙생활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주로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경우나 명확한 응답이 없을 때, 일부 장병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느끼며, 거절 민감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군에서 신앙이 장병들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도 응답의 부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반응하지 않거나, 기도 응답이 거절되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분노와 실망, 심리적 좌절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Edward P. Wimberly는 자신의 목회상담 경험을 통해 밝힌 내용에서 “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거절감과 아울러 신앙이 함정에 빠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⁵⁵⁾고 분석했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장병의 이러한 신앙적 좌절 경험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통상 자아존중감이 높은 신자들에게서 하나님 이미지가 긍정적이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⁶⁾ 군에서 거절 경험이 반복될수록 장병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

54) Eric L. Johnson, *Foundations for Soul Care: A Christian Psychology Proposal* (Downers Grove, IL: IVP, 2007), 206.

55) Edward P. Wimberly, *Pastoral Counseling and Prayer* (Louisville: Westminster, 1990), 40.

56) Matt Bradshaw et al., “Prayer, God Imagery and Symptoms of Psychopathology,” *JSSR* 47/4 (2008), 644-659.

고, 이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거절 민감성이 높은 신자 장병은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거절에 대하여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부정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신자 장병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더욱 심리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군종목사는 이런 장병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상담 개입을 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자신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신론’(deism)적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 불안, 공포, 분노, 적의 등 심리정서적 상태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분석은 거절 민감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응답 부재의 인식은 개인의 신앙, 가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며, 이는 거절 민감성을 악화시키고 심리 영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군 환경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지만,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경험이 반복될 경우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적 냉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기도 응답의 부재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부정적 자기 평가에서 나온 내적 귀인으로 자신의 죄에 원인을 두거나, 외적 귀인으로 하나님의 거절을 생각하게 된다. 군에서 규율을 어겼거나, 원하는 결과(승진, 보직 변경 등)를 얻지 못한 장병들은 이를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한다’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내적 귀인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상

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거절 경험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거나 성장의 기회로 삼고 기도하는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좌절할 수도 있다. 군 상담에서는 이러한 신앙적 좌절을 겪는 장병들에게 성경적 사례(예: 요셉, 다윗, 바울)와 연결하여 신앙적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거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울증, 불안증을 비롯한 정신병리가 있는 신자들은 기도의 빈도가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다.⁵⁷⁾ 거절 민감성은 신앙의 퇴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경험한 거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인 대처방안일 뿐 아니라 심리 영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영적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신앙적 실천(예: 기도)을 활용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거절 민감성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⁵⁸⁾ 그렇기 때문에 거절 민감성과 신앙 관계에서 주요 치료적 변인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군에서 신앙을 가진 장병들이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은 단순한 신앙 유지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 회복과 군 생활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애착이론이 확장되어 신앙 및 신학과 관련을 맺으면서, 안정 애착 상태는 긍정적 하나님 개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절 민감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⁵⁹⁾ 군 환경에

57) Bradshaw et al., "Prayer, God Imagery and Symptoms of Psychopathology," 644-659.

58) Freedman & Dainer-Best, "Who is more Willing to Engage in Social Rejection?," 511-530.

59) Exline et al., "Is God Listening to My Prayers?," 1-24.

서도 신앙적 안정 애착을 형성한 장병들은 거절 경험을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안정 애착이 형성된 신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 형상에 투사하고, 자신을 자녀로 인식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갖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안정 애착은 거절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덜 느끼고, 자신이 수용되고 있음을 내재화하는 성향으로 나타난다.⁶⁰⁾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거절적인 양육 태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하나님을 ‘안전한 피난처’로 인식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안정성’을 갖고자 하나 거절 경험을 했을 때 불안과 외로움이 발생하며, 이것이 신자들을 매우 힘들게 한다. 지휘관이나 동료로부터 거절 경험을 한 장병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지만, 과거의 부정적 신앙 경험으로 인해 신앙적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IV. 거절 민감성에 대한 기독교상담 방안

일반적으로 반복된 경험은 인식이나 감각을 무디게 하거나 심리적 내성(tolerance)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빈번한 거절 경험으로 둔감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마치 기저질환처럼 아동청소년기 강한 거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빈번한 거절 경험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거절감을 느끼게 하고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서둘러 치료해야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⁶¹⁾

60) Kristin J. Homan & Chris J. Boyatzis, “The Protective Role of Attachment to God against Eating Disorder Risk Factors,” *Eating Disorders* 18/3 (2010), 233-258.

61) Martin Bobgan & Deidre Bobgan, *How to Counsel from Scripture* (Chicago: Moody,

1. 인지 왜곡에 대한 재구성

거절 민감성은 거절에 대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과잉반응으로 서 과잉일반화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인지행동치료는 거절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고, 그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거절에 대한 의미 재구성이 거절 민감성에 빠 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군 조직에서는 계급 구조와 엄격한 규율로 인해 장병들이 거절을 개인적인 실패나 배척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상관의 질책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단순한 훈련 과정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은 이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왜곡하여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군 상담에서는 장병들이 이러한 인지 왜곡을 바로잡고, 거절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인식의 확장은 중요한데, 즉 “거절은 상대방의 자유라는 것” “모든 사람은 살면서 예외 없이 거절당하고 산다는 것” “자신이 거절당했다 하여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거절당했다 하여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로부터의 치료나 회복은 어렵게 될 수 있다.

거절은 원치 않게 당하는 것이며, 기대에 어긋난 일로서 상대방의 거절에 대하여 자신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군 조직 내에서 명령 체계와 임무 배정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병들은 자신이 특정 보직이나 임무에서 제외되는 경험을 하더라

도, 이를 개인적 거절로 해석하기보다 조직 운영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이 또한 거절 민감성 감소를 위해 거절에 대한 과잉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거절감이 좌절이나 분노 및 공격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상(imagery)을 통한 인지 왜곡이 나타나지 않도록 극복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군 환경에서는 거절 경험이 분노와 공격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장병들이 인지재구성을 통해 감정 조절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집단 훈련 중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이를 ‘나는 무능하다’라는 핵심신념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개선할 기회가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 인식이 중요하다. 군대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신앙을 가진 장병들은 종종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임마누엘 개념을 통해 하나님이 군 생활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극한의 훈련과 작전 중에 장병들이 경험하는 거절과 좌절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전의 빈번하고 충격적인 거절 경험이 핵심신념으로 형성되어 “나는 항상 거절당해 왔어!”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야!”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해!” “나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가치없는 사람이야!” 하는 비합리적 핵심신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긍정적 인지재구성을 해야 한다. 군 상담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핵심신념을 분석하고, 장병들이 조직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긍정적

인 요소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관에게 칭찬받은 경험, 동료들과 협력하여 성공한 경험 등을 강조하여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수용을 통해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정서를 완화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신앙을 가진 장병들이 자기 수용을 통해 군 생활에서의 거절 경험을 보다 건강하게 해석하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믿음을 통해, 외부적인 평가와 거절을 지나치게 내면화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수용되지 않았고 거절당하였음을 인식하는 것이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

2. 지지 체계 강화

신앙과 관련한 거절 민감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신앙 공동체의 특성상 비판단적 태도, 이해, 용납, 위로, 지지, 용서, 수용 등 신앙의 긍정성이 신자들로 하여금 거절 민감성을 낮추거나 해소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다.⁶²⁾ 장병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거절 민감성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신앙 공동체(군 종교활동, 예배, 모임 등)는 장병들이 서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을 극복하게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신앙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지이다. 군대에서는 예배가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

62) Mary L. Inman et al., "Church Affirm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Weight Rejection Sensitivity and Body Dissatisfaction in Young Adults in the USA,"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62/4 (2023), 2585-2608.

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신앙 공동체가 장병들에게 지지 체계를 제공하고, 거절 경험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선한 존재이고, 항상 자신과 함께하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강조하며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⁶³⁾ 기도의 거절처럼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은 또 다른 응답임을 믿고, 이를 확신하도록 신앙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하다. 기도가 거절되었으나 그런 상황을 재구성한 성경 사례들을 인식하는 것은 적용 가능한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

가족, 친구, 상담사 등으로부터의 지지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거절에 대한 반응을 인정하며 긍정적으로 인지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군 상담에서는 장병들이 상관이나 동료뿐만 아니라, 군종목사나 신앙 공동체를 통해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절 민감성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적절한 이해와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의 경험과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소위 ‘우정 만족도’(friendship satisfaction)가 높은 경우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애착이론의 보상가설이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동료의 지지와 수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field)은 집단상담이다. 군 환경에서는 집단상담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유사한 거절 경험을 공유한 장병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극복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

63) Jill B. Hamilton et al., “The Use of Prayer during Life Threatening Illnes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9 (2020), 1687-1701.

절 민감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종목사는 이러한 집단상담을 조직하여, 장병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집단상담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집단 구성원의 문제 극복 태도 및 합의적 타당화(consensual validation)를 통해 자신의 문제 극복 방안을 모색하여 회복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동질집단은 구성원 간 더욱 용이한 자기 노출과 타인의 거절 민감성 극복 경험 및 태도 등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군 내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장병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활용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VI. 닫는 글

이 연구는 거절 민감성에 대한 심리정서적, 심리 영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독교상담 방안을 모색하는 문헌 연구였다. 거절 민감성은 타인의 거절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여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군 환경에서는 이러한 거절 민감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계급사회인 군 조직에서 장병들은 명령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일이 잦을 수 있다. 특히,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은 상관이나 동료들의 반응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군 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 조직 내에서 거절 민감성이 어떤 방식으

로 작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담적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영유아동기에 초기 양육자로부터의 거절 경험이 거절 민감성을 발생시켜 심리적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애착이론의 일치가설이나 대상관계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부모로부터 빈번하고 충격적인 거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 민감성이 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보상가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등 성경 인물들의 거절당함을 통해 거절에 인지재구성을 갖게 된 경우이다. 따라서 군 상담에서는 단순한 상담이나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신앙을 통한 인지재구성과 자아개념 확립이 중요한 개입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병들은 대인관계에서 불안 및 스트레스를 갖게 되며, 회피 경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인지재구성과 상담자에 의한 또는 군에서 강력한 지지 체계 형성 및 인지행동 치료 기법의 활용이 치료 방편이 될 수 있다.

거절 민감성 극복을 위해서는 거절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반응하는 성숙한 태도와 용기가 필요하다. 군 생활에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건강한 반응과 대처 능력은 더욱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장병들은 심리적 회복력(resilience)과 인지적 유연성을 길러야 하며, 이를 돕기 위해 군 상담 및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거절 민감성은 일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킨다기보다는 신앙적으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 상담에서는 신앙적 개입을 통해 장병들이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군종활동과 연계하여 ‘하나님 안에서
 서의 자기 수용’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장병들이 거절
 경험을 보다 건강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향후 이 주제와 관련하여 후학들의 활발한 연구를 위해 거절 민
 감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방법의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그 결과가 이
 연구와 어우러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군에서 거
 절 민감성과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병들의 거절 민
 감성 수준과 군 복무 만족도,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군대라는 폐쇄적
 인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 공동체의 지지가 거절 민감
 성 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군
 상담 및 목회 돌봄에서 보다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 이미지에 따른 거절 민감성, 신앙 공동체의 지
 지 정도와 거절 민감성 정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필요하다.

인지행동치료의 노출치료, 심상기법, 인지재구성 등을 활용한 집
 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거절 민감성을 비교해 본다면 이 문제
 에 대한 치료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군 상
 담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적용할 수 있으며, 거절 민감성이 높은 장
 병들을 대상으로 노출치료(거절 상황에 대한 점진적 적응 훈련), 심상기
 법(거절에 대한 긍정적 시각화), 인지재구성(거절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해석
 하는 훈련) 등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군 생활 적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sychological Analysis of Rejection Sensitivity in Soldiers and Counseling Strategies for Military Chaplains

Joseph Jeon

This research is a literature review that examines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mong military personnel and explores pastoral counseling strategies for military chaplains. In the highly structured and hierarchical environment of the military, service members are subject to continuous evaluation and frequently experience various forms of rejection. Those with high rejection sensitivity may suffer from psychological withdrawal and interpersonal difficulties, which can negatively impact their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nd overall mental well-being.

While rejection is a common human experience, its psychological effects can be more pronounced in the military context. Some service members may exhibit extreme emotional fluctuations or adopt passive attitudes in executing orders. If left unaddressed, these issues can escalate into unit conflicts and hinder post-service social adaptation. Consequently, military chaplains must provide pastoral counseling interventions that

help service members process and overcome their rejection experiences in a healthy manner.

Rejection sensitivity is often rooted in insecure attachment, which can be reactivated in military life. Counseling efforts should assess service members' attachment styles and their responses to rejection in order to develop tailored therapeutic interventions. Individuals with secure attachment tend to exhibit lower rejection sensitivity, whereas those with high rejection sensitivity are more prone to repetitive negative interpretations of rejection experiences. This can undermine trust within military units and hinder the formation of effective teamwork.

Military counseling should als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experiences and self-esteem among service members, offering support through faith-based communities and counseling programs to foster positive self-concept development. Christian service members, in particular, may interpret unanswered prayers as divine rejection, leading to psychological distress and spiritual struggles. Military chaplains should provide counseling that reinforces their faith in God's love and protection.

Cognitive-behavioral therapy techniques such as self-acceptance, exposure therapy, and imagery techniques—have been shown to be effective in alleviating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military setting, counseling should integrate individual therapy with group counseling and faith-based community activities to

support service members in overcoming rejection. Ultimately, chaplains should guide service members in reaffirming their self-worth through faith and cultivating the inner resilience necessary to cope with rejection.

Since rejection sensitivity is a consequence of underlying psychological factors rather than an isolated issue, efforts should focus on fostering a positive self-concept through faith and instilling the courage to overcome rejection experiences. A combined approach of pastoral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ll serve as an effective solution in military counseling settings.

Key Words

Rejection Sensitivit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astoral Counseling, Military Chaplain, Cognitive-Behavioral Therapy

논문 기고자 **Email**

jeon8182@gmail.com



성경의 리더십 계승 성공 사례와 원리 연구

A study on successful cases and principles of the leadership
succession of the Bible

» 이용락 Ph. D.*

국문초록

성경에 나타난 성공적 리더십 계승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 리더들은 항상 시대의 변화를 읽고 다가올 세대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발굴된 리더로 하여금 시대의 변화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켰다. 그 결과 그들이 진행했던 리더십 계승 과정에 부작용이 없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마가 요한,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 리더십 계승을 통해 공통의 목적을 공유했다.

리더십 전환은 위기와 기회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리더의 출현은 조직 내의 시스템, 문화, 업무 수행 방식, 인력 운영 등 조직 전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십 계승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전임자와 후임자가 아무런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리더십 전환이 일어난다면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교회도 이러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성경의 리더십 계승 원리를 적용하여 적절한 리더십 계승을 시행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리더십, 조직, 리더십 계승, 리더십 전환, 멘토링, 위임

•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31일 • 논문 수정일: 2025년 9월 1일

•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2일

*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예)군종목사(군종51기), 열매맺는교회 담임

1. 들어가는 말

1996년 4월 3일 미 공군 수송기(보잉 CT-430)가 크로아티아 산악 지대에 추락하여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비행기에는 미국의 상무부 장관 ‘론 브라운’(Ron Brown)¹⁾을 비롯하여 35명이 탑승했고, 일행들 가운데는 몇몇 기업의 CEO들이 있었다. 이 사고로 갑자기 핵심 리더를 잃은 세계적 건축회사인 ABB, 벡텔(Bechtel)은 주가가 폭락하고 CEO 선출 과정에 있어 대립과 내분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사시대 말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리더가 된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혼란했던 이스라엘 사회를 안정시켰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물려준다. 아버지의 리더십을 계승한 두 아들은 한마디로 자격미달이었다. 그들은 사무엘이 보여줬던 리더십 모범과 역량을 본받지 않고 그 반대로 행동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극에 달했고 사무엘은 노년에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결국 사무엘은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새롭게 왕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통치의 길을 연다(삼상 8: 1-9).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이 전임자 엘리 제사장의 혹독한 실패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또한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핏줄이라 할지라도 가치관이 공유되지 않는 리더십 계승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1) 그는 미국 최초 흑인 상무부 장관이었다.

그래서 많은 리더십 학자들은 리더십 계승이야말로 리더십의 완성이라고 주장한다. 리더십 계승은 객관적인 기술임과 동시에 통찰력과 식견을 필요로 한다. 전임 리더가 아무리 탁월하고 차세대 리더에 대해 아무리 많은 정보와 자료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차세대 리더의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리더십 계승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리더십 계승에 있어 전임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²⁾

역사는 리더의 중요성을 잘 교훈하고 있다. 능력 있는 리더 한 사람에 의해 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고,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기업과 도시, 문화가 바뀐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교회나 선교 단체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교회 리더인 담임목사가 바뀌면 그 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담임목사의 역량이 강화되면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³⁾ 그러나 교회의 리더십이 위축되고 리더십 계승이 단절되면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본 논문은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리더십 계승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성경의 성공적 리더십 계승 사례

성경에는 왕, 족장, 수령, 방백, 지도자, 사사, 제사장, 선지자, 사도 같은 다양한 형태의 리더들이 출현한다. 리더에 대한 호칭이 다양할 지라도 리더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 그 가운데 성공적 리더십 계승

2) 박진석, 『리더십 바톤터치』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8), 172.

3) J. Robert Clinton, *Leadership Training Model* (Altadena: Barnabas Pub., 2006), 6.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 리더들은 항상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다가올 세대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발굴된 인물을 시대의 변화에 맞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그 결과 리더십 계승 과정에 부작용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리더의 능력이 조직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교훈과 아울러 리더십 계승 과정에 적절한 원칙과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에 등장하는 리더십의 성공적 계승 사례는 다음과 같다.

2-1.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리더였다. 그러나 그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을 읽을 때 큰 당혹감을 느낀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성인이 된 모세가 화김에 애굽 사람을 죽인다. 또 3장에서는 소명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 이스라엘 리더로서 모세의 모습은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공식적 리더가 되기까지 비록 인생 초반에 치명적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지만, 이러한 과정들과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40년의 광야생활이 모세를 매우 성숙한 리더로 변화시켰음을 보여준다.

모세와 광야생활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의 인생의 2/3나 되는 80년을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리더로서 소명과 계시를 받았다. 광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מדבר)인데, 그 어근이 ‘말’(Word)을 의미하는 ‘다바르’(דבר)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실이다. 이는 광야생활이 하나

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생활이기에 고달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⁴⁾ 애굽 왕 바로와 대면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모세는 리더의 능력을 적합하게 사용했고, 자신의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 시기를 잘 준비하여 리더십 계승 작업을 순조롭게 완성했다.⁵⁾ 인생 말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그곳에서 받은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는데, 이는 자신의 자전적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 2-3)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사명을 맡기기 위해 준비시킬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스승이나 격려자같이 중요한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을 준비하게 하셨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이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민수기와 신명기에 27회나 등장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는 모범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여

4) Timothy Laniak, *While Shepherds Watch Their Flocks: Rediscovering Biblical Leadership* (Wedgewood Drive Matthews, NC: Shepherd Leader Publication, 2007), 23.

5) 박진석, 『리더십 바톤터치』, 16.

호수아가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여호수아는 야망을 갖고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 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지도 않았다. 그가 모세를 섬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임무 때문이었다.⁶⁾

출애굽 이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명씩 대표를 선정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뽑혔다(민 13: 2-8).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항변한다. 이를 보고 모세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 아래 여호수아는 군사적 용맹을 발휘하여 몇몇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고, 이를 통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한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여호수아는 동행했다. 모세의 가르침과 인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의 신앙은 성장했고, 마침내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되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고별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신 1: 37-38)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멘토로 삼아 이스라엘의 차세대

6) Henry & Richard Blackaby, 『감동의 리더십』, 전의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7), 46.

리더로 여호수아를 오랫동안 준비시켰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몸소 실천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막, 시내산 등으로 데리고 갔고(출 24: 9-18, 33: 7-11),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했다(출 17: 14; 민 11: 28-30).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를 자신의 사역 모델로 삼아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 보면서 배웠다(출 32: 15-35). 그 결과 여호수아와 모세는 유사점이 많았다. 이러한 유사점은 여호수아에 대한 모세의 리더십 계승 결과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경우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계셨다(수 1: 5). 둘째,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복종할 것을 맹세했다(수 1: 17). 셋째,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다(수 2: 1). 넷째, 둘 다 모두 기적같이 물을 건넜다(수 3: 17; 출 14: 26-31). 다섯째,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여 열두 돌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열두 돌 기념비를 세웠다(수 4: 5, 20). 여섯째,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두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는 경험을 했다(수 5: 15; 출 3: 5). 일곱째,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아이성 거민과의 전투 시 승리할 때까지 단창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수 8: 18, 26). 여덟째, 둘 다 모두 돌에 율법을 새겼다(출 24: 12; 수 8: 32). 아홉째, 모세 앞에서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서도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민 27: 19-21).⁷⁾

7) Gene Wilkes, *Jesus on Leadership: Becoming a Servant Leader* (Nashville, Tennessee:

결국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질 때까지 여호수아의 자질을 개발하고 그의 리더십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키는 리더십 계승 작업을 성실히 수행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광야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⁸⁾ 리더십 계승 작업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수 1: 5)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이루어진 리더십 계승에 대한 공식적 지지와 만족감을 표현하신 것이다.⁹⁾

2-2.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기 오래전에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사울은 리더로서 성실함과 순종의 모범을 유지하지 못해 결국에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인생 말로는 너무나 비참했다. 사울의 타락이 깊어가던 무렵,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로 준비시켰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만 다윗은 슬기롭게 그 위기를 잘 헤쳐 나갔다. 다윗은 전적으로 사무엘을 신뢰했으며 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Lifeway Press, 1999), 235.

8) 류재석, 『성경 그리고 멘토링』(서울: 이담북스, 2010), 25.

9) Eddie Gibbs, *Leadership Next* (Downer Grove: IVP Books, 2005), 136.

기독교 리더십 학자이자 오랫동안 미국인들의 종교적 신앙과 행위를 연구했던 ‘조지 바나’(George Barna) 교수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리더가 추종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리더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도덕적이어야 하며, 셋째는 리더는 언행이 일치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이로 볼 때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도 언행일치를 통해 추종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다. 다윗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다윗이 사울보다 사무엘과 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짧았다. 성경에 의하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왕으로 기름부음 받고 난 이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의 한 번뿐이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과 결별하고 자기 고향으로 낙향한 사무엘을 찾아 라마 나옴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삼상 19: 18).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Ramah)이다. 정확히 말해 라마라는 지명은 있지만, 라마 나옴이란 지명은 없다. 그렇다면 라마 나옴으로 기록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히브리어로 ‘나옴’(נֶחֱמִין)은 집단적인 ‘거처’나 ‘처소’를 뜻하는 말로써, 이는 흔히 배움의 집이나 학생들이 머무는 숙소로 번역된다. 따라서 라마 나옴이란 표현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려는 학생들을 위해 라마에 세운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무엘은 젊은이들을 모아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공동체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며 미래의 인재를 양성했던 것이다.¹¹⁾ 그러던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라마로 찾아왔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사무엘이 세운 공

10) George Barna, *Master Leaders* (Ventura: Tyndale House Publishers, 2009), 86.

11) H. D. Spence & Joseph S. Exell, ed., *The Pulpit Commentary: I&II SAMUEL*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361-362.

동체에서 차기 이스라엘 리더로서 영적인, 인격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무엘의 영향 아래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과 목민(牧民)에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이다(삼상 15: 34, 19: 18).

사실 사울의 견제 때문에 사무엘과 다윗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란 환경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했던 라마 나뭇에서의 경험이 다윗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사울왕을 대신할 인물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의 만남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다윗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 강력한 인격적 관계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비록 사무엘과 다윗의 멘토링 기간이 짧았고 환경적 제약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무엘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성실함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시기에 등장했던 사무엘은 영적 리더로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질투와 이방 민족의 견제 등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을 차세대 리더로 발굴하고 훈련시켜 마침내 성숙한 신앙인이자 위대한 리더로 만들었던 영적 스승이자 멘토였다.

2-3. 엘리야와 엘리사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리더십 계승의 사례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 수 있다. 갈멜산의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 시나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는 탈진했고 낙망한 상태였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왕상 19: 14).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굴하지 않은 칠천 명의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이들 중 한 사람인 엘리사의 이름을 언급하셨다(왕상 19: 16).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무대에서 떠난 뒤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에 선지자는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후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리더에게 후계자가 없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던 엘리사를 발견하고 그를 선지자로 임명하였다. 그 후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사역에 동행시켜 리더십 개발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로 불려 갈 때까지 지속적인 훈련을 받게 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차세대 리더로 지명함으로써 선지자의 직임을 위임하였다.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선정된 이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리더십 계승 작업을 진행했다.

첫째는 엘리야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왕상 19: 19). 리더십 계승을 위해서는 선임 리더가 차세대 리더를 발굴해야 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여기서 우리는 차세대 리더를 발견하는 문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¹²⁾ 둘째는 엘리사의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왕상 19: 20)

12) Howard Hendricks, *Standing Together* (Sisters: Multnomah Books, 1995); 박경범 역, 『사람을 세우는 사람』 (서울: 디모데, 1996), 124.

라는 말씀은 엘리사가 이제 자신의 삶을 엘리야와 연결시켰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엘리야는 관계를 통해 엘리사에게 리더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 셋째는 엘리야 자신이 엘리사에게 모범이 되었다. 멘토링 연구가 알버트 벤두라(Albert Bandura)는 말하기를 “본받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이다”¹³⁾라고 했다. 엘리사가 부름 받은 것과 엘리야가 불 수레를 타고 떠나는 사건 사이가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엘리야는 엘리사와 꾸준히 함께했다. 아합이 나봇을 살해한 이후 엘리야가 아합과 맞서 회개를 요구할 때 엘리사도 거기 있었으며(왕상 21: 17-29),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하나님 대신 블레셋 우상들과 상담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도록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을 때 엘리사도 함께했다(왕하 1: 1-17). 이러한 사건들은 두 사람이 함께했던 많은 경험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더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길갈, 벧엘, 여리고 등 끝까지 동행하여 엘리야의 능력을 감절이나 연기를 소원하였고, 그 결과 전임자의 능력을 전수할 수 있었다.

2-4.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등장한다. 그에 대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바나바는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본래 구브로 출신으로 레위 지파였던 바나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지를 팔아 그 값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쳐 가난한 형제들의 구제헌금으로 사용

13) Hendricks, 『사람을 세우는 사람』, 128.

하게 했다. 바나바는 본래 요셉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는 그가 회심 이후 신앙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수고와 헌신을 몸으로 보여주었음을 나타낸다. 바나바는 영적으로도 담대한 사람이었다.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로 언급되는 것을 볼 때, 바나바가 신앙 경력이 쌓임에 따라 영적, 지적 능력을 겸비한 리더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뒤바뀌 놓을 만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변화된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이다. 리더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안내하는 것이다. 회심 이후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다 바울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다. 이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의 회심의 진실성을 대변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바나바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 사역에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 이후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보살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바울의 멘토이기도 했던 바나바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바울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계승했다. 첫째,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과 친분을 맺었다(행 9: 26-27). 둘째, 바울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게 하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방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시작하게 했다(행 13: 1-3). 셋째, 리더십 구현에 있어서 바울의 권위를 자기보다 앞세웠다(행 13: 13). 넷째, 바울과 같이 민족적 적대감 그리고 우상숭배와 싸웠다(행 13: 46-14: 20). 다섯째,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변호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앞장섰다(행 15: 1-4, 12).

특히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바울과 사역하는 동안 바울이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실질적인 리더라는 것을 알았다. 이때 바나바는 바울과 선후배의 관계를 벗어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전환점이 왔음을 인식하고 바울에게 리더십의 주도권을 넘겨주기 시작했다. 사실 바나바처럼 리더십의 역할을 바꾸려면 인격적 성숙이 필요하다. 바나바는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고, 자신보다 더 역량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가 새로운 지위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리더십 전환은 수직적인 구조에서는 어려우며 팀 사역이 가능한 수평적 구조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리더십이 전환되었다는 것은 바나바가 팀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입증한다.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상황에 맞는 리더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그가 상황에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리더는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¹⁴⁾

리더십을 독점하는 리더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리더십을 계승함으로써 초대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모습은 영적 리더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추종자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5. 바나바와 마가 요한

바나바는 핍박자였던 바울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던 예루살렘의

14) Gibbs, *Leadership Next*, 43.

사도들에게 바울을 동료로 받아줄 것을 처음으로 설득한 장본인이었다. 바나바의 이러한 행동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의미답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행동이었다.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바나바의 이러한 사역은 마가 요한에게도 적용되었다. 비록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갑자기 귀국하여 선교팀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지라도 바나바는 마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초기에 마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바울 앞에서 마가를 강하게 변호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관철되지 않았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역량 있는 선교사로서 바나바보다 더 역량을 발휘했지만, 덕망 있는 바나바와는 차이가 있었다. 아직 바울의 리더십은 불완전해 보였다.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진 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훈련시켰다(행 15: 39). 바나바가 구브로섬에서 태어났고 구브로에 바나바 기념교회와 무덤이 있는 것을 보면, 구브로가 바나바의 중심 사역지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후 구브로를 떠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 동역하는데, 이때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베드로 사도는 마가 요한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그의 신앙을 인정했다. A. D. 50년경 바울과 헤어진 마가가 성경에 다시 등장한 것은 바울서신을 통해서이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골 4: 10). 골로새서 기록 연대가 A. D. 62년 무렵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12년 사이에 말 그대로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마가 요한에게 영적인 면에서나 사역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배경에는 바나바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람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리더십 개발이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십 개발에는 시간적, 물질적 투자와 아울러 인내심이 필요하다. 선임 리더는 차세대 리더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야 한다.¹⁵⁾ 이것이 바로 신뢰이다. 리더십 계승에는 이와 같은 신뢰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데, 바나바는 이 원칙에 충실했다. 그 결과 복음 사역자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 요한을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마가 요한을 끝까지 신뢰하여 그의 리더십 역량을 개발시켰던 바나바의 노력이 결국에는 선교여행 중간에 마가 요한을 포기했던 사도 바울마저 영적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의 성숙한 리더로 만들었던 것이다.¹⁶⁾

2-6. 바울과 디모데

바울은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바로 리더를 세우지 않고,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여 리더로 임명받을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을 보고 리더로 세웠다.¹⁷⁾ 특별히 바울은 사람을 세울 때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시했다. 실례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지만 바로 부르지 않고,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가 살고 있던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여 그를 복음 사역자로 임명했다. 바울은 디모데와 선교여행을 같이 하며 복음에 관해 많이 소통

15) Jimmy Long, *The Leadership Jump* (Downer Grove: IVP Books, 2009), 36.

16) 류재석, 『성경 그리고 멘토링』, 128.

17) John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Chicago: Moody Press, 1980), 45.

했을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교육시키기 위해 디모데를 잔류시켰고, 베뢰아에서 다시 만나 에베소와 마케도니아, 고린도, 소아시아를 같이 방문했다(행 17-19장). 디모데는 바울이 처음 투옥되었을 때도 함께했고, 바울이 석방된 후에도 계속하여 동역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훈련을 위해 디모데를 에베소로 파견하기까지 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및 빌레몬서에서 디모데를 공동의 저자로 기록한 것을 볼 때, 디모데를 영적으로 성숙한 동역자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빌 2: 19-22)

리더에게 유능함도 필요하지만, 그 유능함을 뒷받침할 전략도 필요하다.¹⁸⁾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이어지는 리더십 계승 과정을 보면 저(低)책무에서 고(高)책무로 역할이 상승되고, 모방모델에서 자기역할 모델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멘토링을 통해 디모데의 잠재력을 서서히 개발시켜 디모데가 유능한 리더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바울은 사도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여러 특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사역을 위해 특권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세

18) 이재기, 『거장 바울의 리더십 콘서트』 (서울: 요단출판사, 2010), 244.

우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자신의 사역을 적응시켰다.¹⁹⁾ 리더십을 계승하려는 바울의 목적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교회를 위한 복음의 전수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게 했으며, 바울의 사역에 나타났던 어려운 위기들을 함께 경험하게 함으로써 디모데를 교회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시켰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요 계승자인 디모데를 직접 대면하여 훈련시켰지만, 디모데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당시 유일한 통신 수단인 편지로써 관계를 유지했다.²⁰⁾ 그리고 이 리더십 계승 과정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멘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사실 이러한 역할들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는 평소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배려, 사랑, 의사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²¹⁾ 결국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리더십 계승은 위임과 동기부여가 잘 나타난 임파워먼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대교회에 훌륭한 리더가 출현했음을 보여준다.

3. 성경의 리더십 계승 원리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 계승 사례는 시대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은 핵심 리더들이 국가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고 훈련받은 내부

19) *Ibid.*, 255.

20) 편지나 E-mail, 전화 등을 이용한 멘토링을 가리켜 클린톤 교수는 ‘원거리 멘토링’(Distance Mentoring)이라고 부른다.

21) 류재석, 『성경 그리고 멘토링』, 130.

의 리더에게 리더십을 계승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도와 목사, 교사 같은 영적 리더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리더십을 계승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계승했던 영적 리더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비전을 가졌다는 사실과 그들이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훈련과 검증을 받았다는 점이다. 훈련과 검증은 영적 리더들에게 삶을 갱신시키는 독특한 내면적 체험을 제공했고, 이러한 리더십 개발 과정을 통해 세워진 영적 리더는 리더십 격차에 대한 우려 없이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나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 리더들의 출현 배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또한 영적 리더들은 배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는데, 배움에 대한 리더들의 열린 자세는 그들의 침체를 막고 성장시킨 요인이 되었다. 사실 훈련받은 영적 리더들에게서 제약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에서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계승했던 인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의 성공적 리더십 계승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리더십 계승을 통해 공통의 목적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통의 목적이란 가치와 비전이다. 가치와 비전의 공유는 리더십 계승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계승이란 단지 지위를 물려주고 받는 것이 아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비전이 계승되지 않는 리더십 교체는 큰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과 므낫세가 신앙이 매우 훌륭했던 부친으로부터 왕권을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조들이 추구하던 신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지 못해 이스라엘의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최고의 지위에 오른 리더에게 선조의 축복을 계승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성경의 성공적 리더십 계승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급작스러운 리더십 전환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순차적인 전환은 차세대 리더십을 개발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다.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계승했던 성경의 리더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리더십을 계승했는데, 그것은 크게 리더십 계승 이전과 계승 단계 그리고 리더십 계승 이후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진행된 임무들은 다음과 같다.

〈도표 1〉 리더십 계승 단계별 임무

구분	리더십 계승 이전 단계	리더십 계승 단계	리더십 계승 이후 단계
내용	선임 리더의 은퇴 준비 ↓ 리더십 공백기에 대한 대책 ↓ 차세대 리더 발굴	멘토링 (제자훈련/영적 인도/코칭) ↓ 수습훈련(Internship) ↓ 조직의 사명과 상황 파악 ↓ 위임	추종자들의 인정 ↓ 조직의 안정과 발전

셋째, 성경의 리더십 계승에는 모범의 법칙이 적용되었다.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계승했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사역을 수행하는 능력을 검증받았고, 또한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흔히 피터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이

것은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여 일정한 지위에 오르고 나면 그 뒤에는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나 삼손, 솔로몬 같은 인물이 대표적 본보기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 퇴보하는 것뿐이다. 리더는 능력과 지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나, 아무리 윤리적이라 할지라도 무능력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²²⁾

4. 성경의 리더십 계승 방법

사람이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영적, 도덕적 혹은 지적이든지 자신들보다 어떠한 면에서라도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가리켜 리더십 수준이라 한다. 예를 들어, 리더십 수준을 1에서 10까지 나눌 때 어떤 사람이 리더십 수준이 7이라고 한다면 리더십 수준이 6인 사람을 따르지 않고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다.²³⁾ 만일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결국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리더십 계승이 리더십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리더십 계승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계별로 진행되지만 각 단계마다 책무와 계승 모

22) Lorin Woolfe, *The Bible on the Leadership* (New York: AMACOM, 2002), 202.

23) John Maxwell, *The 21 Irrefutable Laws of Leadership* (Nashville: Thomas Nelson, Inc., 1998), 76.

텔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 2〉 리더십 계승 단계별 책무와 역할 모델

저책무 →	→ 중책무 →	→ 고책무
리더십 계승 초반기	리더십 계승 중반기	리더십 계승 후반기
모방 모델 →	→ 개인성장 모델 →	→ 자기역할 모델
낮음 ←	리더십 수준	→ 높음

리더십 계승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리더 한 사람에 의해 조직의 시스템과 문화가 바뀌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계적 특성이 강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운용하는 조직의 경우 리더십 전환에 따른 영향력은 지대하다. 따라서 큰 조직일수록 리더십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더십 계승 작업은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리더십 계승이 실패하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리더들은 리더십 계승의 중요성을 잘 인식했고 준비했다. 그들이 리더십 계승에 있어 가장 모범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멘토링과 위임이다.

4-1. 멘토링

기독교 리더십 학자이자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교수였던 클린톤(J. Robert Clinton)은 리더십 계승을 위한 훈련 방법으로 공식 유형(Formal), 무형식 유형(Non-Formal), 비공식 유형(Informal)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식 유형은 흔히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방식으로, 계획적이고 통합적인 커리큘럼 속에 장기간 졸업장

을 수여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교사는 하나이지만 학생은 다수라 전인격적인 교육이 시행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무형식 유형은 세미나와 워크숍(Workshop)같이 계획성이 있지만 커리큘럼 면에서는 공식 유형에 미치지 못하는 비통합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기술과 기능을 전달하고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비공식 유형은 사역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대일 교육 방식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매우 높고 전인적 교육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방식이 멘토링(Mentoring)과 도제교육(Apprentices), 인턴십(Internship)이다. 클린톤 교수는 성경의 리더들을 살펴볼 때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공식적 유형보다 사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멘토링 방법을 통해 리더로 양성되었다는 것을 직시했다.²⁴⁾

〈도표 3〉 Clinton의 리더십 훈련 모델²⁵⁾

리더십 훈련 모델			
종류	공식 유형(Formal)	무형식 유형(Non-Formal)	비공식 유형(Informal)
내용	대학 대학원	워크숍 세미나	도제교육 인턴십 멘토링
특징	계획적이고 통합된 커리큘럼을 통해 자격증이나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한 교육	계획적이지만 기능성에 중점을 둔 비통합된 커리큘럼을 통해 사역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기술 전수	계획적이지만 개인의 성장에 목표를 두고 현장 학습, 활동들을 통해 실제적인 기술이나 가치 등을 전수

24) J. Robert Clinton, *Leadership Training Model*, 37.

25) *Ibid.*

멘토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직접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그 원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발견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경험을 나누고, 또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멘토링이다. 멘토링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멘토링은 어떤 계약이나 거래, 협정이 아니다. 멘토링에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긴밀한 유대감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는 보호와 뒷받침과 격려와 보증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멘토링 관계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멘토리에게 멘토가 갖고 있는 능력 자원을 전달해 줌으로써 멘토리의 성장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능력 자원이란 지혜, 권면, 정보, 정서적 지원, 보호, 자원들의 연결, 인도, 지위, 사역 철학, 통찰력, 리더십 기술, 사역 기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 등을 가리킨다.²⁶⁾

이와 같이 멘토링은 관계적 특성이 강하고 장기적이며, 삶의 일면이 아닌 개인의 삶 전체를 다룸으로써 성장과 개발을 이룬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멘토링의 효과가 보증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멘토와 멘토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과 동시에 멘토가 멘토리의 인격 형성과 능력 개발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멘토링은 멘토가 시간과 노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삶의 자원들을 멘토리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헌신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사역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멘토리가 성숙해지면 결국 멘토가 될 것이며, 그는 또 다른 후계자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⁷⁾

26) Bobb Biehl, *Mentoring: Confidence in Finding a Mentor and Becoming One*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 1996), 22.

27) 주상지, 『리더십 개발의 12가지 열쇠』 (서울: 서로사랑, 2000), 366.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멘토링 과정을 통해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멘토이자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4-2. 위임

위임은 리더가 조직의 한 개인에게 권력의 일부분을 이양하거나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권력을 공유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위임에서는 반드시 리더십을 행사하는 책임의 경계,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권한의 범위,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리더십 학자인 유클(Gary Yukl)은 리더가 위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위임의 효과를 몇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위임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기술과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고, 둘째는 과업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가시키며, 셋째는 리더의 업무 부담을 줄여 시간을 더 잘 관리하게 만들고, 넷째는 리더가 하고 싶지 않은 지루한 과업을 없애 리더의 탈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²⁸⁾

흔히 리더들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리더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다. 조직 구성원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보다 더 유능하게 보이지 않도록 리더십 기회를 독차지하거나, 자신의 일에 파묻혀 조직 내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고의든 자의든 차세대 리더를 양성

28) Gary Yukl, "Determinants of delegation and consultation by manag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20 (1999), 219-232.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실수이고, 리더 혼자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는 것도 조직의 발전을 방해하는 치명적 독소라는 것이다.²⁹⁾

리더십은 본래 자신보다는 조직과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리더십 분석가인 맥팔랜드(Lynne Joy McFarland)와 센(Larry Senn) 그리고 차일드레스(John R. Childress)는 “리더십에서 위임은 지위의 힘(position power)에서 사람의 힘(people power)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것이 조직에 공헌하는 좋은 리더십이다”³⁰⁾라고 했다. 이 말은 리더의 권한이 위임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리더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점차 개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조직은 발전하고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세계사 가운데서도 위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표적 인물이 있다. 흔히 전쟁의 영웅이라 불리는 나폴레옹과 칭기즈칸이다. 나폴레옹의 전기 작가 마크햄(Felix Markham)은 나폴레옹에 대해 평가하기를 “나폴레옹은 유능하지만 평소 그는 부하들의 실수를 자주 책망하고 지적하면서도 전술을 가르치거나 참모학교를 세우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휘하 장군들에게 독립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지도 못했다. 그 결과 중요한 ‘워털루 전투’(Battle of Waterloo) 초기 상대방보다 병력 34,000명과 총포 108정의 전투력 우위 속에서도 패배했는데, 그 이유는 평소 독립적 작전 능력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오로지 나폴레옹의 문자적 출동 명령만을 무작정 기다려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그라우치’(Emmanuel de Grouchy, 1766~1847) 장군의 무능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대패한 중요한

29)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133.

30) Lynne Joy McFarland, Larry Senn & John R. Childress, *21st Century Leadership: Dialogue with 100 Top Leaders* (LA: Leadership Press, 1993), 64.

요인이다”³¹⁾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세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제국의 칭기즈칸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리더십의 위임 때문이었다. 칭기즈칸 주변에는 뛰어난 장수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몽골군의 사령관 선발 방식에 기인한다. 칭기즈칸은 통치 기간 내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귀족이든 평민이든 할 것 없이 그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킨 후 지휘관으로 삼았다. 실제로 칭기즈칸의 부하 가운데는 병사에서 지휘관까지 오른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칭기즈칸은 사령관을 선발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이용했다. 첫 번째 방법은 ‘케시크’라고 하는데, 이는 병사들 가운데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소수 정예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칸의 호위병 임무를 수행하면서 칸과 맺어진 인관관계를 바탕으로 장수가 된 이후에도 칭기즈칸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였으며, 칭기즈칸도 이들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인 신뢰를 보였다. 두 번째 방법은 견습병 제도로서, 이는 선발된 병사를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와 일대일 멘토링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칭기즈칸도 젊은 시절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아 마침내 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에 그는 이 방법을 선호했다. 특히 그의 장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수부타이(몽골명 수베데이, 1175~1248)도 견습병 제도를 통해 양성된 인물이다. 칭기즈칸은 리더의 권한 이양과 리더십 계승을 적절히 활용하여 리더로 양성된 장

31) 위털루 전투는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브뤼셀 남쪽 15km 지점인 ‘라 벨 알리안스’(La Belle Alliance)란 지역에서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프러시아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서 유럽의 문명을 바꿔놓은 전쟁이다. 위털루 전투란 명칭은 이 전투의 승자인 웰링턴 공의 사령부가 있던 곳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전투를 통해 확실한 재기를 노리던 나폴레옹은 병력 5만 명을 잃고 참패하여 남대서양의 세인트헬레나섬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1821년 52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Blackaby, *Spiritual Leadership*, 134.

수들을 신뢰하고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다양한 전쟁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다.³²⁾

사실 리더십 계승에 있어 위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성경의 리더십 계승에 있어 위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표적 인물은 모세이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그대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출 18: 18). 모세는 이드로의 권면을 즉시 수용했다. 그가 이드로의 충고대로 위임의 원리를 적용했을 때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여기서 위임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위임은 리더와 추종자 그리고 조직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만족과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도표 4〉 위임의 효과 분석³³⁾

위임의 효과	
리더	① 리더의 탈진을 예방할 수 있다. ② 리더십 구현에 더 집중할 수 있다. ③ 조직을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
추종자 (계승자)	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계승자의 인지도를 순차적으로 높일 수 있다.
조직	① 조직의 임무와 역할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② 리더십 전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32) Timothy May, 『몽골병법』, 신우철 역 (서울: 대성출판사, 2009), 167-168.

33) 이상욱, 『현대 조직의 리더십 적용』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120.

이와 같이 위임은 구성원 속에 있는 차세대 리더의 능력을 개발하고,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촉매제가 된다. 아울러 위임은 리더가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를 속박하고 있는 제약들을 제거할 기회를 준다. 넓게 보면 이것이 리더십 계승을 위한 개발 훈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임은 시간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때 리더십 계승 효과가 상승하고 조직과 구성원들에게도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

5. 결론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리더는 지적이든 도덕적이든 지위에 맞는 자질과 리더십 능력을 갖고 있어야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리더십 계승이 리더십의 완성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된 논리가 아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조직에 미래는 없다.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진 리더라 할지라도 영원한 지배자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 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데 실패하는 조직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더십 계승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의 리더십 계승 사례는 교회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

모토로라의 최고 경영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로버트 갬빈’(Robert W. Galvin)은 “유능한 최고 경영자들은 리더십의 연속성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 경영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다. 언제나 우리는 다음 세대 리더를 발굴해야 하고, 유능한 후보자들에게 리더십 계승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³⁴⁾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리더십 단절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사사기와 역사서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리더십 계승에 있어 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입장 차이 때문이다. 하나는 담임목사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성도들이 앞서서 후임자 선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담임목사가 주도적으로 후임자 선정 방안을 제시할 때 이를 교인들이 월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십 계승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담임목사가 은퇴하는 시점을 앞두고 급박하게 진행되거나, 심지어는 담임목사가 은퇴한 이후에 후임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계승을 통한 리더십 연속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리더십이 단절되는 악순환에 직면한다. 리더십 전환은 위기와 기회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리더의 출현은 조직 내의 시스템, 문화, 업무 진행 방식, 인력 운영 등 조직 전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리더십 계승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전임자와 후임자가 아무런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리더십 전환이 일어난다면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조직이 복잡해질수록 리더십 계승도 어려운 일이다. 리더에게 요청되는 자질과 능력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도 이러한 리더십 흐름을 이해하는 가운데 성경의 리더십 계승 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34) Robert W. Galvin, *The Leader of Ideas* (Illinois: Motorola University Press, 1991), 51.

Abstract

A study on successful cases and principles of the leadership succession of the Bible

Yong Rak Lee

Major leaders who are looking at the examples of successful leadership succession of the Bible have always know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prepared for the generations to come. They were interested in finding the leaders of the next generation and trained the emerging leaders to play a rol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There were no adverse effects on their leadership succession process. Looking at the cases of Moses and Joshua, Samuel and David, Elijah and Elisa, Banaba and Paul, Banaba and Mark, Paul and Timothy, they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y shared a common purpose through leadership succession. The common purpose here is values and visions. Leadership change in which the core values and visions pursued by the organization are not inherited will only cause great confusion. Second, the successful leadership succession of the Bible proceeded sequentially. Sudden leadership change can cause great confusion to members of the organization. However, sequential transitions have the advantage of developing next

generation leadership and stabilizing the organization. Third, the law of example was applied to the succession of leadership in the Bible. The character who successfully succeeded in leadership was verified for their ability to perform their duties and did not lose trust from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reason is that they set examples not only in faith but also in ethical aspects.

Leadership succession is very important and time-consuming. This is because each leader changes the system and culture of organization. Therefore, the larger the organization, the more detailed the leadership succession work should be to prevent confusion caused by the leadership transition. If the leadership succession fails, it cannot actively cop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great leaders in the Bible recognized and prepared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succession. If there is a method used to most exemplary in leadership succession, it is mentoring and empowerment.

Leadership transition has two sides of crisis and opportunity. This is due to the emergence of a new leader that causes many changes in the entire organization, including the system, culture, work method and manpower management within the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natural for serious confusion to occur if the process of leadership succession is ignored or the leadership transition occurs without any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decessor and the successor. Now, the church should apply

on leadership succession with a proper method and the principle of leadership succession of the Bible while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leadership.

Key Words

Leadership, Organization, Leadership succession, Leadership transition, Mentoring, Empowerment

논문 기고자 **Email**

lyrak009@hanmail.net



상담의 흐름이 있는 치유적 설교

Healing Preaching Integrating Counseling Processes

» 안남기 Ph. D.*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설교와 상담이 본래는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목회현장에서 설교가 상담의 흐름과 원리를 수용할 때 청중에게 치유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내외의 갈등, 탈교회 현상, 코로나 19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상담설교 이론들을 재조명하고, 설교에 상담적 흐름을 통합하여 청중이 복음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도록 돕는 치유적 설교의 특징을 제시한다. 연구는 첫째, 청중의 삶과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고, 둘째, 청중 스스로 변화와 치유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설교의 구조를 탐색한다. 셋째, 공감을 통한 설교자의 반영적 태도와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넷째, 본문과 청중의 이야기가 만나는 해석학적 과정을 통해 설교가 치유적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치유적 설교는 설교자의 강단 아래에서의 진정성 있는 목회적 관계가 핵심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치유적 설교는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설교자의 인격과 청중을 향한 깊은 공감과 돌봄, 복음의 능력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가능함을 밝힌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상처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중심단어

치유적 설교, 상담적 설교, 공감, 상담적 흐름, 목회 돌봄

•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28일 • 논문 수정일: 2025년 9월 15일

•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17일

* 군선교상담코칭위원, 예)군종목사(군종53기), 샘솟는교회 담임, 힐링밀리터리 센터장

들어가면서

상담은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상담이 아니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설교는 상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모두 담을 수 없지만, 설교 중에 상담적 접근을 통해서 치유적 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갖는다. 상담과 설교는 다른 학문이지만 상담과 설교 이론을 통합하여 치유적 설교를 제시하고자 한다. 설교에 있어서 상담의 기능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설교 사역을 감당할 때 잘 활용하면 목회의 고유한 직능인 돌봄, 치유, 인도, 지탱의 차원을 잘 수행하는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 필자는 설교자 입장에서 상담적 효과를 가져오는 설교, 청중의 입장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설교라는 의미에서 이를 치유적 설교라 할 것이다.²⁾

1. 치유적 설교의 필요성

한국 기독교는 대중에게 주목받는 집단이 되어 이전에 없었던 대중매체의 기삿거리가 되고 있다. 소위 일부 기독교인들이 유튜브 뉴스, 남북문제, 성소수자와 관련된 차별 금지법 등의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대중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쏟아내는 비난들로 인해 상처로 얼룩진 대

1) 김운용, “상담설교에 대한 설교신학적 고찰과 그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0(2012), 315-316.

2) 장영환은 현상학적 연구를 통하여 어떠한 상담기법이 어떻게 상담적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임상 논문을 제시하였다. 그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상담적 설교, 청중의 입장에서는 치유적 설교라 명명하였다. 장영환, “설교를 통한 치유 경험에 관한 현상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3), 51.

한민국이 되었다.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사회는 세월호 참사 시 구원과 유병언, 국정농단 시 영세교 최태민, 코로나19 시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이단과 개신교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개신교인들을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³⁾ 특별히 군선교 현장에서 어릴 적 교회에 다녀본 기억이 없는 병사들, 혹은 교회라는 말만 나와도 ‘듣기 싫다’고 말하는 청년들을 마주하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떠나도 되는 이유로 작동했고, 많은 청년들은 교회에 대한 마지막 남은 기억마저 잃었다. 이러한 사회의 양극화와 코로나19 이후 ‘교회 혐오’란 단어가 회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 치유와 회복, 화해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묻고 답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세습 문제, 목회자의 성적인 범죄, 교회 안에서의 분쟁으로 인하여 실망한 교인들의 탈교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가 희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전체 교회 성도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회를 이탈하는 과정에는 개인주의 성향과 신앙의 상태 등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준 모습들에 실망하여 교인들이 흩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을까?

한국 전쟁 이후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기억된 암묵적인 기억들이 코로나19로 재현되면서 한국 사회의

3)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 2020. 7. 17.

집단적 트라우마는 정점에 올라온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개인과 사회,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낮설고 불편하던 비정상 상태가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급격하게 맞이하면서 사회 심리적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창균은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 심리적 공황 상태를 절망감, 좌절감, 무력감, 고립감, 유기감, 상실감, 불안감, 두려움, 자포자기, 자기중심성, 외로움, 우울증, 이유 모를 분통, 통제할 수 없는 분노 등이라 하였다.⁴⁾ ‘치유목회’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교회 대내외적으로 상처 입은 교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목회적 돌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설교는 목회적 돌봄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내적으로는 전도와 치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온라인 예배 상황 가운데에서는 설교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온라인 상황은 교회에서 상처 입고 이탈한 가나안 교인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대중들, 본질을 찾고자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과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새로운 판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멋진 변화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⁵⁾

4) 정창균, “뉴노멀 시대, 온라인 설교의 전망과 준비,” 『목회와 신학』 382 (2021. 4), 39.

5) *Ibid.*, 45.

II. 치유적 설교

밴더빌트 대학 예배학 교수 데이비드 버트릭은 20세기 중엽 미국 교회의 설교를 세 가지 설교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설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교리설교는 과거 시제의 믿음에 머물러 있고, 성경적 설교는 성경과 복음 사이의 간극이 확대되어 있으며, 치유설교는 개인의 심리학적 설교에 머물고 공동체를 향한 예언의 침묵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⁶⁾ 수십 년 전 미국교회의 분석이지만 한국 교회 강단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부터 상담대학원이 대학마다 개설되고 내적 치유 사역이 선교회나 교회를 통하여 자리 잡게 되면서 치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왔다. 기독교 상담학자들에 의해 상담설교가 새로운 설교 유형으로 소개되었고, 상담적 설교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필자는 버트릭의 분석처럼 한국교회 강단의 치유적 설교는 감정적 영역의 주제 설교와 개인적인 내면 치유 설교에 편중되어 왔다는 것에 동의한다. 장영환은 상담적 주제나 기법을 가지고 하는 설교가 상담적 설교라는 기존의 주장은 편협한 것이며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⁷⁾

필자는 기존에 발표된 상담적 설교에 관한 논문들 중에서 오규훈의 “대화적 시각에서 살펴본 설교의 상담적 효과”에서 말하는 어떠한 형태와 주제이든 치유적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논문을 서술하고자 한다. 오규훈은 설교에 흐르는 대화적 요소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심리적 흐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성도들이

6) 김세광, “어지러운 세상을 외면하는 강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설교를 하라,” 『목회와 신학』 299 (2014. 5), 216.

7) 장영환, “설교를 통한 치유 경험에 관한 현상적 연구,” 211.

설교자와 실제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심리적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전요섭은 상담적 설교란 새로운 설교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종래의 강해설교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적용점을 풍성하게 이끌어주는 설교라 하였다.⁹⁾ 이를 위해서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담학적 수사학을 활용하여 회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김병석은 치유설교를, 설교의 단계별 과정들을 치유의 과정으로 보고 이를 수사학적 전략으로 구조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치유적 접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현상학적인 과정이 드러나는데,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인식, 공감, 자기 성찰의 신앙적 자기 점검, 해답을 향한 접근이라 하였다.¹⁰⁾ 즉, 상담 과정 중에 나타나는 치유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담적 설교에 대한 논의에 있어 문제와 한계점으로 지적된 것은 청중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본문이 왜곡되거나 본문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미흡한 해석과 설교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었다.¹¹⁾ 모든 설교는 복음을 담아내야 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치유적 설교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설교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것이 아니다. 치유적 설교는 주제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문제인 것이다. 필자가 기존의 치유적 설교 이론을 종합하여 정리한 특징은 아래와 같다.

8) 오규훈, “대화의 시각에서 살펴본 설교의 상담적 효과,” 『장신논단 제29집』 (2007), 190.

9) 전요섭, “상담적 설교를 위한 상담과 설교의 통합 방안”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5), 9-11.

10) 김병석, “치유설교 구조의 수사학적 양식에 관한 연구,” 『설교한국』 11 (2020 봄), 81-112.

11) 김창훈, “상담설교의 원리,” 『헤르메니아 투데이』 제43호 (2008, 여름), 25.

Ⅲ. 상담이 흐르는 치유적 설교

첫째, 치유적 설교는 청중에 대한 이해와 청중의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시작한다.

설교는 특정한 말씀(본문)을 구체적인 청중에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설교란 본문에 대한 해석과 청중을 향한 전달이다. 그러나 본문(text)은 고대에 주어졌고, 청중은 “지금 그리고 여기”의 상황에서 살고 있다. 본문의 원래 의미가 자동적으로 오늘의 청중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것은 아니다.¹²⁾ 따라서 설교자는 성경을 해석하여 오늘의 언어로 청중에게 전달해야 한다. 치유적 설교는 무엇보다도 현실을 살아가는 청중의 상황에 관심을 두고, 실존적 상황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 문서와 같은 청중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이 요구된다.

이승진은 청중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격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실존적인 삶의 무게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역설적 긴장 가운데 있는 존재라 하였다.¹³⁾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필요한 존재로 이해한 것이다. 김의식은 치유설교란 회중의 삶과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통한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유를 지향하는 설교라 하였는데,¹⁴⁾ 회중들

12)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 출판부, 2002), 13.

13) 이승진, “청중에 대한 설교학적 이해,”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2003), 63.

14) 김의식, “상담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333 (2017. 3), 65.

의 삶과 눈높이란 이 세상 속에서 죄와 고통과 죽음과 소외의 실존 앞에 맞닥뜨린 존재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치유적 설교는 회중들의 문제와 아픔을 싸매어 주고 위로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설교라 할 수 있다. 치유적 설교는 단지 성경 지식의 전달이나 논리적 설득에 있지 않고 복음 사건을 경험하도록 돕는 설교라 할 수 있다.

치유적 설교는 청중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고민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성격을 갖는다. 비록 청중 가운데 오래된 문제들, 원초적인 욕구에 끊임없이 빠져드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들과 태도가 아니라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받아주는 설교자의 태도와 메시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청중들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청중들은 설교자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청중들은 자기가 이해받고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전달될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치유적 설교는 설교자가 회중을 향한 내면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청중들에게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모든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는다. 목회적 관계에서 경험한 성도들과의 관계의 양과 질, 그리고 설교자 자신의 신학적, 내면적 경험에서 나온 이해를 가지고 청중들을 이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주 성도들의 일상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에 따라서 설교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어야 한다. 치유적 설교를 위해 설교자는 청중들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설교 착상 과정부터 회중들의 삶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치유적 설교는 청중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치유적 경험, 즉 복음을 경험하는 사건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반화시키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그 죄인이 바로 나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특별한 복음의 은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야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설교자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드러나지 않은 나의 문제와 연약함의 요소로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청중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 실존주의 심리치료자 알론은 그룹 상담이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치료적 요소들 중의 하나로 보편성을 말한다.¹⁵⁾ 사례를 제시하더라도 일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절반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내담자 자신의 문제와 상황들에 대하여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건강한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치료적 시점이 된다. 설교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설교자에게 이런 관계는 언제 형성이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형식인 설교에서 어떻게 자

15) Irvin D. Yalom & Molyn Leszcz,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최혜림, 장성숙 역,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2008), 23-25.

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말하고 있다는 심리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상담 중에 내담자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기억과 감정, 경험을 상담자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상담자와의 라포(rapport) 또는 치료적 동맹이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상담자로부터 조건 없는 수용을 경험할 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설교에 있어서도 설교자가 일관성 있는 인내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회중들은 설교자의 말을 신뢰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설교의 형식은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성도들은 듣기만 하는 형태이지만, 심정적으로 상담적 과정이 진행되는 경험을 할 때 충분히 치유적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경험이란 지적, 감정적, 영적 차원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차원에서의 인식 작용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를 위해서 설교 과정 안에 청중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상담을 전개하는 것처럼 말이다.

예를 들면 '상처'는 치유 사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다. 치유적 설교를 할 때 상처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할 때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상처 입은 존재라는 인식에서 우리도 남에게 상처를 준 자이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이 치유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치유적 사건이 경험되는 것이다. 치유적 설교는 성도들의 드러난 문제와 그들의 요구와 함께 표현되지 않고 깨닫지 못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는 성도들에 의해서 표현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반드시 채워져야 할 필요를 의미한다. 상처를 영적으로 깨닫는 순간이자, 상처가 치유되어야 함을

아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설교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이 모든 사람은 상처를 입었고 그것을 해결 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지만, 설교자가 해석자적인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치유적 설교는 청중이 하나님의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설교자에게는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어원상으로 ‘공감’(empathy)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의 ‘*empathia*’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안’을 뜻하는 ‘*en*’과 ‘보통’ 또는 ‘열정’을 뜻하는 ‘*pathos*’의 합성어이며,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느낀 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¹⁶⁾ 상담에서의 공감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상담의 진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¹⁷⁾ 롤로 메이는 공감을 상담을 여는 열쇠라 하였고,¹⁸⁾ 로저스는 공감을 다른 사람의 사적인 지각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철저히 거하는 것이라 하였다.¹⁹⁾

한편, 신학적으로는 공감을 성육신적으로 이해한다. 김운용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좌절과 문제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인 성육신은 설교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²⁰⁾

16) 박성희, 『공감학-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2004), 48.

17) 문희경,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상담』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7), 193.

18) Rollo May, 『카운셀링의 기술』, 이봉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3), 67.

19) Carl R. Rogers,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5 (1975), 4.

20) 김운용, *op. cit.*, 307-308.

공진수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감 능력의 결여에 있음을 분석하면서, 정서적 공감과 더불어 영적 공감,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였다.²¹⁾ 공감은 단순히 상담학적 용어가 아니라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 중요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감은 치유를 가져오는 설교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설교 강단은 일방적 선포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지만, 설교자의 공감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설교 중에 회중과의 공감은 설교자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상담에서 ‘지금-여기’(Here and Now)의 기법을 통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좁혀지면서 전이와 역전이의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 설교의 흐름 속에서 치유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²²⁾ 설교자의 정확한 공감은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청중의 형편과 상황에 보다 관심을 갖고 공감적인 자세로 접근할 때 치유가 촉진된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공감을 통해서 자신들이 수용되었다는 존중 경험을 하게 된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함께하신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직면과 변화의 의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반영(reflection)은 공감을 표현하고 전하는 언어적 대화 방법이다.

21) 공진수,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의 고통을 체감하지 못하는 네 가지 이유,” 『목회와 신학』 333 (2017. 3), 57.

22) 오규훈, “대화의 시각에서 살펴본 설교의 상담적 효과,” 203.

한 집단의 성숙성은 구성원의 공감 능력 수준이라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설교에서도 청중들의 공감과 적절한 반응이 있을 때 설교에 집중할 수 있다. 목회자는 한 주간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이다. 설교자가 목회적 관계에서 교인들에게서 들었던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영해 줄 때 청중은 설교자의 핵심적 메시지가 들리게 된다. 내용과 정서적인 측면들을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고 적절한 반영은 청중들의 마음을 여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변화에 대한 요구는 강압적인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정적 용어보다는 치유받은 영혼의 예를 들어 긍정적 표현을 해야 한다. 반대로 상처받은 인간이란 표현도 삼갈 수 있어야 한다. 예화 사용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한다. 직면하는 용어 사용도 유머와 함께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는 누구나 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긍정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회중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평가받고 질책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 마음의 문을 닫고 설교 과정에서 따라오지 못하게 된다. 청중들이 갖고 있는 의심과 반대 의견도 그럴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해야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어떤 문제와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 말한다 해도 우선적으로 최종평가를 미루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 중지이다.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목회자

가 내 사정과 생각과 감정, 더 나아가 내 마음의 어두운 것도 이해하고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손짓, 말투, 눈빛, 얼굴 표정 등의 비언어적 태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중요한 전달 요소가 된다.

넷째, 치유적인 설교는 본문이 나의 이야기와 맞닥뜨릴 때 치유 경험이 일어난다.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있어서 해석이 치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인즈 코헛은 공감의 단계를 내담자를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해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을 낮은 수준의 공감에서 높은 수준의 공감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하였다.²³⁾ 마찬가지로 설교도 회중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설교의 궁극적 목적인 청중의 변화는 청중이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본문의 상황 혹은 세계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더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다.

성경 본문은 단순한 언어들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와 청중의 이야기가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나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서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보를 많이 제공받거나 논리적으로 설득당했을 때보다 자신이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청중은 변화의 강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 변화야말로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다. 설교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23) Heinz Kohut, *How Does Analysis Cure?*, 이재훈 역,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2007), 265-275.

현실에서 사용되는 힘의 언어가 의미의 언어인 하나님의 이야기로 해석되었을 때 비로소 변화를 위한 실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²⁴⁾ 상처 입은 자신의 현실을 말씀 안에서 직면하고 의미 있는 언어로 해석이 될 때 자신도 치유받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설교의 신비는 설교자가 성도들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해도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눈을 밝히고 각자의 삶에서 적용되게 한다는 데 있다. 마치 설교자가 자신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설교자와 청중들이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성경 이야기와 함께 느끼고 경험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체험을 리퍼르는 '성경 텍스트의 현시적 능력'이라 하고, 제임스 로더는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 경험'이라 한 것이다. 캡스는 성경의 현시적 능력을 보다 더 잘 이해한다면, 상담 원리와 방법은 성경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심리치료 이론과 기술에 보다 덜 의존하게 된다고 보았다.²⁵⁾

상담적인 관점에서 회중은 설교자에 의해 충분히 이해되고 용납되어야 한다. 상담 중에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서는 공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공감, 즉 내담자에게 설명하는 과

24) 해석학적 목회상담학자 거킨은 리퍼르의 두 수준의 언어, 즉 힘의 언어와 의미의 언어를 인용하면서 힘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삶의 윤곽과 실존적인 정체감을 주는 깊은 언어라 하였고, 우리의 경험과 그 기저의 힘들에 대하여 의미를 주는 해석의 언어가 있다고 하였다. 찰스 V. 거킨, 『살아있는 인간 문서: 해석학적 목회상담학』, 안석모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64.

25) D. Capps, "Pastoral Use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n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ed., R. J. Hunt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84. 오우성, 박민수, 『성경 이야기 상담』 (서울: 두란노, 2010), 159에서 재인용.

정이 필요한 것처럼, 설교자는 회중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고 반영하면서 진실한 권면을 해야 한다. 치유적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으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근본적인 치유가 발생한다. 공감이 깊게 묻어 있는 사랑의 직면이 요구된다.

다섯째, 치유적 설교를 위하여 설교자는 강단 아래에서의 진정성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대표적인 수사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 기법으로 수사학을 발전시켰다. 그는 웅변술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말하는 사람, 그가 말하는 주제,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을 말한다.²⁶⁾ 즉, 설득의 세 가지 요소로서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이다.²⁷⁾ ‘에토스’는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의 인격, 성품 등에서 나오는 일종의 신뢰를 의미한다. 인격적 신뢰를 주는 사람이 말할 때 같은 내용도 듣는 회중에게 더 강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자신이 회중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할 때에도 자신의 설교가 성령께서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이것이 설교자로 부르신 이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이라 할 수 있다.

칼 로저스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핵심적인 세 가지 질적 요소

26) Aristoteles,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이종오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5), 32.

27) 김영봉, 『설교자의 일주일』 (서울: 복있는사람들, 2017). 김영봉은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를 중심으로 그의 설교학 강의를 정리하였다.

는 상담자의 진실성, 무조건적인 수용, 정확한 공감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진정성은 효과적인 상담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관계 그 자체가 치료 기능을 하는 것이다.²⁸⁾ 치료적 관계가 중요한 치료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목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의 질은 설교의 어떤 수사학적인 과정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목회자는 정신과 의사나 임상 심리학자들 또는 상담가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태도와는 다른 공흔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영적 공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선택받은 인격체로서의 설교자,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인식,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강조된다. 따라서 설교자는 일반 상담가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의 필수요소를 넘어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설교자는 복음의 증인으로 강단에 서 있는 존재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영적 여정에 동행하는 신실한 동반자이며,²⁹⁾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좋은 대상으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청중들은 설교자인 목회자와 신실하게 동반하는 것을 느낄 때에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경험하는 것이 상처받은 성도들이 치유를 경

28) Gerard Egan, *The Skilled Helper*, 제석봉, 유계식, 박은영 공역, 『유능한 상담자』(서울: 학지사, 1999), 71.

29) 솔라우치는 신실한 동반이 목회심리치료의 근원을 이룬다고 하였다. Chris Schlauch, *Faithful Companionship: How Pastoral counseling He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협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때로 청중들이 정서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도 버텨주고 품어주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³⁰⁾ 상담에서 기법이 아니라 상담자의 인격과 진정성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치유적 설교는 설교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유는 메시지에 목회자의 인격적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상담은 소통적 측면에서 대화적이고, 설교는 선포적이다. 상담은 소통방식 측면에서 비지시적이고, 설교는 지시적이다. 상담은 관계의 측면에서 관계지향적이고, 설교는 선포적이다. 상담은 일대일의 구조이지만, 설교는 다수의 회중과 마주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치유적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회자와 청중들과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강단 위에서만이 아니라 강단 아래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IV. 치유적 설교 자기 분석 사례

필자는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0: 11-18, 제목은 “어찌하여 우느냐?”로 정하고 부활주일 설교를 대화가 이루어지는 설교 형식으로 전개하였다. 서론을 설교자의 자기 경험을 사례로 시작하였다. 본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요한복음 이야기로 구성하였고, 결론은 본문 밖의 사도행

30) 위니캇은 치료자의 역할을 안아주기, 필요한 것 주기, 거울역할, 견여주기라 하였다. 문희경은 위니캇의 중심개념인 안아주기, 충분히 좋은 엄마, 안아 주는 환경 등의 개념은 교회와 목회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개념들이라 하였다. 문희경,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상담』(서울 도서출판대서, 2007), 106.

전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안적 이야기를 제시하며 마무리하였다.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GP 소초에서 총기사고로 8명의 사망자와 30여 명의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결식장에서 ‘하나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라 하십니까? 이 아들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2010년 4월 19일에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군에서 40명이 사망하고 6명의 실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아침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자 299명, 실종자 5명, 생존자 172명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설교자가 2005년 GP 총기사고로 사망한 장병들을 위한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의 심정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토로한 기도문의 요약으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심층적인 감정을 공감하고 반영하며 서론을 시작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는 강한 심리적 저항과 하나님 부재에 대한 신앙적 회의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성도들의 심리적·영적 정서를 이해하고 대변해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치유적 효과가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상담설교는 청중들에 대한 목양적 이해와 신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즉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너무 일찍 자녀를 상실한 부모님들과 친구들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가슴 먹먹한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슬픈 일을 당해보지 못한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심정적으로 무척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설교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슬픔에 대한 공감

적 이해를 반영하였다. 설교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었다. 청중들에 대한 설교자의 자기 노출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지지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교자가 완전한 이상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표현이다. 설교자는 설교 과정을 통하여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수용과 공감을 통하여 성장을 격려하듯이, 설교자의 약함과 한계를 통하여 설교자 너머의 복음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중에,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상당수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국교회가 보여준 태도에 무척이나 서운했다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청중 중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을 넘어 실망으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교회를 이탈한 성도들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세월호 참사 이전에 교회를 안 다녔던 유족들 가운데 오히려 사고 이후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죽은 자녀들 중에 엄마 아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부활한 아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은 죽은 아이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정신적·심리적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부활한 아이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감내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상담 흐름 안으로 들어오는 핵심 주제를 제시하였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녀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녀와 배우자를 잃은 상실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이 들었던 가혹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우리에게겐 믿음이 있잖아요...”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이런 말을 듣고 더 힘들어했다고 했을까요?

상담 시간은 좋은 질문과 반응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게 하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해답을 연역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진하는 질문을 하였다. 이어서 다시 내담자의 입장에서 설교의 핵심 주제 안으로 들어가는 질문을 하였다. 이미 청중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설교자는 슬픔을 당한 청중들의 심정을 드러내며 마음을 수용하며 공감하는 표현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제시하였다. 청중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설교자가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청중들로 하여금 성서 이야기에 접근하도록 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으로 근심에 싸여 있는 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진 분들,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의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고 위로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청중을 자녀를 잃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로만 제한하지 않고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고 적용되어야 할 주제임을 드러낸 것이다. 상담적 설교는 모든 사람이 복음에 나타난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도록 선포되어야 한다. 인간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복음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전제로 시작한다. 설교자가 분류한 청중들의 범주 안에 예외 없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 표현이 요구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의 문제라 생각했다가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물으시는 질문이 ‘아직도 슬퍼하고 있니?’ 하는 꾸지람일까요? ‘너 아직까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는 불신앙에 대한 질책일까요? 부활의 믿음을 가슴 속에 품으면 더 이상 슬픔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슬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그들의 입장에서 느끼고 읽어내고자 한 공감적 이해라 할 수 있다. 설교의 주제는 삶의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아니다. 심층적이고 영적인 믿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하나님상에 대해서 공감적 이해를 통하여 좋은 하나님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 스스로 믿음 없는 자처럼 의심 가운데 있는 사

람들이라 할지라도 설교자가 진정성 있게 공감적으로 반응할 때 그것에 힘입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여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말씀은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눈물을 닦아도 된다. 지금까지의 너의 눈물을 내가 들었다. 그러나 나를 보아라. 부활한 나를 보아라. 죽음을 넘어서신 나를 보아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말하지만, 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을 보듬는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설교자는 일차적으로 직면하는 당위적 메시지를 전했다. 설교자의 신학적, 심리학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라는 확신으로 전하였다.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전해질 때 청중들은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듣게 된다.

부활의 아침, 이해할 수도, 해석하기도 어려운 고통의 문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오래된 슬픔을 안고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식구들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물을 멈추고 답답하고 낙망하는 것 다 내려놓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달려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에서 ‘지금 여기에’의 기법은 중요한 요소이다. 설교자는 예배의 현장, 설교가 들리는 이 시간 여기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펼쳐 놓으신 놀라운 사건에 대한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은 율법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의 예를 들면 “네가 남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반면에 “사랑이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셨다. 이 사랑에 응답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죽기 싫으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기 마련이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차분히 기다린다면 이것은 철학이며 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복음입니다.

설교자는 복음의 성격을 대전제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복음에 대한 오해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율법과 세속 지혜로 부연하여 설명하면서 다시 귀납법적인 서술을 통하여 복음을 강조하였다. 죽음에 대한 주제도 같은 형식으로 설명하면서 핵심 메시지에 이르도록 이끌고 있다.

본문은 복음의 사건을 맨 처음 경험하고 슬픔을 이기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본론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이다. 성경의 인물 역시 나와 같은 고민을 했던 인물이었음을 공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마치 집단상담 중에 돌출된 문제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공감적 이야기는 치유를 가져오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성경의 이야기는 삶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제공하는 대안적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리아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현재적 경험의 의미를 찾으면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던 모습에서 자신과 닮은 대상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동일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궁극적으로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는 자라 할 수 있다.

복음서에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이 휘두르는 채찍 맞는 모습,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시는 모습,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던 모습, 십자가에 달려 양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이다. 설교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여인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드러내주면서 성경 인물과 동일시 내지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성경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가 돌이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눅 23: 28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설교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울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리는 것과 같이 경험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이라도 잘 보내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마지막 향유라도 바르고 고별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었는지, 이혼녀인지, 홀로된 여인인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일곱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치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었다는 것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최악의 상태를 묘사하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명의 복음서 기자가 동일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던 비극적 여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설교자는 비록 이러한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정도로 자신을 사랑해 주신 분이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실존의 고통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받은 특별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었던 여인의 순전하고 따뜻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

었다.

바로 그 현장에서도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네 번이나 ‘울었다’(11,13,15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여인, 아무 쓸모도 없는 여인, 일곱 귀신 들린 미친 여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 있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확인시켜 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떠나신 것입니다. 죽음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류에게 큰 고통이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입니다.

설교자는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강한 공감을 나타내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슬픔을 강조한 것이다.

드디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은 주님의 부활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 드리려고 무덤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묻혀 있다고 생각했던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동산에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이 먼저 거기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여인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친히 “마리아야” 하며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를 생전에 부르던 그 목소리로 불러주셨습

니다. 그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분
입니다.

성경 속 인물인 마리아를 만나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사건은 마
리아에게는 영적 체험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청중들은 성경 텍스
트가 들려주는 음성으로 경험하게 된다. 성경의 현시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신
비의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이다. 청중들이 성경 속 이야
기의 인물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설교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성경의 계시적 능력, 본문이
직접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신비한 경험이 설교를 듣는 가
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치료적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통곡하고 실의에 빠져 다시 고기를 낚고
있는 당신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시몬아”라
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을 핍박하기 위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했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울
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
나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어찌
하여 우느냐…내가 너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안다. 사
랑하는 아들이, 어찌하여 우느냐…내가 여기 있지 않니?”

설교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만나주
신 사례를 들어 설명한 다음, 지금 여기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들리
는 음성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기

대하였다. 다른 제자들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특별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 오셔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치 청중 자신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들리는 체험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것이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설교자와 청중들 사이에도 성령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이 순간은 설교자의 어떤 강압된 요구에 의한 상처 입은 회중의 치유적 강요가 아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치유의 신비를 경험하는 순간이다. 회중들의 변화는 설교자의 몫이 아니라 성령의 몫이다. 설교자의 역할은 청중들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을 알아본 막달라 마리아는 반가움에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예수님의 발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예수님과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었겠지요. 17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놓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곧 제자들의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그다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요 20: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이 지점이 치유적 정점이 되는 순간이다. 설교자는 마리아 이야기의 고백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결정적 동인을 갖고 오게 한다. 슬픔에 잠겨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

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름을 불러주신 순간은 경이로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만남이 경험되는 순간이 된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최초로 증거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소망을 확신하는 고백을 청중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고, 현재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한 여인이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과거와 미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함께 있었던 인물들 중에 여자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여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설교자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사도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이 증거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

건으로 예증하였다.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들도 성령의 감동과 충만의 역사를 사모할 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하였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참으로 어두운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당하는 정신병자나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제자들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다니며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부인까지 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설교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 밖 사도행전에서 찾아 청중들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주고자 하였다. 설교자는 치유받은 것으로 정체성이 회복되었지만, 치유받은 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명이 있음을 다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중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도 ‘너희들과 세상 끝 날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 28: 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슬픔의 반대말은 기쁨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만이 소망이고, 부활만이 영원한 위로이고,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 부활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 아침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영으로 만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때문에 참 소망과 위로와 평안과 생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 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역 중 중요한 것은 함께하심의 사역이다. 설교자는 다시 슬픔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였다.

나가면서

청중 가운데 오늘의 설교를 듣고 치유 경험에 일어났다고 반응이 왔다고 하자. 그러나 청중들의 삶의 환경과 인간관계, 가족관계 등에 변화가 없을 때는 또다시 좌절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상실의 고통이 큰 청중들 중에는 밀려오는 슬픔을 또다시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특권은 여전히 주일마다 복된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울어주고 있어 주는 지지적인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교회가 치유적이라는 의미가 된다. 청중들의 삶의 자리는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다. 청중들의 인격과 신앙도 변화를

요구한다. 어떤 고정된 상태로 인해 안정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매주 삶의 긴장과 발달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과 내적인 갈등들을 한 아름 안고 오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안전하고 따뜻한 영적·심리적 안정된 공간으로 경험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상담을 통해서 변화가 내담자에게 일어나기까지는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치료적인 과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이다. 단 한두 번의 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설교자와 청중은 목회적 돌봄 관계 안에서 영적인 순례의 여정을 함께 걷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 교회에는 목회자의 설교가 핵심요소인 것이다. 치유적 설교는 상처 입은 성도들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목회돌봄적 사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Healing Preaching Integrating Counseling Processes

Nam Gi Ahn

This paper explores the premise that while preaching and counseling are inherently distinct disciplines, preaching that incorporates the flow and principles of counseling can offer a healing experience to the congregation. In the current Korean church context—marked by internal conflicts, church-leaving phenomena, and collective trauma intensified by COVID-19—a message of healing and reconciliation is urgently needed.

This study revisits existing theories of counseling preaching and proposes characteristics of healing preaching that integrates counseling processes, enabling listeners to experience the gospel existentially. First, it emphasizes beginning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congregation's real-life situations. Second, it examines sermon structures that help the audience recognize their need for transformation and healing. Third, it highlights the preacher's reflective attitude, empathic response, and the significance of nonverbal elements. Fourth, it discusses the hermeneutical process in which the biblical text encounters the listeners' stories, generating transformative healing moments.

Finally, the study underscores that the core of healing preaching lies in the preacher's authentic pastoral relationship beyond the pulpit.

This paper concludes that healing preaching is not merely a thematic approach but a pastoral practice rooted in the preacher's integrity, genuine empathy, and the transformative power of the gospel. It suggests that such preaching can be a conduit for the Korean church to proclaim God's comfort and restoration to a wounded society.

Keywords

Healing Preaching, Counseling Preaching, Empathy, Counseling Flow, Pastoral Care

논문 기고자 **Email**

ankjesus@hanmail.net



군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육군 병사의 예배 참석 동기 확인

Identifying the motivations of ROK Army soldiers attending worship services for military ministry evangelical strategy development

» 임정인 Ph. D.*, 정세준 Th. M.**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육군 병사들이 군인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선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육군 병사 1,46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 참석 동기는 계급에 따라 달랐으며 이병·일병은 내적 동기(마음의 평안), 상병·병장은 외적 동기(맛있는 간식)를 따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종교정체성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는 동기가 달랐으며, 무종교 병사는 일관되게 외적 동기에 의해 예배에 참석한 반면, 기독교 병사는 '종교의 본질적 측면' 때문에 참석했지만 외적 동기의 영향도 작지 않았다. 셋째, 세례를 받은 병사라도 '귀찮음'과 '개인 정비 시간 부족'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고, 입대 후 세례자 중 적지 않은 병사가 자신의 종교정체성을 기독교로 인식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계급과 종교정체성, 세례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군선교 전략이 도출되었다.

중심단어

육군 병사, 총체적 선교, 성육신적 소통의 신학, 예배 참석 동기, 내적 동기, 외적 동기

• 논문 투고일: 2025년 9월 2일 • 논문 수정일: 2025년 9월 3일

•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5일

*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군종목사(군종 64기), 햇불군인교회 담임

** 예) 군종목사(군종 67기), 성진교회 부목사

I. 서론

선교 현장에서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이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할 뿐이다”라는 말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 종말론적 관점에서 선교는 지상에서 종료되지만 예배는 천상에서도 지속되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예배의 우선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배로부터 선교가 시작되며, 선교는 예배를 목표로 한다.

군선교 현장에서도 예배는 중요하다. 군종업무에 관한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군종업무는 군종장교가 신앙전력화를 위하여 행하는 종교, 교육, 선도, 대민 업무 및 그밖의 활동을 뜻하며, 예배가 포함된 종교업무는 첫 번째에 위치하여, 종교업무가 군종업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²⁾ 군종장교가 주관하는 인성교육 시간에 선교 활동을 금지한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을 고려할 때,³⁾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요일과 수요일 예배 시간은 군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lad!*, 김대영·김보람 역, 『열방을 향해 가라』 (서울: 좋은 씨앗, 2025), 21. 2025년, 국내에 30주년 개정증보판을 출간한 존 파이퍼의 이 책은 예배와 선교의 관계 설정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2) 국방부훈령 제3068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장 군종업무 제4조(기본 목표) 군종업무는 종교·교육·선도·대민업무 및 기타 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 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6조(군종의 기능) ① 군종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업무를 통하여 장병의 사생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신념을 배양한다.

3) 국방부 훈령 제3068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4장 교육업무 제16조(군종 인성교육) ① 군종장교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군종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군종 인성교육은 가치관·인생관·사생관·윤리적 태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교육 중에 선교 및 포교 활동은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군선교에 대한 연구는 제자훈련과 소그룹, 양육 등 군 인교회에서 실시된 프로그램,⁴⁾ 군선교 대상의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춘 목회적 돌봄,⁵⁾ 군선교 사역자의 정체성과 어려움⁶⁾ 및 거시적 관점에서의 군선교 전략 수립과 실행⁷⁾ 등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군선교 현장에서 예배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군선교의 주요 대상인 병사들이 군인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동식(2009)이 병사들이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를 조사했지만 예배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식 조사의 일부분이고, 질문과 응답 항목도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오래전에 실시되어 현시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⁸⁾ 또한 기독교 병사들의 종교적 실천(religious practices, 공적 예배 참석과 사적 기도 생활의 빈도)과 종교적 대처(religious coping)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있지만, 종교적 실천에서 예배 참석은 일부분이고 중

4) 김전, “공군교회 제자훈련을 통한 군선교 활성화 방안 연구,” 충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이형숙, “효과적인 군교회 제자훈련(새신자 양육)과 비전2020실천운동의 전도 전략,”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5) 김수영, “군선교를 위한 목회적 돌봄 패러다임 연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이금순, “목회적 돌봄을 통한 군선교 활성화 방안,” 주안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6) 문은균, “군종목사의 주변적 정체성과 선교적 교회로서의 군인교회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안남기, “군선교 교역자의 스트레스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7) 김정대, “군선교 환경 변화에 따른 군선교 전략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오희준,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홍석균, “21세기 한국 군선교에 적합한 양육사역 모델에 관한 연구,”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8) 정동식, “군선교를 위한 병사 의식 실태 조사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정동식(2009)의 연구에 포함된 질문과 보기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군 종교시설(교회/성당/법당)에 가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인가?” ① 자유로운 분위기 ② 종교적 분위기 ③ 종교 관련 지식 습득 ④ 마음의 평안 ⑤ 간식 먹는 것 ⑥ 기타

교적 대처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병사들의 예배 참석 동기를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⁹⁾ 신세대 병사들의 대대급 군인교회 예배 참석 활성화를 목표로 군인교회 예배에 대한 변화를 제안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병사들이 군인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를 확인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¹⁰⁾

이에 본 연구는 육군 병사들이 군인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선교적 예배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궁극적으로 병사들이 군인교회 예배에 참석하도록 만드는 군선교 전략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총체적 선교의 관점과 성육신적 소통의 신학적 틀을 통해 예배와 선교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육군 병사들이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확인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군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군선교 전략을 도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총체적 선교

총체성(holism)¹¹⁾의 성경적 정의는 에베소서 4장 4-5절¹²⁾에서 가

9) 임정인,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군선교신학』 제20권 (2021), 51-78.

10) 오희준, *op. cit.* ; 이규철, “대대급 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 체계의 표준화 방안,” 『군선교신학』 제13권 (2015), 75-120.

11) ‘총체성’이란 용어는 국내에서 통전성, 전체론, 전일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가였던 스무츠(J. C. Smuts)가 만든 말로 소개되고 있다. “전체를 이루는 각 요소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요소들 간에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그들 모두가 내면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전일주의는 세계는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전체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석진 편,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2009).

12)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장 분명하게 제시된다. 몸을 이루는 머리, 팔, 다리 등 지체들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각 지체는 전체의 부분이면서 동시에 몸과 분리될 수 없는 몸 그 자체이다. 몸의 한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몸의 다른 부분에 연쇄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즉, 총체성은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된 몸의 비유처럼 각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인도 선교사이자 세계적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과 영국 성공회 지도자 존 스토틀(John Stott)는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¹³⁾ 총체적 선교란, 인간은 영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을 동시에 지닌 전인적(全人的) 존재이며, 전인적 존재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총체적이기 때문에 선교사역도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 선교의 핵심 과제는 선교를 전도 전략이나 복음 확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뛰어넘어 선교에 담긴 영적 및 물질적 차원을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선교의 모든 측면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선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귀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⁴⁾ 『야근하는 당신에게』는 성도들이 반복되는 야근으로 인해 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에베소서 4: 4-5).

13) 참고. Lesslie Newbigin, *The Open Secret: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Mission*, 홍병룡 역, 『오픈 시크릿』 (서울: 복있는사람, 2012). John R. W.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한화룡·정옥배 역,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16).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는 이 책에 등장하는 한 장의 제목이기도 하다.

14) 참고. John R. W. Stott & Christopher J. H. Wrigh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Updated and Expanded), 김명희 역, 『선교란 무엇인가』 (서울: IVP, 2018). 이 책은 기독교 선교의 총체적 관점을 확립한 존 스토틀의 1975년도 작품에 그의 제자이자 동료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시대에 맞게 해설하고 비평한 내용을 덧붙여 완성한 확대 개정판이다.

배 참여와 경건 생활 지속을 어려워하는 현실을 총체적 선교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총체적 선교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¹⁵⁾

그러므로 군선교 현장에서 군인교회 예배와 관계된 영적 차원과 현실 세계의 물질적 차원을 모두 선교 주제로 삼는 것은 총체적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선교 과업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드라마 속으로 인간을 초대하는 사건이며, 초대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에 있다. 전술한 것처럼 성경은 인간이 영과 몸을 함께 지녔으며 몸의 모든 부분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인간 존재의 총체성을 지지한다. 따라서 군장병들을 예배로 초대할 때, 그들이 군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욕구, 필요와 상황을 군선교 사역자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며 함께 반응하고 예배를 세워가는 것은 복음과 선교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올바른 선교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성육신적 소통의 신학

레슬리 뉴비긴과 존 스토틀의 총체적 선교 개념은 복음이 인간의 존재 전체와 삶의 전반에 관계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선교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이자 도시 선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하비 콘(Harvie Conn, 한국명 간하배)은 이를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틀 속에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¹⁶⁾

15) 참고. 이정규, 『야근하는 당신에게』 (서울: 좋은씨앗, 2017).

16) 참고. Mark Gornik, "The Legacy of Harvie M. Con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35 Issue 4 (Oct, 2011): 212-217. 이 글에는 출생에서 사망에

하비 콘은 총체적 선교의 토대를 인정하면서 기존 서구 신학의 폐쇄성과 자기중심성, 즉 성육신적 소통의 결핍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예배와 선교의 주체가 자신에게 익숙한 기독교적 세계의 언어와 문화에만 머물면서 사역의 대상 및 예배 회중과의 실제적인 소통에는 무관심한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였다.¹⁷⁾

우리는 교회 편향적인 질문들을 하고 구속, 죄, 은혜, 종말론 등과 같은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들을 배운다. ...신학교에서는 소통의 기술이 아닌 전달의 기술만을 배운다. ...신학교는 선물 자체에만 관심을 쏟지 선물을 주는 자, 선물을 받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다.

하비 콘의 지적은 군선교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이어질 수 있다. “군선교는 선물을 받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가? 청중과 관련된 의제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 군선교 사역자들은 전달의 기술을 넘어 소통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군선교 사역자들이 단순한 전달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자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언약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이 항상 구체적인 시간과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적 인식 틀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때문에 개혁

이르기까지 콘의 생애가 종합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하비 콘(한국명 간하배)은 1960년대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활동하며 총신대학 교수로, 걸인 및 윤락여성 전도자로 폭넓게 사역하였다. 이후 1972년 미국으로 돌아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선교학 교수로 사역하며 도시 선교로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17) Harvie M. Conn, *Evangelism: Doing Justice and Preaching Grace* (Grand Rapids: Zondervan, 1984), 12.

주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역사적 신앙을 전제로 하며, 이 점을 무시한 선교는 자칫 전달자 중심의 신학이 되어 예배로의 초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¹⁸⁾

하비 콘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자신의 선교 현장 경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초기에 그는 미국식 전도 방법인 다리전도법을 적용했지만 의미 있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러던 중 방향을 바꾸어 윤락녀들과 함께 호세아서 말씀을 공부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호세아서는 윤락여성 고멜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콘은 선교사의 입장이 아닌 수신자 입장에서 본문을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수많은 여성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는 7년 동안 300명이 넘는 여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였다.¹⁹⁾ 이는 성육신적 접근, 즉 문화적 공감과 소통에 기초한 선교가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같은 성육신적 소통의 신학은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문화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문화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문화 내적 존재이다. 현대 선교학은 이러한 문화 인식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는 선교적 상황화의 핵심 개념이 되었다.

미국 플러신학교의 선교커뮤니케이션 과목을 담당했던 찰스 크

18) Conn, *Evangelism*, 47.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싫증을 낸다. 그들은 너무 많은 영적 정보로 고통받는다.” 콘의 이 진술은 현재 우리의 상황에 유효한 울림을 남긴다. 군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앙 콘텐츠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는 설교와 찬양이 넘쳐난다. 그러나 하비 콘은 사람들이 예배로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메시지 때문이기보다는 신앙인의 모순된 삶과 행동 때문인 것으로 여겼다.

19) 간하배, “해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월간 크리스찬 리뷰 편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2000), 225-233.

래프트(Charles Kraft)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문화 내적인 인간 존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고 결정적인 선교적 행동이라고 말한다.²⁰⁾ 예수께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 특정한 민족과 문화 안으로 들어오셨으며 그들의 언어와 삶의 방식, 감정과 지혜를 사용하여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문화에 동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를 변혁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소통의 핵심이며, 우리가 오늘날 예배와 선교를 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학적 원리이다.

결국 언약신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실현되는 드라마임을 전제하며, 이는 복음의 상황화가 단순한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응답하는 신앙적 자세임을 보여준다.²¹⁾ 상황화된 선교는 예배를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들며, 예배는 다시 선교적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복음의 총체성과 상황성을 함께 품은 성육신적 예배는 선교의 열매인 동시에 가장 깊은 선교 행위가 된다. 예배는 사역의 끝이 아니라 선교의 본질이자 목적이며, 하나님과 공동체의 소통이 가장 밀도 있게 이루어지는 자리이다. 따라서 군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기술을 넘어 복음이 현장의 언어와 몸짓으로 살아 숨 쉬게 하는 성육신적 소통의 신학으로 나아가야 한다.

20) Charles H. Kraft, *Jesus, God's Model for Christian Communication*, 김동화 역,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IVP, 1991), 28.

21) 참고, Harvie M. Conn, "Normativity, Relevance, and Relativism," in *Inerrancy and Hermeneutic: A Tradition, a Challenge, a Debate*, ed. Harvie Conn (Grand Rapids: Baker, 1988).

Ⅲ. 방법

1. 참가자 및 절차

육군 병사들의 예배 참석을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육군 현역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2019년에 A사단(전방상비사단)에서, 2023년에 B사단(지역방위사단)에서 각각 수집되었다.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모든 종교의 종교행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휘관 승인을 받은 후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A사단에서는 부대별 참가인원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사단 전 병력을 대상으로 부대별 비율이 할당되었고, 부대 안에서 참가자는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B사단은 예하 부대들이 멀리 위치한 현실을 고려하여 근무·휴가·외출 등 열의 병력을 제외하고 사단 사령부에 근무하는 병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 A사단에서 수집된 자료의 참가자는 총 1,095명이었다. 계급별로는 이병 197명(18%), 일병 474명(43%), 상병 305명(28%), 병장 119명(11%)이었고, 종교 분포는 기독교 246명(22.4%), 천주교 70명(6.4%), 불교 76명(6.9%), 원불교 14명(1.5%)이었으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689명(62.8%)이었다. 2023년 B사단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의 참가자는 총 368명이었다. 이병 11명(3%), 일병 169명(45.9%), 상병 133명(36.1%), 병장 55명(15%)이었고, 종교는 기독교 91명(24.7%), 천주교 25명(6.8%), 불교 54명(14.7%)으로 분포되었으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198명(53.8%)이었다. 2019년과 2023년 사이에 병봉급 인상, 복무기간 단축,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 코로나19 팬데믹 등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종교시설 위치 및 종교행사 마일리지 제

도 시행 유무 등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병사들의 예배 참석 동기 확인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관계된 내용을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설문조사 당시 배경 정보

구분	전방상비사단(A사단)	지역방위사단(B사단)
지역	강원	충청
조사 연도	2019년 4월	2023년 4월
참가인원	1,095명(사단 전체)	368명(사단 사령부)
종교시설 위치	영내/영외	영내
코로나19 팬데믹	前	後
복무기간	21개월	18개월
봉급	이병 : 306,100원 병장 : 405,700원	이병 : 600,000원 병장 : 1,000,000원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	×	○
종교행사 마일리지 제도	×	○

※ 종교행사 마일리지 제도: 종교행사에 1회 참석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일정 횟수가 되면 휴가 1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2023년 B사단에서는 12회 참석을 휴가 1일로 인정

2. 측정 항목

주요 측정 항목은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와 참석하지 않는 이유, 성례(세례·영세·수례) 여부였고, 계급과 종교, 복무기간 등 인구통계학적정보가 함께 측정되었다.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와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보기 항목은 종교별 군종병들의 의견 수렴과 기독교·천주교·불교 군종장교들의 토론을 거쳐 정해졌다.

종교행사 불참 이유를 묻는 항목은 두 번의 조사 모두에서 동일하였지만, 종교행사 참석 이유를 묻는 항목은 일부 변경되었다.

2019년에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 항목이 있었지만 ‘마음이 편안해짐’ 항목과 겹친다는 의견이 있어 2023년 조사에서는 삭제되었다. 2019년 A사단 병사들은 종교행사 참석을 위해 대부분 영외 종교시설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부대 밖 외출을 할 수 있음’ 항목이 있었지만, 2023년 B사단 병사들은 영내 종교시설만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항목은 삭제되었다. 종교행사 마일리지 제도는 2019년 A사단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2023년 B사단에서는 시행되었기 때문에 ‘마일리지·휴가 등 보상’ 항목이 추가되었고, 2019년에는 ‘친한 전우의 권유’ 항목만 있었지만 2023년에는 ‘부대원(간부·동기·선임·후임 등)의 권유’와 ‘가족·친지·친구 등의 권유’로 구분하여 부대에서의 관계와 부대 밖의 관계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였다. 주요 측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주요 측정 항목

질문	항목
만일 종교행사에 참석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종교의 본질적 측면(예: 믿음, 구원, 수행 등) ② 맛있는 간식 ③ 마음이 편안해짐 ④ (A사단)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 (B사단) 마일리지·휴가 등 보상 ⑤ (A사단) 친한 전우의 권유 (B사단) 부대원(간부·동기·선임·후임 등)의 권유 ⑥ (A사단) 부대 밖 외출을 할 수 있음 (예: 군장점 물품 구입, 분위기 환기 등) (B사단) 가족·친지·친구 등의 권유 ⑦ 종교행사가 재미있음 ⑧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만일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종교에 대한 불신 ②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③ 귀찮음 ④ 개인 정비 시간이 부족함 ⑤ 종교행사가 지루함 ⑥ 마일리지·휴가 등 보상이 없음 ⑦ 부대에 재미있는 활동이 더 많음 (예: 인터넷, TV 시청, 운동, 동아리 활동 등) ⑧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세례·영세·수계 등을 받았습니까? (신교대 훈련소 포함)	① 세례(기독교) ② 영세(천주교) ③ 수계(불교) ④ 입교(원불교) ⑤ 2개 이상

IV. 결과

본고는 육군 병사들이 종교행사(예배)에 참석하는 동기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종교행사 참석 이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군선교 전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논의의 집증을 위해 천주교 불교 병사는 제외하고 무종교 및 기독교 병사들만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계급별 분석 및 전략 제안

먼저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를 계급별로 분석하여 상위 2개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정리된 내용이 <표 3>에 제시되었다. 2019년에 이병·일병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1순위, ‘맛있는 간식’이 2순위인 반면, 상병·병장은 ‘맛있는 간식’이 종교행사 참석의 가장 큰 동기였고 ‘마음이 편안해짐’은 2순위였다. 2023년에는 샘플 숫자가 적어 유의미한 분석이 불가능한 이병을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마일리지 보상’이 종교행사 참석의 가장 큰 동기였고, ‘종교의 본질적 측면’과 ‘마음이 편안해짐’은 두 번째 동기로 확인되었다.

종교행사 마일리지 제도가 없을 때는 낮은 계급(이병·일병)의 병사는 외적 동기인 ‘맛있는 간식’보다 비교적 내적 동기에 해당되는 ‘마음이 편안해짐’을 위해 종교행사에 참석했고, 높은 계급(상병·병장)의 병사는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에 의해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종교행사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계급과 관계없이 마일리지, 즉 휴가 보상이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계급에 따른 종교행사 불참 이유를 정리했으며,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2019년에 이병·일병에게는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과 ‘개인 정비 시간 부족’ 및 ‘귀찮음’이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였던 반면, 상병·병장에게는 ‘귀찮음’이 가장 큰 이유였고 ‘개인 정비 시간 부족’과 ‘부대가 더 재미있음’이 두 번째 이유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병을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귀찮음’이 종교행사 불참의 가장 큰 이유로 확인되었고, ‘개인 정비 시간 부족’과 ‘마일리지 보상 없음’이 두 번째 이유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 상병·병장 등 높은 계급에서만 종교행사 불참 이유 1순위로 나타난 ‘귀찮음’이 2023년에는 모든 계급에서 1순위로 확인된 결과는, 강원도(전방)와 충청도(후방)의 지역적 차이와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편안해지는 군 복무 환경의 영향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2023년 조사에서 상병에게 ‘마일리지 보상 없음’은 종교행사 불참의 두 번째 이유였지만, 일병과 병장에게는 ‘개인 정비 시간 부족’이 두 번째 이유였다. 일병은 군 복무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과 후 정리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병장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 특히, 병장은 마일리지 보상이

없기 때문에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에 불과하여 군 복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일리지 보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상병은 일병보다 개인 정비 시간의 여유가 있고 종교행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보상 없음’이 두 번째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상의 결과는 군선교 전략을 수립할 때, 계급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일리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병·일병과 상병·병장이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동기는 달랐으며, 이병·일병에게는 ‘마음이 편안해짐’이 가장 중요한 동기인 반면, 상병·병장에게는 ‘맛있는 간식’이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군대의 환경이 개선되고, 인권의 강조와 맞물려 군대의 경직된 조직문화 역시 유연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박상우, 2022) 낮은 계급의 병사들에게는 낮은 군 조직에 대한 적응이 여전히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은주, 2020).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은 이들에게 중요한 주제이며,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선교적으로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교회 전반적으로 또는 특정 공간을 따뜻한 조명과 감성적인 음악 등을 활용하여 구성함으로써 예배드리러 오는 병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설교와 찬양 등 예배의 내용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군 복무로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설교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찬양 등으로 예배를 구성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병·병장에게는 맛있는 간식 등 외적 동기가 중요했고, 마일리

지 보상이 있을 때는 외적 동기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했다. 군생활에 이미 적응이 된 높은 계급의 병사들에게는 외적인 요인이 그들의 필요(needs)를 채우는 역할을 했으므로 예산 범위에서 맛있는 간식 준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작은 상품이라도 매주 줄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상병 병장의 예배 참석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계급별 종교행사 참석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2019년 A사단	이병	마음이 편안해짐	24%	맛있는 간식	22%
	일병		24%		20%
	상병	맛있는 간식	27%	마음이 편안해짐	20%
	병장		25%		20%
2023년 B사단	이병	샘플 부족으로 유의미한 분석 불가			
	일병	마일리지 보상	36%	마음이 편안해짐 종교의 본질적 측면	19%
	상병		37%	마음이 편안해짐	20%
	병장		36%	종교의 본질적 측면	24%

〈표 4〉 계급별 종교행사 불참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2019년 A사단	이병	종교의 필요성 못 느낌	24%	개인 정비 시간 부족	23%
	일병	종교의 필요성 못 느낌 개인 정비 시간 부족	20%	귀찮음	18%
	상병	귀찮음	20%	개인 정비 시간 부족	19%
	병장		20%	부대가 더 재미있음	19%

2023년 B사단	이병	샘플 부족으로 유의미한 분석 불가			
	일병	귀찮음	26%	개인 정비 시간 부족	19%
	상병		28%	마일리지 보상 없음	16%
	병장		25%	개인 정비 시간 부족	22%

2. 종교정체성별 분석 및 전략 제언

병사의 종교정체성에 따른 종교행사 참석 동기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2019년에 기독교 병사는 ‘종교의 본질적 측면’ 때문에 종교행사에 참석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고, ‘마음이 편안해짐’이 뒤를 이었다. 천주교와 불교 병사는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 종교행사에 참석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고, ‘종교의 본질적 측면’이 두 번째 이유였다. 반면 무종교 병사는 ‘맛있는 간식’과 ‘부대 밖 외출’이 종교행사 참석의 가장 큰 동기로 확인되었다. 즉,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종교를 가진 병사는 ‘종교의 본질적 측면’과 ‘마음이 편안해짐’ 등 내적 동기로 종교행사에 참석하였지만, 무종교 병사는 전적으로 외적 동기를 따라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2023년에 기독교 병사는 ‘종교의 본질적 측면’이 종교행사 참석의 가장 큰 이유였지만 ‘마일리지 보상’도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병사의 예배 참석에는 내적·외적 동기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기독교 병사는 ‘종교의 본질적 측면’ 때문에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종교보다 높았다. 불교와 무종교 병사에게 ‘마일리지 보상’은 종교행사 참석의 가장 중요한 동기였고, 특히 무종교 병사에게는 ‘맛있는 간식’이 두 번째 동기로 나타나 2019년과 2023년의 결과 모두 무종교 병사가 종

교행사에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적 동기인 점이 확인되었다. 설문조사 당시 법회가 예배·미사보다 10~15분 일찍 끝났기 때문에 종교와 관계없이 종교행사에 참석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마일리지 보상’이 불교 병사에게 더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종교정체성에 따른 종교행사 불참 이유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2019년에 종교를 가진 병사는 ‘개인 정비 시간 부족’이 종교행사 불참의 가장 큰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귀찮음’(기독교)과 ‘부대가 더 재미있음’(천주교·불교)이었다. 무종교 병사는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과 ‘귀찮음’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2023년에도 종교를 가진 병사는 ‘개인 정비 시간 부족’과 ‘귀찮음’이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였고, ‘마일리지 보상 없음’이 추가되었다.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은 2023년에도 무종교 병사들의 종교행사 불참 이유에 포함되었다.

2019년과 2023년 두 번의 조사에서 기독교인이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공통적인 이유는 ‘개인 정비 시간 부족’과 ‘귀찮음’이었으며, 이는 자신의 종교정체성을 기독교라고 인식하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별개 영역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무종교 병사는 2019년과 2023년의 조사에서 모두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귀찮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종교행사 참석 이유와 연결해 볼 때 무종교 병사는 절대적으로 마일리지·휴가 보상, 맛있는 간식, 부대 밖 외출 등 외적 동기에 의해서만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선교의 주된 대상은 무종교인으로 생각되며,²²⁾ 군선

22) 참고,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교 현장에서도 무종교 병사는 선교 대상 1순위로 여겨진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종교인에게는 외적 동기가 종교행사 참석의 가장 중요한 동기였기 때문에 외적 보상을 기반으로 한 선교 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다. 성탄절, 부활절 등 교회의 절기에 맞춰 풍성한 선물이 준비된 전도대상자 초청 행사를 실시하거나, 훈련 종료 후 위로 및 격려를 위한 행사를 통해 무종교 병사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환경과 단절되는 군대의 특성상 군선교 대상은 무종교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입대 전부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군복무 기간에도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군선교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선교 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무종교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기독교인은 종교의 본질적 측면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므로 기독교인에게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과 후 또는 토요일 등 쉬는 시간에 QT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목회자가 주도하는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성경에 대한 나눔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종교정체성별 종교행사 참석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2019년 A사단	기독교	종교의 본질적 측면	29%	마음이 편안해짐	27%
	천주교	마음이 편안해짐	33%	종교의 본질적 측면	27%
	불 교		29%		18%
	무종교	맛있는 간식	34%	부대 밖 외출	16%
2023년 B사단	기독교	종교의 본질적 측면	27%	마일리지 보상	24%
	천주교	마음이 편안해짐	28%	종교의 본질적 측면	25%
	불 교	마일리지 보상	39%		20%
	무종교		48%	맛있는 간식	22%

〈표 6〉 종교정체성별 종교행사 불참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2019년 A사단	기독교	개인 정비 시간 부족	29%	귀찮음	21%
	천주교		28%	부대가 더 재미있음	25%
	불 교		29%		22%
	무종교	종교의 필요성 못 느낌	23%	귀찮음	17%
2023년 B사단	기독교	개인 정비 시간 부족	25%	귀찮음 마일리지 보상 없음	22%
	천주교		30%	마일리지 보상 없음	18%
	불 교	귀찮음	22%		18%
	무종교		25%	종교의 필요성 못 느낌	17%

3. 성례(세례·영세·수제)별 분석 및 전략 제안

세례·영세·수제 등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른 종교행사 참석 이유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었다. 세례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 세례를 받은 병사는 ‘마음이 편안해짐’을 종교행사 참석의 가장 큰 동기로 응답했고, ‘종교의 본질적 측면’과 ‘맛있는 간식’이 두 번째 동기였다. 2개 이상 성례를 받은 병사는 ‘맛있

는 간식'과 '부대 밖 외출' 등 전적으로 외적 동기에 따라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2023년 조사에서 세례를 받은 병사는 내적 동기인 '종교의 본질적 측면'이 종교행사 참석의 가장 중요한 동기였지만, 외적 동기인 '마일리지 보상'도 적지 않은 비율로 뒤를 이었다. 세례를 받은 병사는 영세와 수계를 받은 병사보다 '종교의 본질적 측면' 때문에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고, 세례·영세·수계 여부와 관계없이 '마일리지 보상'과 같은 외적 동기는 종교행사 참석의 중요한 동기로 확인되었다.

세례·영세·수계 등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른 종교행사 불참 이유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었다. 세례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 세례를 받은 병사의 종교행사 불참 이유 1순위는 '개인 정비 시간 부족'이었으며, '귀찮음'이 두 번째였다. 반면 2개 이상 성례를 받은 병사는 '귀찮음'과 함께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성례를 2개 이상 받은 병사는 사실상 종교정체성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에도 세례자가 종교행사에 불참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개인 정비 시간 부족'과 '귀찮음'이었다.

추가로 세례와 기독교 정체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병사가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응답한 비율을 분석하였다. A사단에서는 참가자 1,095명 중 468명이 세례자였고, 이 중 246명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응답하여 세례자 중 53%만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B사단에서는 참가자 368명 중 66명이 세례자였고, 91명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응답하여 25명은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응답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B사단의 세례자 66명 중 65명은 군 입대 전 세례를 받았고, 1명만 입대 후 세례를 받았다. 무종교 인원 중 세례자는 9명이었고, 이 중 8명이 입대 후 세례자였다. 즉, 입대 후 세례자 9명 중 1명만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응답했다.

두 번의 조사에서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세례를 받은 병사는 '종교의 본질적 측면'과 '마음의 평안' 때문에 종교행사(예배)에 참석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은 병사라도 귀찮거나 개인 정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두 번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례를 받았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입대 후 세례자 9명 중 1명만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응답한 결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군선교 사역자는 세례를 받은 병사라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고,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며,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특히, 입대 후 세례를 받은 병사들의 양육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군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하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생활화되며, 기독교 신앙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세례받은 병사가 양육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내면화되지 않는다면 '한 번 세례교인은 영원한 기독교인'이라는 구호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7〉 성례별 종교행사 참석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2019년 A사단	세례	마음이 편안해짐	24%	종교의 본질적 측면 맛있는 간식	22%
	영세		30%	종교의 본질적 측면	22%
	수계		23%	맛있는 간식	17%
	2개 이상	맛있는 간식	27%	부대 밖 외출	22%
2023년 B사단	세례	종교의 본질적 측면	31%	마일리지 보상	26%
	영세	종교의 본질적 측면 마음이 편안해짐	23%	마일리지 보상	21%
	수계	마일리지 보상	38%	마음이 편안해짐	19%
	2개 이상	샘플 부족으로 유의미한 분석 불가			

〈표 8〉 성례별 종교행사 불참 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2019년 A사단	세례	개인 정비 시간 부족	22%	귀찮음	19%
	영세	개인 정비 시간 부족 부대가 더 재미있음	25%		24%
	수계	부대가 더 재미있음	20%	개인 정비 시간 부족	18%
	2개 이상	귀찮음 종교의 필요성 못 느낌	19%	부대가 더 재미있음	17%
2023년 B사단	세례	귀찮음	29%	개인 정비 시간 부족	21%
	영세	종교의 필요성 못 느낌 개인 정비 시간 부족	20%	귀찮음	14%
	수계	귀찮음	31%	부대가 더 재미있음	21%
	2개 이상	샘플 부족으로 유의미한 분석 불가			

V. 한계 및 미래 연구 제안

본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하는 임무와 물리적 환경 등 차이가 많은 전방상비사단과 지역 방위사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표집인원 숫자에서도 1,095명과

368명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부대들을 선정하고 표집인원의 비율을 맞춰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선교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선교 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들을 통해 기독교와 관계된 다양한 자료들이 선교 및 목회와 관계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박윤서, 이현성, 2025). 입대 이전과 이후의 신앙생활, 군 복무 중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종교행사 참석률 변화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한다면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종교행사 참석 및 불참 이유에 대한 응답 항목이 정교하게 작성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9년 종교행사 참석 이유 항목 중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와 ‘마음이 편안해짐’ 항목 사이의 명확한 구별이 어렵고, 종교행사 불참 이유 항목 중 ‘귀찮음’과 ‘개인 정비 시간 부족’ 등 항목에서 ‘귀찮음’과 ‘개인 정비 시간’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요구된다. 미래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종교행사 참석 및 불참 이유가 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작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결론

선교와 예배는 인간과 복음의 총체성을 전제로 이해되어야 하며 군선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²³⁾ 군선교의 대상이 대한민국의 자

23) Harvie M. Conn, *Eternal Word and Changing Worlds: Theology, Anthropology, and*

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군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²⁴⁾ 군 선교 현장에서 예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주요 선교 대상인 병사의 예배 참석 동기를 이해하는 작업은 군선교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본 연구는 육군 병사들의 예배 참석 동기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선교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연구 결과는 병사의 계급 및 종교정체성에 따라 예배 참석의 동기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맞춤형 선교 전략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계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이병·일병 등 낮은 계급의 병사들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내적 동기를, 상병·병장 등 높은 계급의 병사들은 간식이나 마일리지 보상 등 외적 동기를 주요 참석 이유로 응답하였다. 종교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무종교 병사들은 전적으로 외적 보상을 기대하여 종교행사에 참석한 반면, 기독교 병사들은 믿음과 구원, 영생 등 기독교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동기로 예배에 참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세례를 받은 병사라 할 지라도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세례를 받은 병사를 향한 단순한 예배 초대를 넘어 신앙의 내면화를 위한 체계적 양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하비 콘 및 찰스 크래프트 등 현대 선교신학자들

Mission in Trialogue (Grand Rapids: Zondervan, 1984), 310.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국군의 강령)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 주장하는 성육신적 소통의 신학과 깊이 연결된다. 선교는 선교사 중심이 아니라 선교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필요에 응답하는 수신자 지향적 접근이어야 하며, 이는 군선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맛있는 간식, 마일리지, 휴가 등 외적 보상은 병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유인책의 의미를 넘어 특수한 군대 문화를 반영하여 선교 대상자를 예배로 초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군선교 현장에는 군대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선교적 상황화가 요청되며, 이는 총체적 선교의 실천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복음의 전달 방식은 수신자의 문화와 언어, 욕구와 정서 등을 고려하여 성육신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군선교는 이러한 성육신적 소통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장 중 하나이다.

연구 결과는 군선교 사역자들이 무종교 병사에 대한 전도 사역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병사들에 대한 양육 사역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복음의 본질인 구원과 믿음을 더욱 깊이 알고자 군인교회를 찾는 이들을 위해서는 기독교 교리와 성경에 대한 교육,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한 말씀 묵상과 기도 방법 교육 등 양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신병교육기관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기독교 정체성 인식 및 예배 참석이 세례와 별개라고 인식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내면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결국은 예배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군선교는 총체적 선교의 관점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선교 대상자의 현실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성육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예배는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의 임재 앞에 선교 대상자를 초대하는 거룩한 선교의 현장이 된다. 이러한 방향은 군선교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복음의 총체성과 상황성을 함께 품는 군선교 사역자들의 신실한 응답이 될 것이다.

Abstract

Identifying the motivations of ROK Army soldiers attending worship services for military ministry evangelical strategy development

Jung In Lim, Se Jun Jeo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otivations behind Army soldiers' attendance at military church services and to develop a military mission strategy based on these findings. A total of 1,095 soldiers serving in forward-deployed divisions in 2019 and 368 soldiers serving in local defense divisions in 2023 participated in the survey. Participants answered questions regarding their reasons for attending and not attending military church services (worship services) and demographic information.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the lens of holistic mission and theology of incarnational communication.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tivations for attending worship services varied by rank. Privates and privates first class were primarily motivated by intrinsic reasons, such as achieving peace of mind, whereas corporals and sergeants attended for extrinsic reasons, notably the offering of tasty snacks. Second, motivations also varied by religious identity. Non-religious soldiers consistently attended services for extrinsic motivation, while

Protestant soldiers were drawn by the essential aspects of religion, although extrinsic motivations were not insignificant. Third, even among baptized soldiers, many abstained from attending services due to reasons of convenience and lack of personal time. Furthermore, a noteworthy number of soldiers baptized after enlistment did not identify their religious identity as Protestant. Based on these findings, a tailored military missionary strategy was developed, targeting soldiers according to rank, religious identity, and baptism status. Finally,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Key Words

ROK Army soldiers, Holistic Mission, Theology of Incarnational Communication, Motivations of Attending Worship Service

논문 기고자 **Em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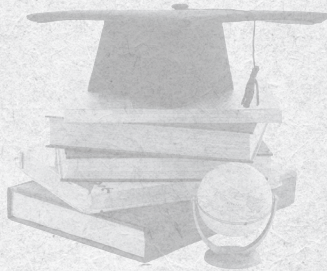
lji4019@naver.com

juasim@hanmail.net

기획 논문

Implications for Christian Soldiers of Kierkegaard's View on Suffering

| 김이석 |





Implications for Christian Soldiers of Kierkegaard's View on Suffering

» 김이석 Ph. D.*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existential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suffering in the life of Christian soldiers through a Kierkegaardian perspective. Kierkegaard regards suffering and despair not as accidents to be explained away but as essential dimensions of human existence. He characterizes human beings as “in-between” existences—oscillating between finitude and infinity, temporality and eternity—and interprets despair as the universal condition of such existence. In this light, the life of a Christian soldier can be understood as an in-between state, akin to Holy Saturday, suspended between the suffering of the cross and the hope of resurrection. Military service, often experienced as a period of hardship and interruption, is reinterpreted as a mode of existence that reveals both the curse and the privilege of human despair. By refusing premature consolation or escape, Kierkegaard provid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that embraces suffering as the paradoxical path toward authentic selfhood and faith.

Key Words

Kierkegaard, Soldier, Existence in-between, Despair, Theodicy, Holy Saturday

• 논문 투고일: 2025년 9월 2일 • 논문 수정일: 2025년 9월 5일

•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9일

* 예) 군종목사(군종57기),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Introduction

For human beings, the problem of suffering is one that we desire to understand and explain, yet it ultimately resists clarification. The suffering of Job, who could not know why he had to endure affliction; the 230,000 who perished in the tsunami in Indonesia in 2004; the 100million who died in the wars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the countless personal and familial sufferings that occur through accidents in daily life—all these are beyond words. We encounter numerous natural disasters and tragic events and face suffering directly. Yet no matter how many theories we develop, in the end we arrive at the conclusion that the problem of suffering cannot be fully explained. In *One Word Only, Lord* by Park Wan-seo, how could one explain the death of her son, a medical student, who died in a car accident at such a young age? Park cries out to God, pleading for at least one word of explanation, for some reason. But she hears nothing. The only response that emerges is: “Why should you alone be exempt from suffering?” Everyone is subject to suffering. And the reasons cannot be spoken. Only pain and tears remain to fill that space.¹⁾

Throughout history, theology and philosophy have attempted to give an account of suffering. In the wake of the Lisbon earthquake of 1755, Leibniz formulated theodicy—an attempt

1) Park Wan-seo, *Hanmalssumman Hasoseo [One Word Only, Lord]* (Seoul: Hyundae Munhak, 1989).

to justify God.²⁾ The question was: what does an omnipotent God do in the midst of suffering? In *The Problem of Pain*, C. S. Lewis similarly asks, "If God is good and omnipotent, why does suffering exist in the world?"³⁾ Buddhism interprets suffering in terms of karma and retribution,⁴⁾ while Christianity has often explained it teleologically or pedagogically, as part of God's holy plan or discipline through suffering.⁵⁾ Process theology, on the other hand, argues that God does not control everything absolutely but changes with the world, existing within the very process of suffering.⁶⁾

In common, most theological theodicies and philosophical discourses seek explanation. They try to clarify the causes of suffering, its relation to an omnipotent God, and to conclude that no fault lies with God. Such discussions assume that the problem of suffering can be explained and tend to imply that humans might seek exemption from it. In order to avoid suffering, they attempt to rationalize it. Against this, Kierkegaard takes a different stance. He regards suffering as an essential aspect of

2) Gottfried Wilhelm Leibniz, *Essays on Theodicy: On the Goodness of God, the Freedom of Man and the Origin of Evil*, trans. E. M. Huggard (La Salle: Open Court, 1985).

3) C. S. Lewis, *The Problem of Pain* (New York: HarperOne, 2001).

4) Damien Keown, *Buddh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48-56.

5) John Hick, *Evil and the God of Love* (New York: Harper & Row, 1966).

6) Charles Hartshorne, *The Divine Relativity: A Social Conception of Go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8).

human existence, even considering the human being who does not despair to be in a cursed state. Rather than evade, solve, or explain away the problem of suffering, Kierkegaard accepts it as a mode of human existence.

This perspective provides important insight for Christian soldiers. Military service is a time of suffering—a compulsory duty from which some try to escape illegally if they can. Yet Kierkegaard does not see life's suffering as something to be evaded or excused. Suffering (despair) may appear like a curse, but it is within that reality that one discovers the self and the essence of human existence.⁷⁾ Furthermore, Kierkegaard's view of human beings as “intermediate” beings helps to interpret the time and existence of military life as one caught in-between within the ordinariness of daily life.

Kierkegaard understands human beings as in-between existences—oscillating like a pendulum between infinity and finitude, necessity and contingency, eternity and temporality.⁸⁾ Human beings, recognizing their finitude, long for eternity, yet as finite beings they do not know what eternity is. They pursue eternity, but the eternity they know is only that which is revealed within their finitude; they can neither touch nor articulate it. They

7) Søren Kierkegaard, *The Sickness unto Death*, trans. Alastair Hannay (London: Penguin, 1989), 13.

8) Alastair McKinnon, “Kierkegaard's Dialectic of the Infinite and the Finite,” *Religious Studies* 4, no. 2 (1969): 187-201.

seek, yet do not know what they are seeking. Thus Kierkegaard sees human beings as a different kind of dialectical existence from Hegel's, defined in the tension between pursuit and ignorance. As Kierkegaard writes: "The self is a relation that relates itself to itself or is the relation's relating itself to itself in the relation; the self is not the relation but is the relation's relating itself to itself."⁹⁾

Kierkegaard calls this distinctive mode of existence despair. Despair is not a psychological state of hopelessness but the existential condition of the in-between being who oscillates between the infinite and the finite. It is universal and epistemological. Human despair arises when the finite creature stands before eternity and realizes that it cannot reach it.¹⁰⁾

This understanding also offers a new perspective on the problem of suffering. For human beings, suffering is not a curse imposed on sinful humanity. Kierkegaard explains that despair is a characteristic unique to human beings, not granted to animals. Only beings who can look toward eternity can despair.¹¹⁾ Likewise, suffering is recognized as suffering only by humans; this recognition itself is a privilege. Suffering is not something to be avoided or excused but accepted as a constitutive dimension of existence.

9) Kierkegaard, *The Sickness unto Death*, 13.

10) *Ibid.*, 2230.

11) Anthony Rudd, *Kierkegaard and the Limits of the Ethical* (Oxford: Clarendon Press, 1993), 4549.

From Kierkegaard's perspective, the Christian soldier's life in the military can be understood as akin to Holy Saturday—a time in-between the suffering of the cross and the glory of Easter.¹²⁾ The soldier's life is not one of suffering alone, but neither is it already translated into the glory of the resurrection. We know the victory and glory of resurrection, yet life remains in the midst of suffering. Kierkegaard's understanding of the in-between life thus provides profound insight for Christian soldiers. Soldiers are placed in a unique environment, separated from the ordinariness of everyday life. Military service, as an in-between time of life, is often remembered only as suffering, as a painful interruption of one's career or personal history. Yet for Kierkegaard, it is simply one mode of human existence. Those who do not find themselves within the paradox of in-between life—those who are in despair yet unaware of it—cannot attain glory.

A Kierkegaardian, existential-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the Christian soldier's in-between life ensures that their time of service is not spent in vain. Nor does it allow them to prematurely transfer themselves into the glory of resurrection in such a way that present life is ignored. Rather, it enables a life of faith that remains faithful to the pain of present reality while also living in hope of glory.¹³⁾

12) Jürgen Moltmann, *The Crucified God* (London: SCM Press, 1974), 278-283.

13) Merold Westphal, *Becoming a Self: A Reading of Kierkegaard's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West Lafayette: Purdue University Press, 1996), 112-118.

1. The differences of dialectics of Hegel and Kierkegaard

The philosophy of Kierkegaard is the result of dialogue with that of Hegel. To understand the philosophy of Kierkegaard it is necessary compare the dialectics of Kierkegaard and that of Hegel. Both of them insisted dialectical viewpoint, but their contents and developments are different. Hegel supported the Western superiority and the historical progressive point of view by philosophy at the dawn of modern civilization. As he pushed the wheel of modern history believing as the revelation of absolute spirit, Kierkegaard tried to stop the cruel wheel of imperialism and universalism and to regain the meaning of humanity and self disappeared. The philosophy of Kierkegaard stood against the philosophy of Hegel. In first chapter, I would like to point out several differences.

Firstly, the dialectics of Hegel is about how to become synthesis from conflicts. Thesis and antithesis crash and conflict each other seriously, but both of them slowly approach to another form, synthesis. The conflicts of thesis and antithesis deny each other, but in the long run they affirm each other and create another thesis, synthesis. His dialectical philosophy is balanced between dynamic denial and affirmation.

Contrary to Hegel, the dialectics of Kierkegaard does not reach synthesis. There are only endless tension and dynamic movement. It made thesis and antithesis paradoxically coexist.

For example, the conflicting of infinite and finite does not reach at another synthesis. There are only severe tension and paradox. When finite face infinite, it seeks infinite beyond finite. This movement moves another direction. When finite faces infinite beyond understanding, finite is frustrated before infinite.¹⁴⁾ Finite recognizes nothing but its restriction and limitation. Its dialectical movement does not stop here. It dreams infinite again in spite of finite. The confliction between infinite and finite does not create synthetic result, but it keep oscillating between finite and infinite. Infinite is absolute infinite because of finite, and finite is unavoidable finite because of infinite. The nonnegotiable confliction with infinite and finite cannot be solved. It preserves their tensions forever.

Secondly, the dialectical philosophy of Hegel is the movement within universe. It composes of synthesis through the process of thesis, antithesis, and the synthesis become different thesis and begins another dialectical movement of conflicting with antithesis and reaches another synthesis. It progresses and develops in history. He thinks of history as the procedure of accomplishing absolute spirit. History is progressing toward holy purpose. However, the dialectical philosophy of Kierkegaard is different. It is one dimensional. There is clash between thesis and antithesis, but there is no synthesis like Hegel's philosophy. Finite face with

14) *Ibid.*, 30.

infinite, but each of them does not change into synthesis. Its movement keeps oscillating between thesis and antithesis. The conflicts between infinite and finite still remain as it is. Infinite and finite, necessity and possibility, eternity and temporality remain with tension.

Thirdly, while the philosophy of Hegel is historical and universal, that of Kierkegaard is individual and existential. The philosophy of Hegel was one of the motive powers enabling the development of history and Western civilization. He thought of history as the place of accomplishing presence of absolute spirit; history is gradually progressing and escaping from the ignorance of past to the peak point of history. It is moving from age of religion to age of reason. Hegel regarded his contemporary as the peak point of history. History is the history of realization of the revelation of absolute spirit. The accomplishing moment was in front of him. Because of his optimistic viewpoint on his nation and history, his philosophy was extolled as the state philosophy. He was very optimistic of human ability.

However, at the same time when Hegel had affected strongly on history with his philosophy of history, he lost other important things among the extreme stream of universal philosophy. His optimistic universal philosophy made use of humans just as means. There was no room for human individual self and existence. The purpose of Kierkegaard's philosophy is to find

the lost self and individuality. His existentialism is the lifelong procedure of seeking him/herself. It is becoming and endless process. “The self is not the relation but is the relation’s relation itself to itself.”¹⁵⁾ Kierkegaard’s concern is not history but self which was lost and exploited by the universal history and the wheel of nationalism.

2. The dialectical stance of human beings

The dialectical philosophy of Kierkegaard as the lifelong procedure of seeking self brings about his unique human view. He thinks of humans as the middle beings oscillating between infinite and finite, necessity and possibility, and eternity and temporality. “A human being is a synthesis of the infinite and the finite, of the temporal and the eternal, of freedom and necessity, in short a synthesis.”¹⁶⁾ Synthesis he is using is not like that of Hegel. It is to tell the paradoxical stance of humans. Humans embody two nonnegotiable conflicting poles. Humans are existence wandering between infinite and finite. The superior reason of human to animal is not standing erect ability but able to see the eternity. Humans are dialectical existence moving backward and forward like pendulum between infinite and finite. Humans paradoxically belong to the both infinite and finite.

15) *Ibid.*, 13.

16) *Ibid.*

Humans are the middle beings standing between them. Humans who recognize their finite begin to seek the eternity, but finite humans do not know what infinite is. Because of their ignorance of what they are seeking to and what they are, they recognize only one fact that they are finite. They begin to despair. In other words, when they try to approach to eternity, the only destiny waiting for them is to realize their limitation. However, there is paradox. Because of their finiteness, they begin to seek eternity again. Although they seek eternity, humans are ignorant what eternity is. Even less,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seeking. It is irony that they are asking what they do not know what it is. To ask they have to know what they are asking, but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asking, and what they should ask. Finite human beings do not know infinite. In spite of human finiteness, humans keep asking what they do not know, and what they cannot know. Humans have special aspect able to dream eternity, but as soon as they meet eternity, they cannot but despair before the deep unknowable eternity.¹⁷⁾

Kierkegaard's paradoxical anthropology between eternity and temporality, infinity and finite is supported by his unique dialectical conception. His paradoxical view point does not regard the paradoxical human stance limited by space and time as curse. Humans can dream eternity not in spite of human limitation,

17) *Ibid.*, 30.

but because of their limitation. The finiteness of humans is not the obstacle of approaching eternity. Because of it, humans can realize their limitation and can dream something delimited beyond limitation.

The uniqueness of Kierkegaard's dialectical anthropology describes the journey of seeking eternity as the endless process. "The self is a relation that relates itself to itself or is the relation's relating itself to itself in the relation; the self is not the relation but is the relation's relating itself to itself."¹⁸⁾ Self is becoming one relating to the process of finding out the real self. Self is not given without any efforts or something out of here. It is brought about by relating self to relation with self seeking out self. Despair is essential thing on the way of finding self.

3. Despair

Kierkegaard differentiates three kinds of despair. "Despair is a sickness of the spirit, of the self, and accordingly can take three forms: in despair not to be conscious of having a self (not despair in the strict sense); in despair not to will to be oneself; in despair to will to be oneself."¹⁹⁾

The Universality of Despair

Kierkegaard points out the universality of despair. Regardless

18) *Ibid.*, 13.

19) *Ibid.*

of conscious or unconscious of despair, human beings are in despair. Like patients who do not know that they are sick. They are sick despite of present health. Although there are no symptoms, diseases are already located in their body.²⁰⁾ "Not being in despair, not being, conscious of being in despair, is precisely a form of despair."²¹⁾ Despair of Kierkegaard is not the objects of psychological research. It is anthropological object and philosophical explanation for humans. His insistence of universality of despair is not about psychological universality but existential universality. Human being itself already is in despair.

Conscious Despair and Unconscious Despair

One of understanding of Kierkegaard's despair is on the relationship of despair and consciousness. "Despair must be considered primarily within the category of consciousness."²²⁾ "Consciousness is decisive...with regard to the self."²³⁾ Why does he think of despair with consciousness important one? Why is it decisive to conceive despair? Because it causes wholly different results according to they are conscious of their despair or not. "Compared with the person who is conscious of his despair, the despairing individual who is ignorant of his despair is simply

20) *Ibid.*, 23.

21) *Ibid.*, 24.

22) *Ibid.*, 29.

23) *Ibid.*

negativity further away from the truth and deliverance.”²⁴⁾ For those who are conscious of their despair, despair itself is suffering but they know the meaning of despair and seek to cure the despair disease. However, for those who are not conscious of their despair, despair itself is suffering, and additionally, they cannot live meaningful life and seek way to cure this disease. The consciousness of despair or unconscious of despair causes different meaning and results. Therefore, relating despair with consciousness is decisive factor.

The poor in Matthew 5 who are hungry are the despairing persons who know their agony and wretchedness. They seek food for hungry, water for thirsty, justice for oppression, cure for disease, and salvation for despair. Those whose stomachs are full do not have reason to ask. Those who are not thirsty do not ask water. Those who oppress do not ask justice. Those who are health do not ask health. Those who are abundant are not in despair, and do not cry out God. Their god is not God. They already have their own god: filled stomach, satisfied life, and abundance. Only those who are poor and thirsty ask God, and seek. People in despair seek self because they are despaired by themselves. Therefore, self in despair takes the journey for finding self. “The more conscious, the more self; the more consciousness,

24) *Ibid.*, 44.

the more will; the more will, the more self.”²⁵⁾ The more they realize their despair, the more they seek themselves. Despair is motive to seek self. On the other hand, the ignorance of despair leads them deeper despair and darker ignorance. They do not know what they should seek.

Two Responses of Conscious Despair

Kierkegaard distinguishes two different despairs from despair in conscious. When individuals in despair realize that current self is in wretched, they respond two different ways. One is to seek the real self from other places, despair over something, and the other is to seek the self within him/herself, despair over him/herself.²⁶⁾

Kierkegaard insists that first despair over something is wrong one. For example, those who want to be like Caesar are wrong one. These people do not seek their true selves from themselves but from others. What they ask are other's self. They think of Caesar of their ideal self and yearn to be like Caesar.²⁷⁾ “Essentially, he is just as despairing, for he does not have his self, is not himself. He would not have become himself by becoming Caesar but would have been rid of himself, and by not becoming Caesar he despairs over not being able to get rid of himself.”²⁸⁾ The

25) *Ibid.*, 29.

26) *Ibid.*, 19.

27) *Ibid.*

28) *Ibid.*

despair over something is not proper one. It is good starting of despair, when they face old selves, and try to get rid of them. However, it is wrong to look for self from others no other than inside themselves. They should not look after other great people, or take other's self as theirs. The true self can be found out inside oneself. The right despair is despair over oneself. Self in despair tries to get rid of self.²⁹⁾ Self is disappointed by oneself, so tries to remove old self and take journey of seeking true self over themselves.

Dialectical Movement of Despair

The paradoxical aspect of human beings locating between infinite and finite is philosophically paradox,³⁰⁾ the religiously ineffable and unexplainable absolute relationship with the wholly Other,³¹⁾ and anthropologically despair.³²⁾ In the *Sickness unto Death*, Kierkegaard asks whether despair is failure of life or not. "Is despair an excellence or a defect? Purely dialectically, it is both."³³⁾ On the one hand, despair is misfortune³⁴⁾ in respect to wretchedness and suffering, but on the other hand, it is prestige

29) *Ibid.*, 19.

30) Søren Kierkegaard, Howard Vincent Hong, and Edna Hatlestad Hong, *Philosophical Fragments, Johannes Climacu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31) Søren Kierkegaard, *Fear and Trembling: and the Sickness Unto Death*, 1st Princeton paper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32) Søren Kierkegaard, Howard Vincent Hong, and Edna Hatlestad Hong, *The Sickness Unto Death: A Christian Psychological Exposition for upbuilding and Awakening*.

33) *Ibid.*, 14.

34) *Ibid.*, 26.

of human beings, because it is a way of journey for true self. Kierkegaard does not think of despair as totally pessimistic misfortune. It is a privilege which humans can obtain as spiritual beings.

Eternity unable to reach: Despair

Why is there despair? As already mentioned above, humans stand on the middle. His dialectical philosophy wrestles with the tension between nonnegotiable factors: thesis and antithesis. Human being is the very paradoxical being. Because of this paradox, human as finite seek what they do not know, and soon they face despair due to the very fact of finite human being.

Kierkegaard tries to articulate his philosophy with dialogue with Socrates. They have same insistence in regard to that humans are ignorant being. Humans are asking what they do not know and cannot know. On the one hand, if they knew what they ask, they would not ask, because they already know. They do not need to ask, because they already know. But humans keep asking, because they do not know. On the other hand, if they did not know, they could not ask, because how could they ask of what they did not know. In consequence, humans are ignorant. Furthermore, they cannot ask what truth is, because they do not know what truth is.

However,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between Socrates and Kierkegaard on the way how human can escape from

this existential ignorance. Socrates insists on ‘recollection’, but Kierkegaard insists on God’s revelation. For Socrates, truth is immanent within human themselves, and humans forget it. Contrary to Socrates’ midwife’s role to help giving birth to wisdom, Kierkegaard insists how humans can know truth unless real teacher show the truth. God have to tell us the truth. In regard to human total ignorance, Kierkegaard is different with Socrates. Kierkegaard’s epistemology keeps “u-topes” in human mind. Truth is no place, not because truth does not exist, but because there is no way to explain it, and nobody can do it. Truth is beyond human understanding and knowledge. Therefore, humans who contact with eternity cannot help despairing. “Every moments in which a human existence has become or simply wants to be infinite, is Despair.”³⁵⁾ However, despair of Kierkegaard does not remain object of curse.

Way to Salvation: Despair

Despair of Kierkegaard is a necessary course of journey toward self. Unless finite humans despair over themselves, they cannot face infinite. Despair motivates to seek infinity, but as soon as people face infinity, it causes despair. Despair is blessing as well as curse. Despair is irony. Like the enmity of Antonio Salieri, the opponent of Mozart in the movie, *Amadeus*, he knew the value of music composed by Mozart, but he could not make it. He

35) *Ibid.*, 30.

complained to God. He can evaluate the genius works, but could not make it. It is curse for Salieri to know the value of Music of Mozart but not able to compose it. It is curse for Adam to know the Garden of Eden, but can not approach it, where is protected by angels. Although they can imagine and dream, they cannot approach. It is prohibited. This is despair. This is curse but it is blessing to know eternity. Despair indicates that humans are standing the place where they can know but they cannot know, they can imagine but they cannot approach. They can see but they cannot touch. They can approach but it is prohibited.

Despair is one of experiences to take seriously and to maintain the tension between infinite and finite. If humans are finite and limited beings unable to arrive at eternal destiny and eternal blessings, despair is suffering, but the worst suffering is not despair of inability reaching eternity but despair unable to experience despair itself to eternity. "Precisely because the sickness of despair is totally dialectical, it is the worst misfortune never to have had that sickness."³⁶⁾ Paradoxically, without suffering and despair, the way to the eternity and truth are not opened. The thirst for justice can seek justice and meet it.

In *Sickness unto Death*, Kierkegaard explains several characteristics of despair.

36) Kierkegaard, Hong, and Hong, *The Sickness unto Death: A Christian Psychological Exposition for Upbuilding and Awakening*, 26.

First, human superiority to animal is not due to erect walking, but due to despair. “The possibility of this sickness is man’s superiority over the animal. And this superiority distinguishes him in quite another way than does his erect walk, for it indicates infinite erectness or sublimity, that he is spirit.”³⁷⁾ Despair is not for animal. Human is in despair, because human is standing between infinite and finite. It is curse because limited humans cannot eternally reach infinity like Prometheus’s useless efforts to put a stone on top of mountain. However, the wretchedness and distress of humans make different from animal. It is privilege. Although humans are free from the birth, human are socially restricted beings from birth.³⁸⁾ The restriction of humans make dream of freedom and eternity. The dream change into despair, when finite meets infinite.

Second, Christians are superior to other pagans, because of despair. The human is superior due to despair, but Christians are superior due to knowing way to cure this disease. “The possibility of this sickness is the Christian’s superiority over the natural man; to be cured of this sickness is the Christian’s blessedness.”³⁹⁾ Despair is an evidence of spiritual life. “To despair is a

37) *Ibid.*, 14.

38) Jean-Jacques Rousseau and Victor Gourevitch, *The Discourses and Other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Texts in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39) Kierkegaard, Hong, and Hong, *The Sickness unto Death: A Christian Psychological Exposition for Upbuilding and Awakening*, 14.

qualification of spirit and relates to the eternal in man."⁴⁰⁾ Human's spirituality and desiring for eternity lead to despair.

Third, Kierkegaard's paradoxical epistemology on despair regard despair as the place of happiness. "Happiness is not a qualification of spirit, and deep, deep within the most secret hiding place of happiness there dwells also anxiety, which is despair; it very much wishes to be allowed to remain there, because for despair the most cherished and desirable place to live is in the heart of happiness."⁴¹⁾ Kierkegaard says that the beauty and the lovable is happiness, but this happiness is not the spiritual characteristics. Above already stated, despair is one of characteristics of spiritual human. So despair and happiness locate at the same place. From the Kierkegaard's dialectical point of view, despair and happiness is not antonym. Their relation is relational and dynamic tension, not opposite. To be happy, self must be in despair over self, and since the despair, self can get the happy to seek for new self. Happy and despair is not antonym but reciprocal relational terms. Human being exists as paradoxical relational being. The more spiritual, the more despair. "There is a God and that 'he,' he himself, his self, exists before God-an infinite benefaction that is never gained except

⁴⁰⁾ *Ibid.*, 17.

⁴¹⁾ *Ibid.*, 25.

through despair.”⁴²⁾ Despair is blessed road to eternity. In other words, the theology of cross, not the theology of glory, opens the way of infinity. Despair looks like suffering but it is qualification of spirituality and way of salvation not a curse. This is wholly different point of view to open new understanding on Christian life.

4. Christian Life of Middle Day

The philosophy of Kierkegaard is not only a challenge against philosophy of Hegel, but also a desert voice for nominal Christians. In this chapter, I would like to call his theological challenges “Christian life living middle day.”

Middle Day

Christian life is middle day life between suffering Holy Friday and glorious Easter. It is neither suffering life nor glorious and abundant paradise. Christian is the people living between suffering cross and glorious resurrection. There are two things to attract our attentions.

First, Jesus Christ seriously treated the suffering of Holy Friday. He did not skip the suffering or avoid it by suffering without body. He did not jump directly from holy Friday into resurrection of Easter. Jesus dealt with the suffering in Holy Friday seriously. Why did the son of God have to experience the suffering and

⁴²⁾ *Ibid.*, 27.

agony on the cross? Why does the gospel, good news, have to include the suffering story? Nobody wants to hear suffering and agony if they are not masochists. Can the suffering cross be the symbol of good news?

The other is about Holy Saturday. After death, he remained in the tomb and silenced. During his ministry, he announced the message and rose his voice for many people "Kingdom of God was near" but anybody could not hear the voice any more. He silenced as like there was no hope. It was the time that disciples following Jesus were frightened, and regretted their following. However, Jesus was in this silenced and scared time. His people were full of fright and hid themselves, but Jesus silenced. He did not help them. Like loser he remained in his tomb. Where is hope? Where is his promise for kingdom of God?

What he showed in Holy Saturday is the truth that good news should take the silent time in the tomb and the impotent vulnerable time of omnipotent God for the time of glorious resurrection. Salvation does not only indicate the glory of Easter. Without the time of suffering of Holy Friday and the silence and despair of Holy Saturday, there is no resurrection. Salva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suffering and glory. The redemption from Jesus Christ and procedure for truth is not possible without either one of the suffering holy Friday or the glorious Easter. Despite of already given redemption for us, remaining in suffering

may be foolish, nevertheless, easily trying to jump into glorious life of resurrection is to make the valuable theology of cross sold in bargain sale. As Bonhoeffer's theology, the redemption of cross is free grace, but the redemption itself is precious. Redemption is given at the expense of only begotten Son. It is incomparable price, but God give us free. It is free but expensive one. It is given free, but we cannot treat it worthlessly. Christians in Kierkegaard's state religion Christianity or contemporary modern church tend to jump into the peaceful territory or glorious life skipping the suffering life of Holy Friday. They are selling the gospel in cheap grace. There remains only a religion for comfort, no tension, trembling and mystery of faith.

Christian joy of salvation is not completed yet, but on the way of becoming. Christian life is mid-life between. It already touched eternal salvation but it was still approaching to eternity embracing the limitation and suffering of humans. "Then the kingdom of God already had come upon you."⁴³⁾ Eternity is already upon us, and salvation penetrated into this world. However, next moment we face that the kingdom of God is not completed yet. At the moment when we see the reality of "here and now," we realize that we do not arrive at it yet. Christian is living the paradox of "already and not yet" of the kingdom of God. Christian life already left the suffering of holy Friday, but does not arrived the

43) Matthew 12: 28.

Easter yet. They are paradoxically expecting and living the Easter life, and simultaneously embracing the suffering of holy Friday and the silence of Holy Saturday.

The middle day life of Christian is new life between the happy life and the suffering life. It is voluntarily to bear one's cross. Gospel is not only sweet to hear and promise material abundance and peace, but also bitter news of bearing one's own cross. Gospel invites us to the new territory nobody knows. It is good news not to bear my problematic and suffering life, but it does not mean dualism. The invitation of Jesus Christ is to change my life and suffering. It invites us to attend voluntarily at suffering of cross for others. In Matthew 11: 28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It is definitely good invitation, but he suggests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To take a rest he invites us to take a yoke. It is paradox. To remove our burden, it requires taking another burden. Jesus promised new freedom, but he invites us decide to bear our cross or not. It is freewill attending at suffering. He can take off my selfish suffering burdens, but he invites me to bear altruistic cross.

Voluntary cross look after the despair in consciousness. As stated above, it is different to live in understanding despair from just to live in despair in ignorance. This voluntary cross is to take

suffering cross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suffering. Both of them have one thing in common, that their meaning of cross and despair are different from before.

Not “Despite of …” but “Because of…”

Another characteristic of Christian living middle day is that redemption is given not despite of human limitation and finiteness, but because of the very limited existence. The dialectics of Kierkegaard does not curse the finiteness of humans. One reason why human can seek infinity is human finiteness. Not despite of human time spatial limitation and sins, but because of the fact that human is limited existence to time and space, human can approach to eternity. Not despite of despair but because of despair, human can reach redemption. The environment which defines fish is water. Sky is place for birds flying. Humans are bound to the category of space and time, and cannot leave. To define is to limit. Are these limitations restrictions or curses? Is limiting fish into water curse? Water is limitation but because of the limitation, fish can swim freely. If fish could fly in sky, the freedom would be affirmed as curse. Because of spatial limitation, birds can fly. It cannot enjoy freedom in water. Likewise, limited human can seek freedom and eternity because of the very finiteness, not despite of human limitations. Human despair, suffering and tears of Kierkegaard are disease taken after realizing the finite before the infinite. Despair is not the disease

to death but a way of salvation. Not despite of bitter experience but because of it, humans reach truth and salvation. Not despite of human paradoxical existence, but because of it, humans can know truth.

Not Despite of Bodiness Because of Bodiness

The optimistic understanding of finiteness leads to another understanding of human body. Human desiring to know truth has deep relation with body. Human endless journey for truth is possible not by despite of human finiteness but because of it. The finite body enables us to reach it. Body become easily sick, anguish and hungry, but theses defects are departure of asking what is salvation and happiness.

From time to time intelligence of head may forget, but body remembers. The memory of experience is not in head but in body. The memory of life, that is, joy, sorrow, death, suffering is on our body. Even if intelligence of head forgets experiences of life, wrinkled face will tell the sore or happy experiences. Disabled body will describe how much war or traffic accident was painful and unforgettable. Furthermore, body can not only remember but also describe. It describes the longing for salvation or hope. Sometimes body tells something which cannot express in word or letter. Tears in eye and praying hands are describing the desiring of soul and pains in depth beyond ability of intelligence or word.

The body of Jesus Christ is important text describing the ineffable hope and suffering beyond words. The wounds of Jesus hands tell us what salvation is. The wound of feet was the story of impotence of omnipotent God on the cross. Jesus is the son of God, but he could not save even his own life. The wounds of head done by thorns told a betrayal from his people having shouted “Hosanna, hosanna!” one week ago. The waist wound described the failed reality of education of three years. Every disciple ran away. His flowing blood from body was social unjust reality in which the poor and the weak were beaten and treated unfairly. His body was the results of human cruel sins; betrayal, mistrust, selfish leadership of religious leaders. However, simultaneously it embodied the good news which everybody wanted to hear. Our bodies remember suffering, but are also conscious and unconscious outcry for help and salvation.⁴⁴⁾ The body of Christ tells us that Jesus is God not despite of his bodiness and weakness, but because of his fully humanness. God is omnipotent not because God is free from suffering but because God can experience suffering by godself. The omnipotent God can be revealed not from sky but within the incompetence on the cross.

Because of Suffering

The paradox of Kierkegaard about suffering also responds

44)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Rome 8: 26).

differently. Suffering is not curse. Jesus did not embrace the bodiness of God as curse, but embraced human finiteness humbly. God did not pass over the cross without suffering and jumped into the glory of resurrection. Jesus embraced the human deflection and limitation, neither pretending human nor experiencing only spiritually like Docetism. Jesus embodied fully humanness and experienced shame and suffering. Why did omnipotent God have to experience suffering? Why does salvation accomplish through the impotence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What does apostle's creed that we believe omnipotent God mean?

The suffering is not obstacle of truth. Human can reach salvation by suffering. The reason why God became human was the omnipotence. Because of human limitation, humans begin to seek truth and salvation. Because of the impotence of cross, omnipotent God tell us. Because of God's hiddenness in the impotence, God can reveal godself.

Those who long for meeting Jesus are the sick, the poor, the thirst for justice, the hungry for love, the abandoned, and the marginal outside of law. Those who are full in their stomach, rich and have vested rights did not want to meet Jesus. They did not need Jesus, their rich materiality satisfy their needs, and blind their spiritual reality. There is no place for God at the heart of the rich.

The meaning of suffering on the journey of faith to live Christian life of resurrection is well revealed in the body of mother. Baby, the fruit of joy and love, is accomplished by the ten months journey of mother's suffering and endurance. Joy of new baby is not given by itself. The journey of mother for new life begins with embodying an alien substance in her body, and she should share everything with the alien including nutrition and even emotion. This uncomfortable living together reaches the summit at the moment of giving birth. New baby comes out ripping mother's body and bleeding. The pain of giving birth is suffering, but it is not meaningless one. It is joyful suffering. Can it be accomplished to give birth to new baby without pain, endurance and ripping body? Love can go together with pain and suffering. Loving is hurt. Loving other is sacrificing oneself. It is positive stress.

Is it possible for salvation to be completed without suffering of cross? No. It is irony. The suffering and happy is not antonym from this point of view. They are the other side name of same coin on the journey of faith. The suffering of mother has indescribable meanings; it is not just suffering. It is happy suffering. Not despite of suffering, but because of it, mother can be real mother. The suffering itself is not purpose, but suffering enables to obtain life. Can Jesus Christ accomplish the salvation without suffering on the cross? The agony and suffering is not

option but essential way for accomplishing salvation. Suffering is a part of necessary journey for resurrection. Suffering itself is not purpose but necessary way to salvation. To live Christian life full of resurrected joy and truth is to seek and to take paradoxical journey of faith, and it can be accomplished because of suffering.

Conclusion

Kierkegaard's reflections on despair and the in-between nature of human existence shed profound light on the life of Christian soldiers. Military service, often regarded merely as an interruption marked by hardship and suffering, can instead be seen as an existential space analogous to Holy Saturday—a life suspended between the suffering of the Cross and the glory of the Resurrection. This perspective does not trivialize the pain of the present; rather, it insists that genuine faith does not bypass despair but endures within it.

Despair, far from being a mere defect, is the mark of humanity's spiritual dignity. It reveals both our finitude and our yearning for eternity, exposing us to the paradox of seeking what we cannot fully grasp. For Kierkegaard, this paradox is not an obstacle but the very condition through which authentic selfhood and true faith emerge. Thus, the Christian soldier's life is not wasted in suffering; it is transfigured into a site of faithful becoming, where the tension between cross and resurrection is lived out concretely.

To embrace this “middle day” existence is to resist the temptation of cheap grace—the illusion of leaping prematurely into the glory of Easter while ignoring the cost of Good Friday and the silence of Holy Saturday. Instead, it calls for a faith that remains steadfast in the present reality of suffering while hoping in the promise of eternal life. In this way, Kierkegaard reminds us that the Christian soldier’s life is not merely one of endurance, but of spiritual formation: a journey in which despair becomes the very passage toward selfhood, hope, and the mystery of salvation.

국문초록

본 논문은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의 의미를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에 근거하여 고찰한다. 전통적인 신정론과 철학적 논의들은 고통을 합리화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고통과 절망을 피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으로 이해한다. 그는 인간을 무한과 유한, 영원과 시간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중간자적 존재’로 규정하고, 절망을 이러한 존재 방식의 보편적 조건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 복무의 삶은 단순히 의무와 고통의 시간으로만 이해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사이, 즉 성토요일의 중간적 시간에 해당하는 삶으로 새롭게 조명된다. 군 생활은 흔히 고통스러운 단절의 시간으로 인식되지만,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에서는 인간 존재의 역설을 드러내는 자리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키에르케고르의 절망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와 ‘중간의 날’에 대한 강조가 기독교인이 현재의 고통을 충실히 감당하면서도 부활의 희망을 붙드는 신앙적 삶을 가능하게 함을 주장한다. 이는 고통을 회피하거나 성급히 영광으로 도약하지 않고, 고통 자체를 신앙적 자기형성과 구원의 길로 수용하는 새로운 신학적 인간학을 제시한다.

중심단어

키에르케고르, 군인, 그 사이의 존재, 절망, 신정론, 거룩한 토요일

논문 기고자 Email

withnim@gmail.com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제1조 (정의)

이 규칙은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 부설기구로 조직된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 규칙”이다.

제2조 (명칭)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라 칭한다.

제3조 (소속)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에 둔다.

제4조 (목적)

1. 군선교사역을 통한 민족복음화의 전략인 비전2030 실천운동을 신학(선교, 실천)적으로 정립
2. 다원종교 사회속에서의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군선교 전략 및 전술의 계속 개발 및 적용
3. 21세기 세계 종교 상황과 문명충돌 현상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군선교사역 방향확립

4.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이비 이단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
5. 실천신학 분야는 군종목사, 군종목사후보생, 군선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6. 한국교회 성장에 군선교가 미친 영향을 역사신학적 측면에서 정립 및 미래방향 제시
7. 군선교사역이 한국교회의 21세기 청년전도의 중심 및 교회부흥을 향한 비전2030 실천운동과 병영 및 사회에서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위한 사역의 결실을 맺도록 역할

제5조 (조직 및 임기)

1. 군선교신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신학연구위원장 1명, 교육위원장 1명, 일반 연구위원 등 30명 내외로 조직한다.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전체사역을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에 대행한다.
2. 분과별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정책위원, 군종목사위원
3. 연구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4.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총무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5. 효율적인 학회운영을 위해서 신학연구위원회를 둔다.
6.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 (연구위원 선발)

1. 각 신학분야별로 초교파적으로 선임한다.
2. 본 학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선임하여 본회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7조 (신학연구위원회)

1. 구성 : 신학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7개 분야별 각 1명씩 7명, 당연직 사무총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제8조 (교육위원회: 군복음화 아카데미)

1. 구성 :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3명, 당연직 사무총장, 총무 2명 등 6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3. 교육프로그램 및 수련회 커리큘럼, 복음세미나 /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한다.

제9조 (상담코칭위원회)

1. 구성 : 상담코칭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 당연직 사무총장, 총무 2명 등 9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3. 교육활동 : 위기관리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관리, 상담코칭 이론과 실제 교육, 국내·외 군상담 코칭 기관과 협조하여 교육과정으로 접목한다.

제10조

1. 군선교신학회 정기회의 : 신학회장이 소집한다.
 - 가. 정기회의는 연 1회 10월, 11월 중 소집한다.
 - 나.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한다.
2.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개최
 - 가.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 또는 사회상황에서 발생하는 핵심이슈를 정하여 개최한다.
 - 나. 대주제는 ‘비전203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로 한다.
 - 다. 매년 주제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3. 군선교신학 연구논문집 출판 사업
 - 가.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Ebook, PDF파일, 책·도서)하도록 한다.
 - 나. 각 분과별 연구위원들은 격년마다 1편씩 제출을 의무적으로 한다.
 - 다. 군선교신학논문집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인 기획논문을 우선하여 논문집에 수록한다.
 - 라. 편집 등 효율적인 출판을 위하여 제반업무는 신학연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4. ‘군선교교역자’라는 호칭을 ‘군선교사’와 병행하여 사용한다.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군종목사, 군선교사, 군종목사후보생 등의 선교, 목회, 상담 등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실시한다.

제11조 업무관리

1. 본 학회와 관련한 제반적 업무관리 및 운영 등 실행은 본회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선교팀)에서 총괄한다.
2. 본 학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구위원은 필요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3. 본 학회의 운영규칙 개정은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개정하여 본회 법인이사회 인준으로 개정한다.
4. 이단 사이비 대책
 - 가. 군내 이단 사이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나. 군내 이단 사이비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한다.
 - 다. 1004군인교회 이단 사이비 기준설정 결의
 - ① 군내 침투 이단에 대한 예방 및 대처 기준 설정
 -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 중 1개 교단이라도 이단/사이비로 판명 시에는 이단으로 제재
 - ② 교단 차원의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것을 한기총 등 연합기관에서의 상이한 조치가 나올 시에는 교단 결정사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5. 군선교 정책발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의 신학적 발전과 정책, 전략, 전술 등 발전에 책임적인 역할을 다한다.
6. 연구위원은 군선교신문, 단행본, 교계언론매체, 각종학술지 등

에 군선교 관련 기고를 적극 실천한다.

7. 본 학회는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을 위하여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제반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제 정 : 2004. 11. 19

1차개정 : 2009. 7. 27

2차개정 : 2012. 10. 23

3차개정 : 2013. 11. 18

4차개정 : 2017. 2. 2

5차개정 : 2019. 10. 31

6차개정 : 2021. 3. 17

7차개정 : 2024. 12. 10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이하 본 학회)의 연구와 학술 활동이 군선교를 위한 신학의 정립을 모색하며, 교회의 복음 전파와 신자들의 신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연구와 논문 작성 시 건전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적 선언)

1. 본 학회는 학술활동과 신앙적 양심에 책임을 다하는 연구를 지지한다.
2.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있어 날조, 위조, 표절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직, 간접적 부정행위를 배제하며 이를 부인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는 그것을 본회의 연구 발표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본 학회는 이중투고를 금지하며 공동연구에 있어 합리적 저자 배분과 공정한 권리배분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4. 본 학회는 모든 학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참여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그 연구결과가 풍성해지

는 것을 지지한다.

5. 논문 작성시 ‘논문 제목, 필자 성명, 소속, 전공,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성명, 영문 소속, 영문 요약, 영문 주제어 6개순’의 제반 항목을 창의성 있게 충실히 완성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개인적인 제보 혹은 심사위원에 의한 확인 및 논문 검증시스템 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로 그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일차 본인에게 연구윤리의 위반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확약 받은 후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순서로 시행한다.
3. 모든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은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2012년 8월)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하며, 그 내용이 심대한 연구부정행위일 경우 정부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본 학회는 타 학술기관이나 학술 활동에서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기독교 정신과 명백하게 위배되는 쟁점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본인의 투고신청서에 윤리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확약하게 한다)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고발이나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이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 논문의 심사에 반드시 윤리규정을 이행하였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10인 이상 회원의 요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 학회의 학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의 임시 위원회로서 그 사안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존속한다. 본 학회의 회장은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연구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와 협의, 학계의 중진 가운데서 학문의 명망이 높은 자 또는 교계의 중진 가운데서 목회의 명망이 높은 자로 이사회와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6.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종료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내용)

1. 위원회는 해당 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모든 점에서 혐의 없음

- 나. 조건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상반되지 않지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다. 보완 후 재심사 : 기존의 연구가 상당히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고 보완의 가능성이 있음
 - 라. 부결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충돌되거나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현저하게 충돌되기에 본 학회의 연구물로서 인정될 수 없음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부칙 (2016. 7. 27. 연구윤리규정 제1호)

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¹⁾

1. 논문작성 시 주의 사항

- 1) 동일 필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으며,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 논문 포함)에 게재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 2) 분량은 A4 용지 15~25매를 기준으로 한다.
- 3) 주는 각주를 사용하고 논문(발제 기고, 자유 기고)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 4) 영문 제목과 영문 이름 및 영문 초록(Abstract)을 제출하되, 영문 초록은 논문의 대의와 논지가 잘 전달되도록 300단어 정도로 작성한다. 초록의 끝에는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첨부한다.
- 5) 주제어(Key Words)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 6) 논문의 글꼴은 신명조 11호, 행간은 160%, 각주는 바탕 9호 행간 130%로 한다. 용지 여백은 좌/우 30, 위 20, 아래 15로 한다.
- 7) 게재 원고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제목 (2) 필자명(간략한 프로필) (3) 논문 본문 (4) 참고문헌

1) 군선교 논문집 투고자는 반드시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반려조치 됩니다.

- (5) 영문 초록 (6) 주제어(Key Words)
- 8) 투고 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제1저자 및 공동 저자를 구분하고 그 소속을 명기한다.
- 9) 논문 작성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투레비안’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 〈참고〉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 6th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10) 원고 접수처는 아래와 같으며, 원고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 E-mail: meak2020@hanmail.net
- 11) 투고된 논문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심사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군선교신학」 논문집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의 실례

1) 단행본²⁾

<단행본의 기본 표기 양식>

국내서적	N	저자명, 『서명』 (출판자: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 출판자: 출판사, 출판연도.
외국서적	N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자: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자: 출판사, 출판연도.

<저자 1인의 경우>

N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97.

2) 아래에서 N은 각주를, B는 참고문헌을 각각 의미한다. 한글 서적 표기는 ‘아래 한글’의 ‘Ctrl F10’을 누른 후 ‘반각기호(도형)’에 들어가, 책은 「」로, 논문집일 경우 「」로 표기한다.

- B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 N Nathan E. Han,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57.
- B Han, Nathan E.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저자가 2인 이상의 경우>

- N 장종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22.
- B 장종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 N Stanley M. Honor and Thomas C. Hunt,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37.
- B Honor, Stanley M. and Hunt, Thomas C.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2) 편저

- N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12.
- B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N Carl F. Henry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25-26.

B Henry, Carl F.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3) 번역서

N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100.

B 르고프, 자크.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N Michel Foucault,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B Foucault, Mich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4) 논문

학술지	저자, “논문 제목(명),” 『학술지명』 권수(발간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발행자: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 저자와 논문집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편집자 (발행자: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의 기본 표기 양식>

<학술지>

N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159.

B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N Gerald Bonner,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35.

B Bonner, Gerald.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N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34-35.

B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N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380-381.

B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N Thomas Walter Manson,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14-15.

B Manson, Thomas Walter.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학위논문의 경우>

- N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5.
- B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N Hyung-Ki Rhee,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88.
- B Rhee, Hyung-Ki.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인터넷 사이트의 논문>

- N Evans Chan,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 B Chan, Evans.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5) 영화작품: 영화명, 감독, 주요배우, 배급자와 연도.

- N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 B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3. 원고 작성방법

- 1) 도표는 반드시 “표”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장절의 표기는 I, 1, 가, 1), 가), (1), (가) 의 순으로 한다.
- 3) 연대의 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한다.
- 4) 서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5) 인용문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 6) 인용문이 2행 이상인 경우에는 별행으로 처리한다.
- 7) 필자가 덧붙인 설명은 [] 안에 넣어 원문과 구분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 안에 ‘원문’이라고 표시한다.
- 8) 서양어의 서명이나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 9) 페이지 인용의 경우 쪽이나 p.를 붙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 10) 각주와 내주를 모두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1) 각주 방식
 - (1) 처음 인용할 때는 위의 제시처럼 자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 부터는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하고, 제목의 경우 단행본과 논문에서 적절하게 두세 단어를 취하여 저자, 저서(논문명), 페이지의 순으로 처리한다.

〈단행본〉 Fitzmyer, *Luke I-IX*, 220.

〈논문〉 Barrett, “Westcott,” 12.

〈번역서〉 브루스, 『신약사』, 121.
 - (2) 국문인 경우는 성명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 (3) 계속 등장하는 동일한 책이나 논문은 반복하여 쓰지 않고

*Ibid.*를 사용한다.

- (4) 바로 앞에 인용한 자료를 다시 참고할 경우 그 사이에 다른
자료가 들어가면 *Ibid.*를 쓸 수 없다.

- 12) 본문 말미의 참고(인용)문헌에는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
한다.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 현황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제1권	2004.5.30	비전2020실천운동과 한국교회의 역할	곽선희 목사	343면	
		기조강연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	이종운 목사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군진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			정성구 목사
		군선교 신학의 정립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오덕교 목사		
		21세기 한국교회와 군선교 비전	박종화 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	김정우 목사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주연종 군종목사		
		애국심과 신앙심	황우여 장로		
		예정통합측 군선교 비극과 비전2020실천운동	김수진 목사		
		한국 군목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해군·해병대를 중심으로-	조성현 군종목사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 -기독교문화의 관점에서-	임성빈 목사		
		군종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 군종의 미래는?	전호진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군선교 사역자 간의 윤리적 제언	박기영 군종목사		
제2권	2004.5.30	족속운동(집단개종, People Movement)과 군선교	정두영 목사	367면	
		오늘날에도 거룩한 전쟁이 있는가? -구약성경에서 본 진멸하는 전쟁-	김정우 목사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서적 이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강사문 목사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	김일수 목사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연구	이석우 군종목사	
		세계 종교 상황과 기독교	전호진 목사	
		포스트모던주의의 문제점과 극복에 관한 소고	이종윤 목사	
		기독교회의의 이단종파에 대한 정의	박영관 목사	
		금욕주의 빛 아래서의 어거스틴의 결혼관	이규철 군종목사	
		군인교인 신앙성장을 위한 목회상담 임상사례	김상만 군종목사	
제3권	2005.6.10	귀납적 설교의 비결	곽선희 목사	390면
		기독교 영성과 예배	이종윤 목사	
		생명윤리와 신앙 (기조강연)		
		생명윤리와 신앙	채수일 목사	
		“생명윤리와 신앙”에 대한 논찬	김영철 목사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평화와 생명윤리 그리고 양심의 빛에 대한 기독교의 역사적 모색을 중심으로-	이규철 군종목사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에 대한 논찬	유경동 목사	
		군선교를 위한 기부문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	강사문 목사	
		어거스틴의 “대화록”의 기본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규철 군종목사	
		성경에 나타난 이교와 이단들 고찰	박영관 목사	
		군종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이념(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홍치모 장로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의 치유를 위한 군목회 돌봄 프로그램 연구(CARE 4단계를 중심으로)	안남기 군종목사	
		군인교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발전	정두영 목사	
		제4권	2006.6.15	
교회 공동체와 국가	이종윤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 -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으로-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	우기식 군종목사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에 대한 논찬	전호진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 -누가 군대의 이웃인가?-	허영식 군종목사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에 대한 논찬	김성봉 목사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	주연종 군종목사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구약성서적 이해	강사문 목사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	장승권 군종목사	
		중세를 적신 어거스틴	이규철 군종목사	
		조나단 에드워즈와 구원과 성화	오덕교 목사	
		변화하는 세계와 기독교인의 윤리	임성빈 목사	
		군소 이교와 이단종파들 고찰	박영관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민상기 군종목사	
		청중예의 적응에 관한 연구-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기독교 장병의 신앙 정도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박기영 목사	
		우리나라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포교와 예방론 고찰	김광호 목사	
제5권	2007.4.16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실천운동	이종윤 목사	354면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 집단세례	김인수 교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	강웅산 교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찬	이규철 군종목사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윤병국 군종목사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민족 통일에 대한 성서적 이해	강사문 목사	
		미국에 있어서의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	홍치모 장로	
		칼빈의 기도신학과 실제-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과 소신 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Pontifex Maximus’로서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규철 군종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한국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박영관 목사	
		집단개종의 역사적 고찰과 합동세례 보완책 제안	전호진 목사	
		군선교와 세례운동	우기식 군종목사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집단상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현택 목사	
제6권	2008.5.8	비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고함 -복음화된 통일조국이어야 한다-	이종윤 목사	227면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김성봉 목사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에 대한 논찬	강사문 목사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	최희범 목사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에 대한 논찬	우기식 군종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인격지도 교육을 중심으로)	이종윤 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에 대한 논찬	정성구 목사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 반박	이규철 목사	
		국내외의 군소 이교와 이단 집단들 고찰(2)	박영관 목사	
		군장병들을 위한 성경읽기	강사문 목사	
		국제화 시대 한국 군대의 국제적 책임	전호진 목사	
		군교회와 노년기	우기식 군종목사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제7권	2009.5.20	여군목 제도 창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	이종윤 목사	318면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김진섭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	주연종 군종목사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에 대한 논찬	김성봉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이광순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여성 군종목사 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임낙형 목사	
		다른 종교인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태도	강사문 목사	
		모니카의 사랑에 대한 《교백론》의 반향	이규철 목사	
		군인교회에 침투하는 기독교회의 이단들에 대한 대책	박관영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위원입교인규도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비전캠프(Vision Camp)와 군선교 활성화	한생현 군종목사	
		군 자살 예방에서의 비전캠프의 역할: 종교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세훈 대위	
		르네 자라르(R. Girard)의 희생양 이론을 통한 군선교신학 정립 모색	서민우 상병	
제8권	2010.10.5	군선교 사역을 위한 성례전의 성경신학적 의미 -구원을 위한 인침과 징표로서의 성례전Biblical-	이종윤 목사	320면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	김세광 목사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에 대한 논찬	권오민 군종목사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	정비호 군종목사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에 대한 논찬	최희범 목사	
		기쁨과 행복한 군 병영생활을 위한 제언	강사문 목사	
		자살 생각을 가진 용사들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	김동연 군종목사	
		교회사에 나타난 군종활동의 역할과 의미	주연종 군종목사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교회를 중심으로 -	오덕교 목사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론』에 나타난 성서 해석의 원리	이규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다자중심적 종교다원주의와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석우 군종목사	
제9권	2011.10.20	군인(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이종윤 목사	309면
		기독교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강사문 목사	
		“기독교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찬	우기식 군종목사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주연종 군종목사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에 대한 논찬	오덕교 목사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이규철 목사	
		요한계시록에서 십사만 사천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김추성 목사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 교회의 역할	임성빈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민족과 함께 걸어온 한국교회의 발자취	김수진 목사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	안명준 목사	
		군목과 지도력	안광춘 목사	
		전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김동연 군종목사	
		초기 전군 신자화 운동의 비화	정성구 목사	
		『목수지법』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 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제10권	2012.10.10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	이종윤 목사	293면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박종화 목사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에 대한 논찬	주연종 목사	
		선사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선사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김진섭 목사	
		광야-사막에 피어난 다윗의 신앙과 삶(시 23: 1-6)	강사문 목사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김일수 목사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	안명준 목사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	이규철 목사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래적 전망	김상만, 김택조, 이정우 군종목사	
		군에서의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김동연 군종목사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교 장병 양육 연구 (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	오혁준 군선교사	
		비전캠프를 통한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 및 선교의 가능성 연구	유현 군종목사	
		21세기 한국 군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에 관한 연구	홍석균 목사	
제11권	2013.10.30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이종윤, 김대덕 목사	420면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언 -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	정재원 군종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언-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	주연중 목사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강사문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이규철 목사	
		『조선예수교장로회총상예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하나님과 이웃 섬김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강사문 목사	
		ACT(수용전념치료)소개: 기독교와의 만남	김동연 군종목사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안명준 목사	
		경제위기에 대한 성경적 진단과 신앙적 대처방안	김성봉 목사	
		“여호와와 전쟁신학”이란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	김진섭 목사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	김수진 목사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국가의 정치적 상황 연구	전호진 목사	
		군 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언	김상만 목사	
	논문공모작	장병 인권에 관한 군선교 전략과 과제 -군종목사 후보생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신중훈 전도사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그리고 진중서약식	강찬영 군종목사	
제12권	2014.10.7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기조강연)	이종윤 목사	393면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발제Ⅰ)	김진섭, 이승진 민상기 목사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논찬Ⅰ)	최희범 목사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발제Ⅱ)	김동연 군종목사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논찬Ⅱ)	최석환 군종목사	
		구약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만남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김진섭 교수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정성구 교수	
		개혁파 교회의 연합 활동과 신학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 폭력에서 사랑으로	김성봉 교수 안명준 교수	
		군선교를 위한 ‘뱍티즘’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논문공모작	"당신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에 담긴 어거스틴의 기도의 영성	이규철 목사	
		가족미술치료 난화기법의 이해와 적용	김상만 목사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관계성 연구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김현택 목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지적 자산과 향후과제 -군선교신학논문(1권-11권) 내용을 중심으로	신종훈 전도사	
제13권	2015.10.27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	이종윤 목사	390면
		군인권과 선교활동	김일수 장로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	이규철 목사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논찬	이승구 목사	
		성경에 나타난 군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1)	강사문 목사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을 위한 3대를 잇는 성령님의 교회 같은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	김진섭 목사	
		개혁된 교회	김성봉 목사	
		군선교를 위한 교육신학 사상연구	최석환 목사	
		PTSD와 이야기 치료와의 대화	김동연 군종목사	
		목회리더십 계승의 성경적 방법연구	이용락 목사	
		대대급부대 세례신자 양육방안에 관한 연구	전요섭 목사	
	논문공모작	청년비전캠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맥락의 개선방안	신종훈 전도사	
		외상상황하에서의 군종상담 연구	전석원 외 2명	
제14권	2016.7.28	오늘의 설교개혁	이종윤 목사	270면
		토라 613계명의 현대적 의미와 적용	김진섭 목사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김성봉 목사	
		Vita Augustini에 나타난 히포수도원의 영성	이규철 목사	
		노래치유 중심 표현예술심리치료 경험분석	김상만 목사	
		힐트너(Seward Hiltner)의 목회신학에 대한 연구	최석환 목사	
제15권	2016.10.6	파트너십과 합작을 하여 하나님나라 확장에 쓰임 받자	이종윤 목사	285면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	안만국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	정재원 군종목사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와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	강사문 목사	
		동성애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남북통합과정에서의 군선교	오상익 군종목사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변화와 군선교 전략 연구	김성훈 군종목사	
		군장병의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신앙활성화에 관한 연구	황미선 목사	
제16권	2017.10.10	동성애와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안에 대한 소고	이종윤 목사	341면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	길원평 교수	
		길원평 교수의 논문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논찬	전요섭 교수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	이상현 교수	
		이상현 교수의 논문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에 대한 논찬	김일생 교수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I)	강사문 교수	
		칼빈주의적 미래 인간상	정성구 목사	
		신학적 해석학에서 본 과학	안명준 교수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이규철 목사	
제17권	2018.10.11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이종윤, 이규철 목사	391면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오덕교 교수	
		오덕교 박사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에 대한 논찬	주연중 목사	
		구약성경에 나타난 군 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IV)	강사문 교수	
		이스라엘 독립 70주년과 현대사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교회의 7대 신비	김진섭 교수	
		이슬람에 대한 루터의 염려	김성봉 교수	
		“성직자와 여인들의 교제에 관한 교훈”에 담긴 어거스틴의 금욕적 자기관리	이규철 목사	
		PTSD의 이해와 군상담예의 적용	김상만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제18권	2019.10.10	국방부 군 종교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전요섭 교수	432면
		정의로운 전쟁의 윤리와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병역대체 복무제 진단과 기독교 입장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신학적 비판-	이종윤 목사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	김윤태 교수	
		김윤태 교수의 논문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에 대한 논찬	김일수 교수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망	정세준 군종목사	
		정세준 목사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 망"에 대한 논찬	강찬영 군종목사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력(V) -다윗 왕과 예언자 예레미야	강사문 교수	
		이슬람에 대한 칼뱅의 견해	김성봉 교수	
		"만유의 평화는 평온한 질서다"에 함축된 평화에 대한 어 거스틴의 비전	이규철 목사	
		위기상담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한국 군 군인가족의 영적 지지를 통한 목회상담	전요섭 교수	
		군선교의 공공성 회복과 그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기획논문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적 양심 이 해를 중심으로	이규철 목사	
		성평등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길원평 교수	
제19권	2020.11.13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주연종 목사	544면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	이정숙 교수	
		이정숙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 망"에 대한 논찬	최석환 군종목사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 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홍창식 변호사	
		홍창식의 논문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 -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 으로"에 대한 논찬	김일수 장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진섭 교수	
		예술심리치료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기획논문	키릴로스의 세례교육	김선영 교수	
		남성 군종장교와 여성 군인	전요섭 교수	
		구약성경이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역대하 7:11-22, 특별히 13-14절이 제시하는 그 원인과 해법	김진섭 교수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 —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중심으로	이규철 목사	
		화해의 공공신학과 군선교의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일반논문	존 로스의 요한복음 7: 53-8: 11 삭제 비판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탁명진 목사	
제20권	2021.10.26	진리란 무엇인가?	곽요셉	328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	전요섭 교수	
		전요섭의 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에 대한 논찬	강찬영 군종목사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임정인 군종목사	
		임정인의 논문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찬	김아영 교수	
	일반논문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가?	강사문 명예교수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영성	이규철 목사	
		이야기심리학의 이해와 군상담	김상만 목사	
		효과적인 군 상담을 위한 전인건강과 치유의 이해	전요섭 교수	
		사회적 책임(CSR, CSV)과 군선교의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제21권	2022.10.25	이 천국 복음	곽요셉	456면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사 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	이규철 목사	
		이규철의 논문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사 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찬	이석영 군종목사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임정인 군종목사	
		임정인의 논문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찬	전요섭 교수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성경적 종말론의 올바른 이해를 향한 개관 :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를 중심으로	김진섭 교수	
		전시 미군 군종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	전요섭 교수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에 담긴 함의	이규철 목사	
		MBTI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일반 논문	정신역동이론을 통한 장병들의 집단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Missio Dei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 수용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제22권	2023.10.24	Words matter!	김철우 목사	280면
		평화를 이루는 한미 연합 전시 군종활동 강화 방안	주연종 목사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	안남기 목사	
		안남기의 논문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 한 목회적 돌봄"에 대한 논찬	김택조 목사	
		바이킹의 화심에 함유된 신학적 시사점	이규철 목사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	전요섭 교수	
		외국논문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일반논문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본 군선교 전략 연구	
제23권	2024.10.22	진정한 강군(強軍)이 되기 위한 군종의 역할	정대호 목사	264면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	정비호 군종목사	
		정비호의 논문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2030 실천운동' 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논찬	최석환 목사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교 전망	권수영 목사	
		권수영의 논문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 교 전망"에 대한 논찬	나성한 군종목사	
		연구위원 논문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 재고(再考):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을 중심으로	
			코칭의 이해와 군예의 적용	
			군 상황에서 도덕적 상해의 심리적 이해와 군종목사의 상 담방안	
		복음의 증언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를 중심으로	문시영 교수	

구분	발간일	논 문 제 목	제 출 자	총면수
제24권	2025.10.31	교회갈등 관리 방법 연구	이용락 목사	376면
		한국 군선교 축적의 역사와 제언	이규철 목사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	전요섭 목사	
		전요섭의 논문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역할: '존재의 사역'과 '사역의 존재'에 대한 논찬	김영호 목사	
		비전2030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과제: 비전2020실천운동과의 비교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위진섭 목사	
		위진섭의 논문 "비전2030실천운동의 중간평가와 과제: 비전2020실천운동과의 비교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상만 목사	
	연구위원 논문	장병의 거절 민감성 심리 분석과 군종목사의 상담 방안	전요섭 교수	
		성경의 리더십 계승 성공 사례와 원리 연구	이용락 목사	
		상담의 흐름이 있는 치유적 설교	안남기 목사	
		군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육군 병사의 예배 참석 동기 확인	임정인, 정세준 목사	
	기획 논문	Implications for Christian Soldiers of Kierkegaard's View on Suffering	김이석 목사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24

군선교, 청년

1판 1쇄 발행 _ 2025년 10월 31일

발행처 _ 한국군선교신학회(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기관)

주소 _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101호

TEL _ 02-744-2662, 02-3675-2020

홈페이지 _ <http://www.meak.or.kr>

E-mail _ meak2661@naver.com

제작처 _ 쿼란출판사

주소 _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편집부 _ 745-1007, 745-1301~2, 743-1300

영업부 _ 747-1004, FAX 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_ 0502-756-1004

홈페이지 _ <http://www.qumran.co.kr>

E-mail _ qrbooks@daum.net / qrbooks@gmail.com

한글인터넷주소 _ 쿼란, 쿼란출판사

등록 _ 제1-670호(1988.2.27)

제24권 군선교신학논문집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규철 교수

위 원: 이규철 교수, 전요섭 교수, 김상만 교수

담 당: 박종민 팀장

값 15,000원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파본(破本)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